

원주시 반출문화재 보존·환수·관리조사 연구세미나(2021.8.26.)

원주 반출 문화재 보존 조사와 향후 과제

◇ 일정 : 2021년 8월 26일(목) : 2시~ 5시

◇ 장소 : 원주시역사박물관 대강당

◇ 주최 : 연세대 글로벌한국학연구소 ·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 반출 문화재 보존 조사와 향후 과제

◇ 발표회 소개

- 원주시 관련 반출문화재에 대한 보존, 환수, 관리 조사 사업(2020~21) 수행으로 원주시 해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보존, 관리, 환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 주제 발표회를 개최함
-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한국문화재 약탈과 반환, 문화교류 및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 원주 전통 문화재의 현황과 불교문화재, 기록문화재, 국내외 원주문화재 소장 상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

◇ 진행 순서

- ◇ 일정 및 장소 : 2021년 8월 26일(목) : 2시~ 5시, 원주역사박물관 대강당
Zoom 발표(1~3), 현장 발표(4~7)

◇ 주제발표 순서

- 식전행사(2:00~2:20) 사회 : 심철기(근현대사기념관)
- 원주 반출문화재 세미나 인사말 : 원창묵(원주시장), 유석연(시의회의장)
김홍배(원주시역사박물관장)

1부 발표회(2:20~3:20/중간휴식/3:30~4:30)

- 0. 총론 : 원주시반출문화재 보존 환수 관리 조사 사업 과제 소개 - 왕현중(연세대)
- 1. 서구의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 - 김경민(해군사관학교)
- 2. 충청남도 국내·외 문화유산 교류협력단 운영사례 소개 - 민정희(충남역사박물관장, 문화유산교류협력단 총괄책임관)
- 3. 해외소재 기록문화재 현황 조사 -일본의 주요 도서관과 문화기관, 사찰 소장 자료 관련
- 노경희(울산대)
- 4. 원주지역 불교문화재 보존과 (가)국립원주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 이인재(연세대)
- 5. 조선시대 원주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사항 - 오영교(연세대)
- 6.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와 보존 상황 - 왕현중(연세대)
- 7.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 자료 현황 - 조수민(연세대 연구보조원)

2부 토론회(4:40~5:00)

- 종합토론 (발표자 보충 발언 및 질의 응답) : 참석자 전원
- ◇ 주최 : 연세대 글로벌한국학연구소·원주시역사박물관

목차

0. 총론 : 원주시반출문화재 보존 환수 관리 조사 사업 과제 소개 -----	1
- 왕현중(연세대)	
1. 서구의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 -----	7
- 김정민(해군사관학교)	
2. 충청남도 국내·외 문화유산 교류협력단 운영사례 소개 -----	31
- 민정희(충남역사박물관장)	
3. 해외소재 기록문화재 현황 조사 -일본의 주요 도서관과 문화기관, 사찰 소장 자료 관련 -----	55
- 노경희(울산대)	
4. 원주지역 불교문화재 보존과 (가)국립원주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	73
- 이인재(연세대)	
5. 조선시대 원주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사항 -----	97
- 오영교(연세대)	
6.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와 보존 상황 -----	125
- 왕현중(연세대)	
7.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 자료 현황 -----	167
- 조수민(연세대 연구보조원)	

총론 : 원주시반출문화재 보존·환수·관리 조사사업 과제

왕현중(연세대)

과업명 : 원주시 반출문화재 보존·환수 관리조사 연구용역

1. 과제 수행 기본 방향 및 추진방법

- (1) 연구목적 : 해외 반출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개항기 이후 원주시에서 반출된 문화재 학술연구, 자료집 제작을 통한 반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문화재 환수 활동 자료를 확보함.
- (2) 방법 : 해당 시기 원주시 반출문화재 자료의 성격, 목적, 범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학술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자료집을 과업성과품으로 제출받고 발주처의 환수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 세부 연구내용(원고집필)

《2020 원주시 반출문화재 보존·환수·관리를 위한 종합보고서》

1. 국외 반출문화재 환수활동 성과와 대응전략
 - 국외 반출문화재에 대한 해외사례 및 연구성과
 - 반출문화재에 대한 국내법,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전략
 - 반출문화재에 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2.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 자료 현황과 보존
3. 국외 소재 원주문화재 자료 현황과 보존
4. 원주시 관련 문화재 연구조사 자료집성

2. 과제 세부 수행 계획

* 착수일로부터 10개월(2020.11.13.~2021.09.08./ 10.28)

① 조사연구 기획안(조사지침, 세부계획서) 작업 : 11월 13일~ 12월 31일

② 국내 조사 활동(1차 자료조사 및 현지 방문) : 1월 1일~2월 28일

③ 국내 조사 활동(2차 현지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3월 1일~4월 30일

- 조사연구 용역 중간보고회(4월 중순)
- 일본 현지 조사 가능하다면, 1차 준비 조사 및 현지 조사 일정 포함

④ 국외 조사 활동(1차 현지조사 기획 및 조사활동)

: 2021년 5월 1일~6월 30일

- 미국 동부 서부 지역 주요 박물관 및 대학 순회 방문
- 2021 코로나 사태로 현지 연구자와 접촉, 대체 조사보고서 작성(예정)

⑤ 국외조사활동(2차 현지조사 및 조사활동) : 7월 1일 ~ 7월 31일

- 영국 등 유럽 주요 지역 주요 박물관 및 대학 순회 방문
- 2021 코로나 사태로 현지 연구자와 접촉, 대체 조사보고서 작성(예정)

⑥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활동 : 8월 1일 ~ 9월 8일(~10월 28일로 연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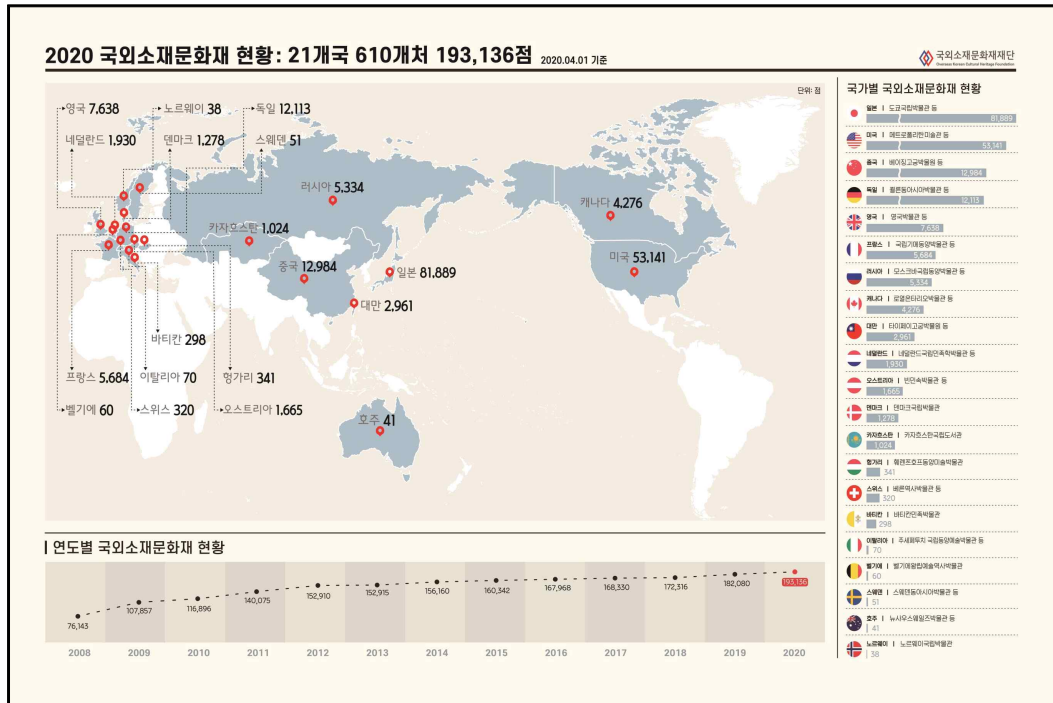
- 《2020 원주시 반출문화재 보존·환수·관리를 위한 종합보고서》
- 내용 : 1) 국외 반출문화재 환수활동 성과와 대응전략
 - 국외 반출문화재에 대한 해외사례 및 연구성과
 - 반출문화재에 대한 국내법,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전략
 - 반출문화재에 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 2)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 자료 현황과 보존
- 3) 국외 소재 원주문화재 자료 현황과 보존
- 4) 원주시 관련 문화재 연구조사 자료집성

3. 원주 반출문화재 조사 과정

1)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

① 국외문화재 재단 협력

- 2021년 2월 원주시 반출 문화재 조사를 위한 협력기관으로 국외문화재 재단을 선정하여 방문조사.



②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충남 문화유산 교류 협력단> 협력

- 2021년 5월 19일 그동안 국내외 소장 문화재 조사활동을 담당해온 기관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협의하여 ‘충남문화유산 교류협력단’을 접촉하여 관련 자료를 받았다.

③ 일본 도쿄대학 종합박물관 소장 세키노 타다시 관련 자료 협조(2021.5.~6)

- 일본 도쿄대학 종합박물관에는 1910년대초 강원도 원주 유적을 조사한 일본 고고미술사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조사한 조사활동 필드카드를 비롯한 각종 기록물을 소장. 최근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한반도에서 조사한 전체 조사 목록과 카드 작성 내역 등은 정밀하게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질이 나쁜 상태에서 게재되어 있다. 조사활동 카드 및 소장 유물의 상태를 별도로 협조 요청

2) 원주 반출 문화재 조사팀의 활동

- ① 조사연구 기획안(조사지침, 세부계획서) 작업 : 11월 13일~ 12월 31일
- ② 국내 조사 활동(1차 자료조사 및 현지 방문) : 1월 1일~2월 28일
- ③ 국내 조사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회의(1차 ~12차 회의 개최, 2021.1~7.)
- ④ 원주시 반출문화재 보존 환수 관리 조사 연구세미나 준비 및 개최(2021.7.~8.26)
- ⑤ 원주시 반출문화재 소장 기관 방문 조사(2021.8~9)
- ⑥ <원주시 반출문화재 보존 환수 관리 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2021.10)

4. 원주 반출문화재 조사와 환수 과제

① 일본 소장 원주 문화재

- 일본 도쿄(東京)대학 종합박물관 소장 : 거둔사지 발굴 기와편 등
- 일본 도쿄대학 아가와문고(阿川文庫) 소장 : 『을유오월 안핵장계-원주(乙酉五月 按覈狀 啓 -原州-)』 등 전적 문서
- 일본 교토(京都)대학 가와이(河合)문고 소장 :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등 전적 문서
- 일본 네츠미술관 소장 고려부도탑
- 미국 하버드 엔칭 도서관 소장 : 『강원도각군장제(江原道各郡狀題)』 등 전적 문서

② 국내 소장 원주 문화재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야외 전시장 원주 관련 석조문화재
- 공주박물관 소장 : 원주 소초면 출토 범종

③ 향후 국내외 소장기관과의 자료 협조 및 조사활동 지속

- 국립중앙박물관, 춘천 국립박물관 등 원주 문화재 소장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 해외 자료 소장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체제 구축

④ 2020~21년 원주 피탈문화재 기초조사를 통한 후속 작업 기획

- (가) 일제강점기 원주 문화재 고적 조사 활동 보고서(번역 출판)
- (나) 일본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활동과 기록물(자료집 출판)
- (다) 해외 원주문화재 조사와 환수 위원회(가칭) 구성

《2020 원주시 반출문화재 보존·환수·관리를 위한 종합보고서》(예정)

[전체 보고서 주제]

1. 국외 반출문화재 환수활동 성과와 대응전략
 - 국외 반출문화재에 대한 해외사례 및 연구성과
 - 반출문화재에 대한 국내법,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전략
 - 반출문화재에 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2.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 자료 현황과 보존
3. 국외 소재 원주문화재 자료 현황과 보존
4. 원주시 관련 문화재 연구조사 자료집성

[2차 중간보고서 목차]

1. 조사의 취지와 방법
 - 1) 최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 연구를 위해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의 협조하에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정리 중.
 - 2) 원주 반출 문화재 조사팀의 활동(1차 ~ 7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반출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임.
 - 3) 도쿄대 종합박물관 소장 세키노 타다시 관련 자료 소장 확인
 - 4) 국내 소재 원주 관련 문화재 조사 활동
 - 5) 해외 소재 원주 관련 문화재 조사 활동
 2. 원주 반출문화재 각 문화재 항목별 2차 중간 조사보고(2021.1~6, 1차 4.2/ 2차 6.28)
 - 1) 일제초기 원주 불교 문화재 반출에 관한 조사활동
 - 1-1)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 반출 경위,
 - 2) 원주 불교 문화재 관련 세키노 타다시의 조사 기록
 - 일본 도쿄대학 박물관 소장 세키노 타다시 관련 필드 카드 상황
 - * 도쿄대 종합박물관 소장 세키노 타다시 관련 자료 소장 확인 작업
 - 3) 원주 관련 문화재 추후 상세 조사 대상
 - * 국내 소재 원주 관련 문화재 조사 활동
 - * 해외 소재 원주 관련 문화재 조사 활동
 - 3-1) 일제시기 일본인의 원주 관련 문화재 조사 상황,
 - 3-2) 원주읍 부근 불교 문화재
 - 3-3) 일제하 원주 문화재 수집 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 [별첨 자료 01]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 실태조사 관련 발간물(2015~2020)
- [별첨자료 02] 해외반출문화재 관련 논문 목록(1989~2020)
- [별첨자료 03] 원주시 소초면 출토 범종(국립공주박물관 소장)
- [별첨자료 04] 원주 관련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 목록
- [별첨자료 05] 국사편찬위원회 해외 사료 조사 원주 관련 해제 목록[미국]
- [별첨자료 06] 국내 소재 원주 관련 문화재 조사 목록
- [별첨자료 07] 해외 소재 원주 관련 문화재 조사 목록
- [별첨자료 08] <제28회 국외문화재협의회>(보고자료: 2021.3)

서구의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

김경민(해군사관학교 강사)

목차

1. 들어가며
2. 유럽의 문화재 개념의 변천
3. 유럽의 팽창과 문화재 약탈사의 시작
4.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 국제법과 문화 국제주의
5. 나가며

1. 들어가며

문화재(cultural property)는 인류가 남긴 과거의 물질유물로 단순히 과거의 물건이 아닌 오늘날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특정 국가 혹은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보호·보존·연구의 대상으로 과거의 유물들이 문화재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문화재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국제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한 역사는 그보다 더 짧다. 과거의 물질유산이 지금의 지위를 획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그에 따른 역사의 변화, 전쟁, 근대 이후 새로운 학문의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보호해야할 문화재’라는 개념이 국제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는 19-20세기를 거치면서 일어난 세계사의 격변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역사와 관련한 이슈들은 문화의 차원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군사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특히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문화재 문제를 관통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문화재 약탈과 반환이다. 문화재가 수집하고 연구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니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 경험이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 패전국과 피식민국가의 물질유산이 파괴되거나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던 문화재 약탈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UN)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축되면서 국제사회는 이전 시대의 역사적 상흔을 정리하고 극복하면서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복구하는데 있어 약탈된 문화유산을 돌려받는 작업은 경제를 재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것이었다. 우리나라 또한 독립과 6.25 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고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후기와 일제강점기 때 불법적으로 유출

된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해 정부와 학계, 민간에서 현재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문화재를 둘러싼 전쟁과 약탈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열강들의 문화재 약탈과 소유의 이면에는 어떠한 의도와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을까? 본 발표에서는 제국주의 시대 가장 큰 제국을 운영했고 그만큼 막대한 양의 약탈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안고 있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기원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고 과거 열강들의 논리를 고찰함으로써 문화재 원산국으로서 반환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조금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 유럽의 문화재 개념의 변천

문화재의 역사는 박물관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박물관은 시대에 따라 그 목적과 성격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저장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시작되었고, 그 ‘가치 있는 물건’에 부여된 의미와 상징성의 변천이 바로 문화재의 탄생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수집하는 행위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와 호기심이라는 지적 활동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수집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근대적 형태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박물관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낸 수집의 시작은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에는 로마 시대에 귀족들을 중심으로 그리스의 예술 작품들을 모으는 것이 유행했지만,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로마 귀족들의 컬렉션도 함께 사라졌다.¹⁾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몇몇 도시들에서는 눈에 띄는 몇몇 로마의 기념물들이 도시의 자부심으로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로마 시대 유물들은 중세 시대에는 수집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대상이었다. 심지어 로마의 유산들은 교회나 집, 도시의 벽을 세우는 건축 자재로 이용되면서 파괴되기까지 했다.²⁾

중세 시대에는 주로 교회나 수도원이 수집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성인들의 유골과 귀중한 서적, 보물, 종교적 벽화와 조각 등이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의 기부로 교회나 수도원에 보관된 것이다.³⁾ 하지만 중세에도 교회와 세속을 가리지 않고 성유골, 사치품, 보석, 일각수의

1) 하지만 후속 연구에 따르면 중세 서유럽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유물 이외에도 로마 시대의 물질적 유물에 대해 이전까지 알려진 것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일부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하시오. Michael Greenhalgh, *The Survival of Roman Antiquities in the Middle Ages* (London: Duckworth, 1989).

2) 이 고전 시대의 유적에서 대리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리석 채굴이 중단되기도 했다. 브루스 트리거(Bruce G. Trigger) 지음, 성춘택 옮김, 『고고학사(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2006)』 (서울: 사회평론, 2010), p. 61.

뿔이나 전설에 등장하는 용과 같은 생물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지배 계급 사이에서 대규모로 수집되었다. 특히 성인의 유골이라는 종교적 가치를 가진 성유골은 도둑질이 성행할 만큼 중세의 가장 중요한 수집품목이었다. 중세 말기에 가면 계층에 상관없이 성유골 수집이 유행하지만, 9-10세기에는 고위계급이나 부유한 특정계층 사이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었던 최고의 인기 수집품이었다.⁴⁾

이처럼 중세인들이 수집한 것들의 목록은 현재의 관점으로는 어떠한 공통적 가치를 찾기 어렵고, 오늘날 박물관의 분류처럼 예술과 자연, 보물과 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수집품의 내용물과 수집의 기준은 수집가들에 따라 모두 달랐다. 중세 말기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상업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산계층과 세속 군주들이 성장하였는데 이 흐름에 따라 수집활동은 보다 사회·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변모했다. 군주들과 부유한 상인들은 재산과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개인적 저장고인 ‘스튜디오로(studiolo, 서재)’를 만들었고, 14세기 이래로 이러한 상류 계층들이 그곳에 주로 모은 수집품은 골동품, 보석, 고대의 조각상등이었다. 특히 예술작품과 귀금속 세공품을 수집하는 것은 지배 계급을 상징하는 사치스러운 취미가 되었다.⁵⁾

후기 르네상스 시대인 15세기 말과 16세기에 들어서면 무언가를 수집하는 행위는 보다 보편적인 행위로 확대되었다. 수집하는 물건의 기준에도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선 이 시기 유럽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항해술의 발달로 인한 해상 운송의 성장과 농업, 직물공업에서 잉여 생산물의 대규모 증가는 교역을 빠르게 확장시켰고, 이로 인한 부의 증대로 사치품 무역이 특히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유럽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교역로와 교역품을 유럽에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신기하고 이국적인 물품들은 상류 계층의 새로운 과시적 소비와 수집 행위에 편입되었다.⁶⁾ 15세기까지는 고가의 물품들을 소유하는 것이 과시적 소비의 거의 전부였지만 그 이후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건들을 소유한다는 것이 재력과 신분을 과시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금융 체계의 발달도 상품 교환과 매매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장한 네덜란드와 베네치아 공화국과 같은 무역국가와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같은 금융업자들의 부의 축적은 수집 문화 확산의 중대한 요인으로 꼽힌다.

3) 이난영, 「박물관의 전문화」, 『박물관학보』, 통권 3호 (2000), p. 41.

4) 패트릭 기어리(Patrick Geary) 지음, 유희수 옮김, 『거룩한 도둑질: 중세 성유골 도둑 이야기 (Furta Sacra: Thefts of Relics in the Central Middle Ages, 1990)』 (서울: 길, 2010), pp. 87, 102.

5) 필립 블롬(Philipp Blom) 지음, 이민아 옮김, 『수집: 기묘하고 아름다운 강박의 세계(To Have and to Hold: An Intimate History of Collectors and Collecting)』 (파주: 동녘, 2006), p. 25.

6) Eileen Hooper-Greenhill, *Museums and the Shaping of Knowledge* (England: Routledge, 1992), p. 30.

이러한 물질적 변화와 함께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과거의 유물로부터 시간의 차이와 역사성을 읽어낼 수 있게 해 주었다.⁷⁾ 어떠한 수집 대상으로부터 물질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에 더해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중세의 역사관은 성서에서 구분하는 시대 구분 개념에 머물러 있었고, 역사를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과 같은 편년사로 이해했다.⁸⁾ 15세기에 들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사색적 지식보다 실제적 지식의 강조, 인간 이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혁신을 통해 시간의 차이와 “역사적 사건들의 유일성(unicqueness)”을 이해하게 되었다.⁹⁾

이렇게 발견된 고대의 역사는 인문주의적 차원에서 연구된 것뿐만이 아니라, 세속 군주들의 권위를 보여주는 새로운 상징으로서 전유되었다. 중세의 종교적 가치는 이제 낡은 것이 되었고, 이상적 세계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를 상징하는 물건들은 봉건사회라는 중세적 지형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군주들에 의해 권력을 표상하는 새로운 매개체로 이용되었다. 로마 황제 복장을 한 초상화를 그리거나 로마 시대의 동전을 모방하여 그 안에 자신들의 초상을 새겨 넣는 것과 같이 과거를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맥락화하는 행위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¹⁰⁾

역사적으로 박물관이라는 근대적 형태의 직접적 원형은 16세기 이래로 형성된 군주들의 컬렉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스튜디올로’나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y)’¹¹⁾이라고 불리는 르네상스 후기에 형성된 수집품의 보관소에서 발전한 것으로, 이들 중 일부는 소장품을 위해 특별히 건립된 홀이나 미술관에 전시되어 오늘날과 같은 박물관(혹은 미술관)의 선례가 되었다. 군주의 박물관은 공식 의례를 위한 화려한 무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주라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접견실의 역할을 수행했다. 웅장한 방에 장식된 사치스러운 수집품들은 방문객들을 압도시켰다. 이를 통해 군주 자신은 통치의 정당성 혹은 정통성을 전시라는 도상학적 방식을 통해 정당화하였다.¹²⁾

7) 르네상스 시대의 물질 유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이로 인한 과거의 발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시오. Paula Findlen, “Possessing the Past: The Material World of the Italian Renaissanc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3 (1998), pp. 83-114.

8) Peter Burke, *Tradition and Innovation in Renaissance Italy: A Sociological Approach* (London: Fontana/Collins, 1972), p. 209.

9) 찰스 나우어트(Charles Garfield Nauert) 지음, 진원숙 옮김, 『휴머니즘과 르네상스 유럽문화(Humanism and the culture of Renaissance Europe, 2000)』 (서울: 해안, 2003), p. 50.

10) J. Woods-Marsden, “Art and Political Identity in Fifteenth-Century Naples,” in C. M. Rogenberg, ed., *Art and Politics in Late Medieval and Early Renaissance Italy, 1250-1500*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0), pp. 11-37. Margarita Diaz-Andreu, *A World History of Nineteenth-Century Archa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33에서 재인용.

11) ‘호기심의 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오. O. Impey and A. MacGregor, eds., *The Origins of Museums: The Cabinet of Curiosities in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y Europe* (Oxford: Clarendon Press, 1985).

군주가 자신의 박물관을 이러한 의례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은 19세기 이래로 서구 열강들이 국립 박물관을 제국주의적 선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양상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전시품이 갖는 사회적·역사적 가치를 정치적으로 전유하는 방식은 더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차이는 19세기 이전에는 수집품의 대상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 아니었고, 동시대 유럽 국가들에서 생산된 미술품이라든가 고전 시대의 유물들이 주를 이뤘다는 점이다. 수집품에 대한 지식의 여부에 따른 계급적 구분 짓기 또한 문화재를 소유함으로써 식민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여기고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에 정당성을 부여한 서구 열강들의 논리와 유사하다.

한편, 18세기에는 교육의 일환으로 유럽으로 떠나는 그랜드 투어가 영국 상류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고전 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로마는 그랜드 투어의 궁극적 목적지가 되었다.¹³⁾ 이들은 그곳에서 미술품 중개상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와 조각 뿐 아니라, 로마 시대의 조각과 골동품도 사들였다.¹⁴⁾ 이렇게 영국 여행자들이 열정적으로 수집한 예술품들에 대한 감상과 토론의 풍경에서 18세기의 문화적 사조이자 훗날 문화적 권력이 될 ‘감식안’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¹⁵⁾ 그랜드 투어를 다녀온 이들 중 일부는 1732년 ‘딜레탕티 회(Society of Dilettanti, 예술애호협회)’를 만들고, 이후 80여 년간 에게 해 지역의 고고학 조사를 후원했다.¹⁶⁾ 이들 중 유명한 수집가들이 수집한 화병, 동전, 메달, 브론즈, 회화 등의 수집품들은 초기 영국박물관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¹⁷⁾

18세기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유물 수집에 대한 열정이 과열된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식민주의 정책을 펼친 유럽 국가들의 팽창에 기인한다. 고전주의 열풍이라는 유럽 상류층의 예술적 경향이 이 시기 수집열의 내부적 원인이었다면, 유럽의 본격적인 식민지 팽창 정책은 그리스·로마 시대 이외의 유물 수집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경쟁을 본격화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753년에 시작된 영국박물관의 역사는 바로 이 시기 해외로 진출

12) Carol Duncan, *Civilizing Rituals: Inside Public Art Museums* (London: Routledge, 1995), p. 63.

13) 설혜심, 『그랜드 투어』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3), p. 123.

14)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모조품인 경우가 많았다. 설혜심, 『그랜드 투어』, pp. 203-211.

15) 설혜심, 『그랜드 투어』, p. 186. ‘감식안’이란 훌륭한 예술 작품을 골라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서는 특히 시대가 규정하는 특정 작가나 특정 유파, 특정 시대의 예술품을 골라내고 품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6) 딜레탕티회는 트로이, 아티카, 모레나 등지의 고고학 탐사를 위해 2,000파운드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미술가들이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고대 유적지로 스케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다. 설혜심, 『그랜드 투어』, pp. 176-178; 트리거, 『고고학사』, p. 72.

17) John Brewer, *The Pleasures of the Imagination: English Culture in the Eighteenth Centu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 258.

한 여행자, 상인, 군인 같은 개인들의 수집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영국박물관의 성장은 이 시기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¹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한스 슬론(Hans Sloane, 1660-1735)으로 그의 수집품은 초기 영국박물관 컬렉션의 기초가 되었다. 이 시기 영국의 수집 열풍의 성격을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의 지리적 범위를 넓혀준 데에는 영국의 식민지 팽창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없다.¹⁹⁾ 그리고 뒤이어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문화재 수집열기가 더욱 과열되었던 것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쟁구도에서 해석해야 한다.²⁰⁾

한편 그리스·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에 들어서 식민주의 정책이 본격화되고, 영국, 프러시아(독일), 프랑스 등 열강들 간의 군사,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자 더욱 복합적 성격을 띠게 된다. 유럽인들에게 그리스·로마 문명은 유럽 문명의 뿌리로 인식되고 있었고 제국들 간의 경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유럽문명의 원류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고전고대의 유물을 소유하는 것이 곧 문화 영역에서의 우월성을 상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서구 열강 사이의 경쟁은 고전고대의 유물들을 더 많이 획득하고 연구하려는 모습을 띄게 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의 문화재 수집은 그 성격이 18세기의 딜레탕티화와 같은 고전시대 예술에 대한 애호와 취미, 그리고 신분 과시 차원²¹⁾에서 벗어나 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위로 변모되었다. 이처럼 유물 수집의 목적과 성격이 확연히 달라진 데에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인한 유럽 세계의 변동과 타 대륙으로의 세력 확장을 통한 유럽의 헤게모니 성립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때문이었다. 물론, 19세기 이전과 이후로 옛것 연구와 고고학적 활동의 성격이 완전히 단절되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19세기의 국제 세력 구도의 변화와 유럽의 팽창주의 정책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에 ‘제국주의적’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새겨 놓았다.

18) Jeannette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97.

19) Stanley A. Hawkins, "Sir Hans Sloane(1660-1735): His Life and Legacy," *Ulster Medical Journal*, Vol. 79, Issue 1 (2010), pp. 25-29; Barbara M. Benedict, "Collecting Trouble: Sir Hans Sloane's Literary Reputation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Eighteenth-Century Life*, Vol. 36, Issue 2 (2012), pp. 111-131.

20) 이외에도 식민지 확장과 더불어 시작된 기독교의 선교활동도 문화재 수집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신대륙'과 태평양 군도, 호주 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은 이른바 '인류학적 유물(ethnological objects)'로 분류되는 문화재를 수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21) Margaret E. Mayo, "Collecting Ancient Art: A Historical Perspective," in Kate Fitts Gibbon, ed., *Who Owns the Past? Cultural Policy, Cultural Property, and the Law*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5), p. 138.

영국의 식민지와 영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그리스·로마 문명 뿐 아니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등지에서 고대 문명들에 대한 고고학 발굴과 문화재 수집도 적극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영제국의 군사적·정치적 힘의 우위가 곧 해당 지역의 고대 문명을 연구하고 유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 된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 영국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해외 문화재 수집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영국의 해외 유물 수집의 성격에서 학문적 동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엄청난 양의 유물 수집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은 따라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민족주의 운동과 본격적인 해외 문화재 수집의 시작은 학문과 예술의 연구 성향을 공유했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19세기의 모습은 국가 간 경쟁구도로 인해 그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²²⁾ 계급적 활동이자 일부 계층의 취미였던 옛것 연구와 과거의 물질 유산을 수집하는 행위가 시대적 변화를 맞아 활동 범위의 경계가 계급보다는 국경으로 바뀌었고, 국가적 차원의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변모했으며 그 주체들도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들로 바뀌게 되었다. 옛것 연구가 고고학이라는 학문으로 흡수되고 취미활동인 수집이 국립박물관의 중요 문화재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영국의 유물 수집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유럽 밖에서 본격화된 프랑스와의 식민지 경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 유럽의 팽창과 문화재 약탈사의 시작

기본적으로 영국은 제국의 팽창 과정에서 여러 서구 열강들과 경쟁했지만, 그 중 프랑스는 영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1756년에 발발한 7년 전쟁(Seven Years' War, 1756-1763)에서부터 나폴레옹 시대가 끝난 1815년의 워털루 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큰 전면전을 치렀으며, 전쟁의 결과는 양국의 정치와 재정 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는 북아메리카, 인도, 이집트와 같은 영국의 초기 식민지 팽창과 제국주의 정책의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프랑스의 제국 팽창 정책은 영국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경계 대상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와의 경쟁은 근대 영제국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군사적 영역에서 뿐

22) 18세기는 근대적 의미의 문화재 수집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그랜드 투어가 가장 성행하던 시기였고,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 걸친 상류계층간 관계망이 형성되어 학문연구와 예술을 향유하는 데 있어 국적과 국경을 따지지 않는 세계시민주의적(cosmopolitan) 성향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그랜드 투어로 인한 유럽 귀족들 간의 관계망과 세계시민주의의 등장은 설혜심의 『그랜드 투어』 7장.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나기, pp. 259-296을 참조하십시오.

아니라 문화재 수집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움직임은 영국의 해외 문화재 수집에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했다. 바로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 혁명이었다.

왕과 귀족과 같은 소수의 특권 세력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구체제)’을 혁파하고 근대적 자유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프랑스 혁명 정신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전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의 문화재 수집과 약탈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발발한 프랑스와 인접 국가들 간의 전쟁 과정에서 등장한 군부의 실력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 1769-1821)는 이집트 원정을 통해 프랑스의 역사 뿐 아니라 문화재 수집 역사에도 전환점을 가져왔다.

1798년,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점령하고 영국이 인도로 진출할 때 이용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약 3만 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다.²³⁾ 그 안에는 과거의 원정 전쟁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167명의 학자와 예술가들이 이집트의 지리, 풍토, 건축, 예술, 역사 등을 조사하기 위해 동행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맘루크(Mamluk) 군대²⁴⁾를 물리치고 초반 전쟁에 승리하여 학자단은 이집트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유물 수집을 할 수 있었지만, 이듬해 나일 전투(the Battle of Nile)에서 넬슨 제독(Horatio Nelson, 1st Viscount Nelson, 1758-1805)의 함대가 프랑스 함대를 격침시키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결정적으로 1801년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남겨둔 주둔군이 영국의 에버크롬비 제독에게 패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집트에서 철수해야만 했다.²⁵⁾ 이후 ‘알렉산드리아 조약(Treaty of Alexandria)’에 따라 그동안 프랑스 학자들이 수집한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은 영국군에 인계되었다.

이 사건은 향후 100년 넘게 지속될 영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재 수집 경쟁의 시발점으로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프랑스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학자단을 이끌고 간 원정에서 얻은 자신들의 성과물을 영국에 고스란히 빼앗긴데 대한 보상심리와 경쟁심의 발로로 이후 더욱

23) 프랑스의 이집트 원정은 나폴레옹 개인의 열망도 있었지만, 당시 이탈리아를 점령하여 프랑스 공화국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나폴레옹에 위기의식을 느낀 총재 정부가 그를 견제하고 연속된 원정으로 나폴레옹의 주의를 프랑스 밖으로 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식적인 명분은 나일 강 계곡에 진출한 프랑스 상인의 보호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전제 정치에 고통받는 이집트 민중의 해방이었다. 여기에 더해 아직 야만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이집트에 파라오 시대의 진정한 문화와 예술을 ‘되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로베르 솔레(Robert Solé) 지음, 이상빈 옮김,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기: 백과전서의 여행』 (고양: 아테네, 2013), pp. 40-44.

24) 맘루크 부대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노예 부대의 이름으로 아랍어로 피소유자를 의미한다. 9세기부터 이슬람 왕조들이 군사의 대부분을 맘루크로 충당하면서 세력을 얻게 된 이들은 군사력으로 정치권력을 잡았다.

25) 프랑스와 영국의 이집트 전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오. Brian Lavery, *Nelson and the Nile: The Naval War against Bonaparte, 1798*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8).

적극적으로 해외 식민지와 원정지에서 유물 수집에 열을 올렸다. 한편 영국은 이 때 얻은 대규모의 고대 이집트 유물을 영국박물관에 전시함으로써 오늘날 영국박물관의 초석을 다졌고, 프랑스에 대한 승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로서의 유물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제국주의 정책에서 유물 수집을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후 이집트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유럽 지배와 제국확장에 대한 야욕이 지속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간의 경쟁의식은 이집트 전쟁 이후에도 더욱 격화되었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여러 곳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두 나라는 1798년 지중해의 전략적 거점지인 몰타 섬(Malta)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게다가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에서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영국을 대륙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이어가자, 1803년 영국은 나폴레옹 제국의 완전한 와해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²⁶⁾ 1808년에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 점령을 위해 움직이자 스페인·포르투갈·영국이 연합하여 프랑스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로써 영국-프랑스의 적대관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두 열강의 보다 본격적인 경쟁 무대는 이집트를 포함한 ‘동양(the East)’이었다. 이 ‘동양’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지역이었다.²⁷⁾ 유럽 국가들에게 동지중해 지역은 서남아시아²⁸⁾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로 당시 이집트는 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특히, 인도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인 인도를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집트 및 그 이집트를 제국의 일부로 지배하고 있는 오스만 튀르크와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비록 오스만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지키기에 그 영향력을 이미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였지만, 유럽 열강들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오스만 제국의 존속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튀르크를 점령하기보다 외교적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26) 마야 야사노프는 이러한 영국-프랑스 간 군사적 갈등이 근대 제국주의 경쟁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Maya Jasanoff, *Edge of Empire: Conquest and Collecting in the East 1750-1850* (London: Forth Estate, 2005), pp. 214-215.

27) Michael Duffy, "World-Wide War and British Expansion, 1793-1815," in P. J. Marshall, ed., *Oxfor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Vol. II: The Eigh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96.

28) 서남아시아는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하여 동쪽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서쪽의 터키까지의 지역을 이르는 말로 흔히 지칭되는 ‘근동(近東, Near East)’의 중립적 표현이다. ‘근동’이라는 지리적 명칭은 가까이 있는 동쪽이라는 의미로, 유럽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가까운 동양을 의미한다. 이는 유럽중심적인 지리적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중동(中東, Middle East)’으로 바뀌었고,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보다 중립적 용어인 ‘서남아시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에서는 여전히 혼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지역에 관한 일반적 명칭을 사용할 때 ‘서남아시아’를 사용하도록 한다.

전제하고자 했다.

1815년, 프랑스가 워털루 전쟁에 패배하면서, 유럽 두 강국의 격돌이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영국은 이제 유럽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우위를 점하면서 제국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도 이집트와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야욕은 더욱 강해졌고, 1882년 영국이 완전히 이집트를 점령할 때까지 이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 세력이 팽팽하게 맞섰다.²⁹⁾ 당시 이집트를 둘러싼 역학관계는 이집트에서의 고고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군사적 충돌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바로 문화의 영역으로, 두 열강은 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군사적 갈등과 같은 물리적 충돌과는 다른 보다 상징적인 영역에서 경쟁을 펼치게 되었다.

1801년 이집트 원정에서 프랑스에 승리한 영국군은 대량의 이집트 유물을 인계받게 되었다. 당시 원정에 참가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적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했던 프랑스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영국에 넘겨야만 하는 상황에 분개했다. 당시 이 때 영국군에 넘어간 주요 유물 중에는 그 유명한 로제타석(Rosetta Stone)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랑스 학자들 중 수학자인 장 바티스트 푸리에(Jean Baptiste Joseph Fourier, 1772-1837)는 이집트 원정의 연구 결과물인 『이집트 묘사(Description de l'Égypte)』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프랑스가 소유했던 15개의 중요 유물 목록을 만들었는데 로제타석은 이 중 8번에 기재되어 있다.³⁰⁾

하지만 영국은 프랑스군과 동행한 학자들이 프랑스 공화국에 소속된 학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집트 유물들이 프랑스에 가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될 것을 알고 있었다.³¹⁾ 프랑스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제타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물들은 결국 영국군에 넘어갔다. 현재 로제타석은 영국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영국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전시물이 되었다.³²⁾

프랑스로부터 대규모 이집트 유물을 들여온 1801년부터는 영국박물관의 성격이 확연히

29) 프랑스는 1830년 알제리 침략 전쟁을 시작으로 아랍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당시 프랑스의 국왕 샤를 10세(Charles X, 1757-1836, 재위 기간 1824-1830)는 이 군사원정을 승리로 이끌어 국내적으로는 반대파를 저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중해 서부 유역에 프랑스의 세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시장 개척과 신흥 사업의 판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샤를 10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강력한 군주제를 재건하기 위함이었다. 이재원, 「제국주의 식민통치 성격 비교, 프랑스-알제리」, 『역사비평』 통권30호 (1995), p. 158.

30) BL, ADD MS 46839 F, "Inventory of Egyptian Antiquities in the Possession of the French Authorities at Alexandria".

31) BL, ADD MS 30095, 284, Wilson Journal, 7 September, 1801. Hooch, *Empires of the Imagination*, p. 221에서 재인용.

32) 로제타석은 오늘날 이집트가 가장 반환받고 싶어 하는 5가지 중요 문화재 중 하나로, 문화재 반환 논쟁의 대표적인 약탈 문화재로 거론된다.

바뀌게 되었다. 이전까지 상류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던 영국박물관은 대중을 위한 국립박물관이자 진정한 제국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802년, 이집트의 전리품이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영국박물관은 여전히 ‘호기심의 방’ 수준이었다. 영국박물관의 첫 소장품인 슬론의 컬렉션 중에는 이집트의 것도 있었는데, 작은 동상이나 부적 등이 대다수였고, 그마저 시대가 그리스·로마 시대의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802년에 도착한 이집트 유물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거대한 규모였고, 그동안 영국인들에게 익숙했던 고전 시대의 이집트가 아닌 그보다 더 오래되고 경험한 적 없는 파라오 시대의 유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 때까지 유럽 어느 나라도 영국만큼 고대 이집트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적 소장품으로 채워져 있던 당시 영국박물관에 유입된 이집트 유물은 국가에 의해 수집된, 국가를 위한 최초의 공공 컬렉션이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약 10년 후에 이와 같은 ‘국가적’ 컬렉션으로 영국박물관에 들어온 것이 엘긴 마블(Elgin Marbles)이었다는 점은 1802년 이후 영국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거대한 고대 문명의 기념물들은 영국의 국가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이것들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대중의 암묵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가장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영국은 제국을 운영하는데 있어 군사·정치·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소유라는 새로운 방식의 지배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 그 전까지 점령지의 예술품이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보물들은 승리자의 전리품이자 승리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데에 머물렀다. 하지만 고대의 위대한 이집트 문명이 재발견되고 유럽 열강들 간의 유물 수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승자가 획득한 유적·유물이 가진 승리의 상징이나 물리적인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는 지적 역량이 제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기제가 되었다.

이러한 유물 수집과 전시 행위는 영제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영국의 힘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상징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 지배하에 놓여있는 식민지뿐 아니라 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역사적 유물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영국의 영토 지배 뿐 아니라 외교와 경제 제재를 통한 간접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비군사적 방식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영국의 해외 유물 수집의 성격에서 학문적 동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이집트와 실크로드 지역 발굴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영국 고고학자 플린더스 페트리(William Matthew Flinders Petrie, 1853-1942)가 이집트학에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1883년 그가 ‘이집트탐사협회(Egyptian Exploration Society)’의 대표 연구자로 선정되어 이집트 곳곳에서 발굴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83년은 영국이 실질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1882년의 이듬해이다.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시대에는 서방 국가들은 이 지역에 거의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략이후 약해진 오스만 세력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군사점령한 후 영국인의 활동이 수월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³³⁾ 페트리의 학술적 성과 뒤에는 영제국의 이집트 점령이 중요한 조건이었다.

영국박물관과 영국도서관의 중요 컬렉션 중 하나인 실크로드 컬렉션의 수집과정은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기인한다. 영국의 인도 점령과 러시아의 남하정책으로 인한 두 제국의 세력다툼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선점하고자 했던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첩보전에서 시작되어 역사적 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문화재 수집 경쟁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실크로드 탐험의 최대 공헌자인 오렐 스타인(Sir Marc Aurel Stein, 1862-1943)의 활약으로 영국박물관과 영국도서관, 그리고 식민지였던 인도의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질적, 양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실크로드 컬렉션을 소장하게 되었다.³⁴⁾

이처럼 문화재 문제는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탈식민주의 시대인 오늘날 새로운 국제관계 정립과 화합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유적지 개발을 통한 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불법적으로 반출되거나 거래된 해외 소재 자국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³⁵⁾ 하지만 실크로드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정식 반환 요청을 한 사례는 없다. 이는 실크로드 문화재가 너무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다는 점과, 문화재들이 현재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영역에서 출토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독립 움직임으로 인한 민감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학계와 민간 차원에서의 반환 움직임과 여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영국은 지금까지 문화재 원산국의 반환 요청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다른 서구 국가들도 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얼핏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는 왜 쉽지 않으며, 시

33) 김경민, 「제국주의와 고고학: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pp. 35-39.

34) 이 실크로드 컬렉션을 소유하게 된 국가는 영국만이 아니었다. 후발 주자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중앙아시아 문화재들은 오늘날 약 13개국에 30개가 넘는 시설들에 흩어져 있다.

35) 국제법적 차원에서 중국의 문화재 환수 노력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시오. 김종우, 「해외로 반출된 중국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률문제 고찰-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중국법연구』, 제14집 (2010. 12), 243-284쪽.

장국들은 어떤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 국제법과 문화 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유럽 열강들이 세계 각지에서 행한 문화재 약탈 행위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후 국제관계가 재정립되고 신생·독립국이 등장하면서, 각 국가 내에서는 물론이고 국가 간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공식적으로 제국주의 시대가 종결되면서 나타난 신생·독립 국가들의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문화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래로 과거의 물질 유물은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이러한 물질 유물의 속성은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규정되는 ‘국민’을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각적 상징물로 활용되었다. 양차 대전 이후 새로 시작된 20세기의 신생·독립국들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를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문화재 되찾기에 나서게 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국가 재건의 일환으로 침략 전쟁으로 약탈당하거나 주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다양한 경로로 유출된 자국의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여론 또한 약탈된 문화재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의 문화재 반환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반환 요청을 받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화재 원산국(country of origin)³⁶⁾들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빼앗긴 문화재를 돌려받으려는 국가와 그 문화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장국(market country)³⁷⁾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은 오늘날 문화재의 거취나 소유권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민족)적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외교가 다층적으로 얽힌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였다.

이제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은 단순히 이념적 논쟁이나 문화교류 상의 문제

36) 문화재 원산국이란 해당 문화재가 만들어진 국가 혹은 원래 그 문화재를 가지고 있었던 원 소유국을 의미한다. 대개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들의 직·간접 지배를 받으며 부당하게 혹은 강제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유물을 빼앗긴 국가들로 이집트, 나이지리아, 가나, 인도, 그리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한국도 원산국에 해당한다.

37) 문화재 시장국이란 앞서 언급한 원산국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로 현재 풍부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문화재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위치에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벨기에, 스위스, 일본 등의 국가들이 시장국에 해당하며 대부분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에서 벗어나 ‘소리 없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정치·외교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국민감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중대한 요소가 되었다. 게다가 문화재는 국가의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재는 유형의 물질이지만, 보존만 잘한다면 관광 산업을 통해 영구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문제는 역사, 이념, 정치, 경제의 문제이며, 이 모든 갈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져 있는 현재진행형 사례가 바로 영국과 그리스 사이의 파르테논 마블(Parthenon Marbles) 반환 문제이다. 파르테논 마블을 돌려달라는 그리스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영국 정부의 태도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반영 감정을 야기했다. 또한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와 박물관 관계자들이 파르테논 마블이 런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의 위대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자, 1998년 당시 그리스의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베니젤로스는 그런 논리라면 세계의 모든 문화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징에 갖다놔야 할 것이라고 비꼬며 영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후술하겠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 문화재 갈등 사례는 대부분의 문화재 반환 문제가 그렇듯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및 이해관계를 기준으로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주제임을 보여준다.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화재가 ‘반환’이라는 형식으로 원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의 일방적 소유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현 소유국의 양보와 협력이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알려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반환’은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역사적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비롯되는 한쪽의 전적인 양보와 협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재 반환 문제가 대부분 반환 혹은 반환에 준하는 결과(영구 임대나 장기 임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협약과 같은 기존의 제도적 접근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제도적 틀 이외에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1) 국제법의 한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전까지 문화재 보호와 반환에 관한 국제법은 당시 서구 중심의 국제 체제에 영향을 받아 비서구 국가들의 문화적 권리가 배제된 채 실행되었다. 반면 오늘날 국가 간 문화재 문제를 관장하는 국제법은 과거와는 그 제정 배경도 목표도 크게 다르다. 현재 국제법상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 관련 조약은 크게 세 가지로, 1954년 제정된 최초의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법령인 <헤이그 협약(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이하 헤이그 협약〉, 1970년 제정된 〈1970 유네스코 협약(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이하 1970 유네스코 협약),³⁸⁾ 그리고 1995년에 제정된 〈UNIDROIT 협약(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UNIDROIT 협약, The 1995 UNIDROIT Convention)〉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헤이그 협약〉은 전시 문화재 보호법이기 때문에 평시의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평시에도 국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전시가 아니어도 문화재가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1950년대에 새로 독립한 국가들이 내정 불안과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중앙의 보호와 통제를 받지 못한 문화재들이 대규모로 불법 거래되었고, 암암리에 서구 세계로 반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정치적 소요가 끊이지 않았던 196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일례로 한 나이지리아 일간지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나이지리아의 조각품들과 역사적 유물들이 [국외로] 사라지고 있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자국의 상황을 개탄했다.³⁹⁾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1960년대에 경제 성장기를 맞은 국가들이 문화재를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중요시 여기면서 본격적으로 자국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과거 약탈된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 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다.⁴⁰⁾ 이러한 일련의 경험과 노력을 거쳐 마침내 1970년 11월 14일, 유네스코 제16차 총회에서 평시 문화재 보호와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1970 유네스코 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1970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적 이동(혹은 매매)의 제재에 관한 국제적 기본 틀을 만든 국제법이다.⁴¹⁾ 하지만 이 협약 또한 〈헤이그 협약〉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80개국 이 넘는 국가들이 참여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의 특성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이 협약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장국 중 이 협약에 가입한 것은 미국, 캐나

38) 1970 유네스코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한 문화재의 불법적 도굴, 밀매, 반출 등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9) *The Daily Express*, 30 May, 1964. Barbara T. Hoffman, *Art and Cultural Heritage: Law,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38에서 재인용.

40) 제성호, 「문화재의 반환과 국제법」, 『법학논문집』, 제29집 (2005), p. 97

41) 법률적 정책 수단의 채택이라는 면에서 사법(private law)적 측면 보다는 국제공법(international law) 및 행정규제(administrative control)를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성호, 「문화재의 반환과 국제법」, p. 100.

다 등 소수의 국가들뿐이었다. 따라서 이 협약으로 반환이라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1970 유네스코 협약>의 한계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협약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협약 제1조에서는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므로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라고 문화재의 정의를 기술하고 있다.⁴²⁾ 여기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보호와 제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문화재로 그 범위가 축소된다. 제7조를 보면 “도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 목록에 속해 있음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법 적용 대상을 매우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⁴³⁾ 이 때문에 이 조항들은 <1970 유네스코 협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국가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일 경우 국가의 반환 의지가 없으면 해당 문화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협약 제3조는 “협약의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 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도함은 불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⁴⁾ 그러나 군사적 침략과 약탈과 같은 특수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불법적 이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각 계약국이 각자 채택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⁴⁵⁾ 이 협약에 근거해서는 문화재 이동의 불법성을 공정하게 혹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협약 당사국의 국내법 입법조치가 <1970 유네스코 협약>과 연계되어야 불법 이동에 대한 제재와 금지라는 실질적 목표에 이를 수 있다.⁴⁶⁾ 이렇듯 구체성이 결여된 조항이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각 국가의 국내법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1970 유네스코 협약>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1970 유네스코 협약>의 법리적 한계와 법 실행의 실효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95년의 <UNIDROIT 협약>이다. 유네스코는 기존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들의 사법적(私法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간 기구인 UNIDROIT에 문화재 반환 및 회복을 위한 사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UNIDROIT

42)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Article 1.

43)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Article 7, (b).

44)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Article 3.

45) 박선아, 「문화재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 23.

46) 이동기, 「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 경위와 현황 -UNESCO협약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2009), p. 171.

는 오랜 국제적 합의 도출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95년에 <1995 UNIDROIT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이전 협약의 한계점인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사법 체계 간 조화를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재를 국가의 정체성과 연결 짓는 개념인 문화 민족주의적 시각을 성문화하여 보다 진일보한 국제법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⁴⁷⁾ 앞서 <1970 유네스코 협약> 제3조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등록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1995년의 협약은 국가가 아닌 개인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역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적 발굴은 물론 합법적인 발굴을 통해 발견된 물건이라도 원소재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도난” 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각 국가의 국내 입법의 문제로 대두된 문화재 불법 이동에 관한 제재의 실효성 문제도 <1995 UNIDROIT 협약>의 ‘자기집행성(自己執行性, self-executing)’ 성격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국제조약의 ‘자기집행성’이란 어떠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협약상의 규정이 해당 국가 내의 실질사법(實質私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⁴⁸⁾ 다시 말해,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 하지 않고도 <1995 UNIDROIT 협약>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이동 문화재에 대한 반환청구를 바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문화재 반환과 불법 이동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국제협약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다. 하지만 이 협약들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반환 문제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법률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영국의 문화재 반환 거부 논리를 분석하는데 있어 국제법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될, 영국의 국내법적 근거나 이론적 근거들은 갈등 당사자 양측이 법리적 근거나 구체적 논리를 통해 서로 논의할 여지라도 열려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다르다. 협약 발효의 요건들이 애초에 법률적으로 검토될 여지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원산국들 입장에서는 반환 협상을 위한 법률적 논의를 시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영국에게 있어 국제법의 이러한 특성은 반환을 둘러싼 갈등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 근본적 한계란 무엇일까? 대체 국제법의 어떤 측면이 영국에게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일까?

유네스코 국제협약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협약 발효의 조건

47) Irini A. Stamatoudi, *Cultural Property Law and Restitution: A Commentary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European Union law* (Cheltenham: Edward Elgar, 2011), pp. 66-111.

48) L. V. Prott, “UNESCO and UNIDROIT: A Partnership against Trafficking in Cultural Objects,” 1996,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illicit-trafficking-of-cultural-property/1995-unidroit-convention/> (마지막 접속일, 2021. 08. 10); 박선아, 「문화재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소송에 관한 연구」, p. 26.

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국제협약들은 그것을 비준하고 시행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협약을 각 국가들이 채택하고 정식 비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문화재 반환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반환 요청을 받은 현 소유국인 시장국의 의지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시장국들은 <1995 UNIDROIT 협약>에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1970 유네스코 협약>은 현재까지 141개국⁴⁹⁾이 채택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1995 UNIDROIT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50개국⁵⁰⁾밖에 되지 않는 점은 이 협약이 세계적으로 규범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제약 조건은 한 국가가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법이 제정된 해부터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재 약탈 문제의 대부분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인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결국 이 사건들은 모두 국제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유네스코가 채택한 위의 세 가지 국제협약들은 이 두 가지 제약으로 인해 반환을 거부하는 문화 국제주의적 입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소급적용의 원칙에 의해 영국에 반환 요청이 제기되는 대부분의 문화재에는 유네스코의 주요 세 가지 협약 중 어떤 것도 적용될 수 없다. 즉, 최소한 1954년 이전에 이루어진 문화재 반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문화재 반환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취득 당시의 합법성 문제는 사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게 되었고, 당시의 전시 약탈이 정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국제법의 영역에서 원산국이 문화재를 반환받기 어려운 이유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백년도 더 된 과거의 사건에서 문화재 획득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영국은 스리랑카의 반환 요청에 대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반환 거부의 논리를 펼쳤다. 스리랑카는 19세기 영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왕실의 귀중한 문서들과 동상, 상아작품과 같은 중요한 문화재들을 빼앗겼다. 스리랑카는 독립 후 비공식적 로비가 아닌 영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양자 협상을 통해 특정 유물들의 반환을 요구한 첫 번째 국가였다.⁵¹⁾ 하지만 1980년 6월에 시작된 반환 협상은 다음 해에 외교부와 영국박물관의 통지를 받은 영국 정부가 반환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유물의 취득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49) <https://en.unesco.org/fighttrafficking/1970> (마지막 접속일, 2021. 08. 10).

50) 단순 서명한 국가들을 빼면 그나마도 숫자가 더 줄어든다. 프랑스가 발안 첫 해 이 협약에 가입만 하고 시행을 위해 입법화하지 않은 대표적 국가이다.

<https://www.unidroit.org/status-cp> (마지막 접속일, 2021. 08. 10).

51)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p. 133.

내세우며 당시 유물의 취득이 부당한 약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국의 입장은 1981년 1월 14일에 당시 영국박물관 관장이었던 데이비드 윌슨(David M. Wilson)이 외무성에 보낸 서신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리랑카 측이 제시한 반환 대상 목록을 열거한 후] 이 모든 유물들은 합법적으로 입수되었다. 타라 조각상(Tara sculpture)은 로버트 브라운릭 경이 1830년에 [영국]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이 유물들이 ‘전쟁의 약탈품’으로 취득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로버트 브라운릭 경과 그의 장교단의 아마추어적 고고학 조사에 의해 획득된 것 이외에 다른 수단에 의해 유물들을 얻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브라운릭 경이 실론의 총독으로 8년간 부임해 있던 기간은 군사 활동 이외에 [유물 수집에 대한]그의 관심을 충족시킬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다.⁵²⁾

뉴질랜드 정부 또한 1983년에 영국으로부터 마오리 족의 타라나키 패널(Taranaki panels)을 반환받기 위해 영국의 취득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획득 과정의 불법성을 재판부에 증명하지 못해서 패소했다.⁵³⁾

실사 영국의 문화재 획득 과정이 약탈이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영국에 문화재를 빼앗긴 국가들은 약탈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비판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약탈은 불법이지만, 당시의 관례에서 전리품 획득은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의 국제법 체계상 그것이 합법이었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대 별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오늘날에 약탈 행위를 불법이라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 문화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와 문화 국제주의의 갈등

일반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문화재를 반환받고자 하는 국가들, 즉 과거 문화재를 빼앗긴 국가인 원산국이나 아니면 과거 문화재를 약탈하여 현재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인 시장국이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선명하게 나뉜다. 바로 문화 민족주의와 문화 국제주의이다. 문화 민족주의는 문화재를 특정 국가의 민족정신과 정체성을 구현하는 상징물로 보고, 부당하게 빼앗긴 유물들이 본래 있었던 장소인 원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주로 과거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문화 국제주의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보

52) TNA, FCO 13/1270, 'Return of Cultural Property: Sri Lanka,' 2. D. Wilson, BM to J. Macrae, FCO. 14 January, 1981.

53)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p. 29.

호하고 향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국제적 박물관을 가지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과 같이 과거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던 서구 열강 국가들이 문화 국제주의를 지지한다. 이들은 문화재를 곧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 인류 공동의 재산은 세계적인 박물관에 전시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 국제주의의 논리이며, 이를 따르는 대부분의 세계적 박물관들은 원산국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박물관도 이 세계적 박물관 중 하나로, 문화 국제주의를 내세우며 원산국들의 반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영국의 입장이 바로 문화 국제주의였다. 문화 국제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의 대표적 국제법학자인 존 헨리 메리맨은 영국박물관이 소장하고 하고 있는 대표적 유물인 엘긴 마블 반환 문제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과 책을 발간하면서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그의 논리는 감정적인 민족주의적 주장보다, 문화재의 보존, 예술품의 원상회복, 그리고 문화재의 분배라는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⁵⁴⁾

문화 국제주의의 관점에서는 문화재를 특정 국가의 민족적 속성을 초월한 예술적, 고고학적, 역사적 관심의 대상이며 보편적인 인류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문화재의 기원지나 현 소재지의 문제, 소유권의 문제, 혹은 국가 주권 차원에서 문화재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세 가지 원칙-문화재 보존(preservation), 문화재 동일성(integration), 문화재 분포와 접근성(distribution/access)-에 따라 문화재의 소재를 결정하는 것이 인류 문화를 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문화재 보존이란 해당 문화재의 완벽한 보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존을 위해서라면 원산국이 아닌 더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문화재 동일성 원칙은 문화재의 동일성과 완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분포와 접근성은 문화재가 인류 전체의 공동 유산이라는 전제에 따라 세계 각국에 적당한 분포를 고려하여 각 국민의 접근성이 높고, 타 민족의 문화적 성취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⁵⁵⁾

메리맨은 “엘긴 마블에 대한 고찰(Thinking about the Elgin Marbles)”이라는 논문에서 엘긴 마블의 반환 여부는 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재가 반드시 원산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⁵⁶⁾ 그가 제시한 세 가지 고려사항 중 문화 국제주의의 핵심적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재의 분배에 관한

54) John Henry Merryman, “The Free International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31 (1998), pp. 4-14.

55) Merryman, “The Free International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pp. 4-14.

56) John Henry Merryman, “Thinking about the Elgin Marbles,” *Michigan Law Review*, Vol. 83 (1985), pp. 1881-1923.

것이다. 이는 세계인이 타국민의 문화적 업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류문화유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독점적 보유보다는 문화재의 접근성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메리맨의 입장은 국가 간 감정적 갈등과 배타적 민족주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문화재 반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화 민족주의 관점의 이론보다 오늘날의 세계 체제와 국제 관계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 국제주의는 또한 어떠한 문화가 특정 국가나 민족에 속해 있다는 문화 민족주의적 주장을 비판한다. 미국의 미술사학자 제임스 큐노는 어떠한 유물이 민족정체성을 구현하거나 상징화한다고 믿는 문화 민족주의적 주장에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문화재는 정치적 구성물”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민족의 문화재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근대 국가들이 고대 문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규정한 지배적 문화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⁵⁷⁾ 또한 패트릭 기어리(Patrick Geary)의 『민족의 신화: 그 위험한 유산(The Myth of Nations: The Medieval Origins of Europe, 2003)』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 유럽 역사학이 만들어낸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허구라고 말하며 그것에 기댄 문화 민족주의적 주장이 우리의 세계관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편협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⁵⁸⁾

문화재를 원소유국에 돌려주어야 하며 문화재는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지리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문화 민족주의는 전후 식민지 시대의 과거를 청산하는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국제 분위기 속에서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문화 국제주의가 반대편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문화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불안정한 국가 체제와 문화적 단절성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불안정한 국가체제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두드러진다. 1950년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식민 모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단일한 주권국가로 출범하였지만 심각한 재정 부족은 부실한 문화재 관리로 이어졌고, 정치적 혼란은 문화재 반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원동력을 약화시켰다. 선진국들의 경제 원조를 받기는 하였으나, 부족 간의 갈등과 독재정부, 쿠데타, 군부 정권이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장기적 경제 불황은 물론이고 문화적 영역에 충분히 투자할 수 없었다.

57) James Cuno, *Who Owns Antiquity?: Museums and the Battle over Our Ancient Herit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p. 9; Cuno, “Beyond Bamiyan: Will the World Be Ready Next Time?,” in Hoffman, ed., *Art and Cultural Heritage*, pp. 41-45.

58) James Cuno, “Museums, Antiquities, Cultural Property, and the US Legal Framework for Making Acquisition,” in Kate Fitz Gibbon, ed., *Who Owns the Past?: Cultural Policy, Cultural Property, and the Law* (Piscatawa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5), p. 145.

독립 초기 문화재 유출이 심각했던 나이지리아의 경우, 1971년 고유물부 장관인 에크포 이요(Ekpo Eyo)가 “나이지리아 문화재의 절도범들을 잡지 못한다면, 10년 내로 나이지리아 문화재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탄할 정도였다.⁵⁹⁾ 1960-7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문화재 반출이 절정에 달했던 이유는 사회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제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문화재 암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나이지리아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자신들의 국보급 문화재인 베닌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1980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8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5개의 작품 등을 되사야만 했다.⁶⁰⁾ 서구 박물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재 보존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해온 것도 이러한 잦은 정권 교체와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1992년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몇몇 서구 출신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는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한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⁶¹⁾

두 번째로 반환을 강력히 주장하는 근거로 문화 민족주의가 가진 한계점은 문화적 단절성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몇몇 국가들에서는 현재의 국가 정체성과 과거 문명의 성격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민족의 실체를 부정하는 큐노는 현재 이집트와 고대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 사이에 무슨 문화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⁶²⁾ 전 영국박물관 관장 닐 맥그리거(Neil MacGregor) 또한 큐노와 같은 선상에 있다. “나는 주요 국가들의 정체성이 사실상 어떤 유물에 의존할 수 있다는 관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⁶³⁾ 분명 이들의 주장은 이집트와 같이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큰 국가들의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이집트가 정부 차원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을 상대로 강력한 문화재 반환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 모두의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집트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집트는 이전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근대화 노선을 취하면서 국민 정서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집트는 국가의 정체성을 ‘아랍’ 으로 규정하고 이슬람 시대 이전의 고대 이집트 문명과 현재의 이집트와 거리

59) *Nigeria Daily Times*, 23 September, 1971.

60) Folarin Shyllon, “The Nigerian and African Experience on Looting Trafficking in Cultural Objects,” in Hoffman, ed., *Art and Cultural Heritage*, p. 139.

61) Harrie M. Leyten, “African Museum Directors Want Protection of Their Cultural Heritage: Conference on Illicit Trade in Cultural Heritage, Amsterdam (October 22-24, 1997),”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Vol. 7 (1998), p. 261.

62) Cuno, *Who Owns Antiquity?*, p. 9.

63) 샤론 왁스먼(Sharon Waxman) 지음, 오승환 옮김, 『약탈(Loot: the Battle over the Stolen Treasures of the Ancient World)』 (서울: 까치, 2009), p. 332.

를 두었다.⁶⁴⁾ 이러한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60년대의 아스완 댐(Aswan High Dam) 건설 결정이었다. 근대성과 진보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으로 나세르 호수(Lake Nasser) 아래 있는 수많은 고대 파라오 시대의 사원들은 수장될 위협에 처했다. 고대 이집트 유적과 경제 발전 사이에서 이슬람 정권은 후자를 택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이 세속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현대 이집트의 아랍적 정체성과 고대 문화유산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고대 문명에 대한 원주민들의 무관심과 반감은 문화 국제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왔다. 즉, 이집트보다 자신들이 고대 이집트를 더 잘 연구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고대 이집트 유물에 대한 권리주장으로까지 이어져 서구 박물관들의 문화재 소유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과거 문명과 현재 국가의 문화적 단절성에 대한 지적은 영국이 수많은 반환 요구에 대처하는 대표적 논리중 하나이다.

종합해보면,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서구 국가들은 문화재 반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크게 국제법의 한계와 문화 국제주의라는 이론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이러한 반환 거부 논리를 각각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접근하는 기존의 시각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한계점들이 드러났다. 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화 국제주의는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신생·독립 국가들이 겪었던 국가 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허술한 문화재 관리를 지적하면서,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와 같이 문화재 보호의 기반을 갖춘 국가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국 문화유산으로서의 영국박물관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이에 반박하는 원산국의 문화 민족주의는 식민지 지배와 문화재 약탈을 경험한 역사를 바탕으로 반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화재는 새 국가의 정체성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회·문화적 기반에 따른 문화재 유출 사태와 일부 원산국에서 나타나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상이한 문화적 양상은 민족주의 이념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근거가 되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화재 반환은 현 시점에서 국제법을 근거로 재판을 통해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안타깝지만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현소유국(자)의 이해와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입장 변화를 만들어내는

64) Jasanoff, *Edge of Empire*, p. 304.

것은 반환을 요구하는 원산국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에 달려있다.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규장각 의궤도 박병선 박사에 의해 1975년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발견된 이후로 우리나라 학계와 정부, 민간단체가 수십 년간 반환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유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간 문화재 반환 사례이다. 1971년 4월 21일, 덴마크는 *Flateyjarbók*(the Book of Flat-Island)와 *Codex Regius*(The King's Volume)⁶⁵⁾ 아이슬란드의 중세 문학 필사본 2점을 아이슬란드에 반환했다. 덴마크는 14세기 말부터 아이슬란드를 지배했던 국가로 아이슬란드는 1944년 독립했다. 이 두 필사본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1830년부터 있어왔지만 정부에 의해 본격화된 것은 아이슬란드가 독립한 이후였다. 아이슬란드는 독립 이후 국가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덴마크로 유출된 위 두 점의 필사본을 반환받는 것이 양국의 역사를 바로 잡고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하여 정부 주도로 덴마크 정부에 공식 반환을 요구하면서 반환 협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⁶⁶⁾ 대부분의 반환 협상이 그렇듯 덴마크 내부의 반발이 심했고, 법적 근거도 없었기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과 반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덴마크 내의 반환에 긍정적인 지식인과 정부 인사들의 노력으로 결국 덴마크는 자국 문화재 반출을 승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과 시켰고 그 결과 1971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Flateyjarbók*와 *Codex Regius*의 반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재 반환의 과정은 길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성사될 때까지 사안에 따라 공개할 수도, 관심을 받을 수도 없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21세기 접어들며 국제정세의 변화와 과거 피식민 국가들의 상황 변화로 문화재 문제의 저변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⁶⁷⁾ 이러한 달라진 흐름을 더욱 주도적으로 바뀌어나가고 환수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을 반복하기보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65) 1270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유럽 신화집인 *Edda*의 필사본 중 송아지 피지로 만들어진 유일본이라는 데 그 문화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Jeanette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i-v; 이보아,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 p. 320.

66) 이보아,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p. 321

67) 안나 필리파 블돌작, 「식민지 시대 반출 문화재 환수: 인권적 관점에서」 in 『문화재 환수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전략』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pp. 38-40.

충청남도 국내·외 문화유산 교류협력단 운영 사례 소개

민 정 희(충남역사박물관장)

- | |
|----------------------------------------------|
| I. 추진배경
II. 수행기관 소개
III.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
|----------------------------------------------|

I. 추진 배경

- 충남은 2016년에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조례’를 제정
- 동 조례 5조에 따라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을 조직하여
- 서산 부석사 불상 환수 소송 지원, 반출문화재 실태조사, 홍보(사진전) 등을 추진
- 실태조사단[인원 : 15명, 임기 2년(2기 출범, 2019.9.28.~2021.9.28.)]
- 백제 등 국외소재문화재 7개국 240건 450점 기초조사(2019)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사진전 개최(2020, 도청, 천안시 등)
- ※실태조사단+(재)문화유산회복재단 중점 추진
- 충남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이하 “기금”)을 설치[붙임1. 참고]
- 운용규모[70억원, 2023년까지]
- ※조 성 액 : 2020년 : 10억원, 2021년~2023년 : 매년 20억[현재 30억원 확보]
- 사업내용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문화재의 구입, 수증, 협상 등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4년간)-기금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
- 충남은 기금운용 수행기관으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남역사박물관)을 선정(2020년 12월)
- ⇒ 국내외 소재 문화재 관련 업무 추진(2021년 1월 1일)
- ※출연금 : 2억원(인력+사업비)

II.수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남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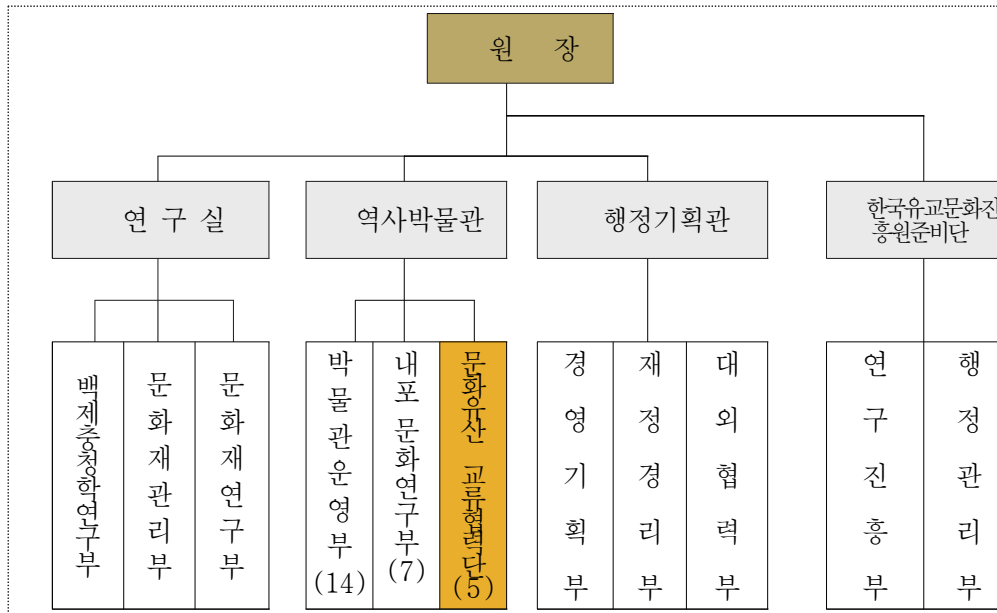
□ 연혁

- 2004. 4 : 개원
 - 2006. 9 :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공주시 중동)
 - 2008. 3 : 수장고 신축(공주시 금홍동 - 본원)
국립중앙박물관 경력인정대상 기관 선정
- 2011. 1 : 박물관 등록(충남-공립12-2011-01호)
설립자(충청남도지사)
- 2018. 2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인증박물관 선정
- 2020. 7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인증박물관 선정
- 2020. 12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기금운용 수행기관 선정
- 2021. 1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업무 개시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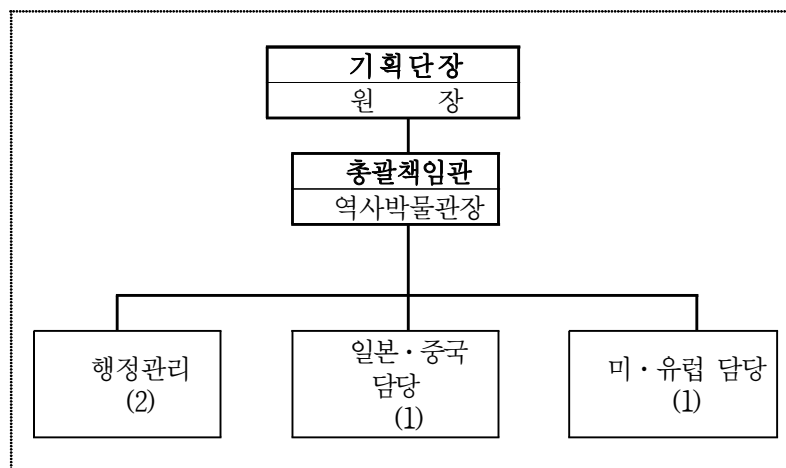
□ 조직 구성



※시설 및 유물수집 현황 : [붙임2.참고]

Ⅲ.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① 문화유산 교류협력단 조직 구성 및 운영 - 6명(신규충원 3, 기존인력 3)



○ 신규인력 충원 : 3명(연구 2, 행정 1)

- 서류심사→필기시험→인·적성검사→면접시험→임용(5월1일, 중국어 1명 채용)

※행정직(7. 1. 채용), 영어(1명, 재공고)

- 부서 명칭 변경 : 환수기획단→문화유산 교류협력단(3.19)
- 환수 명칭에 대한 국제적 반감을 줄이고, 문화재 교류협력 증진 목적

② 국내외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문화유산회복재단 협의
 - 충남의 국내외 반출문화재 환수 기본계획 공유
 - 2020년 활동 및 오구라 컬렉션 등 2021년 문화재 환수 추진 방향 등
- 재)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자문·협의
 - 문화재 환수 접근방법, 발간물 협조,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 등
 - 국외한국문화재 주간경매정보 제공 등
- 독립기념관+충남문화유산콘텐츠진흥원 협의
 - 중국과 업무협약 정보공유, 이동녕 선생 거주지 등 활용사업
- 국립중앙박물관 충남문화재 제자리 찾기 관련 정책 자문 및 협의
 - 천흥사 동종, 백제 미소불, 서산 부석사 철불 등 **[붙임3.참고]**
- 국외문화재협의회 가입 및 1차 회의 - 비대면 회의
 - 30개 정부·유관기관·민간단체간 현안 공유 및 협력 기능 강화
- 관계기관 정례회의 개최(문화재청+충남도+충남역사박물관 등)-5월부터, 월1회

③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

- 구성인원 : 16명(당연직 위원 2, 위촉직 위원 14)
 - ※ 간사(1) : 운영부장
- 대 상 : 학계, 정부기관, 민간단체, 언론, 종교계 등 전문성과 경험 풍부한 전문가
- 임 기 : 당연직 위원(재임기간), 위촉직(2년, 연임가능)
- 운 영 : 연2회 자문회의 및 별도 자문 추진
- 기능과 역할 :
 -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상 목록 선정 및 보호활용 등에 대한 연구·자문
 - 교류협력단 업무추진을 위한 기획 및 국내·외 네트워크 추진 지원
 - 그밖에 교류협력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자문

④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 현황조사 : 257건 643점 확인(8월 3일 기준)

- 국외소재 문화유산 현황 : 22개국 753개처,

204,693점 (2021. 4.1 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지자체별 유물현황 정리는 없음.


* 합법,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 일제조사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히 지자체별 현황조사는 사업 효과성이 매우 저조함.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발간한 도록을 대상으로 총남 관련 현황 파악(8개국 22개 소장처)

국가	소장처	총남유물		합계	
		건	점	건	점
일본	오구라 문고	9	12	193	306
	테즈카야마대학 부속박물관	81	81		
	와세다대학 도서관 한국전적	12	121		
	와세다대학 아이즈야이치기념박물관	34	34		
	일본 민예관	6	7		
	일본 세이카도 문고	51	51		
미국	미시간대학교 미술관	3	3	6	6
	와이즈만 미술관	3	3		
	클레어몬트대학 도서관 소장 맥코믹컬렉션	0	0		
	뉴욕 박물관	0	0		
	UCLA 리서치 도서관 소장 함호용자료	0	0		
	클리블랜드 미술관	0	0		
네덜란드	네덜란드인 김달형 컬렉션	4	4	6	6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2	2		
중국	상하이 도서관	23	72	34	141
	푸단대학도서관	11	69		
독일	상트오틀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1	1	1	1
캐나다	로열온타리오 박물관	6	21	6	2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6	127	10	143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	3	16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1	19	1	19
	런던대학 SOAS	0	0		
총합		257	643		

※ 소장처별 유물 현황 정리(예시)

연 번	사진	제목	서지사항	
1		영험약초 (靈驗略抄)	분류	고서-주해집 종교/풍속-불교 자부-석가류
			작성주체	불공(不空, ?-?) 봉조 역
			판종	목판본
			발행사항	덕산(德山) : 가야사(伽耶寺), 영조 38(1762)
			형태사항	1冊(16張) : 四周單邊 半郭 22.3×15.6cm, 有界, 10行字數不定, 上下內向黑·2葉混葉花紋魚尾 ; 30.1 X 19.8 cm
			주기사항	表題: 畫千手 版心題: 千手 刊記: 乾隆二十七年壬午(1762) 仲春忠清道德山伽耶山伽耶寺留版 卷首題는 ‘觀世音菩薩靈驗略抄 大悲心陀羅尼陀羅尼’ 임. 傍點과 △ 있음. L44752와 달리 ‘觀世音菩薩靈驗略抄’ 에 대한 언해 없음. 陀羅尼에 傍點, △ 있음
			현소장처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청구기호	L44753
			내용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암송되었던 다라니 4종인 「대비심대다라니(大悲心大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即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를 수지(受持)·독송(讀誦)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덕에 대해 설명한 『영험약초(靈驗略抄)』를 언해한 책이다. 이 책은 『오대진언』에서 다라니를 제외하고 「영험약초」만 단독으로 간행한 것으로, 1762년(영조 38)에 충청도 가야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 국외한국문화재 주간경매 정보 조사(2021. 5.5~ 현재)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유통조사부) 경매정보 자료 협조(매주)

※ 주간경매정보(예시)

번호	이미지	유물명	경매사	경매정보(경매번호)	경매일자	경매장소	출품번호	추정가	시각가	시대	크 기	URL
378-072		李朝辰砂染付墨盞	毎日オークション	第680回毎日オークション 古美術	2021.08.26.	일본	Lot 0383	JPY 50,000-70,000		李朝	H4.3×W6.7cm	https://ssvu.com/main/auction/docs/080

- 충남 관련 유물 소재 확인 : 10건(현재, 미국 6, 일본 3, 호주 1)

※ 계룡산 분청사기(8건), 초상화(2건)-연고

구분	날짜	출품현황	미국	일본	호주	합계	비고
363호	0505	10개국 31개소 63건	0	0	0	0	충남 없음
364호	0512	8개국 43개소 103건	0	0	0	0	"
365호	0519	9개국 39개소 129건	5	0	0	5	충남관련 : 미국(5건-철화분청사기) Lot688,Lot531(분청사기재확인필요)
366호	0526	12개국 34개소 157건	0	3	0	3	충남관련 : 일본(3건-철화분청사기)
367호	0602	10개국 39개소 115건	0	0	0	0	충남 없음
368호	0609	13개국 41개소 116건	1	0	0	1	충남관련 : 미국(1건-초상화)
369호	0616	14개국 42개소 110건	0	0	0	0	충남 없음
370호	0623	10개국 44개소 94건	0	0	0	0	"
371호	0630	10개국 32개소 79건	0	0	0	0	"
372호	0707	8개국 29개소 54건	0	0	0	0	"
373호	0714	10개국 36개소 98건	0	0	0	0	"
374호	0721	8개국 34개소 62건	0	0	1	1	충남관련 : 오스트리아(1건-초상화)
375호	0728	7개국 26개소 55건	0	0	0	0	충남 없음
376호	0804	7개국 22개소 68건	0	0	0	0	"
합계			6	3	1	10	

※ 주간경매정보(충남 자료 현황)

번호	유물명	사진	경매장소	출품번호	시대 (사이트 상 표기)	내용	비고
1	철화백자		미국	lot 688	18th/ 19 th century	공주시 계룡산 추정	제365호 분청사기 재확인필요
2	철화 분청사기		미국	lot 521		공주시 계룡산 추정	제365호
3	철화 분청사기		미국	lot 549		공주시 계룡산 추정	제365호
4	분청사기		미국	lot 531		공주시 계룡산 추정	제365호
5	철화백자		미국	lot 524		공주시 계룡산 추정	제365호 분청사기 재확인필요
6	철화 분청사기		일본	lot 897	李朝	공주시 계룡산	제366호
7	철화 분청사기		일본	lot 901	李朝	공주시 계룡산	제366호
8	철화분청 사기		일본	lot 902	李朝	공주시 계룡산	제366호
9	표암 강세황 영정		미국	lot 20841		가문이 천안 풍세면 일원을 터전으로함	제368호
10	윤동섭 초상		호주	lot 590	18th/ 19 th century	생부, 양부 모두 공주 출신	제374호

--	--	--	--	--	--	--	--

⑤ 국내소재 충남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 활동 전개

① 충남의 도난문화재 찾기 운동 전개-41건, 625점(道지정문화재 총11건)

○ 충남의 도난문화재 홍보(충남도정신문 컬럼 연재 9회)

○ 충남의 도난문화재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자발적 제보와 기증유도(골동품매매상 등 집중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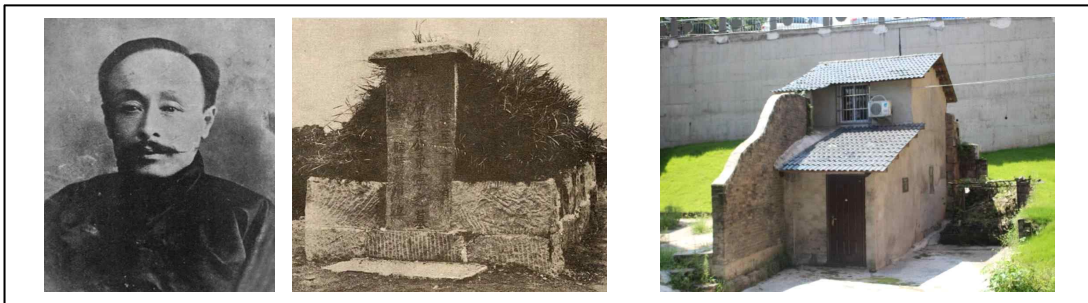
- 2단 12쪽 양면에 도난문화재 사진과 도난일시, 장소, 연락처 등 수록

※ 3건 압류, 소장자(처) 조사중(자발적 제보)

- 마지막 통신사 죽리 김이교(1764~1832) 문중에 분산되어 있는 유물 섭외 및 인수
 - ※ 김이교 유물 「신미통신일록」 -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김이교 간찰 3건 기증(서울), 김이교 후손 유물 18점 기탁(고양시, 6.2)

⑥ 국외 문화유산 교류협력 및 보존 시범사업 추진 검토

- ① 석오 이동녕선생 중국내 거주지 보존방안 추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초대 의장을 지낸 이동녕선생 거주지 훼손위기
 - 거주지 「보존·관리」 방안 강구 및 「묘지석」 고증 시범사업 추진
- ② 건물 매입이 어려운 중국내 여건을 고려
 - 중국 중경시와 업무협약 추진, 묘지석 국내이전(효창공원) 실현
 - 국제 학술회의(중국), 역사탐방, 순회 사진전, 다큐제작 등 추진
 - 서훈 1등급 상향 추진 및 국회 로텐더홀 전신상 건립방안 홍보 병행



- ③ 일본 내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일본 친한인 단체(공주회) 발굴, 일본내 반출된 문화유산 조사 및 현황파악 등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기능 강화
 - ※ 공주회 : 일제강점기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의 친목단체
 - 아메미야 히로스케(2008년 공주회 회장) : 부친유물 68종 328점
 - 충남역사박물관 기증(고려청자, 분청사기 등)

⑦ 공주시 국내외 반출문화유산 조사사업(공기관 대행사업)

- 사업기간 : 2021. 05~2021. 12.
- 사업비 : 60,000천원(공주시 대행사업)
- 사업내용 : 반출문화유산 조사 및 정리, 홍보영상 제작, 포럼 개최

백제문화제 기간(9.25~10.3) 홍보관 운영 등

- 공주관련 국내·외 소재 유물현황 조사
 - 국외소재 현황조사 : 47건(9개국, 29개 소장처)
 - 국내소재 현황조사 : 665건(7개 소장처)
- 자문회의(6. 8)
 - 사업기간이 짧아 새로운 연구 어려움, 기존 자료조사 및 현황 파악 위주로 진행
 - 가루베지온이 수집한 공주관련 유물에 대한 체계적 분석
 - 공주 출신 일본인 모임 ‘공주회’ 활동내용, 교류협력 추진
 - 박물관에 반환받은 기존 성과 및 실적을 홍보에 활용(아메미야 히로스케)
-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일정 재설계
 - 공주시 반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포럼(9.15)
 - 2008년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 유물 홍보영상물 제작(9.25限)
 - 공주시 국내외 반출문화유산 사진 선별 및 전시회 개최(백제문화제 기간 홍보관)

⑧ 남북교류협력 사업

① 남북공동 「해외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추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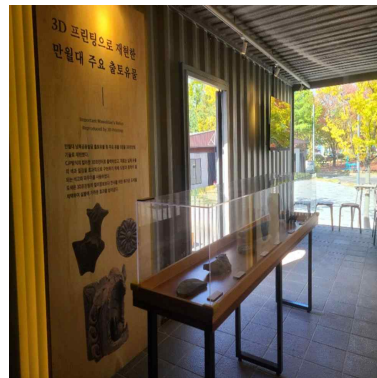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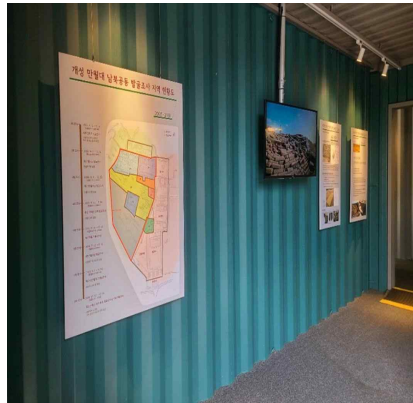
- 최근 검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 간 이견이 없는 국외소재 북한 지역 출토 문화재의 공동 자료 조사 및 환수 활동 추진
 - 대 상 : 평양출토 ‘금은상감동판’, 개경 ‘흥천사 고려불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소장처 : 도쿄예술대학 미술관 ○ 출 토 지 : 평양 낙랑고분 ○ 제작시기 : 1~2세기 ○ 규 격 : 길이 25.4cm, 지름 3.9cm ○ 가장 오래된 금 상감 기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마디 면에 금은 상감 - 산악문, 운기문 사이에 다양한 동물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소장처 : 큐슈 카라츠시 카가미신사 ○ 출 토 지 : 개성 흥천사 ○ 제작시기 : 1310년(충선왕 2) 5월 ○ 규 격 : 가로 254cm, 세로 419cm ○ 1971년 일본 중요문화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7년 왜구 약탈 - 1391년 승려 료켄 → 신사 봉납(추정) ○ 나고야성박물관 복제품 전시

- (가칭) 「한반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 구성 운영 검토
 - 민간중심의 남북한 국외소재문화재 전문가 및 단체 참여
- 국외소재 한반도 출토 문화유산 세미나 추진
 - 남북공조 문화재 환수 경험과 과제·방법 등 공유·확산
- ② 개성 만월대, 발굴성과 충남 특별전 유치

☞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既 남북교류협력 성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개성만월대 발굴성과 전시회를 통해 남북 문화교류사업의 중요성 홍보

- 고려 500년 황궁인 개경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07~18년) 성과 전시회
 - 전시명 : 개성 만월대, 열두해의 발굴(실내 전시, 야외 컨테이너 전시 : 2종류)
 - 후 원 : 문화재청 / 주최·주관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북한 「평양중앙력사박물관」 소장유물과 발굴유물 전시
 - 고려 황궁 모형, 3D입체 복원품·홀로그램 등 전시콘텐츠(44점)
 - 조선시대 김홍도의 만월대 경로잔치 입체 영상
 - 관람객이 참여하는 발굴체험 등 오감만족 체험형 전시
-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라 단기적으로 2022년 충남 순회전시 유치 추진
 - 전시장소 추후 결정, 전시회 비용 등 2022년 예산 확보 추진
 - 남북 민간교류 성과 및 한민족 동질성 회복의 가치 확산



☞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전시회 개최 협의 완료(2022년 9월~11월)

- 전시회 : 컨테이너를 활용한 야외 전시 형태로 개최

- 장 소 : 미정

※ 전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구유동이 많은 장소

충남의 시·군중 고려 태조 관련 지명과 고려시대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는 천안시로 잠정 결정

③ 충남지역 「고려시대 역사문화유산 활성화 사업」 추진

○ 한국중세사학회와 연계한 충남의 고려시대 유물과 유적 학술행사 추진

- 학술행사(12.3) ⇨ 천안 지역 고려시대 유적답사(12.4)

○ (가칭) 「충남 고려사 연구포럼」 운영

- 민·관·학연이 함께하는 충남 고려사 연구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고려사 연구조사복원 등 공론화 장 마련

○ 남북한 「고려시대 문화유산 교류전시」 추진

- 남북한 화해분위기 조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류 전시방안 추진

붙임1.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0. 10. 5.] [충청남도조례 제4804호, 2020. 10. 5. 일부개정]

충청남도(문화유산과), 041-635-3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재”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입수”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입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유산과장

2. 기금출납원 : 국외소재문화재 입수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05.>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164호, 201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606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804호 2020.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수행기관 소개 : 충남역사박물관

□ 시설현황

시 설 명			면적(㎡)	주요내용(용도)
대 지			13,645.0	(약 4,135평)
건물 연면적 합계			2,093.6	(약 634평)
본관동 합계			1,648.5	(약 500평)
전 시 설	2층	상 설	864.9	휴관 중
	1층	기 획	282.0	휴관 중
		사무공간	272.2	박물관 소속 3개 부서 연구실 등
	지 하		229.4	자료실, 배수펌프실, 비상발전기실
별관동 합계			445.1	(약 134평)
별 관 (9 동)	문 화 재 원 형 복 원 실		81.0	문화재관리부 연구실로 사용 중
	교 육 실 습 실		66.1	박물관운영부 연구실로 사용 중
	전 통 문 화 체 험 실		55.4	전통놀이 체험 공간(폐쇄)
	관 략 객 안 내 실		9.0	안내 및 경비
	관 략 객 화 장 실		49.1	남녀 화장실 각 1식
	관사 1		76.0	직원 숙소(공무위생원 이혁구)
	관사 2		42.1	폐쇄(노후시설)
	관사 3		44.8	폐쇄(노후시설)
	창 고		21.6	
공 용 시 설			285.1	주차장(30면), 계단 등

※ 전시 및 조경 환경개선 사업 : 박물관 휴관

□ 유물 소장 현황

(2021. 6. 30. 현재)

계	구 입	기 증	기 탁	보 관	이 관	반 환
46,554점	52점	11,294점	55,067점	8,356점	3,145점	31,360점

□ 소장 유물 활용 현황

(2021. 6. 30. 현재)

계	전시 중	수장고 보관	타기관 대여
46,554점	0점	46,551점	3점

□ 수장고 유물 보관 현황

(2021. 6. 30. 현재)

계	수장고(3층)	발굴유물(2층)	비고
62,154점	46,554점	15,600점	

□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현황

(2021. 6. 30. 현재)

수량		총 16건 129점 [국가지정 3건 65점 / 도지정 13건 64점]			
지정 구분	NO	유 형	지정번호	명 칭	수량 (점)
국가	1	보물	제724호	성주도씨 종중문서 일괄[星州都氏宗中文書一括]	5
	2	보물	제1495호	윤증 초상 일괄[尹拯肖像一括]	6
	3	국가민속문화재	제22호	윤증 가의 유품[尹拯家の遺品]	54
도	1	유형문화재	제128호	김장생 문묘배향교지[金長生文廟配享教旨]	1
	2	유형문화재	제199호	공주 상세동산신도[公州上細洞山神圖]	1
	3	유형문화재	제202호	김만증 초상[金萬增肖像]	2
	4	유형문화재	제203호	임득의 초상[林得義肖像]	1
	5	유형문화재	제217호	공주 능성구씨 함흥읍도[公州陵城具氏咸興邑圖]	1
	6	유형문화재	제218호	공주 충현서원 주자 초상[公州忠賢書院朱子影幀]	9
	7	유형문화재	제222호	김이교 유물 일괄[金履喬遺物一括]	20
	8	유형문화재	제226호	부전대동계 문서[浮田大洞契文書]	23
	9	유형문화재	제232호	노혁 왕지[盧革王旨]	1
	10	문화재자료	제20호	무안박씨 요여[務安朴氏腰輿]	1
	11	문화재자료	제295호	김집 교지[金集 教旨]	1
	12	문화재자료	제338호	이심원충신정려현판[李深源忠臣旌閭懸板]	2
	13	문화재자료	제405호	홍가신 초상[洪可臣肖像]	1

※유형문화재 제222호, 김이교 유물 일괄-신미통신일록(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붙임 3. 충청남도 국내·외 소재 문화유산 중점관리 대상 추진상황

1) 천안 성거산 「천흥사 동종」

□ 유물현황



- ◆ 명 칭 : 성거산 천흥사명 동종(약칭 「천흥사 동종」)
- ◆ 크 기 : 높이 174.2cm, 입 지름 96.4cm
- ◆ 연 대 : 고려 1010년 제작(추정), 국보 제280호 지정(1993년)
- ◆ 출 토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일대
- ◆ 특기사항 : 국립중앙박물관 금속공예실 상설 전시중

□ 유물관리 상황

- 「천흥사 동종」 ⇨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범종」
 - ※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보물 354호), 당간지주(보물 99호)
- 사찰 창건 : 후삼국 통일 후 착공, 4년 후인 940년 완공
- 동종 명문 : 聖居山 天興寺 鍾銘 統和 二十八年 庚戌 二月日
- 동종 제작 시기 : 1010년(고려 현종 원년) 2월에 완성 추정
- 조선 인조 때, <남한산성> 행궁 안 종각으로 이전 추정
 - 병사와 주민들에게 시각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
- 1910년, 요시다(吉田九助)가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에 매각
- 1938년, 덕수궁으로 이전
- 1969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금속공예실 전시)
- 복제품 제작 : 천안시(2005.11.), 남한산성 행궁 복원 사업(2011.11.)
- 「돌아온, 돌아와야 할 문화유산」 사진전 개최(국회·충남도, 2020.6.)
- 「천안 천흥사 동종 환수추진위원회」 구성(2020.10.)

2) 부여 규암 「백제 미소불」

□ 유물현황



◆ 연 대 : 7세기 ◆ 높 이 : 26.5cm

◆ 출 토 지 : 부여 규암리(1907년)

◆ 반출경위 : 니와세 히로아키 경매 입찰(연대미상) → 이치다지로

(市田次) 매입(1922년, 대구 거주) → 일본 반출


※ ‘백제미소불’ 과 함께 출토된 보살상은 현재 국보 293호 지정

□ 유물관리 상황

- 일제강점기, 부여 규암리에서 「금동관음보살입상」 발견(2개)
 - ① 1907년 농부에 의해 발견되어 당시 헌병대가 유실물로 보관하다 1년경과 후 경매로 넘어갔다는 설(세키노 關野貞의 주장)
 - ② 1912년 헌병이 농부한테 구입 취득했다는 설(가루베지온 輕部慈恩의 주장)
- 1922년 이치다 지로(市田次) 소장하다 광복 후 일본으로 반출(추정)
- 불상 소장자가 도쿄를 방문한 국내 전문가들에게 공개(2017.12.)
-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 조사(2018.7.)
- 유물이관 협상을 하다, 소장자와의 이견으로 결렬(2018.9.)
 - 문화재청 감정평가액 42억원(소장자 약 100억원 제시)
- 충청도의회 「백제 미소불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 채택(2019.5. 발의자 김연 의원)
-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 제정(2019.5.)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2019.10.)
-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30억원 조성(2020.12.)

3)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유물현황

	<p>◆ 연 대 : 1330년 서산 부석면 부석사 조성</p> <p>◆ 높 이 : 50.5cm</p> <p>◆ 조성목적 : 현세 재난을 없애고 복을 누리며, 내세에 아미타정토에 태어나기를 기원(32명 시주자 명단)</p> <p>※ 재판 진행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수장고에 보관 중</p>
-----------------------------------------------------------------------------------	----------------------------------------------------------------------------------------------------------------------------------------------------------------------

□ 유물관리 상황

- 반출 기원은 명확하지 않음
 - 일본 대마도 관음사(觀音寺) 봉안 중, 밀반입 통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어 압수 됨 (2012.10.)
- 서산시 부석면 주민들, 관음보살상 부석사 반환 촉구(2013.1.~)
-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채동산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에 서 승소하여 일본으로 반환을 막음(2013.2.)
- 서산부석사관음봉안위, 약탈문화재환수 토론회 개최(2014.11.)
 - 서산 부석사 해당 좌상 인도청구 소송 제기(2016.4.)
-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부석사로 불상 인도」 판결(2017.1.)
 - 대전 고검 인도 강제 집행정지 청구 신청. 청구 수용, 부석사 인도 실패
- 항소심 1차 공판(2017.3.)
- 항소심 2차 공판(2017.6.) - 부석사에 모조품, 관음사에 진품 봉안 제안
- 항소심 재판부 교체(2019.1.)
- 항소심 재판부 증인불출석에 따라 재판 연기(2020.12.)
- 변론(2021.7.7.)
 - 재판장과 피고(검찰)측 소송수행자 변경으로 1심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 설명
- 변론 기일(2021.9.15. 예정)

해외소재 기록문화재 현황 조사

- 일본의 주요 도서관과 문화기관, 사찰 소장 자료 관련 -

노경희(울산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 I. 들어가며
- II. 일본 소재 한국 고문헌 자료 장소별 분류
- III.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 조사 현황과 목록·해제집 및 논저
- IV.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의 디지털 자료 공개 현황

I. 들어가며

일본에 우리나라 고서(古書)와 그림, 도자기 등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고려 불화와 대장경 등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일본에 더 많이 전하고 있다 하고, 그림 또한 조선 전기 최고의 걸작이라 평가받는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가 천리대학(天理大學)에 소장되어 있다. 고려자기의 경우도 일본에 전하는 작품을 빼고서는 연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품에 가려서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조명 받지 못한 문화재가 있으니, 곧 일본 전역에 산재한 수만 책에 이르는 고서가 그것이다.

일본에 우리의 고서가 전해지게 된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삼국시대부터 이루어진 양국 간의 교류 중에 증정·구입을 통한 경우이다. 일본에 처음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다고 하는 왕인(王仁)은 백제 사람이라고도 하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일본 사신들이 『고려대장경』을 하사해달라고 청하는 기사가 수 차례 나오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임진왜란 중에 일본으로 대량 ‘유출’ 혹은 ‘약탈’ 된 책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임란 이후로도 병자호란과 이괄의 난, 일제 식민지 지배, 거기에 6·25에 이르기까지 비극적인 사건들을 여러 차례 겪게 되면서 서적이 불타거나 유실되는 일이 많았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러서는 임란 이전의 자료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많이 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수집품으로 일본에 건너간 서적들이 있다. 이 시기 일본인들의 조선 고서 수집은 언뜻 임란 시기 무력을 앞세워 약탈해간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도 같다. 일단 그들 나름의 ‘합법적’ 방법으로 고서점과 후손가 등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 서적 수집에 열을 올리던 이들 중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조선총독부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서적 구입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만 보기에는 의심이 간다. 또한 이때의 서적구매금액이

과연 정당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부분은 역시나 현재까지도 한일 양국 연구자들 간에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여기서 뭐라 말하기도 조심스럽다. 확실한 것은 이 시기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출된 고서의 경우 그 양이 가장 많으며, 자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후 이 책들은 일본 전역의 국공사립 도서관에 기증되어 오늘날 폭넓게 분포하는 한국 고서 컬렉션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식민지시기 일본인 지식인들에 의해 수집된 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경성에 체류하던 일본인 학자들은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 나 ‘서물동호회(書物同好會)’와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조선의 책과 예술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본의 패망으로 다시 귀국하면서 이들은 그동안 수집한 서적들을 가져갔고, 이를 자신들이 재직하던 대학 또는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오늘날 일본 전역에 분포하는 한국 고서 문고를 만들었다. 이들 문고는 각 지역 대학 및 국공사립 도서관과 박물관 및 고문서관, 그리고 종교 기관인 사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다량 소장되어 있다.

이들 일본 소재 한국 고서에 대한 정리 작업으로는,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디지털 이미지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고 공개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만이 아닌 일본 소장기관 자체 작업 또는 한국과의 협력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소장기관(장소) 별로 구분하여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의 현황을 살피고, 이어 분기별로 변화된 자료 조사 작업을 정리하면서 이들 자료의 조사 및 정리, 공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일본 소재 한국 고문헌 자료 장소별 분류

일본에서 한국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을 장소별로 정리하면 크게 1) 도서관 2) 문화기관 3) 종교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서관은 국립·시립·현립 등 국공립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이 대표적이다. 그 외로 ‘○○ 문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민간 재단이나 개인 서고 등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2) 문화기관은 고문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서적 이외의 유물을 중심으로 보관한 기관들이다. 여기에도 일부 고전적을 소장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3) 종교기관은 주로 사찰이다. 일본은 오랜 기간 사찰에서 학술문화 활동을 담당해왔기에 불경 이외로 사찰에서 유학서와 실용서 등 다양한 성격의 조선 고서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사찰의 경우 대부분이 불경 자료를 소장하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불경 자료는 논하지 않고, 불경 이외로 한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만을 다루기로 한다.⁶⁸⁾

1. 일본 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자료 현황

1) 대학 도서관

- * 도쿄경제대학-櫻井문고 / 四方博朝鮮文庫目錄 / 南葵文庫朝鮮本目錄
- * 도쿄 게이오 기쥬쿠(慶應義塾) 대학
 - 게이오 대학은 도쿠가와 시대 유학자의 문고, 고문서, 종가문서 등 귀중서가 많다. 부속 연구소인 사도문고(斯道文庫)는 일본과 동양의 고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 * 쓰쿠바(筑波) 대학(旧 도쿄고등사범학교 / 도쿄문리과 대학 / 도쿄교육대학)
 - 1891년 조선의 한성일어학당 최초의 일본어 교사였던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1868~1936)의 조선본 장서(60종 정도) 소장.
- * 도쿄 도쿄대학 부속도서관: 南葵문고, 阿川문고, 小倉문고, 趙東潤本, 사료편찬소, 白山黑水 문고(구, 금 멸실)
 - 아가와(阿川)문고: 아가와 시게로(阿川重郎, 1870~1943)가 수집한 문고로 약 5,000책이 소장되어 있다. 아가와는 동경제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학과 졸업생으로 1902년에 서울로 건너가 토목청부회사 阿川組의 출자사원으로 조선에서 철도를 부설하는 일에 관여했다고 한다. 그 시기에 수집된 책으로 보인다. 1925년 동경대학 동양사학과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1878~1952) 교수의 알선으로 도쿄대에 들어오게 되었다. (大正13年購入)
 - 오구라(小倉)문고: 한국어학 연구자 오구라 신평(小倉進平, 1882~1944)의 구장서이다. 현재 문학부에 소장되어 있다.
 - 趙東潤本 : ‘조남작본(趙男爵本)’ 이라고도 불린다. 구한말의 세도가 풍양 조씨의 구장서가 소장되어 있다.
- * 도쿄 와세다대학 도서관 : 이 대학 교수였던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1864~1918)가 수집한 책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선본이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 도쿄 고마자와(駒澤) 대학 : 1592년에 조동종(曹洞宗)이 창설한 학교 선단린(旃檀林)이 기원이다. 1925년에 대학이 되었다. 불교관계 서적, 특히 선종관계 서적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국본으로는 가나자와 문고가 유명하고, 누카리야 가이텐(忽滑谷快天) 소장서 중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68) 일본에 소장된 불경 자료 관련해서는 선학들의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최근의 정리 성과로는 천혜봉, 『일본소재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과제』, (개정판)『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2011, 4~15면을 참조할 수 있다.

- 가나자와(金澤)문고: 언어학자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1872~1967)의 소장서로 한국 고간본과 동양언어학 관계 자료가 많다. 『濯足文庫目錄』이 있다.
- * 도쿄 주오(中央)대학
 - 와타나베 마나부(渡部學) 무사시(武蔵)대학 명예교수가 조선의 민간교육사연구를 위해 오랜 기간 수집한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 『(渡部學先生寄贈)朝鮮の民間流布初學入門書目錄』, 中央大學圖書館, 1986.
- * 교토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 인문과학연구소 / 문학부 도서관 등
 - 가와이(河合)문고: 1920년경에 경도대학 문학부 강사였던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의 수집본이다.
- * 규슈대학: 도서관과 문학부에 조선본이 소장되어 있다.
- * 나라현 덴리대(天理大) 부속도서관
 -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 소장서가 중심을 이룬다. 『今西博士蒐集朝鮮關係文獻目錄』(1961)이 있다.
- * 센다이 도호쿠(東北)대학
 - 가노(狩野)문고: 교토대학 문과대학장을 지낸 가노 고기치(狩野亨吉, 1865~1942) 수집본이다. 한중일의 고문헌이 중심이 되는 문고로 전체 장서수는 105,000부에 이르는데, 여기서 한국본은 300부 이상이다.
 - 하야시(林)文庫: 수학자 하야시 쓰루이치(林鶴一, 1873~1935) 구장본으로 한국의 수학·천문학 관계 서적들이 들어 있다. 구장각본을 베낀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이 많다. 『東北大學所藏和漢書古典分類目錄』 3책이 있다.
- * 야마구치(山口) 현립 대학
 - 오우호 데라우치(櫻圃寺内) 문고: 한국통감과 초대 조선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구장본. 한국의 경남대학교에 일부 자료 소장.
- * 도쿄 가쿠슈인(學習院)대학
- * 교토 오오타니(大谷) 대학
- * 교토 류코쿠(龍谷) 대학

2) 국공립 도서관

- * 도쿄 궁내청 서릉부

: 황실 전래의 서적 및 교토의 귀족·무사·유학자 등의 구장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모미지야마(紅葉山 혹은 楓山) 문고본 등을 합하여 40만 책에 이른다. 모미지야마문고본에 입란

때 넘어간 조선 전기 귀중본이 소장되어 있다. 『書陵部和漢圖書分類目錄』 4책(1952~1968)과 『圖書寮典籍解題』 5책이 있다.

- * 도쿄 국립국회도서관(구 제국도서관 장서): 白井문고(구 白井光太郎 장서) / 新城문고
 - 1873년에 에도시대 각 기관 소장 장서를 수집하며 창설되었고, 1897년에 제국도서관으로 발족, 1949년에 국립국회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한다. 엔코지(圓光寺) 구장본 등 여러 문고로 구성되었다. 엔코지 장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세기말에 교토 후시미(伏見)에 창건한 사찰의 장서인데, 여기에는 다수의 조선본이 포함되어 있다. 『朝鮮關係資料目錄』 (1984)에 1,000부 정도 기록되었다.
- * 미야기(宮城) 현립 도서관
 - 伊達文庫: 1881년에 개관. 영주 이다테(伊達) 가문의 구장서 약 35,000책, 번교 구장서 약 1,500책,
- * 요네자와(米澤) 시립도서관
 - 번주 우에스기(上杉) 가문의 문서와 번교 흥양관(興讓館) 장서 등 여러 문고로 구성되었다. 『興養館舊藏和漢書目』이 있다.(1958)
- * 오사카 오사카부립도서관: 사토 로쿠세키(佐藤六石, 1864~1927)의 장서. 『大阪府立圖書館藏韓本目錄』
- * 히로시마 시립 도서관
 - 아사노(淺野) 집안이 1926년 히로시마에 아사노도서관(淺野圖書館)을 설립하였고, 1931년에 히로시마시립 아사노도서관(廣島市立淺野圖書館)이 되었다. 우리나라 고간본이 소장되어 있다.
- * 도쿄도립 히비야(日比谷) 도서관(加賀문고)
- * 후쿠오카 현립도서관
- * 치바(千葉)현립 동부도서관
- * 아키타(秋田)현립 도서관
- * 교토부립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및 개인 서고

- * 도쿄 대동급(大東急) 기념 문고: 고토 게이타(五島慶太, 1882~1959) 소장본. 총 장서수는 약 40,000책에 이른다. 목록으로는 『大東急記念文庫書目』(1955)이 있다. 중국과 일본의 화·한적(和·漢籍) 및 고사경(古寫經)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적은 대부분 임진왜란 때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도쿄 동양문고

- 조선본은 대북(臺北) 제국대학 초대 총장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1870~1953) 및 조선총독부 통역관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1)의 수장서가 있다. 『増補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録』(1979)이 있다.
- 마에마 교사쿠 수장본은 1924년에 조선본 약 1,700여 책을 국립국회도서관에 기증한 것인데, 조선사를 전공한 四川孝三이 국립국회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였다.

* 도쿄 정가당(靜嘉堂)문고 : 정가당문고에 소장된 한국 고서들은 현재 목록에서 대략 확인되는 책들만도 500종 2,800책을 상회하는 분량이 있어 적지 않다. 여기에는 특히 조선 후기 필사본 자료들이 적지 않으며 그 중에는 국내에 소장되지 않은 유일본 자료들도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조선본 소장자로 키우치 류시로(木内重四郎, 1866~1925)를 꼽을 수 있다.

* 도쿄 존경각(尊經閣)문고 : 17세기 이래 마에다(前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장서. 화서(和書) 6,300부와 한적 3,750부, 양서 100부, 문서 2,500점을 수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보와 중요문화재 약 80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록으로는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録』(1934)이 있다.

* 도쿄 이시카와 다케요시(石川武美) 기념도서관(旧 오차노미즈 도서관)

-세이키도(成篋堂)문고: 언론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1863~1957)의 장서이다. 1940년 잡지 『主婦之友』 출판사 사장 이시가와 다케요시가 구입하여 나중에 여성전문 도서관 오차노미즈(お茶の水) 도서관을 창립하였다. 이후 2013년에 도서관 이름을 ‘이시카와 다케요시 기념도서관’으로 개명하였다. 성취당문고에는 화한서 및 고문서가 70,000여점, 화양서 22,000책이 있다. 이 문고의 귀중서만을 정리하여 3,500점을 정리한 목록 『新修成篋堂文庫善本書目』(1992)이 있다.

* 나고야 호사(蓬左)문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후 에도성에서 은거지 슌푸쵸(駿府城)로 옮겨진 장서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세 아들에게 나누어졌다. 이것을 ‘어양본(御讓本)’이라고 부른다. 당시 에도성에 두었던 대부분의 장서는 모미지야마 문고가 되었는데, 이 자료는 현재 궁내청 서릉부분과 내각문고본으로 분리되어 있다.

* 아이치(愛知)현 이와세(岩瀬)문고

- 조선의 김세균(金世均) 구장서가 약 1,600책이 소장되어 있다. 『岩瀬文庫目録』(1936)이 있다.

* 요코하마(横浜) 가나자와(金澤)문고

-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집정 호쵸씨(北條氏) 일족인 호조 사네토키(北條實時)가 1275년에 현재의 요코하마시 카나자와구에 만든 문고로, 그 후 아키토키(顯時), 나다아키(貞顯), 사다

유키(貞將) 3대에 걸쳐 물려받은 장서로 이루어졌다. 카네사와 호조씨(金澤北條氏)는 1333년 가마쿠라 막부와 함께 멸망하였지만 이들 장서는 이후 인접한 칭명사(稱名寺)에서 관리되었다.

- * 도치기현(栃木縣) 아시카가시(足利市) 아시카가학교(足利學校) 유적 도서관
: 도치기현(栃木縣) 아시카가시(足利市)에 있던 민간 학교. 창립 연대는 헤이안 시대(794 ~ 1185) 혹은 가마쿠라 시대(1185 ~ 1333) 등의 여러 설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무로마치 초기에 쇠퇴했다가 1432년, 아시카가 영주였던 우에스기 노리자네(上杉憲實, 1410 ~ 1466)가 재흥하고, 그 이후 센고쿠 시대에 걸쳐 관동 지방 최고 학교로 큰 영향력을 지녔다.
- * 교토 요메이(陽明)문고
-요메이문고는 헤이안 시대 최고 귀족 가문인 후지와라씨(藤原氏)에서 분파된 고노에케(近衛家)의 유물인 십수만 점의 고문서 · 고기록 · 고미술공예품을 보존 관리하는 특수한 역사자료관이다.
- * 도쿄 無窮會 眞軒문고
- * 도쿄 日本學士院
- * 杏雨書屋(三木榮 문고)
- * 가마쿠라(鎌倉) 松岡문고(旧 石井積翠軒文庫本)
- * 오사카 武田藥品工業주식회사(구 三木榮 장서)
- * 야마구치(山口) 洞春寺
- * 神宮문고
- * 南歐문고
- * 高木문고
- * 白岳문고
- * 富岡문고
- * 眞珠莊(神尾式春私 장본)

2. 문화기관

- * 국립공문서관-내각문고
- 내각문고: 1873년 태정관(太政官)에 설치된 문고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971년에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에 흡수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모미지야마문고(紅葉山文庫), 하라시 라잔(林羅山)의 창호관학문소본(昌平坂學問所本), 모리씨(毛利氏)의 구장본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진왜란 때 가져간 조선 전기 이전 우리나라 전적이 소장되어 있다.

목록으로는 『改訂内閣文庫漢籍分類目錄』 1책(1971)이 있다.

- * 대마(對馬) 역사민속자료관(長崎縣): 대마도 영주 종씨(宗氏)가 역대 수집한 한국본이 보존된다. 종씨는 한국과의 왕래를 통하여 많은 한국본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임진 이전에 입수한 책들은 거의 없어지고 현재 보존되는 것은 기유조약(1609) 이후에 다시 수집된 책들이다. 원화元和 3년(1683)에 작성된 목록에 의하면, 그 당시 약 3,194책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 804책만이 남아 있다.
- * 도쿄 도쿄국립박물관
- * 규슈 국립박물관-쓰시마 소케(宗家)문서
- * 창고관

3. 종교기관(사찰)

- * 나라 정창원(正倉院): 나라의 東大寺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 8세기 천황 聖武天皇(701~756)의 유품과 그 황후 후지와라노코묘시(藤原光明子)의 皇后宮職, 造東大寺司에 속한 동대사 寫經所에 의한 사경과 紙背文書인 호적, 율령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약 9,000점의 문물이 전하는데 그 가운데 신라의 것으로 琴·墨·사발·고문서(호적) 등이 있다고 한다. 나라시대(710~748)의 사경(寫經)이 수천 권 현존하지만, 고대 우리나라 삼국에서 많은 서적들이 전래된 사실이 문헌상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실물은 한 권도 확인되지 않는다.
- * 교토 건인사(建仁寺) 양족원(兩足院)
 - 건인사(建仁寺) 양족원(兩足院)에는 대대로 수집된 한중일의 고전적이 다량 소장되어 있다. 그곳 출신 승려들이 조선통신사의 통역관으로 활동하여 조선의 고서가 일부 전한다.
- * 교토 남선사(南禪寺)
- * 교토 지은원(知恩院)

Ⅲ.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 조사 현황과 목록·해제집 및 논저

일본에 소장된 한국 고서의 조사 작업은 그간 한국·일본 양쪽에서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는 전국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조선본은 한적 중에서도 중국본에 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상세 서지가 작성되지 못하고 간단한 목록만 정리되었다. 한국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각 도서관에서

정리한 목록과, 학술 기관 및 개별 연구자의 조사 작업을 통해 작성된 목록이 산발적으로 전할 뿐이다. 이 또한 문고의 규모에 따라 ‘조선본’ 만을 따로 모아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국 및 일본의 고서와 함께 묶여 동아시아 ‘한적(漢籍)’의 목록에 편입되어 있거나, 심지어 미처 정리가 되지 않고 서고에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사찰과 같은 종교 기관이나 개인 소장 문고의 경우, 접근의 폐쇄성으로 인해 전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일본에서 진행된 조사 작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큰 규모의 조선본 문고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일찍부터 자체적으로 제작한 조선본 목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조선본 문고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별도의 조선본 목록을 작성하지는 못하고,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한적(漢籍)을 한꺼번에 모아 만든 『漢籍目錄』이나 심지어 식민지 시절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의 도서목록인 『國書目錄』에 조선본 목록까지 같이 집어넣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경우에는, 목록 안에 조선본 만을 따로 분류하여 실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사자집(經史子集) 분류로만 목록을 작성하고 있어 실제 조사를 통한 자료의 조선본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 외에도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 작업 역시 활발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가 일본 전역의 국공립 및 사립 도서관, 개인 서고 등에 소장된 한국의 고서를 전부 조사하고, 그 서지 사항을 정리해온 작업을 꼽을 수 있다. 후지모토 이외에도 조선본 문고의 목록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니, 요시다 미쓰오(吉田光男)와 후쿠이 레이(福井玲)의 작업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일본에 소장된 고서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에서 만들어진 목록을 수집하는 작업으로 시작하였다. 이후로 199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 자체적인 연구팀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본에 소장된 한국 고서와 고문서의 현황에 대해 조사 작업을 펼친 것이 있다. 이 조사의 결과물로 나온 자료보고서에는, 한국사 관련 자료의 소장처·목록에 대한 정보, 한국 고서의 서지 관련 논저목록, 한국사 관련 일본의 인터넷사이트 일람 등 여러 가지 기초 정보를 정리해 놓아 좋은 참고가 된다.⁶⁹⁾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상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 작업 외에도 각 분야별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서지학 방면으로 천혜봉과 심우준, 옥영정 등의 작업이 있으며, 국어학 방면으로 정광·후쿠이 레이·이현희·정재영·정승혜 등의 조사 작업이, 한문학 방면에는 심경호·노경희·백진우·송호빈·박영민 등의 논문이, 한글 고전소설 방면으로는

69) 『일본소제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1, 국사편찬위원회, 2002.

정병설 · 이운석 · 유춘동 등의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의 작업을 통해 각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조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1. 목록 · 해제집

1) 총괄 목록

* Chao Ying Fang[房兆楹], The Asami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일본소재한국고문헌목록』, 여강출판사, 1990.

1책: (今西博士蒐集)朝鮮關係文獻目錄 / (大阪府立圖書館)藏韓本目錄 등

2책: (增補)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錄 / (東京大學總合圖書館藏)阿川文庫朝鮮本目錄 / (京都大學
附屬圖書館所藏)河合文庫圖書目錄 / 河合弘民博士蒐集書籍目錄 등

3책: (天理圖書館所藏)今西博士蒐集朝鮮本マイクロフィルム目錄 등

4책: (友邦協會·中央日韓協會所藏)朝鮮關係文獻·資料總目錄 등

* 『일본소재한국전적목록』, 문화재관리국, 1991.(일본 소장기관 제작 목록 수집서)

① 동경교육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한국전적

藤本幸夫, 「東京教育大學藏 朝鮮本について」, 『朝鮮學報』 81집, 1976.

② 대동급(大東急) 기념문고 소장 한국전적

膳本幸夫, 「大東急記念文庫藏朝鮮本について」, 『かがみ』 21호.

③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문고 소장 한국전적

1932년 도쿠토미 소호 고회기념 사업으로 발간한 목록 중 第4編 「朝鮮本」.

④ 히로시마(廣島) 시립도서관 소장 아사노(淺野)문고 한국전적

藤本幸夫, 「廣島市立淺野圖書館藏朝鮮について」, 『書誌學』 26, 27호, 1981.

⑤ 대마종가(對馬宗家)문고 소장 한국전적

藤本幸夫, 「宗家文庫藏朝鮮本に就いて」, 『朝鮮學報』 99 · 100집. 1981.(1683년 對馬宗家文庫 발
행 『天和三年目錄集』 참조)

⑥ 이마니시 류(今西龍)蒐集文庫 소장 한국전적

書籍文物流通會, 『朝鮮關係文獻目錄』, 1929.

⑦ 東洋文庫 한국전적

1937년 발표된 『東洋文庫 朝鮮本分類目錄』을 증보 발간한 1979년 목록에서 발췌 수록.

⑧ 오사카부립도서관 소장 한국전적

1923년의 『韓本目錄』을 1968년에 증보 발간한 목록.

⑨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가와이(河合)문고 한국전적

⑩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적

국립국회도서관 참고서지부(參考書誌部), 『朝鮮關係資料目錄』, 1975.(舊 帝國圖書館 도서 인수, 조선본은 약 1,000부)

⑪ 궁내청 서릉부 소장 한국전적

⑫ 도호쿠(東北)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한국전적

⑬ 니시오(西尾)시립도서관 소장 이와세(岩瀬)문고 한국전적

⑭ 교토부립 종합자료관 소장 한국전적

⑮ 존경각 소장 한국전적

⑯ 아이치(愛知)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간재(簡齋)문고 한국전적

⑰ 나고야(名古屋)시 교육위원회 소장 蓬左文庫 한국전적

『名古屋市蓬左文庫漢籍分類目錄』(1978) 중 「朝鮮史類」·「朝鮮人文集」 발췌

⑱ 내각문고 소장 한국전적

⑲ 濯足庵文庫 所藏 韓國典籍

금택 박사(金澤博士) 소장 어학 관련 자료 64종에 대한 『환력기념(還曆記念) 자료집』(1933)년 중 우리나라 전적 발췌

⑳ 오차노미즈(お茶の水) 도서관 소장 성궐당(成簣堂)문고 한국전적

* 『(일본소재)한국고서목록』, 국립중앙도서관, 1994(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온 복사물 목록)

* (개정판)『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2011(국립중앙도서관에 서 1982~2010년까지 수집한 국외소재 고문헌 영인본 및 마이크로 필름 자료를 정리한 목록)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 京都大學 學術出版會, 2006.

* 藤本幸夫, 『일본현존조선본연구-사부(史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2) 개별 도서관 목록

■ 한국 기관 작업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1991~2002)

* 『일본 京都大 河合文庫所藏韓國本』, 1993.

*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도서관 아사미문고』, 1996.

- * 『日本 國立公文書館 韓國本 目錄』, 1998.
- *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 目錄』, 2001.

그 외로 나고야의 蓬左文庫(1991), 교토 相國寺(1992), 京都 南禪寺 初雕大藏經(1996), 대마도의 역사민속 자료관(2002)을 조사하였으나, 이들 자료에 대한 정식 목록은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⁷⁰⁾

<국립문화재연구소>(2003~2014)

- * 『日本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所藏 韓國本』, 2005.
- * 『日本 尊經閣文庫 所藏 韓國本』, 2006.
- * 『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2008.
- * 『일본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4.

<국외소재문화재재단>(2014~현재)

- * 『일본 도쿄대학 소장 오구라문고 한국전적』, 2018.
- * 『일본 세이카도문고 소장 한국전적』, 2018.
- * 『일본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 한국전적』, 202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수집 한국 고전적 목록』, 보고서, 2009.
-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동아시아인문정보학연구센터 공편,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가와이문고 한국고서목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 개인 작업(1990년대 후반 이후)

- * 요시다 미쓰오(吉田光男), 「아가와(阿川)문고 목록」, 『조선문화연구』 제5호, 동경대학문학부 조선문화연구실, 1998.
- * 후쿠이 레이(福井玲), 「오구라(小倉)문고 목록」, 『조선문화연구』 제9호, 2002.
- * 후쿠이 레이, 「오구라문고 목록」.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70) 서지학회의 해외전적조사 사업의 경과에 대해서는 박상국의 「해외 전적조사와 프랑스 조사」(『문화재』제36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381~2면)를 참조할 수 있다.

2012.

- *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지식산업사, 2003.
- * 장동익, 「京都대학에 소장된 한국 고전적자료의 정리와 해제」,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조사보고』 3, 국사편찬위원회, 2007.

2. 연구 논저

1) 총괄 및 주제별 연구

- * 천혜봉, 「日本圖書館所藏의 韓國古典 ‘特輯’」, 『도서관』 128, 1969.
- * 박대삼, 「日本에 所藏된 韓國古典 및 活字本の 歷史的 考察」, 『논문집』 5, 경성대학교, 1984.
- * 심우준, 『日本傳存 韓國逸書研究』, 일지사, 1985.
- * 심우준, 『日本訪書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 심우준, 「日本에 流傳된 韓國版 釋家類典籍」,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1995.
- * 정광 · 藤本幸夫 · 최명옥 · 송철의 · 심경호, 「국의 국어사 자료 연구-일본 京都大學과 大東急 記念文庫 소장의 한국본을 중심으로」(1) / (2), 『국어사자료연구』 제1~2호, 국어사자료학회, 2000~1.
- * 최승희, 『일본소재 한국고문서』 전2책, 국사편찬위원회, 2002.
- * 심경호, 「일본 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18집, 대동한문학회, 2003.
- *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일본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제2집, 2003.
- *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1~3, 국사편찬위원회, 2002~07.
- * 정 광, 「일본에 소장된 국어사 자료」,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2006.
- * 노경희, 「일본소재 정약용 필사본의 소장현황과 서지적 특징」, 『다산학』 9,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 * 후지모토 유키오, 「일본소재 한국고문헌에 대한 조사와 그 서지학적 연구」, 『민족문화』 31, 한국고전번역원, 2008.
- * 천혜봉, 「일본소재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과제」, (개정판)『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2011.
- * 이해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외소재 고문헌 수집 사업의 성과와 과제」, (개정판)『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2011.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 * 옥영정, 「해외 소장 한국본의 정리 현황과 과제」,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 * 김문경, 「일본의 고전적 수집과 정리의 역사, 현황과 전망」, 『민족문화』, 한국고전번역원, 2017.

2) 개별 도서관 조사 논문

- * 천혜봉, 「足利學校의 韓國古典에 대하여」, 『서지학』 2, 한국서지학회, 1969.
- * 천혜봉, 「內閣文庫의 韓國古活字本에 대하여」, 『서지학』 3, 한국서지학회, 1970.
- * 천혜봉, 「河合文庫 韓國典籍」, 『태동고전연구』 10, 태동고전연구회, 1993.
- * 정병설, 「일본 교토대학 소장 새자료 소개 :한국고전소설 14종 및 한글번역 『서상기』 외」, 『문헌과해석』 28, 문헌과해석사, 2004년.
- * 장재용, 「캘리포니아대학 동아시아도서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지학보』 30, 2006.
- * 박진완, 「京都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금석집첩』 자료 현황」,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조사보고』 3, 국사편찬위원회, 2007.
- * 노경희, 「일본 서고 기행 ①-교토대학의 가와이(河合) 문고」, 『문헌과해석』 49, 문헌과해석사, 2010.
- * 노경희, 「일본 서고 기행 ②-오사카 부립도서관의 한본(韓本)문고」,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 윤동원, 「河合文庫 한국고전적 고찰」, 『디지털도서관』 63,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11.
- * 김문식, 「데라우치 문고(寺內文庫)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55, 2011.
- * 유춘동, 「일본 토야마[富山]대학 소장, <朝鮮開化期大衆小説原本컬렉션>의 서지적 연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11.
- * 유춘동, 「일본 고마자와(駒澤) 대학 다쿠소쿠(濯足) 문고 소장, 조선전적(朝鮮典籍)과 고소설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 * 정재영, 「남선사 소장의 한국본 고문헌 자료에 대하여」,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 * 후쿠이 레이(福井玲), 「小倉文庫의 특징에 대하여-중세어 자료와 대마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 * 김정대, 「경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데라우치(寺內) 문고 한국본 자료에 대한 검토」,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 * 백진우,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한국 고서에 대해-자료 개관·연구 현황·연구 과제·특징적 면모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6, 2012.
- * 노경희, 「일본 서고 기행 ③-게이오 대학교의 와타나베(渡邊) 문고와 조선통신사 자료」, 『문헌과해석』 62, 문헌과해석사, 2013.
- * 노경희, 일본 서고 기행 ④-정가당문고의 육심원 구장서 송원판본과 한국고전적, 『문헌과해석』 68, 문헌과해석사, 2014.
- *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6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 * 권순희, 「일본 동양문고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민족문화연구』 65, 2014.
- * 양보경,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한국본 고지도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0/6, 대한지리학회, 2015.
- * 김주필, 「대마도 宗家文庫 소장 한글 書簡類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학논총』 43,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5.
- * 송호빈, 「일본 동양문고 한적 정리 사업의 전개와 현황」, 『민족문화연구』 7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 * 정승혜, 「일제강점기 小倉進平의 朝鮮 典籍 수집」, 『대동한문학』 49, 2016.
- * 김원규, 「돌아온 경남대학교 데라우치문고(寺內文庫) 20년」, 『가라문화』 28, 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2016.
- * 요시무라 히로미치, 「양명문고의 한적」, 『한자한문연구』 11,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16.
- * 유춘동, 「일본 쓰쿠바 대학의 조선 관련 서적과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의 장서」, 『동양학』 69, 2017.
- * 유춘동, 「일본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9, 한국서지학회, 2017.
- * 후지모토 유키오, 「가와이문고 개관」,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 * 平成 30년도 교토대학 도서관기구 귀중서 공개 전시 도록, 『한국고문헌의 세계』, 2019.
- * 노경희, 「상트페테르부르크 · 도쿄 · 버클리 ·의 조선 고서들」, 『문헌과해석』 86, 2020.
- * 박영민, 「한국고문헌의 유통과 지식의 전파-일본 교토대학 소재 한국고문헌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근역한문학회, 2021.

Ⅳ. 일본 소재 한국고문헌 자료의 디지털 자료 공개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학 자료 원전의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고전번역원,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연구회 등 주요 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소규모 연구 기관도 적지 않다. 그리고 해외에 소장된 다양한 기관의 한국고문헌 자료들을 통합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의 디지털화 작업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미국의 여러 사이트들, 거기에 일본과 대만, 중국, 유럽 등 각국의 기관에서도 공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작업은 새로운 자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 어제 없던 자료가 오늘 확인될 수도 있다. 고정불변의 자료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료들인 것이다.

■ 일본 고전적 검색 및 디지털 화상 제공 사이트(조선 고문헌 관련)

<한국>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 *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아사미문고 포함)
- * 일본 동양문고
- *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일본>

- * 일본 소재 전국 한적(漢籍) 검색(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http://kanji.zinbun.kyoto-u.ac.jp/kanseki?detail&or=FA019705>

- * 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digital.archives.go.jp/>

- * 와세다대학 고전적 종합 데이터베이스

<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

- * 궁내청 서릉부 수장 한적 검색

http://db.sido.keio.ac.jp/kanseki/T_bib_search.php

*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https://dl.ndl.go.jp/>

*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https://wwwap.hi.u-tokyo.ac.jp/ships/>

*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http://www.ioc.u-tokyo.ac.jp/database/index.html>

* 국문학연구자료관 · 국립사료관

<https://www.nijl.ac.jp/search-find/#database>

* 규슈국립박물관-쓰시마 소케(宗家) 문서

<http://collection.kyuhaku.jp/souke/database/public/>

<한국 일본 공통>

East Asia Digital Library

<https://eadl.asia/home/>

<참고논문>

* 정순일, 「일본고대사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의 활용」, 『인문학연구』 29, 2015.

* 김시덕, 「일본어의 역사적 전적에 관한 대형 프로젝트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학논집』 62, 2016.

* 김문경, 「일본의 고전적 수집과 정리의 역사, 현황과 전망」, 『민족문화』, 한국고전번역원, 2017.

* 김시덕, 「고전 한국학 연구에 유용한 일본 학술 사이트 소개-원문 이미지 제공 사이트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51, 2018.

* 정순일, 「일본 고전적 소장기관의 자료 디지털화 현황과 시사점」, 『한문학논집』 49, 2018.

* 노경희, 「동아시아 고전 연구의 자료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원본과 디지털 자료의 교섭」,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2019.

* 노경희, 「상트페테르부르크 · 도쿄 · 버클리 · 조선 고서들」, 『문헌과해석』 86, 2020.

원주 불교문화재 보존과 (가)국립원주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이인재(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1. 원주문화원의 문화재 환수 운동과 (가) 국립원주박물관 건립
2. 원주 철불과 강원 철불
3. 원주남한강 승탑과 승탑비
 - 1) 홍법사 염거화상 승탑
 - 2) 홍법사 진공대사 승탑과 승탑비
 - 3) 거둔사 원공국사 지종의 승탑과 승탑비
 - 4) 법천사 지광국사 해린 승탑과 승탑비
 - 5) 영천사 보제존자 동서 사리탑
 - 6) 원주 남한강 승탑의 주인공들
4. 맺음말

1. 원주문화원의 문화재 환수 운동과 (가) 국립원주박물관 건립

1차 반출문화재 환수운동(1994~2002)은 1994년 10월 4일 박경수 14대 국회의원(원주형성, 1992~1996)이 원주문화원을 방문하여 반출문화재에 대한 배경설명 및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¹⁾

순번	종류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현)	소재지(원)
1	국보	제101호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	경북궁 경내	부론면 법천사 법천사지
2	국보	제104호	전 홍법사염거화상탑	국립중앙박물관	지정면안창리홍법사지
3	보물	제190호	거둔사원공대사승묘탑	국립중앙박물관	부론면 정산리 거둔사지
4	보물	제463호	진공대사탑비 비신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지정면안창리홍법사지
5	보물	제365호	홍법사 진공대사 탑 및 부 석관	국립중앙박물관	지정면안창리홍법사지
6	보물	제358호	영전사지 보존제자 사리탑 2기	국립중앙박물관	태장동 영전사
7	보물	제358호			
8	—	보물급	천수사 오층석탑	국립중앙박물관	원주시 천수사
9	—	보물급	천수사 삼층석탑	국립중앙박물관	원주시 천수사

1) 이하 원주문화원의 원주문화재 환수운동은 필자의 다음 글을 정리한 것이다. 이인재, 2016 「제13장 20세기말~21세기초 원주지방의 문화재 환수운동과 복원·재현사업」 『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

1994년 12월 14일 원주군(41대 군수 김기열)은, 문화재환수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통합 원주시 지방정부(초대 시장 김대중)가 계승하여, 1995년 3월 20일 원주문화원(13~14대 원장 박형진)이 「지역문화재환수협조」 공문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발송하였다. 1995년 4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은 도난 위험 등의 문화재 보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 공문을 전달하였다.

2차 반출문화재 환수운동(2003~2004)은 2005년 10월에 국립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 개관하게 됨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3일 원주문화원 이사회에서 문화재 환수 재추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고, 6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원주지역 문화재 반환 요청을 하는 한편, 6월 25일 원주문화원의 협조 요청으로 원주시장, 원주시의회 의장, 원주시 국회의원이 공조하여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2003년 7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은 ① 원주문화원이 반환 요청한 문화재는 기왕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 유물로 등록, 관리, 전시되고 있는 국가소유문화재이고, ② 우리나라 석조문화재의 흐름을 관람객에게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신축중인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요 전시품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반환이 불가하므로, ③ 대안으로 재현품再現品을 제작하여 원소재지에 전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④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석조유물들의 안전한 보존 관리와 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지키고 고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광국사 현묘탑 재현품을 건립할 때 소요될 20억여원의 재원에 대해서는 원주문화원을 통해 국고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재현품 제안(2003. 7. 5)을 첫 번째로 구현한 유물이 보물 190호인 거둔사 원공국사 승묘탑이었다. 2005년 6월 8일 원주문화원 사무국장이 대전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재현 대상품을, 대상 석조문화재 가운데 위치가 고증된 유물로 하자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2006년과 2007년, 원주시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삼자 협동으로 진행된 재현품 제작은 문화재청이 예산을 확보(2억)하여 원주시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원주시청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절차를 밟아 발주하였고, 2007년 10월 30일 재현품이 거둔사 현장에 설치되었다.

거둔사 원공국사 승탑을 재현한 원주시는 2008년과 2009년 흥법사 진공대사 승탑비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진공대사 승탑비의 귀부와 이수는 흥법사 현장에 있고, 비신은 임진왜란 당시에 파괴되어 비신 윗부분 1조각과 아래 부분 3조각만 남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눕혀진 상태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복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반출 문화재 환수 운동은, 2018년 6월 21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6년부터 보존처리해 오던 지광국사승탑을 대상으로 “고려 미美·상想 지광국사탑을 보다”라는 2018년 6월 22일 학술심포지움 주최를 계기로, 2018년 7월 20일 원주시의회에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곽희운 의원)”을 채택하고,²⁾ 2018년 9월 11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³⁾ 원주문화원 박순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주문화재 지광국사탑 환수추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는, 2019년 2월 21일 원주시 부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천사지 지광국사 승탑을,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이 아닌 원위치인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하는 대승적 방안을 검토한 후⁴⁾ 2019년 6월 20일 이전을 결정하였다.⁵⁾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원주역사박물관의 요청으로, 법천사지에 남아 있는 지광국사 승탑비마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옮겨 보존처리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⁶⁾

일부이지만 이렇게 원주에 재현 문화재와 복원문화재가 반환되면서, 지난 30여년의 반출문화재 환수운동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이다. 국가 규모로 전국 문화재를 고민해야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 석조문화재의 흐름을 관람객에게 효율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원주 문화계는 반출문화재를 원소재지로 귀환시킴으로써, 21세기 한국 중세국가의 중앙 문화역량과 함께 복원경과 원주를 시작으로 하는 지방 거점문화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복원시켜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 세계 근대 산업문화가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고대 상상을 통해 추진되었듯이, 21세기 세계 근대 디지털문화는 새로운 중세 상상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양자의 문화 역량을 어떻게 수렴하고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21세기 원주 문화계가 많이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2) 노정은 기자, 「원주시의회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고향으로 귀환시켜야」『뉴스1』(2018. 7. 20)

3) 김여진 기자, 「도의회,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이전복원 촉구」『강원도민일보』(2018. 9. 11)

4) 박상현 기자, 「고려국사 지광스님, 강제퇴거 백년만에 원주간다」『연합뉴스』(2019. 2. 27)

5) 이성수 기자, 「110년만에 환지본처하는 지광국사 부도」『불교신문』(2019. 6. 21)

6) 김설영 기자, 「지광국사 현묘탑비 보존처리 돌입」『강원일보』(2021. 1. 28)

2. 원주 철불과 강원 철불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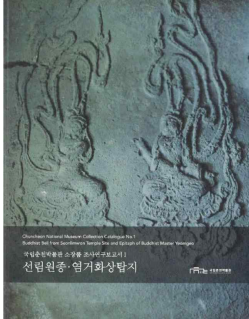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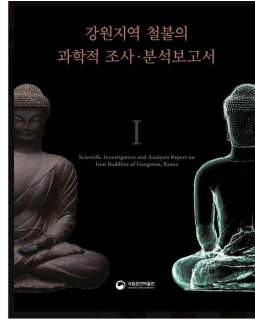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1



2010년대 춘천국립박물관은 원주 문화재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와 전시를 진행하였다.

2014년의 염거화상 승탑과 탐지에 관한 연구 및 전시, 2018년 영월 창령사 터

그림 4) 본 1972



오백나한, 2020년 강원지역 철불의 과학적 조사 분석 보고서 등이다.⁷⁾ 염거화상 승탑은 원주 흥법사에 있던 승탑이고,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도 원주 문화권에 있던 나한상이며, 강원 철불보다는 원주 철불, 광주 철불로 불리던 철불들이다. 모두 나말여초 사회적 격변기에 조성된 문화재들로, 남북국기 신라 북원경 시대와 고려왕조 설립기의 남한강, 원주 문화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들이다.

그림 5) 본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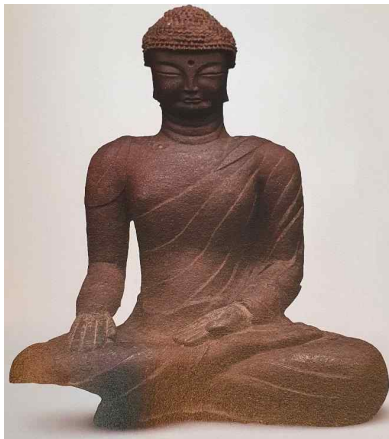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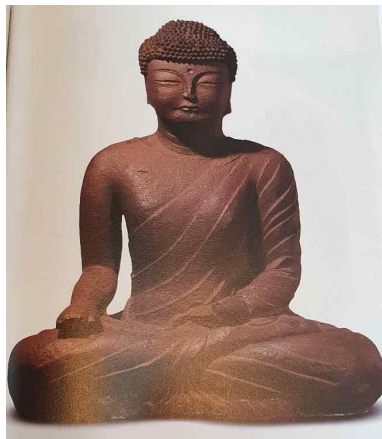


그림 6) 본 1971



이 세 쇠부처님(철불)은 1916년 원주 학성동(본부면 읍옥평)에서 서울로 옮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⁸⁾ 결가부좌하고 오른손을 아래로 내린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 세 부처님을 보면, 사각형 얼굴에 눈과 눈썹이 옆으로 길고,

7)

https://chuncheon.museum.go.kr/html/kr/event/event_03_02.html?tmpl=kr&linkid=070204&book_gubun=04

8)

https://portal.nrich.go.kr/kor/historyinfoView.do?menuidx=616&book_id=5#link

그림 8 광주철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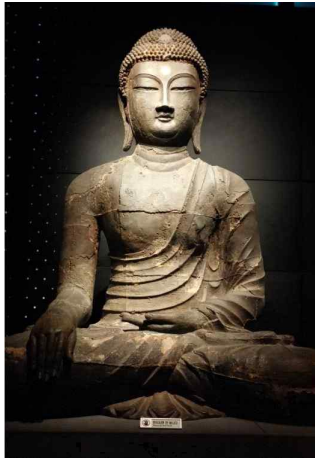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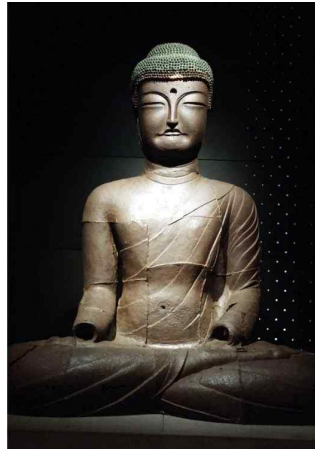


그림 7 서산 보원사 철불



좁은 콧대에 입술이 얇고 잔잔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으며, 짧은 턱에 하악골이 넓다. 당당한 어깨는 젊음이 넘친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우견편단) 세 부처님의 옷 주름이 유사하고, 왼 팔이 접히는 부분에 보이는 리본 형태의 주름 역시 비슷하며, 결가부좌한 자리 아래의 치맛자락(군의裙衣)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세 부처님은 동일한 공방에서 제작하였을 것이

다.⁹⁾

흥미로운 것은 나말여초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원주 석가모니 세 부처님이 광주 천왕사터에서 발굴된 광주 쇠부처님과 제작 기법이 다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산 보원사 터에서 발굴된 석가모니 쇠부처님과 제작 기법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입 모양이다. 원주의 세 부처님과 달리 광주 부처님은 인중이 짧고 입이 작다.¹⁰⁾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상체의 옷 주름은 매우 뚜렷하고, 하체의 옷 주름 역시 매우 뚜렷하다. 마치 석굴암의 본존상이 재현된 것처럼 8세기 신라의 불상형식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최성은은 연이어 원주 쇠 부처(철불) 제작자 가운데에는 지증 도헌 큰스님(824~882) 기록에 자신의 단월檀越이었으며 대아찬이었던 고故 김계종金繼宗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던 거둔사 장륙불丈六佛(석가모니를 경모하는 마음에서 두 배 크기로 만든 부처) 쇠부처(철조장육불상鐵造丈六佛像)가 광주 철불처럼 경주의 조각가들과 복원경 조각가들이 참여하여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반해 원주 학성동에서 반출한 원주 세 부처님은 서산 보원사터에서 발굴된 쇠부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고려 4대 광종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법민국사 탄문(900~975)

9) 최성은, 2013 「제3장 중부지역에 확산된 불교조각 : 석불과 철불」『고려시대 불교조각연구』, 1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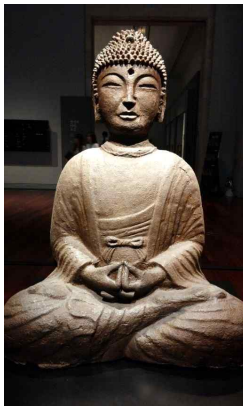
10) 최성은, 2013 「제2장 광주철불좌상과 통일신라 도상의 계승」『고려시대 불교조각연구』, 70~74쪽.

이 제작한 석가 삼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형감과 도상양식 면에서 원주 세 부처님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다. 눈이 옆으로 길고, 좁은 콧대에 입술이 얇은 사각형 얼굴이

그림 9) 본 1970



그림 10) 본 1973



다. 가로로 긴 입술은 양끝이 약간 처져 있어 토속성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주 세 쇠 부처님과 서산 쇠 부처님은 같은 공방 혹은 같은 유파의 조각가들이 제작하였다고 본다.¹¹⁾

기록에만 보이는 거둔사 철조 ‘장륙불’ 상鐵造丈六佛像 제작을 중앙 품이 강한 경주와 북원경의 조각가들이 조성하였다면, 원주 세 부처님과 서산 부처님은 신라 하대에는 변방의 작가였다가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작가로 위치를 탈바꿈한 그런 작가가 제작한 셈이 된다. 쇠부처 제작을 단서로 본 나말여초 원주 문화계는 변방에서 중앙으로, 동시에 중앙에서 변방으로 작품의 선호도와 작가의 위치가 소용돌이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원주 학성동에서 반출된 약사여래 쇠부처님과 아미타불 쇠부처님이다. 두 부처님의 눈썹은 웃고 있는 모양새이고, 하악골이 둥굴면서 입술 윤곽선 역시 웃음끼를 띤 모습이다. 원주 세 부처님과 달리, 두 부처님은 양쪽 어깨를 감싸는 옷차림에 약함藥函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옷 매듭을 묶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다. 요컨대 얼굴 표현, 신체 표현, 옷차림, 옷 주름 등이 또 다른 조각가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존 5점의 원주 반출 쇠부처를 보면, 최소한 세 부류의 작가들이 확인된다. 전통시대 화려했던 신라 중앙에서 활동했던 작가들과, 변방에서 출발하여 고려 중앙으로 활동영역을 넓힌 작가들, 그리고 신라 중앙과 고려 중앙과 상관없이 원주 고유의 부드러운 쇠부처님을 제작하려고 애썼던 원주 작가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고작 5점의 원주 반출 쇠부처만으로도 나말여초 원주 문화계의 역동성을 확인한 사람들은, 원주철불이 아닌 강원철불이라는 명칭을 받아들이긴 매우 어렵다. 전국적으로 겨우 70여점에 불과하지만 출토지 혹은 제작처 확인이 가능한 철불이 30여점이 있음을 안다면, 철불들의 지역 특성과 지역 문화계의 동향, 그리고 당시 철불을 제작한 작가와 후원자와의 상관성을 깊이 있

11) 최성은, 2013 『제3장 중부지역에 확산된 불교조각 : 석불과 철불』 『고려시대 불교조각연구』, 1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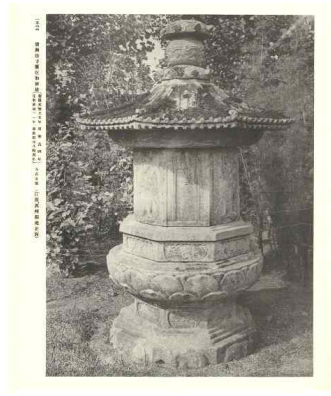
게 분석하는 것이¹²⁾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유이다.

3. 원주남한강 승탑과 승탑비

1) 홍법사 염거화상 승탑

염거화상(?~844) 승탑은 현존하는 승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승탑이다. 844년 9월 29일 입적한 후 10여년 만인 855년에 제작된 염거화상 승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승탑을 만들게 된 내력을 기록한 것이 탑지塔誌인데, 금동으로 만든 염거화상 탑지는

그림 1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12년경 원주에서 반출된 염거화상 승탑은¹³⁾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조선고적도보』 제4책 (1916.3)에는 “폐廢홍법사興法寺염거廉巨화상탑 (신라 문성왕5년, 당 회창4년, 일본 승화承和11년, 야소기耶蘇紀元 844년), 지금은 경성에 있음今在京城 (강원원주군지정면)” 으로 기록해 놓아, 염거화상 승탑이 홍법사 터에서 반출되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

그림 12



현재 국립춘천박물관 1층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기단부 하대석에는 사자를 새겨 놓았고, 중대석에는 코끼리 눈(안상眼象)에 향로를 새겨 놓았다. 상대석에는 연꽃을 두 줄로 두른 후에 여러 조각을 장식해 놓았다.

탑신부 탑신석에는 문짝과 함께 사천왕상을 새겨 놓았고, 옥개석은 목조건축

양식을 잘 따랐다. 탑신석 상부 구멍에는 탑지가 모셔져 있었다.

1912년경 원주에서 반출된 염거화상 승탑은¹³⁾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조선고적도보』 제4책 (1916.3)에는 “폐廢홍법사興法寺염거廉巨화상탑 (신라 문성왕5년, 당 회창4년, 일본 승화承和11년, 야소기耶蘇紀元 844년), 지금은 경성에 있음今在京城 (강원원주군지정면)” 으로 기록해 놓아, 염거화상 승탑이 홍법사 터에서 반출되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

국내 혹은 국제 학계에서 염거화상 승탑이 원주 홍법사에서 반출되었다는 조선총독부 기록을 불신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반출 정보에 대한 조선고적도보의 오기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가지산문인 염거화상 승탑이 산문 연고가 없는 원주에서, 그것도 봉림산림으로 규정된 홍법사에서 반출되었다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현 홍법사 터에 염거화상 승탑 자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2) 김혜완, 2000 「보원사 철불의 조상 - 고려초 원주 철불과 관련하여」 『사람』 14.

13) 엄기표, 2015 「원주 홍법사지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인문과학연구』 46 (강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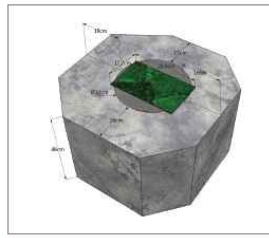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도3-1 탑지 불언 해설도

그런데 그 해답은 의외의 자료에 있었다. 고려태조 왕건이 작성한 흥법사 충담승탑비문에 “흥법사는 오래된 절 이면서縱爲古寺 항상 어짐을 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곳尙在仁方이었고, 충담 이전에도 흥법사에서 어떤 화상이 살아생전 영원히 무언가를 탐색하느라 몸 붙일 데 없이 바빠하던 곳◎◎和尚生前永作栖遑之處 ◎◎大師 ◎◎◎◎ ◎◎◎◎”이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이다. 이 화상이 아마도 염거화상이었을 것이다.¹⁴⁾

그리고 원주 지배층이 염거화상을 그렇게 평가했던 이유는, 현욱이 840년 고달사로 옮겨오고 염거가 844년 입적하기 사이에 조성된, 그리하여 염거화상에게 공부한 이관이 합류한 혜목학풍 때문이었다. 여주 고달원 현욱의 제자였던 심희(855~923)가 유학의 필요성을 묻는 사람에게 “선종(禪宗)은 이미 동류(東流) 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중국 유학을 갈 것인가, 나는 이미 혜목학풍에서 그 경지를 접할 수 있었다(自達摩付法 惠可傳心 禪宗 所以東流 學者 何由西去 貧道 已□□目 方接芳塵)”고 자부하고,¹⁵⁾ 제자 자적 홍준(882~939)에게 “조사에서 조사로 서로 전하여 저 백암에게 전해져 우리 동해에 이르렀으니, 단절되지 않게 하여 그 도를 더욱 아름답게 해 왔다(天竺傳心之祖 善檻達摩大師 東入中華 □□□□ 直至曹溪之祖 祖祖相傳 傳彼百巖 達于東海 不令斷絕 其道彌善)”고 현욱과 이관의 학풍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동류東流, 달우동해達于東海 기도미선其道彌善이 전술한 혜목학풍이었다.¹⁶⁾

14) 이인재, 2016 「제8장 흥법사 선사(禪師) 충담(忠湛, 869~940)의 생애와 충담비 마멸자(磨滅字) 보완 수용 문제」『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

15) 남동신, 1992 「鳳林寺 眞鏡大師塔碑」『한국고대금석문』3.

16) 이인재, 2016 「제9장 고달사 학풍의 불법동류佛法東流와 부동선원不動禪院」『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

2) 흥법사 진공대사 승탑과 승탑비

그림 16



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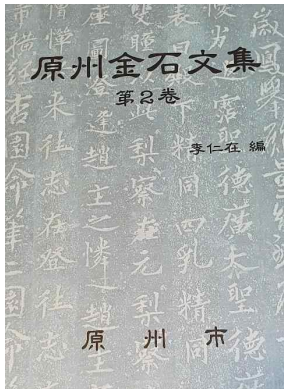


그림 18) 흥법사 진공대사탑비,
1972년 조동원교수 拓本



진공대사 충담忠湛(869~940)은 844년 염거화상이 입적한 후 80여년이 지난 930년 전후에 태조 왕건의 요청으로 흥법사로 들어와 10년간 인도불교사 연구에 매진하였다.¹⁷⁾ 염거화상의 ‘불법동류佛法東流(= 해동불교가 천하불교의 중심이라는 생각)’가 진공대사의 인도불교사 연구로 한층 더 해동불교의 역사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업적에 감사하여 태조 왕건이 직접 비문을 짓고, 중국 당태종의 글씨를 집자(集字 필요한 글씨를 찾아 모음)하여 진공대사 승탑비를 제작하였다.

오경석(1831~1879)의 정보에 따르면,¹⁸⁾ 흥법사 터에 있던 이 비는 임진왜란 당시 왜구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조각이 났다. 그러나 일본으로 반출하진 못하고, 조각난 상태로 감영 부근에 있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인 1635년(인종 13) 즈음의 진공대사 승탑비의 상태에 대해서는 강원도 관찰사였던 이민구(1589~1670)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¹⁹⁾ 사람들이 충담비를 하도 탁본을 많이 하여, 고을 관아로 옮겨 놓았는데, 근년에 한 무인이 고을 영장으로 와서 대장간을 설치하고, 그 위에 쇠를 단련하다가 돌이 깨어져 여러 조각으로 망가져, 주춧돌이나 담장 밑돌, 다듬잇돌로 쓰이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이민구가 돈을 주고 사들였는데, 2조각을 끝내 구하지 못했지만, 6조각은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856년 오경석이 본 것은, 이민구가 구입해 놓은 6조각이 아니라 원주 감영에 남아있던 2조각, 학성관 동쪽에 있던 1조각, 원주 주민이 빨래 조각으로 쓰던 1조각해서 모두 4조각뿐이었다. 이 4조각이 1913년경 이왕가 박물관으로 반출되었다가, 현재 상단부 1조각과 하단부 3조각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17) 이인재, 2016 「제8장 흥법사 선사 충담의 생애와 충담비 마멸자 보완 수용 문제」 『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

18) 吳慶錫, 1858 「興法寺眞空大師碑」 『三韓金石錄』

19) 李敏求, 1636 「興法寺碑歌并序」 『東州先生前集』 7. 金惠婉 편, 2004 「興法寺眞空大師塔碑」 『原州金石文大觀』.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나 육탈肉脫(살은 썩고, 뼈만 남음)된 후에 유골과 공양물을 모셨을 것이다.

진공대사 승탑의 기단부는 하대석과 중대석으로 나뉘는데, 하대석 하부는 평면 팔각형으로 각 면에는 좌우로 긴 코끼리 눈(안상眼象)을 새기고, 코끼리 눈 안에 꽃무늬를 가득 장식하였

받침돌(귀부)와 몸돌(비신), 그리고 머리돌(이수)로 구성된 진공국사 승탑비의 이수부에는 구름과 용이 가득 새겨져 있다. 이수부 정면 한 가운데에는 ‘진공대사眞空大師’라는 제액題額을 음각陰刻해 놓고, 전면 측면 후면 가리지 않고 9마리의 선명한 비늘을 가진 비룡飛龍을 새겨 놓았다. 단단한 화강암을 딱 주무르듯 만들어놓은 이수가 매우 인상적이다.

굵고 날카로운 다섯 발톱을 땅(지대석)에 굳게 딛고 선 귀부는 거북몸보다 용머리에 주목하도록 제작하였다. 강인한 이빨로 여의주를 문 입이나 솟을대문처럼 치솟은 콧대와 콧망울, 부리부리한 눈동자는 매우 강인하게 보이도록 장식하였다. 위에서 본 용머리에는 사각형의 홈이 파여 있어, 무언가의 장식을 껴안았음을 알 수 있다. 거북등은 목덜미부터 망토를 덮은 듯 입체감을 준 다음, 육각형의 귀갑문 안에 화려한 꽃무늬로 장식하고, 거북머리 쪽 좌우 귀갑문에는 특별히 ‘만근’자를 새겨 놓았다.

진공대사 승탑은 1911년 이미 곤도 사고로라는 일본 골동품상의 소장품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²⁰⁾ 아마 그 이전에 원주에서 반출되었을 것이다.

이건移建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승탑 탑신부에 사리공이 없음은 당연하다. 진공대사 승탑과 함께 사각형의 석관石棺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석관이 승탑 지하면에 매장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충담스님이 입적한 후 매장하였다가, 일정기간이 지

20) 엄기표, 2015 「원주 흥법사지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인문과학연구』 46 (강원대).

그림 24



그림 26



그림 27



그림 29



그림 30

그림 23



그림 25



그림 28



다. 하대석 상부는 귀꽃이 표현된 16개의 얇은 연꽃잎으로 장식하였다. 둥근 원통형의 중대석에는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비룡을 역동적으로 새겨 놓았고, 상대석에는 위를 향한 연꽃잎을 새겨 놓았다.

진공대사 승탑의 탑신부는 목조건축의 화려한 지붕형태의 옥개석과, 팔각면마다 양 모퉁이에 화려한 문양을 새겨 놓았고, 남쪽면에는 문짝과 자물쇠를 새겨 놓았으나, 그 외 7면은 비어있는 탑신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공대사 승탑의 상륜부는 현재엔 보개석寶蓋石만 있으나, 일제강점기 반출 직후에는 보주석寶珠石도 남아 있었다.

그림 24, 25, 26)은 여주 고달사 원종대사 찬유의 승탑과 기단부, 탑신부이다. 나말여초 남한강 교통로를 끼고 위 아래로 제작된 동일시대 승탑들이다.

그림 27)은 일본 동경의 네즈(根津)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승탑이다. 8면 가운데 네 면에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는데, 네즈 미술관의 설명문에는, 이 승탑 탑신부의 한 면석에 새겨진 사천왕상 가운데 북방 다문천이, 대지를 주관하는 지천地天 위에 서서 북방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덕을 주는 도발국 대왕 모습의 비사문천이 변한 신(도발비사문천兜跋毘沙門天)의 도상이라는데 특색이 있다고 설명해 놓고 있다. 엄기표는 이 승탑이 기단부 중대석의 제작 기법을 보아 흥법사에서 멀지 않

은 사찰에서 반출되었을 것으로 본 바 있다.²¹⁾

그림 28)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135호, 대구 산격동 연화운룡장식 승탑’이다. 반출지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1936년에 발간된 『청구학총』 24호 휘보(182쪽)에 실린, 1935년 조선총독부 보물·고작·명승 천연기념물보존회 총회와 지정예정물건 소개란에는 ‘강원도 원주 거둔사’에서 반출된 것이라고 나온다.

앞으로 진행될 흥법사지 발굴이나 거둔사지 재발굴에 기대해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승탑만으로도 나말여초 원주 남한강 문화권의 승탑 제작과 후원자들의 제작의뢰는 매우 독특한 문화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3) 거둔사 원공국사 지종의 승탑과 승탑비

그림 31



그림 33)



그림 36)



그림 32



그림 34)



그림 37)



원공국사 지종 승탑도 1911년 서울에 살던 와다 쓰네이치(화전상시和田常市)의 요구로 반출되었다가, 해방이후 우여곡절 속에 수습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원공국사 지종(930~1018) 승탑의 기단부 중대석의 각 면에는 안상眼象(코끼리 눈)을 새기고, 코끼리 눈 안에 부처님의 나라를 지키는, 8명의 신(팔부신중八部神衆)을 조각해 놓았다.²²⁾ 이들은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이들로, 손에는 검을 들고, 두 다리를 교차하여 앉아 있는 모양이었다.

기단부의 상대석과 하대석에는 연잎이 위로 향한 양련과 아래로 덮인 복련이라는 연꽃을 장식하였

21) 엄기표, 2003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337쪽.

22) 최성은, 2013 「제6장 현종대의 석탑 조각과 석조의장」 『고려시대 불교조각연구』, 195~201쪽.

그림 38)



석 팔각 지붕들은 매우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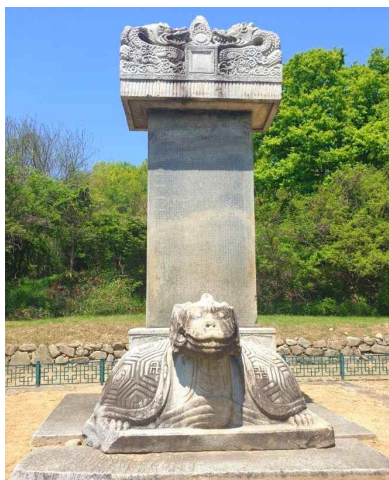
그림 39)



고, 하대석 아래 부분 8면에도 코끼리 눈(안상眼象)을 그려 넣었다.

원공국사 승탑의 탑신부는 옥개석과 탑신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개세하다.

그림 40)



되어 있었는데, 원품에 없는 보주도 재현품에는 모두 살려 놓았다.

그림 41)



그림 42



8각 원당 형식의 탑신석 8면 가운데 앞뒤 양면에는 문짝(문비門扉) 무늬가, 좌우 양면에는 창살무늬가 있는데, 문짝 무늬가 있는 면석 위에 원공국사승묘지탑이라는 탑명塔銘이 있다. 문짝 면석을 기준으로 남방 증장천, 서방 광목천, 북방 다문천, 동방 지국천의 순서로 머리에 투구 혹은 보관을 쓴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다.

상륜부는 보개, 보륜, 양화, 보주로 개의 파손된 귀꽃 부분과 사라진 보

받침돌(귀부)와 몸돌(비신), 그리고 머리돌(이수)로 구성된 원공국사 승탑비의 이수부에는 구름 속을 요동치는 비룡들이 불꽃으로 둘러싸인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이고 화려하다. 받침돌에 비해 머리돌이 상대적으로 조금 커 무거워 보이기도 한다.

귀부는 거북몸보다 용머리가 흥미로운 데, 어찌 보면 괴수 모양의 험한 인상을 하고 있다. 거북등에는 목덜미부터 망토를 덮은 듯 입체감을 준 다음, 정육각형의 귀갑문 안에 화려한 꽃무늬와 만근자, 왕王자로 장식해 놓았다.

4) 법천사 지광국사 해린 승탑과 승탑비

그림 43)



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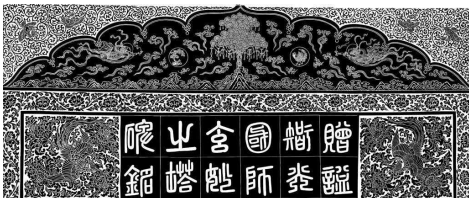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



중세시기 세계최고 장인들의 접착제 없이 돌을 얹거나 짜는 기술(결구結構), 돌 다루는 기술(치석治石) 뿐만 아니라 승탑과 승탑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승탑의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의미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승탑과 승탑비가 해린 비탑이다.²³⁾

해린 비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동서로 배치된 승탑비와 승탑의 관계이다. 해린 스님의 살아생전 모습은 승탑비 몸돌(비신)의 비문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글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해린 일생의 대표 업적을 제액(題額) 위의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해와 달, 신단수를 중심으로 한 역사화로, 법상종의 해동화海東化의 공을 잘 묘사해 놓았다.

해린 스님의 일생에 상을 준 것이 승탑비의 머리돌(이수)이고, 해린 스님을 사후세계로 이끌어 준 것이 받침돌(귀부)였다. 승탑의 디자이너들이 용머리거북몸의 귀부를 제작하면서 상상한 것은, 승탑 주인공들을 현실세계에서 사후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귀부龜趺였다. 그렇다면 승탑에 묘사된 사후세계는 어떠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을까?

해린 스님의 현실세계(삶)의 흔적인 사리는 탑신부 옥개석과 탑신석, 그 가운데 탑신석 윗 부분 사각형 구멍(사리공)안의 사리함 안에 모셨다. 전체적으로 불당처럼 꾸며진 탑신석 북면과 동면은 미륵보살의 미륵전, 남면과 서면은 문수보살의 문수전처럼 꾸며 놓았다. 승탑비 비문의 찬자 정유산이 설명해 놓은

23) 이하 내용은 다음 글을 정리한 것이다. 이인재, 2018 「지광국사 해린(984~1070) 비탑과 남한강 원주풍」『고려의 美·상·想, 지광국사 탑을 보다』

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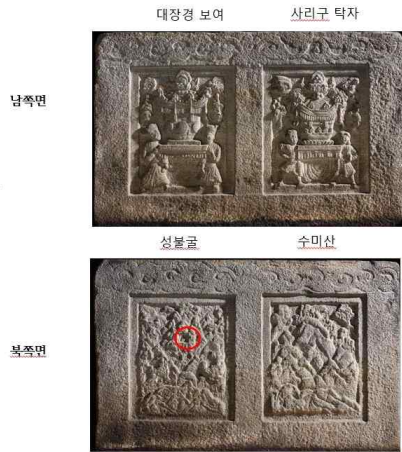


그림 48



그대로였다. 그러면 해린 스님은 왜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상충기단석의 사방 그림들이다.

우선 해린 승탑 디자이너의 디자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승탑의 기단부 가운데, 부처님이 설법하셨을 때 앉았던 사자좌獅子座 위에 배치한 상충기단석 그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자좌 위에 안내자인 승탑비의 용머리몸거북(귀부)이 현실세계에서 입적한 해린 스님을 사후세계 출발지로 안내한 곳이 승탑의 상충기단석이었다. 그러므로 상충기단석에는 해린 스님의 사후세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디자인을 해야 했다.

남면과 북면 그림은 바로 해린 스님의 대표 업적과 보상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승탑비에서 거론한 대표업적이 법상종의 해동화海東化라면, 승탑에서 거론한 대표업적은 ‘경조금언敬造金言’이었다.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판각하였다는 것이다.

승탑 상충기단석 남면의 대장경보여와 사리구탁자 그림은 바로 해린 스님의 대표적 업적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그 보상이 북면에 그려 놓은 수미산의 성불굴이었다.

승탑 상충기단석 동면은 사후세계에 막 도착한 해린 스님을, 그리고 서면은 해린의 업적으로 성류굴로 이끄는 신선이 용의 안내로 이동하는 그림을 디자인해 놓았다.

5) 영천사 보제존자 동서 사리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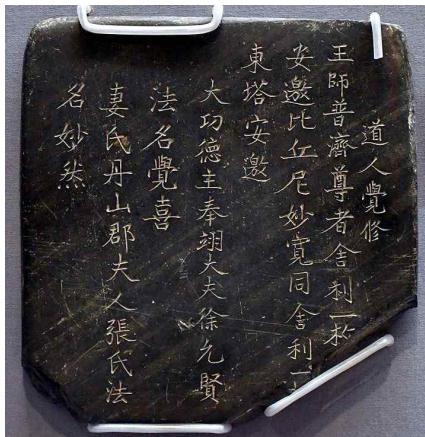
그림 50)



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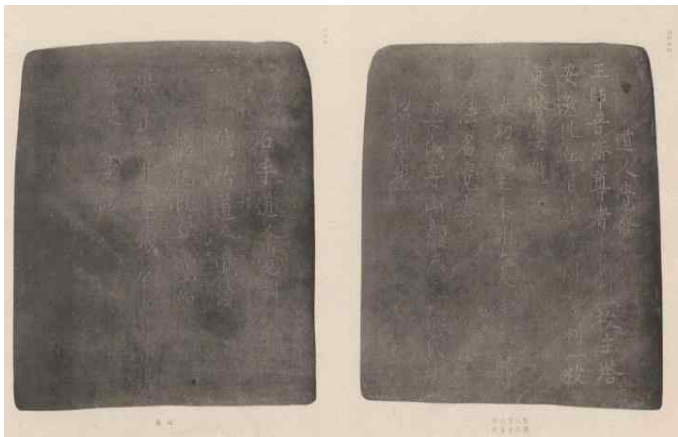
그림 52)



영천사 보제존자 나옹(1320~1376)의 동서 승탑은 기단부와 탑신석을 엮는 방법(결구結構) 및 돌 다루는(치석治石) 수법이 불사리를 봉안한 불탑과 거의 유사한데, 탑지塔誌가 발견되어,²⁴⁾ 불탑이 아닌 승탑임을 알게 되었다.

탑지에 따르면 원주에 있는 보제존자 나옹승탑은 1388년 도인 각수覺修가 보제존자의 사리 1매枚를 주탑主塔에 안치하고, 비구니 묘관妙寬은 보제존자의 사리 1매枚를 동탑東塔에 안치하는 것을 계기로 건립되었는데, 건립 당시 대공덕주大功德主, 즉 후원자가 서윤현徐允賢과 부인 장씨張氏였다.

그림 53)



각희覺喜라는 법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서윤현은 1372년경 판도사版圖司 책임자인 판사(정3품 벼슬)로 벼슬자리를 마친(치사致仕) 후, 종2품인 봉익대부를 받고 원주에 내려와 생활하던 인물이었다.²⁵⁾

전국 여러 곳에 세운 나옹(1320~1376) 승탑은 팔각원당형, 계단형을 비롯한 여러 형태가 있지만, 원주에는 해린 승탑과 같이 방형으로 만들었다. 지공과 나옹을 석가-가섭-정광여래로 간

24) (前面) 道人覺修王師普濟尊者舍利一枚主塔安邀 比丘尼妙寬同舍利一枚東塔安邀 大功德主 奉翊大夫徐允賢 法名覺喜 妻氏丹山郡夫人張氏 法名妙然(後面) 石手道人覺訓 爐冶道人覺清勸化比丘覺如 洪武二十一年戊辰四月日誌牧使姜隱.

25) 和前刺史閔公題徐奉翊郊居詩『耘谷詩史』卷2, 高麗名賢集 卷5, p307.

주하러 했기 때문이었다.²⁶⁾

6) 원주 남한강 승탑의 주인공들²⁷⁾

① **섬강·남한강 선종불교 1세대로서의 염거화상** : 섬강·남한강 선종 불교 세력이 역사에 큰 발자취를 드러내기 시작한 때는 서기 840년이다. 지금은 절터만 남은 섬강 북쪽 여주 고달사에는 현욱(玄昱, 787~868) 큰스님이, 원주 흥법사에는 염거(廉居, ?~844) 큰스님이 각각 머물고 있었다.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두 분 큰 스님이 서로 교류하면서 쌓은 한국 선종불교 문화의 초석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단단한 것이었다.

혜목산문(봉림산문)의 개산조인 현욱 큰스님은, 10여 년간의 당나라 유학생활을 마치고 837년 귀국하여 2~3년 지리산 실상산문 홍척 큰스님과 수철 큰스님의 학풍을 공부한 후, 원주 흥법사에 머물던 염거 큰 스님을 만나기 위해 고달사로 거처를 옮겼다. 가지산문의 2조 염거 큰스님(?~844)은 중국 유학 경험이 없는 국내파 스님으로 오랫동안 설악산 억성사에 머물다가 835년 원주 흥법사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시다가 844년 입적한 스님이었다. 유학과 스님 한 분(현욱)이 첫 국내파 스님(염거)을 만난 것이었다.

유학과였던 현욱 큰스님이 염거 큰스님을 만나러 여주 고달사로 거처를 옮긴 840년 즈음은, 국제적으로 중국 당나라에서 그 유명한 불교 탄압 사건인 회창 폐불이 일어난 때였다. 당나라 무종 임금(814~846)은 도교를 중시하면서 불교 탄압을 강행했다. 이 와중에 신라의 스님들이 유학 가서 배울만한 큰스님들도 사라지고, 읽을 만한 주요 불교서적들도 불태워졌다. 따라서 유학가지 않고, 국내에서 공부할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대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유학과 현욱 큰스님의 제자였던 심희(855~923) 큰스님께서, “선종의 큰 물줄기는 중국 당나라에서 신라로 동류東流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중국 유학을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는 예전에 중국 당나라 유학생활을 통해서야 인정받았던 선종 불교 수행 능력을, 굳이 유학하지 않고 한국 신라에서 배워도 된다는, 말하자면 ‘불법동류佛法東流’의 시대, 즉 해동불교의 독자성이 강조되던 첫 번째 시기였다.

섬강·남한강 선종불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유학과 현욱 큰스님이 원주 흥법사에 머물던 국내파 염거 큰스님을 만나러 여주 고달사로 온 이유는 바로 이런 ‘불법동류佛法東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욱 큰스님의 처지에서

26) 홍대한, 2017 「원주 전영전사 사리탑의 제작시기와 조영방식 연구」『동아시아문화연구』 69, 57쪽.

27) 이하 남한강·원주 승탑 주인공의 주요 활동과 역사적 평가는 필자의 다음 글을 옮긴 것이다. 이인재, 2019 「3장 진리가 흐르는 치악의 불교문화」『이야기로 만나는 치악산 국립공원 문화자원』.

는 784년부터 37년간 당나라 불교계를 유학한 경험이 있던 가지산문 개산조인 도의(道義, ?~827) 큰스님을 모시면서 국내에서만 불교를 공부했던 염거 큰스님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할 필요가 있었다.

섬강·남한강 선종불교 2세대 : 당시 가지산문 염거 큰스님의 제자로는 염거 스스로 중국 유학을 보냈던 유학과 체징(體澄, 804~880) 큰스님과, 불법동류佛法東流를 지지하던 국내파 이관(利觀, 811~880) 큰스님이 있었다. 이관 큰 스님은 스승인 염거 큰스님을 따라 원주 흥법사에 머물고, 여주 고달사를 오가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역시 국내파였던 회양산문 도헌(道憲, 824~882) 큰스님이 소백산을 넘어 원주 거둔사로 거처를 옮긴 시기가 864년이였다. 두 분 큰스님이 원주에 계실 때인 신라 경문왕(861~875) 시절엔, 선종 불교를 공부하려는 젊은 스님들이 중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공부해도 크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욱 큰스님과, 염거·이관·도헌 세 분 큰스님의 소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면서, 역사상 섬강·남한강 선종 불교 세력, 즉 원주 불교계가 거둔 첫 성과라 할 수 있겠다.

② **섬강·남한강 선종불교 3세대** : 섬강·남한강 선종불교 3세대 스님들로는 원주 흥법사의 유학과 충담(忠湛, 869~940) 큰스님과 치악산 동쪽이면서 남한강 상류에 해당하는 영월 흥녕사에 모셔진 국내파 절중(折中, 826~900) 큰스님, 그리고 원주 거둔사의 유학과 지종(智宗, 930~1018) 큰스님을 들 수 있다. 1세대와 2세대 스님들인 현욱, 염거, 이관, 도헌 큰스님들이 섬강·남한강 여러 절에서 단기 혹은 장기간 머물면서 성과와 업적을 이루었다면, 3세대 큰스님들은 충담 큰스님과 지종 큰스님처럼 전국적으로 활동하다가 입적에 즈음하여 흥법사와 거둔사에 모셔졌거나, 절중 큰스님처럼 섬강·남한강 선종불교계에 잠깐 머문 인연으로 훗날 고려 3대와 4대 임금인 정종 임금과 광종임금의 정치적 목적으로 영월에 모신 그런 스님들이었다.

지금 영월군 수주면 사자산 법흥사가 이 시기엔 사자산문의 흥녕사라고 불렸다. 절중(折中, 826~900) 큰스님이 50대 후반에 운예스님 초청으로 흥녕사에 몇 년간 머물다가 886년 민란이 일어나 떠난 일이 있었다. 이 인연을 근거로 944년(혜종1) 후일 고려 3대와 4대 임금이 되는 정종과 광종 형제가 주도해 절중 큰스님의 승탑과 승탑비를 영월 흥녕사에 건립했다. 절중 스님이 순수 국내파 승려로 흥녕사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덕이 중국과 신라에서 으뜸이라는 명성을 확보한 학승學僧이었기 때문에 훗날 국왕의 욕심이 있었던 정종과 광종 형제 임금들로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종과 광종 두 분 임금께서, 국제적 안목과 함께, 역사적 전통도 잘 알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겠다.

961년(광종 12) 중국이 오대십국시대로 보낼 시절, 중국 오월의 5대 임금이면서 불교에 심취

했던 전홍숙(錢弘俶, 929~988) 임금의, 당시 중국 어느 곳에서도 구하지 못한 『법화경 현의』라는 책이 고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 광종 임금에게 해당 책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광종 임금은 해당 요청을 수락하고 제관(諦觀, ?~970) 큰스님을 파견하였다. 그러면서 제관 스님에게, “만약 당시 중국 오월 불교계가 고려에서 보낸 불서佛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당시 불교계에 정통하고 자긍심 높은 임금이 광종 임금이었으니. 절충 큰스님의 승탑 이전 사업과 승탑비 건립 사업의 주도 역시, 형님이었던 정종 임금보다는 동생인 광종 임금이 주도했다고 보아도 좋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종과 광종 임금의 아버지, 고려 태조 왕건 임금의 불교계에 대한 공부 수준은, 두 아들보다 한 단계 위였다고 해도 좋다. 원주 흥법사의 충담(忠湛, 869~940) 큰스님의 승탑 비문을 지은 이가 바로 고려 태조 임금이었다.

후고구려 궁예, 후백제 견훤, 신라 경순왕과 겨루어 힘겨운 경쟁 끝에 후삼국을 통일하긴 했지만, 당시 신생왕조 고려 사람들 가운데에는, 왕건 임금이 새로운 왕조를 경영할 경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겠다. 특히 북원경과 섬강·남한강 및 치악산 불교문화권은 옛 삼국의 역사와 문화가 융합하는 지역이면서 궁예와 양길이가 맹활약했던 지역이었다. 그러한 지역에서 왕건 임금 스스로, 자신이 섬강·남한강 불교계, 문화계 리더로서의 수준을 고려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왕건 임금이 충담 큰스님의 승탑비문을 직접 지어야 했던 시대적 배경이었다.

충담 큰스님의 승탑 비문을 담는 승탑비의 규모나 화려함도 한 왕조의 창업주의 글을 담는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 시대를 대표할 만했다. 더구나 자신의 지은 비문을 승탑비에 새길 때 쓸 글자체를 위해, 당대 내노라 했던 문장가인 최언위(868~944)의 아들 최광윤(?~?)을 시켜 중국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글씨를 집자集字케 하였다. 집자란 여러 문헌에서 필요한 글자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고려 창업군주가 비문을 짓고, 그 비문을 돌에 새길 때, 당나라 태종 임금의 글자체를 여러 문헌에서 모아서 새기게 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중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군주의 모델이라 칭할 수 있는 이가, 요·순 임금과 당나라 태종 임금이다. 지금도 태평성대라고 알려진 요순시대는 군주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백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여서, 만약 어떤 군주가 요·순 임금을 모델로 한다면, 군주의 권한을 늘리기 보다는 백성들의 요청을 잘 수렴하여 덕으로서 통치를 해야 했다. 이른바 덕치德治 통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당나라 태종 임금은 당육전唐六典(우리나라의 경국대전과 역할이 같음)이라는 율령을 만들어 율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군주였다. 근현대에 시행되는 법치주의法治主義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율령이라는 체제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범위를 만들었

다는 점에서 매우 수준 높은 통치가 율령律令 통치라 할 수 있겠다.

요순처럼 통치할 것인가, 당 태종처럼 통치할 것인가는 제위帝位나 왕위王位에 오른 후대 군주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숙제였다. 고려의 창업군주 왕건 임금도 같은 과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충담 큰스님의 생애를 기리는 승탑 비문을 지은 다음, 그 글씨를 당 태종의 서체(書體, 글씨체)로 비신(碑身, 몸돌)에 새김으로써, 왕건 자신은, 당 태종처럼 앞으로 율령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 당나라와 똑 같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충담 큰스님 비문 가운데, 왕건 임금은 자신의 그런 의지를 ‘수방이토殊邦異土’, 네 글자로 드러냈다. 이 말의 뜻은, 나라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므로 중국 당나라와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그 당시 국제 기준이 되는 율령 통치를 고려 국가에 적용하되,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역사와 풍습에 맞게 변주하여 새롭게 적용하겠다는 뜻이었다. 비문의 작가로서 고려 태조 왕건 임금이 이 뜻을 잘 알아야, 왕건 임금이 “충담 큰스님의 행적을 집필하면서 어떤 업적을 중심에 두었을까?” 라는 것도 유추가 가능해 진다.

이즈음에서 우리는 앞에서 서술한 섬강·남한강 불교계가 추구했던 ‘불법동류佛法東流’를 기억해 내야 한다. 중국 당나라가 주도하던 불법이 동쪽나라 신라로 주도권이 옮겨졌다는 주장이다. 840년 여주 고달사 현욱 큰스님이 흥법사 염거 큰스님을 만나 고민했던 주제였고, 이관 큰스님의 공부 내력에서 보았을 때, 중국 당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교육과정과 조금은 다른 신라식 선禪불교 교육과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사고의 밑바탕에 두고, 고려 태조 왕건 임금의 ‘수방이토’를 생각해 보면, 왕건 임금이 충담 큰스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선택한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충담 큰스님의 불교 공부가 중국 당나라 불교계에서 이룩한 성과뿐만 아니라, 그 보다 앞선 인도 불교계에서 이룬 성과까지 공부했다는 사실이었다. 신라나 고려 불교계가 독자적인 안목으로, 즉 우리나라 불교 역사 전통 속에서 인도 불교계, 중국 불교계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 냈을 때, 해동불교의 세계사적 보편성과 민족사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고려 창업주 왕건 임금이 충담 큰스님의 행적 가운데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충담 큰스님이 성취한 인도 불교계의 인물과 여러 학풍 등을 정리한 성과였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고려 창업주 왕건 임금은, 불법동류佛法東流의 정착에 애써온 섬강·남한강 선종불교계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③ 원주 거둔사의 지종(智宗, 930~1018) 큰스님은 섬강·남한강 선종 불교 3세대의 막내라 할 수 있다. 20세기 불교사학자들 가운데 어느 학자는 지종 큰스님이, 중국 송나라 큰스님이었

던 법안 문익(法眼 文益, 885~958)이 일으킨 선종 5가 중의 하나인 법안종 스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고, 해동천태종의 기원이 되는 나말여초 5대 큰스님 가운데 한 분임을 들어 천태종 스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1131년(고려 인종9) 임존(林存, 생몰년 미상)이라는 귀족관료가, 지금의 경북 칠곡에 있는 선봉사에 대국국사 승탑비의 비문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의 목적은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 큰스님이야말로 고려 천태종의 시조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글 가운데, 고려 초 천태종을 공부하던 유명 사찰 6곳(칠곡 선봉사, 합천 영암사, 진주 지곡사, 충주 정토사, 여주 고달사, 원주 거둔사)과 유명 스님들은 거론하면서, 제관(諦觀, ?~973) 큰스님과, 원주 거둔사에서 입적한 지종 큰스님이야말로 천태종의 역사에서 의천 큰스님 앞선 세대에 주목할 만한 큰스님이라고 서술해 놓았다. 왜 제관과 지종 두 큰스님을 꼭 짚어 그렇게 설명했을까?



961년은 고려 스님들이 중국 천태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아주 주목할 만한 해였다. 32세의 지종 큰스님과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 제관 큰스님, 그리고 고려인으로서 중국 천태종의 16조를 맡아 중국 천태종을 부흥시킨 34세의 의통(義通, 927~988) 큰스님이 중국 저장성 천태산 국청사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종 큰스님은 30세 때에는 중국 항저우로 유학을 가서 중국 법안종을 공부하다가, 고려 광종 임금께 대정혜론 연구로 천태교수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후, 32세 때에 중국 천태종의 본거지인 국청사로 유학 장소를 바꾼 상태였고, 제관 큰스님은, 중국 오월吳越의 전홍숙(재위 : 948~978, 충의왕)이 당시 중국에선 이미 사라져 고려에만 남아있던 천태종 관련 주요 자료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고려 광종의 명령에 따라 고려 천태종 관련 서적들을 모아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 도착한 상태였다. 제관 큰스님이 고려에서 가져간 천태종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중국 천태종 15조였던 의적(義寂, 919~987) 큰스님 밑에서 유학 중이던 고려 출신 의통 큰스님(후일 중국 천태종 16조)과 지종 큰스님이 함께 모여 중국 천태종 관련 서적들과 연구 성과들을 토론하고 정리하면서 중국 천태종 부흥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지종 큰스님도 968년부터 970년까지 국청사에서 중국 천태종의 기초를 세운 지의(538~597) 큰스님이 쓴 마하지관(摩訶止觀, The Great Calming and Contemplation)을 강의한 바 있다.

이렇게 섬강·남한강 선종 불교계는 현욱 큰스님이 고달사로 온 840년부터 지중 큰스님이 입적한 1018년까지 불법동도를 중심으로 여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유학과 현욱 큰스님과 국내파 염거 큰스님은 불법동도의 초석을 놓고, 염거의 제자인 이관 큰스님과 이웃 산문인 도현 큰스님이 기둥을 세웠는데, 현욱 큰스님이 고달사로 온 지 100년이 되던 해인 944년 후일 정종 임금과 광종 임금으로 등극하실 두 분이 영월 흥녕사에 국내파 절종 큰스님의 승탑과 승탑비를 세워 기념했다는 것은 여전히 섬강·남한강 불교계에 불법동도 바람과 물줄기가 번성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던 사건이었다.

여기에 더해 고려 창업군주인 태조 왕건 임금이 인도불교사에 정통한 충담 큰스님의 승탑과 승탑비를 건립함으로써 본인이 주장했던 수방이토론을 내세워 고려적(=한국적) 율령통치나 해동불교의 계통을 후원하려 한 점도 같은 선상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고려 광종 임금 시절 제관 큰스님이나 지중 큰스님처럼 이미 고려화(=한국화)된 불교 해석의 역사를 중국에서 강의함으로써 고려계 큰스님인 의통 스님을 중국 천태종의 16조로 세울 수 있었던 점도 해동 불교계가 쌓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④ 종파는 다르지만 지중 큰스님(930~1018)이 활동하던 시기에 원주 원씨 출신의 지광국사 해린(海麟, 984~1067) 큰스님이 법상종 승려로서 큰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섬강·남한강 불교계에 ① 불법 동도의 정신, ② 인도 불교사에 대한 연구, ③ 중국에서 발생한 천태종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 등이 계승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겠다.

해린 큰스님의 행적을 기념한 정유산은 해린 큰스님을, 문수보살이 주 목왕을 도운 것처럼 고려 현종(재위 : 1009~1031) 임금을 도운 스님이고, 미륵보살이 양무제를 도운 것처럼 고려 문종(재위 : 1046~1083) 임금을 도운 스님이라고 평가하였다. 현종 임금은 거란 침입이라는 국난을 극복하신 임금이고, 문종 임금은 고려 문물제도를 완비한 임금이었다. 그렇다면 해린 큰스님이 어떻게 현종 임금의 국난 극복도 도왔고, 문종 임금의 문물제도 정비에 일조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 차례 걸친 거란의 공격(993년, 1010년, 1018년)과 고려의 방어는 분명 전쟁이었다. 전쟁의 승패는 두 나라의 군사력에 좌우된다. 그런데 군사력만큼 중요한 것이, 전쟁의 명분이다. 거란이 세운 중국 요나라는 옛 고구려 영토에서 성장하여 왕조를 세웠다. 그런데 거란의 침략은 고려가 중국 요나라 서남 지역에 있던 중국 송나라와는 외교 관계가 돈독한 것에 비하여 자국과는 외교관계가 소원하다는 것을 빌미로 시작한 것이었다.

당연히 고려의 입장에서는 거란과 같이 고려 왕조 역시 고구려 계승 국가임을 명백히 하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중국 요나라와 고려 사이에 있던 여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면 소원했던 외교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했다. 잘못해서 신라만의 계승국가라고 오해를 사

면, 거란과 고려의 공통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와의 계승 관계가 소홀히 전달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거란의 1차 침략 당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끈 서희(942~998) 장군 역시, 고려가 고구려 계승국가임을 잘 설명하여 외교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린 큰스님 역시, 고려가 고구려 계승국가임을 주장하는 스님이었다. 1021년(현종 12) 평양의 중흥사라는 절에서 법회를 하면서, 평양이 기자조선의 옛 수도임을 법회 참석자에게 강조한 일도 있었다. 평양이 고조선의 옛 수도이고, 고구려의 옛 수도이며, 고려의 서경이라는 점을 강조한 법회였다. 이런 큰스님의 역사에 대한 태도는 입적 후 세워진 해린 승탑비의 상단 부분에 고구려에서 햇님과 달님을 상징하는 삼족오와 달토끼를 새겨 놓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동 역사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린 큰스님을 낳은 원주의 원씨 집안사람들은 이 시기 중국 주 문왕의 역학이 아니라 동이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복희씨의 역학을 공부하고 하였다. 역사뿐만 아니라 철학도 해동 철학을 익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거란의 세 차례 침략을 승리로 이끈 서희 장군과 양규(?~1011) 장군, 강감찬(948~1031) 장군의 활약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해동 역사와 해동 철학을 앞세운 정신력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 증거를 해린 큰스님 개인의 역사의식과 원주 원씨의 가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유산이 해린 큰스님의 업적을 문수보살이 주나라 목왕을 도운 것처럼 고려 현종을 도왔다는 의미는, 승병僧兵으로서 참전을 하지 않았지만, 참전 군인들의 정신력을 높인 해동 역사, 해동 철학을 정리한 활약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미륵보살이 중국 양나라 무제를 도운 것처럼, 해린 큰스님이 고려 문종 임금에 도왔다고 한 것은, 해린 스님의 불교 역량을 평가한 말이다. 문종 임금이 즉위한지 얼마 안 되어 궁중에 초청받아 유심묘의唯心妙義를 강의하는 등 중요 경전 등에 특강을 맡았으며, 초조대장경 가운데 법상종 관련 경전들을 목판으로 제작하는 일에 힘써, 이른바 해동 법상종의 중요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다 87세에 고향인 원주 법천사로 하산하여 1070년 10월 23일 입적하였다.

앞서 섬강·남한강 선종 스님들이 ㉠ 불법 동도의 정신으로 ㉡ 천태종 관련 서적들을 고려식으로 정리하여 해동 천태종의 계보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해린 큰스님과 같이 섬강·남한강 법상종 출신 스님들 역시 (a) 해동 역사와 해동 철학을 바탕으로 (b) 해동 법상종의 계보를 정리해 내고, 초조대장경 가운데 법상종 관련 경전들을 목판으로 제작하는 어려운 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해린 큰스님의 승탑이 부처님 탑(불탑)처럼 사각형 탑 모양을 취한 것도, 당시 고려 사람들이 해린 큰스님을 부처님에 버금가는 것처럼 대우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영천사에 2기의 방형 승탑으로 세워진 보제존자 나옹 큰스님(懶翁, 1320~1376)은 중국 원나라에 유학하여 인도출신 지공(指空, ?~1363) 큰스님으로부터 무심선無心禪을 익히고 귀국

하여 공민왕의 후원 하에 여러 주요 사찰에서 주지를 역임하였으며, 1370년에는 공민왕의 명으로 전국 승려대회인 공부선 功夫禪을 주최하고, 1372년에는 스승인 지공 큰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양주 회암사 중창 불사를 단행하였으며, 1374년 공민왕이 측근들에게 시해를 당한 후, 나옹 자신도 유학자로부터 탄핵을 당해 남쪽 지방으로 추방당하는 길에 여주 신흥사에서 급작스럽게 죽었다. 그 사이에 여러 이적異蹟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무수히 많은 사리가 출현한 것이었다.

그러자 나옹의 제자들과 후원자들은 나옹의 몸에서 나온 사리舍利야말로 나옹의 실체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물건이므로, 이 사리를 봉안하는 나옹 승탑을 만들면 사리에 부응하는 특별한 힘을 지닐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런 현상에 대해 고려말 유명 유학자였던 목은 이색(李穡, 1328~1396)은, “지금 보제존자 나옹의 사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높은 산 속의 구름과 안개 가운데에 있기도 하고, 일반 민간의 연기와 티끌 속에 있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고서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로 감싸면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 사리를 받들어 모시는 모습에 나옹 스님이 살아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열배나 더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런 열풍은 원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원주 철불은 강원 철불로 불릴 성질의 철불이 아니었다. 원주 철불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좀 더 추구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원주 남한강 승탑과 승탑비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랜, 그리고 가장 고난도의 승탑과 승탑비가 시대별로 갖추어져 있다. 원주남한강을 대표하는 승탑과 승탑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승탑과 승탑비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박물관계와 강원도 박물관계, 그리고 원주 박물관계에서 이런 유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 심도 깊게 고민해야 봐야 할 사안들이다. 국가차원에서 대처할 것인가, 도차원에서 대처할 것인가, 시차원에서 대처할 것인가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21세기 메가시티와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남북국시대 신라의 북원경과 북원부, 고려시대 주현인 원주와 속현인 영월, 평창, 정선, 단양, 제천, 황려 등으로 구성된 중세형 메가시티 모델과의 연계성을 생각해 보면, 남한강 원주권이라는 중세형 메가시티와 남한강이라는 중세형 광역교통망에서 형성된 원주 남한강 문화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겠다.(끝).

조선시대 원주기록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사항

-강원감영 생산 자료를 중심으로-

오영교(연세대 역사문화학과)

1. 강원감영과 원주
2. 강원감영의 구성과 운영
3. 원주 강원감영의 문서생산과정
4. 맺음말

1. 강원감영과 원주

원주는 중앙지역과 한반도 동남부 지역과의 문화교류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원주는 남한강의 수로와 여주·양평으로 연결되는 육로의 발달로 서울과의 통교가 손쉬운 교통상의 이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과 가까워서 토성(土姓)세력들이 본관의 토착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상경종사(上京從仕)하기에 편리하였고, 비토성 사대부들에 의한 입거(入居)·낙향(落鄕)이 잦은 지역이었다.¹⁾

원주는 국가사에 의한 편년 구분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2021년은 강원 정도(定道) 626주년, 북원경(北原京) 설정 1343년이 되는 해이다. 원주는 국내도시 중 손꼽히는 역사도시이다. 감영주변이 번잡한 이유는 그곳이 원주의 중심지였고 강원도와 중원지역 최고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공간이야말로 시간의 일기장이며 옛집과 옛길엔 그 시대를 살았던 삶이 배어 있다는 사실에서 자주 오가는 원일로가 심상치 않게 느껴진다. 역사도시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제반 규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이 부가되고, 그것들이 층을 이루며 형성된 도시이며, 공동체의 기억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물리적 대상과 장소 속에 복잡하게 얹혀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도시가 역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유 형태와 양상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공동체의 기억이 누적된 실체적인 건축물과 대상물이 가능한 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원주는 1896년 석연찮은 이유로 감영이 폐쇄된 이후 원주는 철저히 소외되었고 그나마 1952년 피난도정이 잠시 운영되다가 춘천으로 재차 간판이 옮겨진 후 더 이상 강원도의 중심

1) 이중환(李重煥)은 원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두메가 가까워서 난리가 일어나면 숨어 피하기가 쉽고 서울과 가까워서 세상이 평안하면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양 사대부가 많이 살았다.’ (李重煥,『擇里志』, 八道總論, 江原道.)

도시는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더구나 1953년 이후 1군사령부와 예하 부대의 집중적인 주둔으로 군사도시라는 지역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지역을 관통하듯 백운산과 치악산을 연결하는 군사도로가 개설되고 A·B·C도로로 명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주의 역사와 전통이 끼여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었다. 원일로·중앙로·평원로라는 명칭을 되찾은 것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최근의 일이다.

행정·문화·정치·경제의 중심지로서 온갖 영화와 번성을 누렸을 조선 500년 관동(關東) 수부(首府)도시로서의 흔적인 감영을 볼 때, 추상같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감영의 실질적인 위상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은 채 몇 개의 작은 건물로만 남아있다. 원주를 처음 찾는 방문객이나 외지 출신 원주시민들에게 역사 전통에 대한 각별한 감흥과 느낌을 주지도 못한다. 최근 지방문화의 정립, 지역의 정체성확보라는 목표에 힘입어 원주의 역사·전통이 각광을 받고 그 일환으로 강원감영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정도 6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제한적이나마 외형적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역사와 전통의 복원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고는 강원감영의 내적 구성과 이에 따른 문서생산과정을 보고 보존과 조사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강원감영의 구성과 운영

1) 조선왕조의 개칭과 강원감영의 설립

강원도는 조선왕조의 설립 과정에서 1395년(태조 4) 강릉(대도호부 소재)의 ‘강(江)’자와 원주(원주목 소재)의 ‘원(原)’자가 합쳐져 호칭되고 정립되었다.²⁾ 두 지역이 당시 정3품관인 대도호부사와 목사가 관할하였기 때문이었다. 강원감영은 1395년(태조 4년) 6월부터 원주에 설치되었다.

조선왕조와 같은 중앙집권국가의 경우 수도가 지니는 구심력은 대단히 컸다.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관찰사가 상주하던 감영소재지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자못 컸다. 곧 감영이 설치되면 그 지역은 행정 도시화되고, 이미 도시화한 지역은 한 차원 높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원주에 감영이 설치된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론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 초기 각도의 감영이 설치된 지역은 <표1>에서와 같이 도내 계수관(界首官) 가운데 가장 큰 고을에 설치하되, 한성부에서부터 도계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다. 강원도의 고을 중 원주가 이에 부합된다.

2) 『태조실록』 권7, 4년 6월 을해

〈표1〉 각도 계수관 및 감영 설치지역(『世宗實錄地理志』 소수)

도명	계수관	도명	계수관
경기도	광주·양주·수원·철원·부평	강원도	강릉·원주·회양·삼척·춘천·간성
충청도	충주·청주·공주·홍주	황해도	황주·해주·연안·풍천
전라도	전주·나주·남원·장흥·제주	평안도	평양·안주·의주·삭주·강계
경상도	경주·안동·상주·진주	함길도	함흥·영흥·안변·길주·경성·경원

*밑줄 친 지역이 감영소재지임.

조선 초기 강원도의 호구는 11,064호에 인구는 29,000명이었으며, 간전(墾田)은 65,916결이었다. 이중에서 원주는 1,148호에 3,513명, 간전은 7,556결이었다. 인구는 강릉이 많았으나(1,025호에 4,539명) 토지의 결수에서 원주가 월등히 많았다.³⁾ 따라서 1395(태조 4) 원주에 감영이 설치된 것은 조선 초기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과정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둘째, 원주의 지정학적 조건에 따른 행정상의 편의를 들 수 있다. 육로·수로 등 교통상의 조건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전국의 도로가 수도인 한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방사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원주의 경우 한강과 조령·죽령을 비롯한 영동 산간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감영-주·부·군·현’으로 연결되는 상명하달·하의상달 기능의 원활한 소화가 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이 순환회로가 하는 역할은 사송(詞訟), 조세수취, 재지세력의 영향력 통제 등 ‘수령칠사(守令七事)’의 효율적인 수행에 있었다. 따라서 감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군현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 것이며, 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감영이 관하의 주·부·군·현의 역량을 ‘수렴’하는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원주는 춘천도호부와 강릉 대도호부와 연결이 가능한 강원도의 핵심부에 위치하였다. 조선초기의 관찰사는 1년 임기 동안 단신도계(單身到界)하여 감영에 별도의 읍관을 두고 도내 관할구역을 순력하면서 관찰·출척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주의 지형상의 장점은 인정된다.⁴⁾

셋째, 호구와 물산 곧 경제적 조건은 감영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호구는 국가경영에 필요한 인력 자원이며 물산은 물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원주는 섬강과 원주천 유역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강원도 제1의 곡창지대였으므로 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조창(興原倉)이 설치되어 있어 원주·평창·영월·정선·횡성 등지에서 거두어들인 전세와 세곡을 서울로 운반하기 편리한 지역이었다. 여러 가지 조건

3)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조

4) 이러한 사실은 세종 연간 경상감영을 상주로 옮기자 이에 항의하는 경주지역민들의 호소에 대한 조선왕조의 답변에서 드러난다. 즉 기존 감영이 소재했던 경주가 상주보다 크지만 풍화는 임금이 있는 한성부에서 상주를 거쳐 경주로 내려가는 것으로, 평안도의 평양감영, 전라도의 전주감영, 강원도의 원주감영, 황해도의 해주감영 등이 모두 서울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다.(『세종실록』 권120, 세종 30년 4월 경신)

중에서도 원주가 지닌 경제적 조건은 정치·지리적 조건과 함께 감영의 설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2) 강원감영의 내적 구성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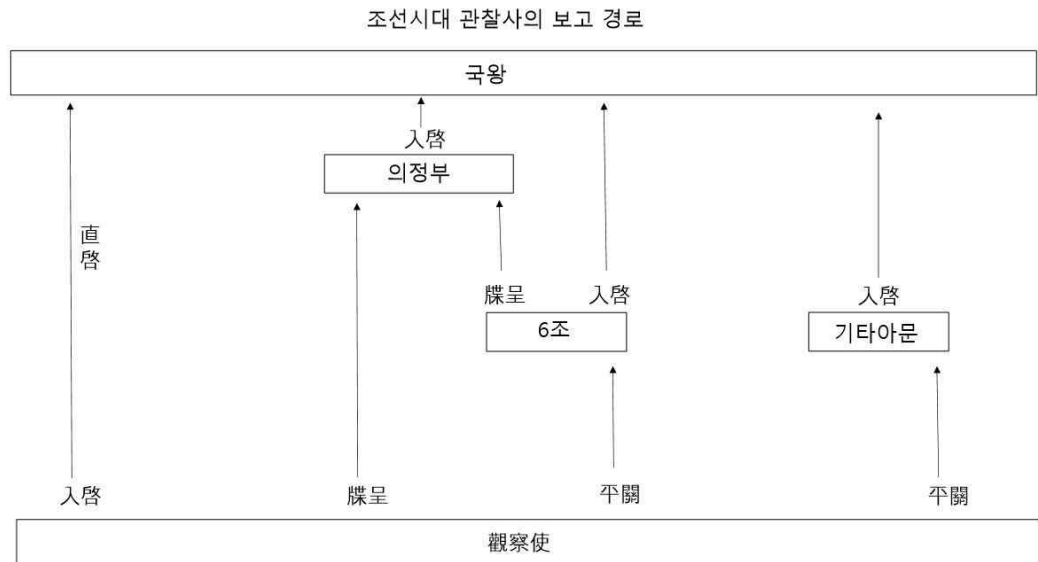
조선왕조의 성립 이후 지방통치체제에 있어서 주목되는 사실은 도제와 감사의 역할이 증대한 것이었다. 예하 군현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담당한 상급행정체제인 감영의 비중이 늘어났다. 각 군현의 인구 및 재원에 대한 감영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감영의 소재지인 강원도의 원주,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의 대구, 충청도의 공주, 황해도의 해주, 평안도의 평양, 함경도의 함흥 등에는 물적 인적 집중도 두드러지게 된다. 바로 감영소재지로의 두드러진 경제력 집중과 인구증가라는 변화는 바로 상급행정기구로의 역할 증대와 병행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감영의 행정업무도 복잡하여지고 감영에 배속된 각종 행정 실무 집단의 영향력 증대를 초래하였다. 당시 감영은 ‘도관찰출척사겸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都觀察黜陟使兼監倉·安集·轉輸·勸農·官學事), 제조형옥·병마공사(提調刑獄·兵馬公事)’라는 감사의 직함에서 보듯 다기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⁵⁾

조선초기 관찰사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경관겸차(京官兼差)와 겸목법(兼牧法)의 치폐가 반복되면서 관찰사의 사신적(使臣的) 성격, 즉 경관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약화되어 외관직에 편입된 것이다. 한편 관찰사의 수령관(首領官)인 경력(經歷)·도사(都事)도 경관적 성격에서 점차 전임외관으로 편입되었다. 관찰사의 기능 중 관내 외관에 대한 출척권(黜陟權)과 직단권(直斷權)은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세종 초까지만 해도 외방의 수령이 직계(直啓)할 수 있었으나 관찰사제가 확립되고 관계를 기준으로 한 관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이 수령의 직계권은 박탈되고 관찰사에게만 직계권이 부여되었다. 관찰사의 보고 경로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초기 관찰사의 외관통제와 규찰은 주로 고과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관찰사는 중앙의 대사헌과 같이 지방의 풍헌관으로서 수령을 고과(考課)·포폄(褒貶)하였다. 관찰사는 소관지역을 순력하여 수령의 성적을 공정하게 고과하고 등제계문(等第啓聞)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 중 하나였다. 수령에 대한 관찰사의 고과는 결과적으로 포폄에 반영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외관은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에 등제계문하되, 수령은 관찰사가 병마절도사와 동의하여 고과하였다. 고과의 결과가 10고(考)에 10상(上)은 1계(階)를 상으로 더하고, 2중(中)은 무록관(無祿官)에서 서용하고, 3중은 파직하였으며, 당상관(堂上官) 수령은 1중이라도 파직되었다.⁶⁾ 강원감영 역시 각 군현 지방관들과 찰방의 재임기간, 칠사(七事)에 대한 순력이 진행되었다. 각각

5) 오영교, 『강원감영연구』, 원주시, 2007.

6) 『經國大典』권1 吏典 褒貶條



지역명, 관직명, 도입 날짜, 재임일수와 함께 칠사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⁷⁾

관찰사와 수령은 사법권 행사가 가능했다. 수령은 고려시대부터 태형(笞刑) 이하의 율에 의거하여 직단할 수 있으나, 장형(杖刑) 이상은 관찰사에게 보고한 후 명을 받고서야 벌을 줄 수 있었는데, 이 제도는 조선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삼핵법(三覈法)의 경우에도 관찰사가 먼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해당 읍의 수령과 함께 추문케 하고, 차후 차사원 2인을 정하여 고핵하게 한 후, 마지막 단계로 관찰사가 친문(親問)하여 계달(啓達)하는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⁸⁾

관찰사는 ‘감사총치군민(監司總治軍民)’⁹⁾이라 한데서 알 수 있듯이 병마절도사를 겸하거나 그들을 지휘·감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관찰사가 행정·군사의 양권을 장악하였으므로 간혹 관찰사와 군사 전담의 도절제사(都節制使), 또는 병사·수사간에 군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관찰사가 한 도의 행정책임자인 동시에 군사책임자로서 막강한 힘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수령 또한 진관(鎭管)의 군사권을 행사하나 관찰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었다.

한편 감사는 도민의 청원사항을 청취하여 처리하거나 중앙에 상신하기도 했다. 정장(呈狀)에

7) 1851년(철종 2)작성된 『江原道各邑守令察訪庚戌年終七事開錄成冊』가 그 예의 하나이다. 農桑에는 堤堰.防川의 庫數와 修築灌溉.陳址勸耕.桑木培養考察, 戶口에는 元戶數, 人口數, 生産.物故口數, 學校에는 鄉校間數, 祭器祭服具備, 生徒數와 勸課學業, 軍政에는 軍士故闕充定軍裝考察, 官中色軍器修築, 賦役에는 元貢物依宣惠廳事目施行, 奸猾에는 境內捕盜色將定體考察, 奸吏民間作弊者考察 등의 항목으로 수령의 실적 또는 각 지방의 현황을 기록하였다. 한편 찰방의 경우는 驛吏.驛.奴數, 상.중.하 등 마필 수가 기재되어 있다.

8) 『경국대전』권5 刑典 推斷條

9) 『성종실록』 권106 成宗 10년 7월 기축

기록된 도민의 청원사항은 삼강(三綱)에 모범이 되는자, 절의(節義)·탁행(卓行)자에 대한 증직(贈職)·증시(贈諡), 정려(旌閭) 및 원사(院祠)의 건립 허가 등을 들 수 있고, 이 밖에 호적의 광정(匡正), 산송(山訟), 수리시설, 조세감면 등에 대한 청원이 많았다. 이와 같은 청원서가 접수 되면 감사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할 때는 감영의 도사나 관하 수령 가운데서 지명한 차사원을 보내어 복심(覆審)한 후에 결정하였는데, 이때 내용면에서 특별한 안건의 경우 조정에 장계하고 일반적인 사항이면 ‘영제(營題)’라 하여 그 결정사항을 적어 당사자에게 제송했던 것이다.¹⁰⁾

관찰사의 대표적인 업무는 권농이었다. 조선사회에서 농업생산은 사회적 생산의 근간이며 재생산 역시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권농정책은 국가기능의 핵심부위에 위치하게 되고 해당 중앙기구와 지방관에게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권농정책의 구체적인 수행기구는 지방관이었다.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국가에는 안에는 사농(司農)이 있고 밖에는 권농(勸農)이 있다”라고 한 것은 지방에서 권농을 담당하는 기관이 외관이라는 의미가 되겠다.¹¹⁾

조선시대 감사·수령의 권농업무의 특징 중 하나는 경작과정에 대한 순시와 감독 활동의 강화다. 당시 관찰사의 농형(農形)보고는 대단히 구체적이다. 각 읍 수령들의 보고를 종합하여 농형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였다. 그 내용들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는 군현을 순력하여야 했다. 감사들의 순력의 시기가 대체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는 것은 이 시기 순력이 농형과 재난 등 각 고을 사정을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가 지방민을 교화함에 있어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교화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그 밖에 서책을 출판하여 지방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간행한 도서를 보면 교서관(校書館)·규장각(奎章閣)·내의원(內醫院) 등을 포함한 중앙관서 또는 감영·병영·각읍 등에서 간행한 관판(官版)과 서원·사찰·문중 등에서 간행한 사판(私版)으로 크게 구분된다. 관판은 대개가 삼강오륜·소학·사서삼경·통감 등 성리학서 또는 경세제민에 소용되는 서적이 많고 서원·문중·사가 등의 사판은 개인문집 간행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감영에서 간행한 도서의 경우는 중앙의 명령으로 간행하여 상송하는 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가 지방의 문풍과 풍속순화에 목적을 두고 독자적으로 간행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경상감영의 경우 감영에서의 도서출판 시 소용되는 각종 물품은 각읍에 분정하여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책판을 비롯한 장두목(粧頭木)과 철정(鐵釘)의 비용을 징수하였다. 특히 도서간행에 있어서 지물을 비롯한 역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조달은 인근 사찰의 역할이 컸다.

10) 장인진, 「朝鮮後期 慶尙監司考」 『도협월보』 Vol.21 No.1,2,3, 1980, 34~36쪽

11) 『三峰集』 卷7 「朝鮮經國典」 上, 賦典, 農桑 “國家 內而司農 外而勸農… 殿下 屢降德音 必以勸農桑爲首”

『관동지(關東誌)』에 보이는 책판에 의하면 『삼강행실(三綱行實)』 · 『이륜행실(二輪行實)』 · 『훈의소학(訓義小學)』 · 『성근보선생집(成謹甫先生集)』 · 『근학지남(兵學指南)』 · 『천의소감(闡義昭鑑)』 · 『천자책(千字冊)』이 있다. 『삼강행실도』는 1431년(세종13)에 집현전 부제학 설순(僉循) 등이 어명을 받아 삼강에 모범이 될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35명씩 뽑아 그 덕행을 찬양한 책이다. 『이륜행실도』는 조선중종 때 조신(曹伸)이 지은 책으로 장유와 봉우의 도리에 관한 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한글과 한문으로 설명을 붙였다. 『성근보집』은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의 시문집으로 4권 1책으로 구성되었다. 『병학지남』은 중국 명나라 장수 척계광(戚繼光)의 저서인 『기효신서(紀效新書)』 중에서 조련법을 간추려 편찬한 책이다. 『천의소감』은 1755년(영조31)이 왕명에 따라 김재로(金在魯) 등이 왕세자 책봉의 의의를 밝혀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 고자 한 서책이다.¹²⁾

1179년(명종9)에 발간된 어숙권(魚叔權)의 『고사촬요(故事撮要)』에 기재된 강원도 원주의 책판목록을 보면 『익재난고(益齋亂藁)』 · 『장가박의(將鑑博議)』 · 『구성궁(九成宮)』 ·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 · 『십구사략(十九史略)』 · 『무원록(無冤錄)』 · 『열자(列子)』 · 『복약수지(服藥須知)』 · 『노자(老子)』 · 『전등신화(剪燈新話)』 · 『역대연표(歷代年表)』 · 『연헌집(蓮軒集)』 · 『중용(中庸)』 · 『가례(家禮)』 · 『도은(陶隱)』 · 『거조도방(居助道方)』 · 『무집석논어(無輯釋論語)』 · 『무집석맹자(無輯釋孟子)』 ·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 · 『대학(大學)』 · 『지산(地算)』 · 『검시격식(檢屍格式)』 · 『대명률(大明律)』이 보이고, 1793년(정조17) 정축년에 간행된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 5권, 『소학언해(小學諺解)』 6권, 『훈의소학대전(訓義小學大全)』 6권이 조사되었다.¹³⁾

참고로 경상감영에서도 교육·문화적 기능으로 낙육재(樂育齋)와 영영판(嶺營版) 출판인쇄문화가 확인된다. 낙육재는 1720년 경상도 관찰사 조태억이 인재양성을 위한 경상감영의 부속 교육기관이다. 감영내에 ‘낙육재’ 건물이 있고, 이곳에 당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 경상감영에서는 타도에 비하여 도서를 많이 간행했는데, 간행도서는 유학과 지방문풍 진흥에 필요한 『삼강행실』 · 『오륜행실도』 및 『소학』 · 사서삼경 등이었지만 특히 경세제민에 소용되는 서적이 많다.¹⁴⁾

12) 『關東誌』江原監營 營誌 冊版)

13) 김두종, 『한국고인쇄기술사』, 1974, 탐구당, 213~214, 384쪽.

14) 장인진, 1992, 「경상감영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한문학연구』제8집, 계명문화학회.

장인진, 2003, 「경상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출판에 끼친 영향」, 『한문학연구』제17집, 계명문화학회

조정화, 1996, 『朝鮮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원주 강원감영의 문서생산과정

감영은 크게 보아 세 범주로 나뉘어지는 부류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첫째 범주는 감사와 감사에게 자문하는 참모로서 비장(裨將), 그리고 경호 및 군사업무를 총괄하는 중군(中軍)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감사가 직접 데리고 오는[자망(自望)] 부류들이다. 이들 외에 시대에 따라 변화는 있으나 부감사(副監司)라 할 수 있는 도사(都使)가 파견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범주는 영리로서 이들은 도내 각 읍에 세거하는 향리들 가운데 차출된 부류들이다. 도내 모든 읍을 감독하고 조세 책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류들이다.

셋째 범주는 영문 자체 운영을 뒷바라지하도록 편성된 영인리(營人吏. 강원감영의 경우 영아전)와 각종 군사 및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무임(武任)이나 장인(匠人), 관노비(官奴婢) 등 각종 관속들을 들 수 있다.

조선후기 강원감영에 배속된 관원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강원감영에 파견된 중앙관원으로는 관찰사 외에 문관 6품 도사 1명, 무관 3품 중군 1명, 검약(檢藥) 1명, 검율(檢律) 1명 등 5명에 달하였다. 이 중에서 관찰사·중군·심약·검율은 2년 만에 교체되었으며, 도사는 1년 만에 교체하였다.¹⁵⁾ 조선후기 영조시대(1760년대) 강원도 각 부·목·군·현에 배정되었던 관원은 모두 3,535명이었으며, 강원감영에 배정되었던 396명을 합하면 3,931명이었다.

이상 관찰사에 의한 중앙각아문에 대한 보고자료가 존재하고 감영소속 구성원들이 직무에 따라 생산한 자료들이 존재한다.¹⁶⁾

1) 『가례언해(家禮諺解)』

15) 『輿地圖書』강원도 감영 관직조

16) 경상감영을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경북대 황위주 교수가 1910년 이전에 편찬한 경상도 관련 자료 약855종 중 주(州)·부(府)·군(郡)·현(縣)에 관련된 자료 약575종은 제외하고, 경상감영과 관련성이 깊은 약280여 종의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이 중 감영 관련 연구나 행사의 기획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감영과 관련해서는 『대구부읍지(大丘府邑誌)』 『자인현일록(慈仁縣日錄)』 『진신외임안(縉紳外任案)』 『도선생안(道先生案)』 『영영사례(嶺營事例)』 『재영남일기(在嶺南日記)』 『영영일기(嶺營日記)』 『계본등록(啓本謄錄)』 등 약 19종, 병·수영과 관련해서는 『영좌병영지도(嶺左兵營地圖)』 『영남영지(嶺南營地)』 『영좌병영계록(嶺左兵營啓錄)』 『경상좌수영영지도형(慶尙左水營營址圖形)』 『수조홀기(水操笏記)』 등 약15종, 군·현·진·역과 관련해서는 『상산읍례(常山邑例)』 『영남읍지(嶺南邑誌)』 『영남진지(嶺南鎭誌)』 『영남진사례(嶺南鎭事例)』 『경상감영병방보관책(慶尙監營兵房報關冊)』 등 약 18종, 형옥·선원각 등과 관련해서는 『검안(檢案)』 『송안(訟案)』 『형지안(形止案)』 기타 『동래부접대등록(東萊府接待謄錄)』 『접왜식례개이정등록(接倭式例改釐正謄錄)』 『선상등록(膳狀謄錄)』 『경상도명승도(慶尙道名勝圖)』 등 약20종, 전체 약70여 종 정도의 책이 특별히 유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황위주, 2004, 『경상감영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영남학』 제3집,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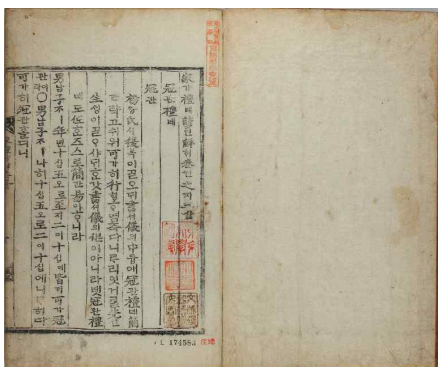
신식(申湜, 1551 ~ 1623)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언해(諺解)한 책이다.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 분류 고서-주해집 | 종교/풍속-유교 | 정부-예류
 - 작성주체 주희(朱熹) 찬, 신식(申湜) 언해
 - 판종 목판본
 - 발행사항 원성(原城) : [발행처불명], 승정 5(1632)
 - 형태사항 6卷2冊(零本, 共4冊) : 四周雙邊 半郭 23.2 X 16.6 cm, 有界, 10行24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2.9 X 21.6 cm
 - 주기사항 表題: 家禮諺解
版心題: 家禮諺解
書根題: 家禮諺解
目次: 卷3 冠禮, 卷4 婚禮, 卷5 喪禮, 卷6 喪禮, 卷7 喪禮, 卷8 喪禮
冊次: 亨, 利
欄外頭註
 - 현소장처 일본 83-4동경대학 오구라문고
 - 청구기호 L1745
- 자료UCI: RIKS+CRMA+KSM-WO.1632.4213-20150331.OGURA_005



가례언해



가례언해 - 관례

조선 중기의 학자 신식이 주희(朱熹)의 『가례』를 언해하고 그의 아들 신득연(申得淵)이 1632년(인조 10)에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한 책이다. 간본은 대개 10권 4책 또는 5책인데 이 책은 권3부터 8까지 2책만 남아 있다. 일반적인 언해본의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연호(年號), 인물(人物), 서명(書名) 등에서 어려운 단어에 대해 한글로 난외두주(欄外頭注)를 달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L174581-2와 같은 책이다.

『가례』는 주희(朱熹)가 가정에서 행하는 예절을 모아 엮은 것으로, 통례(通禮),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장례(葬禮), 제례(祭禮) 등의 예절을 다루고 있다.¹⁷⁾ 주희가 『가례』를 저술한 동기는 예는 근본과 문(文)이 있는데, 가정에서 시행되는 것 가운데 명분을 지키고, 애경(哀敬)을 행함은 근본이며, 관혼상제에 대한 의식 절차는 문식(文飾)이므로 근본과 문식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고려 말 신흥사대부들에 의해 성리학과 함께 도입된 『주자가례』는 학문적인 주목을 받기보다 불교나 민간신앙적인 생활관습에 대응하기 위한 유교 의례의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더 강조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례』는 국가와 사대부가의 생활에 있어 근간이 되어 왔는데 풍속과 관념이 중국과 달라서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예를 지키고 의식을 잘 이행하는 것이 사대부의 명예를 유지하고 체면을 지킨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중에는 『가례』의 형식에 맞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학문적 관심이 본격화한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였으며, 그에 따라 『주자가례』에 대한 주석과 언해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련 예서(禮書)들이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수많은 의견과 여러 사안을 보충한 주석서들이 출간되었다. 조호익(曹好益)의 『가례고증(家禮考證)』, 안건(安愷)의 『가례부채(家禮附贅)』, 유계(兪槩)의 『가례원류(家禮源流)』 등 무수히 많은 서책이 나왔다. 이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वाद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주자가례가 사림을 중심으로 널리 시행되고 몇 대를 거치면서 관습적으로 축적되는 데 기반하였다.¹⁸⁾

『가례』는 국가와 사대부가에서 행하는 모든 예식(禮式)을 해석했으며, 모든 예식이 이에 의거해 충실히 실행되어 왔다. 따라서 『가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대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책을 일반 백성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

17) 황원구, 「주자가례의 형성과정-왕법과 가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115쪽

18) 고영진, 「조선 중기 가례주석서의 특성」 『한국계보연구』 6, 36쪽

이문주, 「《주자가례》의 조선 시행과정과 가례주석서에 대한 연구」, 『儒敎文化研究』, 16,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37-61쪽.

이혜순, 「16세기《주자가례》담론의 전개와 특성」, 『정신문화연구』,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5-33쪽.

장동우, 「조선후기 가례 담론의 등장 배경과 지역적 특성」, 『국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2008, 97-127쪽.

에서 한글로 언해한 것이다. 『주자가례』에 대한 언해 작업은 선조(宣祖) 초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림 개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6세기 중반 이황(李滉)이 『주자가례』에 대해 주석과 언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작업은 제자인 이덕흥(李德興)과 김룡(金隆)에게 영향을 미쳤다.

『가례언해』는 제246대 강원도관찰사(광해군 2년, 1610) 신식¹⁹⁾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16세기 말에 저술한 것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가례언해서라고 할 수 있다. 신식은 이 책을 저술하면서 『상례비요(喪禮備要)』 4권을 비롯, 『가례집람(家禮輯覽)』·『전례문답(典禮問答)』·『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을 저술한 당시 예학의 대가인 김장생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그의 둘째 아들이자 제269대 강원도 관찰사(인조 10년, 1632) 신득연(申得淵, 1585~1647)이 원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²⁰⁾ 범례와 신득연의 발문을 보면, “예악에 밝았던 신식이 편찬 언해한 것인데, 이 유고가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인멸될 것을 우려하여 3개월에 걸쳐 간행하였다”라고 하였다.

책의 구성을 보면 제일 앞부분의 범례(凡例)와 가례도언해(家禮圖諺解)에 이어 가례서(家禮序)와 통례(通禮)의 사당(祠堂), 심의제도(深衣制度), 이어 통례의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 관례, 혼례 및 상례의 초종(初終)~대렴(大斂), 성복(成服), 조석곡전(朝夕哭奠)~치장(治葬), 천구(遷柩)~반곡(反哭), 상례의 우제(虞祭)~조부모망담인계장(祖父母亡答人啓狀)이 수록되고, 마지막으로 제례에 대한 언해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주자가례의 항목은 본문을 그대로 쓰고 그 밑에 한글 음(音)과 토(吐)를 달았으며 주자가례의 주(註)들은 본문을 쓰지 않고 언해한 것만 수록하였다. 아울러 연호, 선유(先儒), 역대 인물, 서적 편명, 물건의 명칭이나 주에서 따로

19) 제 246 대 강원도관찰사(광해군 2년, 1610) 신식은 17세기 초 조선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숙지(叔止), 호는 용졸재(用拙齋)이다. 신숙주(申叔舟)의 5대손이며 광윤(光潤)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서(森)이고, 아버지는 현령을 지낸 중엄(仲淹)이며, 어머니는 유엄(柳螟)의 딸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76년(선조 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있을 때 정여립(鄭汝立)의 일파로 탄핵되어 유배당하였다가 1592년 다시 집의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경상도안무어사(慶尙道按撫御史)로 활약하였다. 그 뒤 동부승지·좌부승지·좌승지 등을 역임하고 대사간과 부제학을 거쳐 도승지·동지중추부사·공조참판 등을 지냈다. 1599년에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호조참판·대사헌이 되었다. 광해군이 즉위하고는 충청도관찰사·동지중추부사·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다가 또 다시 사은사로 명에 가서 왜의 실정을 알렸다. 말년에는 지중추부사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청주의 쌍천서원(雙泉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의례고증 疑禮攷證』, 『가례언해 家禮諺解』 등이 있다.

20) 제 269 대 강원도 관찰사(인조 10년, 1632)인 신득연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정오(靜吾), 호는 현포(玄圃)이다. 서(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중엄(仲淹)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식(湜)이며, 어머니는 노개(盧塏)의 딸이다. 1603년(선조 36) 생원시에 합격하고, 1610년(광해군 2)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문翰관(文翰官)을 거쳐 성균관전적으로 『선조실록』 편찬의 기사관(記事官)으로 참여하였고, 검열·정언·사에·형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632년(인조 10)에는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그의 아버지가 편찬한 『가례언해』를 간행하였고, 이어서 회답사(回答使)로 후금(後金)에 파견되었다. 다음해 도승지에 임명되었고, 경상좌도양전사(慶尙左道量田使)를 역임한 뒤 세자시강원빈객(世子侍講院賓客)으로 청나라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1643년 그의 생질 이규(李據)가 명나라와 밀무역한 것을 알고서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해석이 필요한 용어들은 각 장의 윗부분에 표제(標題)하였다. 『가례언해』의 저술은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어려운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주자가례』가 여성과 서민계층까지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16세기의 다양한 국문 어휘를 수록하고 있어 국어사적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례언해』의 저술은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가 절정에 달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어려운 한문을 한글로 번역함으로써 주자가례가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17세기에는 다양한 가례주석서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언해서의 등장은 주자가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과 주자가례의 시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¹⁾ 『가례언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청구기호 A5E-68. 4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서울대학교 가람문고본,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등의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있다.

2)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1438년(세종 20)에 원나라 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내용을 증보하여 편찬한 법의학서이다. 세종의 명으로 최치운(崔致雲, 1390-1440) 등이 편찬에 참여하여 조선의 상황에 맞게 증보 작업이 이루어졌다. 1440년(세종 22) 정월 강원관찰사 최만리가 원주목에서 도재(鑄梓)한 것이다.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에서 분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서-주해집 ! 법제-법의학 ! 왕여(王與, 찬), 최치운(崔致雲, 등 수명주) ! 목판본 ! 2卷1冊(102張) ! [숙종-영조초] ! 청구기호(L174948)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은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청구기호	奎2216
편저자(한자)	崔致雲(朝鮮) 受命編
편저자(한글)	최치운(조선) 수명편
판본사항	木版本

21) 장동우, 「가례 주석서를 통해 본 조선 예학의 진전과정」 『동양철학』 34, 2010, 265쪽
홍운표, 「가례언해해제」 『가례언해』, 홍문각, 1983

간행지[刊地未詳]

간행연도 [世宗22年(1440), 後刷]

간행자[刊者未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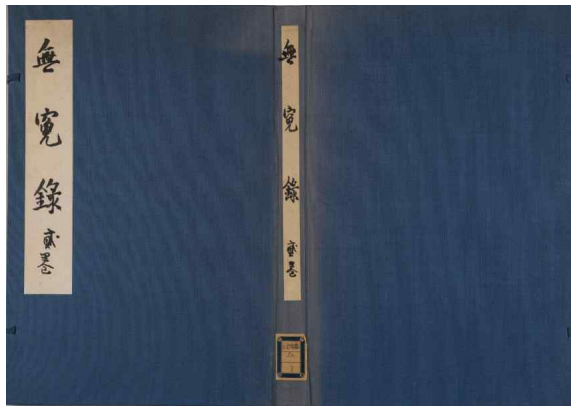
책권수 1冊(103張)

광곽 四周單邊, 半葉匡郭:25.7×18.2cm, 有界, 11行 23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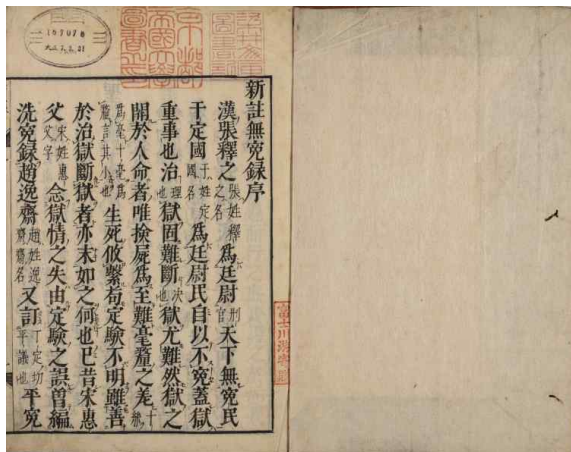
판심 上下花紋魚尾

책크기 36.8×23.4cm

서, 발, 권수, 권말 序:正統三年(1438)···柳義孫, 至大改元(1303)···王與(元), 洪武十七年(閻達困敦)甲子(1384)···羊角(明), 跋:庚申(1440)···崔萬理



신주무원록



신주무원록 서

조선전기 문신 최치운 등이 원나라 왕여(1261~1346)의 『무원록(無冤錄)』을 주해하여 1438년에 편찬한 의서이자 주해서이다. 상·하 2권 1책의 목활자본이다. 이 책은 검험(檢驗: 시체를 부검함)의 전문서로서 법의학(法醫學)과 비슷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송대(宋代)의 『세원록(洗冤錄)』이나 『평원록(平冤錄)』에 비하여 그 내용이 훨씬 더 완비되어 있다. 왕

여는 기존의 법의학서 외에 원대의 다양한 판례를 참고하여 무원록을 만들었다고 서술하였는데 그 후 중국과 조선, 일본 등지에 전해면서 법의학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다. 고려 중기인 1047년(문종 1)부터 인명 살상에 관한 재판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삼심제도(三審制度)를 실시하게 되어 『무원록』이 출판된 뒤 곧 고려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35년(세종17) 법의학의 지침서로서 인명의 살상험증(殺傷驗證)에는 반드시 『무원록』의 검시 규례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검시하는 격례(格例)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과(吏科)·율과(律科)의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관료들도 이를 익히게 하여 검험에 사용하는 주장이 대두되었다.²²⁾ 그러나 독해가 까다롭고 조선과 다른 중국의 제도에 기초하였다는 현실이 책의 활용에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은 무원록의 조선판 간행과 주석작업을 명하였다. 그리고 1438년 11월에 세종은 이조참의 최치운·판승문원사 이세형(李世衡)·예문관 직제학 변효문(卞孝文)·승문원 교리 김황(金滉) 등에게 명하여 이 책을 편찬하게 하여 음주(音註)를 달도록 하고 유의손(柳義孫)에게 서문을 쓰게 한 뒤 『신주무원록』이라는 이름으로 경향 각도에 반포하였다.

세종은 이듬해인 1439년 봄 강원도 관찰사 유효통(兪孝通)에게 『신주무원록』을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하도록 명하였다.²³⁾ 문과출신이나 의학에 정통하였던 유효통은 이미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 같은 의서 편찬에 참여한 경력이 있었다. 유효통의 경력이 중시되어 법의학서인 『신주무원록』을 부임지 강원감영에서 발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²⁴⁾

의서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만큼 인쇄에 매우 신중했으며 반드시 의학에 밝은 사람이 주관했던 사정이 있었다.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있어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밝히고 고구하여 결국 백성의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정의 실현하는 것이다.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마음이 어찌 지극한가”라는 당시 발문에서 보듯 국가나 지배층이 지닌 愛民사상의 표현이기도 했다.

유효통은 곧바로 장인들을 뽑고 재목을 모아 원주에서 『신주무원록』인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당시가 농번기인 봄철이어서 잠시 간행작업이 미루어졌다. 여름철이 되어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할 즈음 유효통은 강원도관찰사에서 집현전 부제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대신 집

22) 김호, 「新註無冤錄과 조선전기의 檢屍」『법사학연구』 27, 2003, 200쪽

23) 『新註無冤錄』, 「跋文」(서울대학교 규장각 <奎2216>본 참조), 1440년(세종22)에 강원도 관찰사 최만리가 쓴 발문에는 간행 이후의 사정이 소개되어 있다.

24) 제 48 대 강원도관찰사(세종 20년, 1438) 유효통은 조선 전기의 의학자(醫學者)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행원(行源)이다. 1408년(태종 8)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1427년(세종 9)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대사성을 거쳐 집현전직제학이 되었는데, 문장에 능하고 의학에 정통하였다. 1431년 전의감정(典醫監正) 노중례(盧重禮) 등과 같이 『향약채취월령 鄕藥採取月令』과 『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을 편찬하였다.

현전에 근무하던 최만리(崔萬理)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²⁵⁾ 이후 최만리의 주도로 간행 작업이 진행되고 이듬해인 1440년 봄 『신주무원록』 초간본이 발간되었다. 원주에서 발간된 신주무원록이 전국으로 보급되어 활용되는 데는 강원도라는 지역이 장애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필요에 따라 각 지에서 인쇄되었다. 1447년 경상도 상주에서 중간되었으며, 진주·남원 등지에서 연이어 간행되었다. 1447년 경주에서 발간된 중간본 발문에서 “간행이 너무 먼 지방에서 이루어져 영남의 여러 군현이 이를 쉽게 얻어 보지 못하고 검험관이 그 요체를 습득하지 못하여 송사를 벌이는 백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가히 애석한 일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²⁶⁾

상권은 조선의 학자들이 붙인 서문과 발문이 첨가되고, 논변(論辯)과 격례(格例)로 구성된다. 논변은 ‘금고험법부동(今古驗法不同)’, ‘판친생혈속(辦親生血屬)’ 포함 13개 항목으로, 격례(格例)는 시장식(屍帳式)·시장례(屍帳例)·초복검험관문식(初復檢驗關文式) 등 17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하권은 검복총설(檢覆總說)·험법(驗法)·독약사(毒藥死)·발총(發塚) 등 43항목으로 되어 있다. 시체검안에 관한 법규와 원나라의 검험 판례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하권에는 시상변별(屍傷辨別: 시체의 상처 판별법)에 관한 사인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본문에 조선의 학자들이 붙인 새로운 주석은 본문보다 작은 활자인 세주(細註)형태로 들어가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로 『신주무원록』이 발간될 즈음인 1439년 2월, 조선왕조는 한성부에 명하여 검시장식(檢屍狀式: 검시의 보고서를 쓰는 서식)을 따로 공포, 간행하고 다시 각도 관찰사와 제주안무사를 시켜 그 각판을 모인(模印)하여 각 도 각 군현에 비치하였다.²⁷⁾ 이에 대해 최만리는 발문에서 “국왕[세종]께서 깊이 원통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문신들에게 명하여 고주무원록(古註無冤錄)을 가지고 자세하게 훈석을 가하고, 다시 검시격례와 검시장을 추출하여 별도의 표로 간행하였다”라는 것이다.²⁸⁾ 별도의 표는 바로 검시장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25)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6월 29일(을사) 제 49 대 강원도관찰사(세종 21년, 1439) 최만리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자명(子明), 호는 강호산인(江湖散人)이다. 고려시대 해동공자로 불리던 최충(崔食)의 12대손이며 하(荷)의 아들이다. 1419년(세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그 이듬해 집현전박사로 임명되었다. 그 뒤 집현전학사를 거쳐 그 실무책임자인 부제학에까지 올랐다. 1427년 3월 교리로서 문과증시에 급제하였고, 그 해 7월에 응교에 올랐으며, 1437년 직제학, 1438년 부제학, 1439년 강원도관찰사, 1440년 집현전부제학으로 복귀하였다. 그 뒤 1444년에 훈민정음창제에 대한 반대상소문제로 즉일 친국을 받고 다음날 석방, 복직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다. 부정과 타협을 모르는 깨끗한 관원으로서 일관하였으며 진퇴가 뚜렷하였다. 그는 집현전의 실무책임자인 부제학으로서 14차에 걸쳐 상소를 올렸다. 그 중 불교배척 상소가 6회, 첨사원(詹事院) 설치반대상소가 3회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과의 교역에서 석류황(石硫黃)의 대가를 지나치게 후하게 지불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 진사사에서 시(詩)의 출제법이 잘못됨을 지적한 것, 그리고 이적(李迹)의 사형결정이 모호하다고 감형을 주장한 것과 사직상소 및 한글반대상소가 있다. 이후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26) 『新註無冤錄』, 「重刊跋文」 孫肇瑞.

27) 『세종실록』 권84, 세종21년 2월 6일(을묘)

28) 新註無冤錄 跋文 我殿下深念于茲爰命文臣等 將古註無冤錄 更詳訓釋 又抽出檢屍格例與狀式 別爲二表然後開卷瞭然

검시장식의 주 내용은 무원록의 검시격례와 검시장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형식은 표였다. 무원록이 종합 검시 참고서라면, 검시장식은 현장에서 작성하는 문건이었고 초검과 복검을 위해 검시관이 현장에서 한 장의 종이에 일목요연하게 시장(屍帳)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1442년에는 모든 검시의 법을 『무원록』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인명치사(人命致死)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사체가 있는 곳에서 검증을 행한 뒤에 검시장식에 따라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를 만들어 재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의학적 지식을 형사재판에 이용한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다.

『신주무원록』은 조선초기 강원감영이 소재한 원주에서 간행되어 영·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법의학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검시의 구체적인 절차, 검시과정의 엄밀성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한 행정절차 상의 규칙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한 시체의 검시방법을 당시까지 축적된 과학적 지식을 수록하고 있기에 가능하였다.²⁹⁾ 비록 『무원록』 자체는 중국에서 간행되었으나 이를 도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선 풍토에 맞는 주석본을 새롭게 만든 셈이다. 차후 이를 엄격하게 지키고 사용했다는 사실은 수준 높은 조선의 법정신을 가늠케 해 준다. 엄격한 사건 조사 및 투명한 법집행으로부터 어진 정치가 가능하다는 민본·애민의 정신이야 말로 『신주무원록』 간행의 기본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신주무원록』은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도 2권 1책(청구기호4899.1070)이 소장 중이고, 영조 22(1746) 평안감영에서 발간된 판본(청구기호韓10-12)은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에 소장중인 무원록술(無冤錄述)은 조선의 『신주무원록』을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³⁰⁾

3) 『강원도각군장제(江原道各郡狀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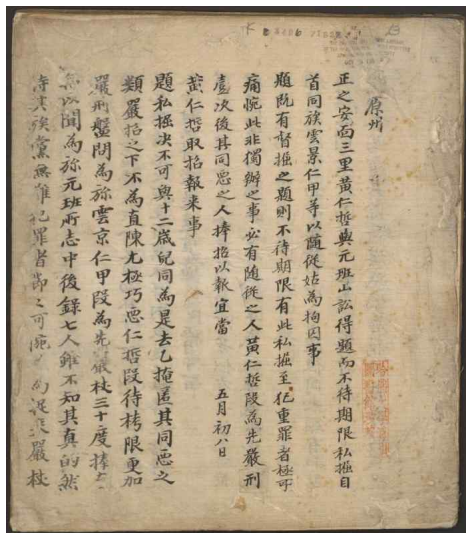
하버드-연칭연구소에 소장된 이 책은 1827년 5월부터 1828년 12월까지 강원도의 영속(營屬)이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와 그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여, 백성들이 관찰사에게 올린 청원과 그에 대한 처분을 요약·정리하여 성책한 것이다. 모두 17책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각 책마다 하나의 군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강원도 전체의 상황은 물론이고 군현별 현안을 살펴보기에도 알맞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각 책은 다시 관찰사에게 올린 보장(報狀)의 내용과 백성들이 관찰사에게 올린 민장(民狀)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어서 민장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후속 조치의 과정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9) 김호, 「新註無冤錄과 조선전기의 檢屍」『법사학연구』 27, 2003, 226쪽

30)가와이 나오히사(河合尚久, 譯編), 崇文堂前川六左衛門, 2卷2冊, 明화 5(1768), 청구기호(L1746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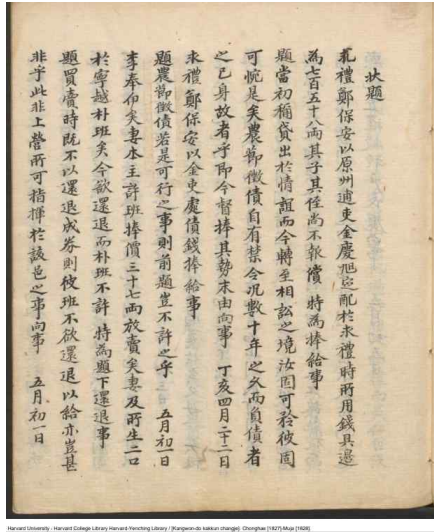
이 책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강원도각군장제’라는 명칭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제목으로 칭할만한 무언가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명이 붙여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이 자료 자체가 중앙 관아에서 작성했던 등록(謄錄)과 같이 내부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기보다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인다. 즉,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일정한 체제와 구성을 갖추지 못하고 표지도 없어서 표제(表題), 내제(內題), 권수제(卷首題)와 같이 제목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후대에 이를 정리할 때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강원도각군장제’라는 제명을 부여했던 것 같다.³¹⁾

이 책은 ‘정해(丁亥)’, ‘무자(戊子)’와 같이 간지로만 연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작성 시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략 두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연도를 확정할 수 있다. 첫째, 4책 간성 과 8책 춘천, 그리고 9책 강릉의 내용 중에서, 정해년에 상호도감(上號都監)이 복정한 기녀를 올리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권설기관인 상호도감이 설치되었던 정해년을 찾아보면 이때가 1827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책에는 1827년 5월부터 1828년 12월까지에 해당하는 1년 8개월 분량의 내용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첫째 백성 간의 사회경제적 갈등, 둘째 부세 문제, 셋째 각종청원 사항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채대(債貸), 산송(山訟), 전답 및 노비 관련 분쟁, 혼인문제, 군역, 환곡, 잡역, 삼공(蔘貢)에 관한 문제, 각종 청원 사항으로 정려(旌閭), 유배인의 방면, 구휼(救恤), 모연(募緣)의 허가를 요청한 문제로 세분된다.



장제 원주 - (1)

31) 고민정, 「19세기 사회상 고찰을 위한 민장치부책」『한국학논총』 55,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20



장제 원주 - (2)

『관동지』를 살펴보면 민장을 심리하고 처분을 남긴 인물은 정원용(鄭元容)이다. 그는 1827년 3월에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여 1828년 7월까지 재직하였다가 이조참판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기연(李紀淵)이 1828년 8월에 부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²⁾ 따라서 1827년 5월부터 1828년 7월까지 15개월간의 처분은 정원용이 내린 것이고 그 이후인 1828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처분은 이기연에 의한 것이다. 이 자료는 현재 17책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체로 하나의 책마다 하나의 군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책의 순서를 살펴보면 1책은 홍천, 2책은 양양, 3책은 평창, 4책은 간성, 5책은 정선, 6책은 양구, 7책은 금성, 8책은 강릉, 9책은 춘천, 10책은 고성, 11책은 평해, 12책은 인제, 13책은 원주, 14책은 횡성, 15책은 김화, 16책은 영월, 17책은 회양이다.

『장제』에 수록된 지역과 기사 건수를 보면, 홍천 31건, 양양 86건, 평창 23건, 간성 46건, 정선 24건, 양구 19건, 금성 21건, 강릉 202건, 춘천 87건, 고성 52건, 평해 28건, 인제 35건, 원주 259건, 횡성 79건, 김화 18건, 영월 41건, 회양 36건 등 총합 1,087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지역은 원주, 강릉이다.

『장제』를 이루는 각 책의 구성방식은 모두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영속(營屬)이 관찰사에게 보고한 내용과 처분이 기록이 되었고 ‘보고한 내용의 요약과 관찰사의 처분’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기록은 다른 민장치부

32) 『關東誌』方伯題名錄 守觀察使洪敬謨, 乙酉四月來, 丁亥三月瓜遞, 觀察使 鄭元容, 丁亥三月來, 戊子七月移拜吏曹參判, 觀察使李紀淵, 戊子八月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관찰사가 지방을 통치하면서 당면했던 행정 및 사법상의 문제를 보고받고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報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부분은 민장(民狀)과 장제(狀題)를 축약한 용어인 ‘장제’라는 소제목이 있고 백성이 청원한 내용과 처분이 기록되었는데, ‘민장의 내용 요약과 관찰사의 처분, 명령을 받는 사람과 고과형리’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찰사는 국왕에게 직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중앙통치체제와 지방통치체제를 연결하는 동시에,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총괄하였다. 이처럼 관찰사는 지방통치체제에서 가장 큰 권한을 지니고 있고 그 권한의 범위도 넓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관찰사에게 올린 민장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첫째 백성 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 갈등의 해결 요청, 둘째 국가에 납부하는 부세의 경감 요청, 셋째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면 사회경제적 갈등이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에는 부세 문제가 31.7%, 청원 사항이 19.7%로 나타나므로, 강원도에서도 부세 문제보다는 사회경제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요청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백성의 청원 및 쟁송에 관한 부분은 『목민서』의 분류기준에 따라 첫째 백성들 간의 사회경제적 갈등, 둘째 부세 문제, 셋째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백성 간의 사회경제적 갈등은 채대로 인한 분쟁, 산송, 전답 및 노비 관련 분쟁, 혼인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채대로 인한 분쟁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빚을 빌미로 족징, 압량위천 등의 문제를 양산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산송은 남의 묘자리를 뺏기 위해 투쟁, 암장, 범장을 행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산림의 이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전답에 관한 분쟁은 전답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발생한 사례가 많고 노비에 관한 청원은 도망 노비의 추쇄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혼담이 무산되면서 생긴 것들로 금전 문제가 원인이었다.

둘째 부세 문제는 군역, 환곡, 잡역, 삼공에 관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군역에 관한 문제는 신분상의 특권, 선조의 공적으로 인해 누리던 탈역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이를 재요청하고자 청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곡에 관한 문제는 환곡의 분급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한 이들이 청원한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강릉 역민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다. 잡역에 관한 문제는 지역 간의 경계에서 발생한 것들로 지역마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잡역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삼공에 관한 문제는 영작공에 의한 삼공이 이루어지면서 삼상들이 각 군현으로부터 삼값을 징수하기 위해 관문의 발급을 요청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셋째 각종 청원 사항은 정려, 유배인의 방면, 구휼, 모연의 허가를 요청한 것 등이 있다. 정려는 효행·열행·충절을 행한 자들을 포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배인의 방면에 관한 것은 유배인의 자식이나 부모가 허숙을 청하거나 자식이 연로한 부모 대신 유배를 요청한 내용이 많다. 구휼은 수재 또는 화재 등의 자연재해를 당하여 홀전 또는 수세의 경감을 청한 내용이 많으며 모연은 사찰에서 개건 및 보수를 위해 민간의 시주를 받고자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이 책에는 다른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19세기 전반 강원도 향촌사회의 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4) 『을유오월 안핵장계-원주(乙酉五月 按覈狀啓 -原州-)』

『안핵장계 -원주-』는 1885년 일어난 원주농민항쟁을 기록한 문서로 일본 도쿄대학교 부속 도서관 아가와문고(阿川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이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수집사료실(사_B301호)에 복사본(한 911.0092 안92)이 소장되어 있다. 『안핵장계 -원주-』는 1책으로 안핵사 김선근(金善根)의 「계본(啓本)」(문목[問目]은 공초를 포함) 외에, 「안핵회계(按覈回啓)」, 「순영전후장계(巡營前後狀啓)」, 「정부계관(政府啓關)」, 「원주유민품보(原州儒民稟目)」, 「재정품목(再呈稟目)」, 「원주각면등소시정납책자(原州各面等訴時呈納冊子)」 및 판관 김호겸(金好謙)의 수기장 같은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장계(狀啓), 품목(稟目)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啓本」은 원주농민운동에 참여하였던 유학 객재린(郭在麟), 유학 김사륜(金思輪), 유학 정해수(鄭海壽), 유학 이흥세(李興世), 유학 송원옥(宋元玉), 읍리(邑吏) 장봉기(張鵬基), 유학 원명규(元命奎) 등의 공초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농민항쟁 참여세력 등 원주농민항쟁 관련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순영전후장계」는 원주농민항쟁 제1차 봉기인 북창(北倉)봉기, 제2차 봉기인 영창(營倉)봉기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정부계관」은 원주농민항쟁 보고에 대한 회답으로 안핵사(춘천부사 김선근) 파견, 주모자(김택수, 이승여, 송원옥 등) 체포 등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원주유민품목」은 강원감영에 김택수 등 양반유생들의 무고함과 영리(營吏)들의 부정부패를 밝혀 김택수를 포함한 양반유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연명서이다. 김택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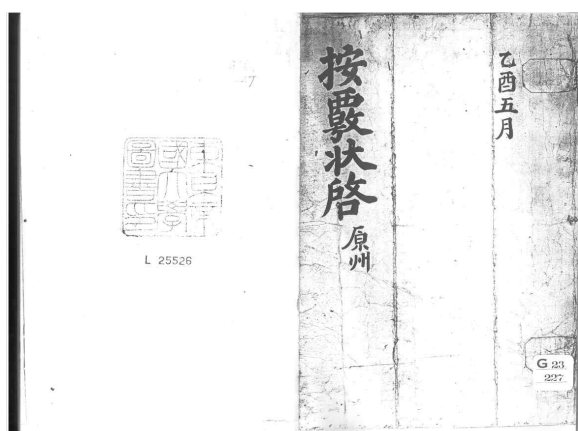
형인 김관수(金寬秀)가 주도하였는데, 1864년 과거에 급제하여 봉상시 부제조를 역임한 이순범, 1866년 과거에 급제하여 교리를 역임한 황익수 등을 비롯하여 원주지역 96명의 양반유생들

이 연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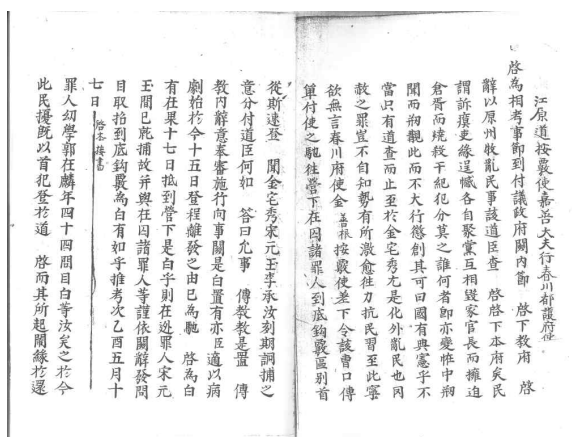
「재정품목」은 「원주유민품목」을 제출 후 강원감영으로부터 받은 ‘영제(營題)’에 대해 다시금 원주지역 양반유생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원주각면등소시정납책자」은 원주농민항쟁의 원인이 되었던 북창색(北倉色) 남성갑(南聖甲)을 비롯한 영리들의 부정부패와 원주농민항쟁의 전개과정, 영리들의 양반가 공격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안핵장계-원주-』는 북창에서 포함(逋欠)과정, 읍내에서 열린 민회(民會)과정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³³⁾



안핵 장계 원주 - 1



안핵 장계 원주 - 2

33) 본 자료를 활용하여 1885년 원주농민항쟁에 대해 정리한 연구로 심철기, 「19세기 원주지역의 환곡문제와 농민항쟁」『지방사와 지방문화』13(2), 2010. 이 참조되며, 일본에서 본 자료를 처음 소개한 연구로 조경달, 「이조말기의 민란-원주민란(1885년)사례」『조선사연구회논문집』33, 1995이 있다.

원주의 사회변동과 원주농민항쟁(원주민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세기에는 수많은 농민항쟁(‘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계급모순의 해결과 함께 환곡을 비롯한 현상적 부세문제를 해결하고자 봉기하고 있다. 원주에서는 일찍부터 삼정(전정·군정·환정)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그 중 18세기 이래 관청의 재정과 밀접한 환곡제의 폐단이 크게 나타났다. 감영과 원주목에서 관장하는 환곡량의 규모가 크다는 문제, 그리고 환곡이 혼용되고 읍민들을 대상으로 분급되고 이자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폐단이 나타났다. 특히 원주의 환곡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63년 환곡 개혁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환곡이 1880년대에 와서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면서부터였다.

본래 환곡은 소농경제로 운위되는 사회에서 그 재생산을 보장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진대(賑貸)라는 형식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환곡은 점차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관청의 재정확보 방안으로 변질되었다. 그 요인은 각 관청이 묵은 곡식의 보충을 위한 추가징수분(1할) 가운데 일부를 회록시켜 자체 재정으로 사용한 데에 있었다. 특히 세도정권기에 중앙재정의 부족현상이 만성화되면서 경사 각 아문은 물론 감·병영 및 군현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환곡을 회록(會錄)시켜 이자를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국가재정의 환곡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농민의 환곡 부담량도 증가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농민수탈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제기된 문제는 군현별로 관장하는 환곡의 총량이 급증한다는 것이었다. 19세기 환곡 운영상의 문제로 지적된 것은 재정확보의 극대화를 위해 원곡조차 모두 남김없이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진분화(盡分化)]과 중앙의 유정지세(惟正之稅)의 납부독촉에 대해 우선 환곡으로 납부함으로써 군현의 창고가 비게 되는 것[허류화(虛留化)]을 들 수 있다. 또한 당시 유통경제의 발달 추세에 따라 환곡의 분급·징수과정에 화폐관계가 매개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국지적 유통권을 장악했던 관에서는 현물의 작전가(作錢價), 계절간·지역간 가격차, 상정가(詳定價)와 시장가의 차이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환곡의 고리대적 운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리고 있었다. 바로 이전·가작(加作)·전환(錢還)·이무(移貿) 등의 현상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대여 받은 환곡조차 체납하는 농민의 숫자가 증가되었고, 전세·군역세와 달리 운영의 전과정이 지방관청에 일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포(吏逋)가 손쉽게 민포(民逋)로 전환될 수 있었다. 조선왕조는 환곡문제를 삼남지역의 농민항쟁을 유발시킨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차후 삼정이정책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원주의 환곡문제는 주로 전환(錢還)의 문제로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그 배경에 있었다. 즉 분급과 징수과정에서 상정가(詳定價)와 시가(時價), 현물가와 화폐납의 차이로 인한 폐단이었던 것이다. 원주 안창에 소재한 북창(北倉)에서의 농민봉기는 북창의 담당 이서인 남성갑(南聖甲)의 환곡을 통한 부정행위로 촉발된 것이었다. 담당이서인 남성갑은 환곡을 상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급하고 시가로 징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북창의 주변에는 안창역과 안창진(津)이 있고, 안창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안창역은 원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써 육운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안창진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수운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창은 육로와 수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지정면을 비롯한 주변 마을의 세곡 외에 인접 군현지역의 물산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발달된 육운과 수운을 바탕으로 안창장이 들어서고 있었다. 안창장은 중대형 장으로써 많은 상인들과 이에 관련된 자들, 여행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이들을 수용할 주막이나 점막(店幕)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고 있었다. 당연히 북창지역은 각지의 새로운 정보가 빠르게 유입되었다.

원주농민항쟁은 1885년 3월 2일 북창 관내 유력한 사족인 연안 김씨 김택수(金宅秀)를 통한 등소(等訴)운동으로 시작하였다. 북창민들은 분급할 때와 징수 시의 두곡(斗斛)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들 북창민들은 봉기 과정에서 남성갑을 살해하였다. 이 같은 놀랄만한 사실은 빠르게 다른 면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읍내 사창(司倉) 소속의 지역민들도 민회(民會)를 개최하여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민회는 기존의 향회와는 별도로 구성된 질적으로 다른 기구였으며, 고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다. 민회 과정에서 농민들은 환곡의 분급과 징수 시에 동일한 두곡으로 할 것과 궁극적으로 환곡의 원곡은 폐지하고 이자만을 징수하여 운영하게 하는 ‘와환취모(臥還取耗)’의 운영 방법을 시행하도록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봉기는 이서들에 의해 진압 당하였다. 이렇게 다른 지역과 달리 이서들이 민들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원주가 감영이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중영(中營)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중영에는 상당수의 상비군이 존재하였고, 이들의 동원에 이서들이 간여했던 것이다.

비록 원주농민항쟁은 진압 당하였지만, 그들이 요구하였던 환곡제의 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원주는 이때부터 ‘와환취모’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895, 6년에 사환제(社還制)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된 김선근(金善根)은 ‘원주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감영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리하여 김택수를 ‘화외난민(化外亂民)’으로 규정하고, 잡혀온 사족들에 대한 처벌을 행하였다. 동조한 송원옥(宋元玉)·곽재린(郭在麟)은 3차례의 엄형에 ‘원악도 정배(遠惡島 定配)’의 형을 받았고, 김사륜(金思輪)·정해수(鄭海壽)·이흥세(李興世)·원명규(元命圭)는 2차례의 엄형에 ‘원지 정배(遠地 定配)’의 형을 받았다. 또한 사창색(司倉色) 장봉기(張鵬基)를 효수(梟首)에 처할 것을 명하였고, 도망간 장두(狀頭) 이재화, 이승여, 김택수를 잡아들일 것을 명하는 선에서 수습하였다. 이후 원주농민항쟁은 진정되어 갔다.

농민항쟁의 전개과정을 통해 봉기 주도층인 유생과 농민들의 조직활동이 분화되고 조직보위능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봉건적인 지배체제에 대한 항쟁주체들의 의식이 군현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전 기구적인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점과 감영군의 무력진압에 전

혀 대비하지 못했던 점이 한계로 보여진다.

원주농민항쟁은 앞서 발생한 타지역의 1862년의 농민봉기처럼 반봉건투쟁이 조직적인 집단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체제적 모순의 담지자인 농민에 의해 적극적인 운동방식으로 봉건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봉기의 동인인 빈농들이 지향했던 사회변혁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지주제개혁과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는 반봉건투쟁의 전반적인 강도와 수준에 비해 미약한 편이었고, 봉건정부의 입장 또한 농민들의 대대적인 항쟁에도 불구하고 지주 양반가의 이해를 접어둔 채 지주제를 해체시킬 만한 능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그 대신 사회모순을 균등한 조세부과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봉건정부는 농민항쟁으로 야기된 체제붕괴의 위기상황을 삼정이정책의 시행을 통해 모면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수탈의 잠정적인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삼정이정책은 농민들이 봉기를 통해 얻어낸 구체적인 성과물이기도 했다. 차후 대원군 정권은 대내적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호포법·사창제와 같은 일련의 조세개혁을 실시했던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다시금 부세문제의 폐단이 쌓이고 있었고 비교적 후대인 원주에서 다시금 농민봉기를 야기시킨 것이다.

5) 강원도원주목도증병과정시무과초시입격인방목성책(江原道原州牧都會丙科庭試武科初試入格人榜目成冊)

감사는 조선전기 이래 제과(諸科)의 향시를 주관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과와 생진시의 초시는 관찰사가 차사원을 정하여 녹명시취(錄名試取)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³⁴⁾ 『속대전』에는 도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도사·경시관·평사(評事)가 식년문과, 식년생진시, 증광문과, 증광생진시 등의 향시 시관이 되고 각 시소(試所)의 참시관(2명)은 관찰사가 도내 문신수령 중에서 차송하여 이들 향시를 실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⁵⁾

소과 초시 중 향시(鄉試)는 8도에서 도 단위로 실시하였다. 시험장은 두 곳으로 나뉘었는데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황해도는 한 곳에서 고시하였다. 시험장소는 일정한 곳을 고시하지 않고 소속 읍 중에서 윤번으로 정하였다. 향시 시관(試官)은 감사가 문과출신의 수령이나 교수 중에서 골라 상시관(上試官) 1인과 참시관(參試官) 2인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부정을 우려하여 1553년(명종 8)부터는 경관(京官)과 도사(都事)를 상시관으로 파견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도사가 파견되었다.

감사는 매년 6월에 도회소(都會所)·공도소(公都會)를 세우고 도내의 유생들을 강론(講論)과 제술(製述)로써 시험하여 삼남지역은 5명, 강원도를 비롯한 나머지 도는 4명

34) 『경국대전』 예전 제과조

35) 『속대전』 예전 제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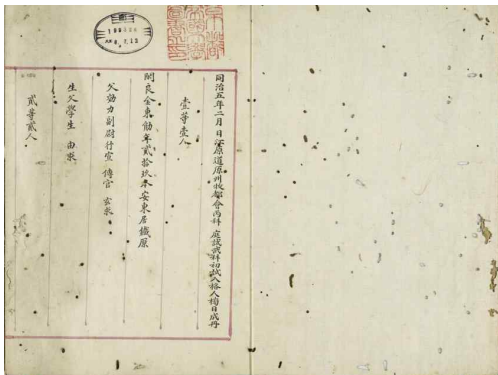
씩 선발하여 생원·진사시 복시(覆試)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다.³⁶⁾ 도회소는 관찰사와 수령이 권면하여 봄에는 3월 보름부터 4월 그믐까지 가을에는 8월 보름 뒤부터 9월 그믐까지를 기한으로 경사(經史)에 통달한 교수나 학문을 좋아하는 생도를 뽑아 경비를 지급하여 학문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세종 11년 당시 강원도에는 2개의 도회소를 설치하여 매 1개 소마다 20명씩 선발하여 운영하였다.³⁷⁾

본 자료는 1866년(고종3) 강원도원주목 도증병과 정시 무과초시입격인 방목성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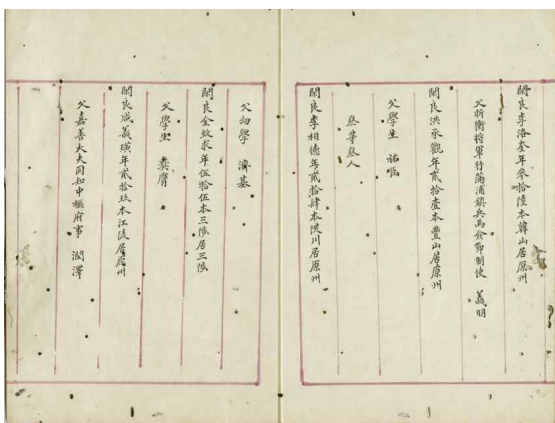
기본정보

- 분류 고서-방목/관안 ! 정치/행정-과거 ! 사부-정법류
- 작성주체 원주목(原州牧) 편
- 관중 필사본
- 발행사항 원주(原州) : 원주목(原州牧), 고종3(1866)
- 형태사항 1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2.5×18.2cm, 有界, 6行字數不定 ; 31.8 X 22.8 cm
- 주기사항 印:「江原道觀察使之印」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청구기호(卜-28 199826) 자료UCI: RIKS+CRMA+KSM-WI.1866.0000-20180331.KY_W_425



방목성책 - 1



방목성책 - 2

36) 『경국대전』 예전 獎勸條

37)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정월 갑진조

6) 동치오년 칠월십육일 관찰사겸순무사 조석여 계본(同治五年 七月十六日 觀察使兼巡撫使 曹錫興 啓本)

감사의 형옥(刑獄)에 관한 직무를 살펴보면 관내에 유배된 죄인을 비롯한 수형자의 관리, 옥사의 관리, 죄인의 치사·질병·구료(救療)·학대 등 옥수(獄囚)에 관한 검찰, 사령(赦令)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³⁸⁾ 형옥에 관한 감사의 권한이 컸다. 지방의 수령은 태형(笞刑)이하의 율(律)에 의거 직단할 수 있으나 장형 이상은 감사에게 보고한 후 명을 받아야 벌을 줄 수 있었다. 또한 감사는 3품 이하와 유형이하는 직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품 이상의 고관 범죄자에 대해서는 직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왕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만 하였다. 사형수는 삼핵법(三覆法)으로 처리하였는데 감사는 먼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읍의 수령과 함께 추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차사원 2명을 정하여 고핵(考覆)하게 한 후 마지막 단계로 감사가 친문한 다음 계달하게 하였다.³⁹⁾

조정에서는 관찰사들이 순행할 때 수령들이 무고한 인명을 상하게 하거나 옥송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자세히 검찰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거듭 지시하고 있다.⁴⁰⁾ 형옥의 엄정·신속한 처리에 대한 관찰사의 책임도 크게 강조되었다.

본 자료는 1866년(고종 3) 7월 16일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조석여(曹錫興)가 국왕에게 올린 계본(啓本)이다. 도내에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인의 성명, 죄명, 옥에 갇힌 연월일, 그리고 추문(推問)을 시행한 여부 및 형신(刑訊) 횟수를 열거하여 보고하고 있다. 도내의 지난 3개월 간의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인의 성명, 죄명, 옥에 갇힌 연월일, 그리고 추문(推問)을 시행한 여부 및 형신(刑訊) 횟수를 열거하여 보고하고 있다. 국왕의 판부(判付)는 같은 달 21일에 내려졌는데, “형조에 계하(啓下)하라”라는 것이다. 즉 계본에 대한 처결은 즉시 내리지 않고 담당관서에 계하하여 처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는 중간결재를 하고 있다.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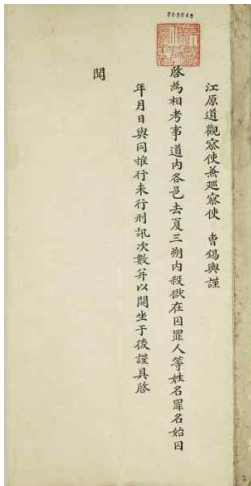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 국왕/왕실-보고-계
- 작성주체 발급 : 조석여(曹錫興)
- 수취 : 국왕(國王)
- 작성시기 186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 1 (흑색, 정방형, 啓)

38) 『속대전』 형전 赦令條

39) 『경국대전』 형전 推斷條

40) 『성종실록』 권284 성종 24년 11월 신축조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36
 자료UCI: RIKS+CRMA+KSM-XB.1866.0000-20160331.KY_X_R0036



조석여 계본 - 1



조석여 계본 - 2

4. 맺음말

본 논고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강원감영과 원주목에서 생산된 자료는 무수히 많다. 그 중 『수록(隨錄)』은 규장각(奎古5120-163·4)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정조 20년(1796)~22년(1798)까지 원주목과 강원감영의 행정·재정구조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감영에 올린 보고와 감영에서 내린 영관(營關), 전령과 하첩(下帖), 타지 감영이나 동급 기관에 보낸 이문(移文), 방(榜), 사직단 기우제문 등을 모았다. 당시 원주 23개면에서 벌어진 농형(農形)보고와 전령(傳令)체계, 전세와 균역세 및 요역(徭役) 징수체계, 환곡제도의 운영과 향촌조직, 감영재정과 원주목, 원주내 23개면을 장악했던 동·서·남·북 창고의 운영, 면리제의 운영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을 농첩(農牒)·호첩·예첩·공첩·과첩·병첩·형첩으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3년 동안의 짧은 기록이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비교하고 종합한다면 조선 후기 시대상을 그리는 데 중요한 밑그림이 되는 대단히 유효한 자료라 하겠다.⁴¹⁾ 이처럼 조선시대 강원감영과 원주목이 소재한 원주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이웃 경상감영의 사례에서 보듯 무수히 많다. 규장각과 연세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도서관 한적실 외에 수많은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생산된 자료의 중요도에서 볼 때 일본을 비롯한 해외 소장 자료 뿐 아니라 국내의 타지에 소재된 자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41)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한 유일한 연구로 오영교, 「18세기 원주목의 행정체계와 향촌조직의 운영」, 『한국사연구』 104, 한국사연구회, 1999를 들 수 있다.

원주관련 자료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에 머물던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수집한 자료들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소장 한국 고문헌에 대해서는 지난 1991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천혜봉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의 주요 대학 및 공공도서관 20여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문헌 자료를 심층 조사하여 6,457종의 목록을 작성하였다.⁴²⁾ 이후 한국서지학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 등에서 개별 기관과 접촉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서지목록을 작성하였다. 현재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기관만 40여 곳을 상회한다.

42) 천혜봉, 「일본소재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과제」,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개정판), 국립중앙도서관, 2011.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와 보존 상황

왕현중(연세대 교수)

1. 머리말
2.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와 관련 문서들
 - 1) 세키노 타다시의 조선 문화재 조사 활동
 - 2)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조사와 이전
3. 세키노 관련 원주 문화재 보존상황과 환수 방안
 - 1) 일본 도쿄대 소장 필드카드 상황
 - 2) 일본 소장 원주 문화재 환수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및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54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법인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1조의 조항과 유사하다. 즉 문화재를 “모든 민족의 문화적 유산에 있어 큰 중요성을 지니는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는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의 중요한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1950년대 일제가 만든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며, 1962년 1월 정식으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1호)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유산 전반을 보호 관리하는 최초의 기본법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원주시 반출문화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사와 검토가 제기되지 못했다. 다만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의 이전을 둘러싸고 시민차원에서의 환수운동이 있었지만, 해외로 나간 원주문화재의 실태에 대해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2020년 원주시 반출문화재 보존·환수·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은 2010년대 후반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문화재 환수운동의

흐름에 비추어 매우 뒤늦게 시작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원주지역 귀중한 한국문화재 현황을 조사하고 국외 소재 반출 경위 등 일체 조사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 발표에서는 일제강점전후 일본정부의 식민지침탈 정책에 의해 조사된 일본 도쿄 대학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원주문화재 조사와 자료 보존 상황을 검토하려고 한다. 세키노 교수는 1902년이래 조선 전역에 걸쳐 문화재 조사라는 명목 아래 한국문화재를 마음대로 발굴 조사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며 반도적 특색을 규명한 식민주의적 고고미술학자의 원조격이다.¹⁾ 이에 후삼국에서 고려초기 원주 불교 문화재를 비롯하여 가치있는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관심을 촉발됨으로써 역외지역으로의 문화재 반출에 도화선을 이룬 식민지 유적조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²⁾

여기에서는 일제초기 원주 문화재 조사의 양상과 현재까지 자료 보존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문화재 반환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한다.

2.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와 관련 문서들

1) 세키노 타다시의 조선 문화재 조사 활동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7~1935)는 1867년 일본 동북지방인 니가타(新潟)현에서 태어났다. 1895년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조가학과(造家學科)를 졸업하고 도쿄미술학교 강사, 나라(奈良)현에서 고건축 등을 조사하는 기사(技師)를 거쳐 1901년 도쿄대학 공과대학 조교수가 되었다. 1902년에는 대학의 명령으로 한반도의 고건축과 각종 유적을 조사하였다.

1902년 7~8월에 이루어진 조선 건축물 조사에 대해 세키노 자신은 “처음에 나의 출발에 즈음하여(辰野) 공과대학 학장은 특별히 명령하기를 한국건축의 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또 말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관찰하라, 깊이 앎더라도 관계없다”고 했다.³⁾ 그의 조선 첫 조사여행은 서울, 개성, 경주, 대구 등에 한정되었다. 옛날 고구려의 중심이었던 평양 및 백제 말년의 도성이었던 부여지방의 조사를 시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첫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건축조사보고』라는 보고서를 남겼다. 그가 조선역사

1) 藤井恵介, 早乙女雅博, 角田眞弓, 西秋良宏 編, 『關野貞アジア踏査』(도쿄대학종합박물관, 2005).
2) 원주 피탈문화재에 대한 주요 논저는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 황수영 편,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단, 2014 ; 정규홍, 『석조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07, 『우리 문화재 반출사』 학연문화사, 2012, 『우리 문화재 수난일지』 10권, 학연문화사, 참조.
3) 세키노 타다시, 강봉진 옮김, 『한국의 건축과 예술』, 산업도서출판공사, 1990, 36면 ; 류시현, 「1900~1910년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선 문화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30~31쪽, 재인용.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3천여 년 전부터 중국의 문화를 받아 개명의 역(域)에 달하고 상고(上古) 일본에 복속했던 때에는 그 문물, 종교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일본의 개화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적지 않았다. 일본의 기반을 벗어나서 부터는 피아의 관계가 또 옛날과 같이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중고(中古) 수백 년 간 소위 왜구가 한국의 연안을 침범한 때가 있었고, 임진란 때에는 한국의 국토를 석권했던 때도 있었다. (...) 한국은 때때로 대륙의 침략을 받고 한(漢)나라 또는 만주에 예속되었던 때도 있지만 그 예속은 일시적이었거나, 또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제로 있어서는 거의 시종여일하게 독립국이었던 것으로서, 그 문화는 원래 한토(漢土)의 계발에 영향을 받은 것이 많았으나, 수천 년의 오래된 나라로서 어찌 다소의 특색을 발견할 수 없으랴. 한국 국민의 건축술은 어떠한 유래를 가지고 어떠한 변천을 했고 어떠한 결과를 가졌었느냐, 일본 및 한(漢)나라와의 관계는 어떠한었느냐,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세계의 건축사, 특히 동양의건축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흥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

그는 한국 고대사가 일본과 한 또는 만주에 예속되었던 적은 있었지만, 한국 국민의 건축술이 어떠한 유래를 가지고 어떻게 변천하며,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궁금해했다. 또한 그는 일본과 중국 등 동양의 건축사를 연구하는데 비교사적으로 조선의 예술, 문화 유적에 대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본격적인 문화재 조사는 1909년 8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세키노 일행은 1909년 8월 23일 고건축조사에 관한 사무의 촉탁을 받고, 건축소 촉탁 야쓰이, 구리야마와 함께 9월 19일 경성에 도착했다. 주로 한국 고건축물의 조사이고 동시에 다른 유물 유적의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에 걸쳐 조사 활동을 벌였다. 시일은 80일로 예정했다.⁵⁾

9월 21일부터 남대문루를 비롯한 서울 일대의 건축물을 조사하고 고미술 수집가들을 만났다. 10월 1일에는 개성에 도착하고 2일에는 만월대를 답사했다. 10월 3일부터 4일까지 고려 왕릉을 답사했는데, 공민왕릉, 현릉, 동 왕비노국대장공주 정릉, 가릉에서 다소의 고려자기 파편을 채집하고, 10월 6일에는 관제묘, 성균관, 귀법사지를 보고 돌아오면서 선죽교 등을 답사했다. 이후 황해도 황주, 평양 부벽루, 대동강 강안 고부 답사 등을 조사했다. 11월초에는 강화도 고분 및 강화도 전등사, 광주에서 서울로 창경궁 등 궁궐을 조사하고 이어 11월 20일에는 수원성 등

4) 세키노 타다시, 강봉진 옮김, 앞의 책, 36면 ; 류시현, 앞의 논문, 32쪽, 재인용.

5) 정규홍, 『우리 문화재 반출사』 학연문화사, 2012, 58~70쪽.

을 조사했다.⁶⁾ 이렇게 1909년 9월 중순부터 탁지부의 위촉을 받아 3개월 동안 경성 부근 및 개성과 평양, 의주 지방을 조사한 것이었다. 이 당시 세키노의 조사활동은 당시 한국의 신문 지상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⁷⁾

세키노의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세키노는 강연을 하기도 했다. 1909년 11월 23일 탁지부 주최로 종로 광통관에서 세키노의 강연이 있었다. 당시 황성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일본 모모 학사 3씨는 아국의 각종 고적을 조사하여 荒井氏の 소개로 광통관에서 강화회를 개최한다니 자국의 고적을 자국민은 알지 못하고 外人의 강화를 시칭하니 청강 제씨의 감상이 어찌 할른 지” 라고 하였다.⁸⁾ 이때 세키노의 강연 주제는 국내 고대건축조사를 하면서 고구려묘를 파굴한 결과 화분 1개와 석경 1개 연와 1편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 세 가지 물건의 제작 기교를 찬양하면서 반면에 지금의 조선 현실이 퇴보됨을 애석히 여겼다고 한다.⁹⁾ 이렇게 조선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매우 비판적인 논평을 싣기도 했다.¹⁰⁾

이렇게 1909년 세키노 일행의 조사는 그해 12월말에 끝났다.¹¹⁾ 1909년에 조선 문화재 조사의 결과는 1910년 1월 22일 일본 사학회레회에서 「한국에서의 신라 이전의 유적」이라는 제목을 강연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정식으로 『조선고적조사약보고서』를 최종 마감되었다.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 이후에도 세키노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고적 조사 사업을 벌였다.¹²⁾

<표 1> 세키노 타다시의 조선 고적조사 일정(1910~1915)

년도	일정	대상지역	주요 내용	비고
----	----	------	-------	----

- 6) 아래 세키노 조사단의 내용은 『1909년 「조선고적조사」의 기억』(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4쪽.
- 7) “韓物日査”, 대한매일신보(국한문)[大韓毎日申報(국한문)], 1909.10.19. ; “古物調査”, 황성신문[皇城新聞], 1909.10.19.; “學次招待”, 황성신문[皇城新聞], 1909.11.07.;
- 8) 『황성신문』 1909년 11월 23일자. 기사 참조.
- 9) 『황성신문』 1909년 11월 25일자. 기사 참조.
- 10) “시사평론 여보게 일인 공학자의 강론하였다는 말을 들은 즉 참 기가 막히데, 왜 한국이 옛적에는 공장의 미술이 극히 정교하더니 점점 퇴보가 되어 지금은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다하니 그게 웬 일이며 그런 중에 옛적 미술품이 요행 흠속에서 묻힌 것을 한인은 차져내지 못하고 일인들이 찾아내어 보고 연구하나니 강론하느니 한즉 그게 다 웬일인고 그러한지 기막혀 못살겠네.”(『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6일자, 기사 참조).
- 11) 谷井濟一, 「韓國葉書だより」(제15信~제16信) 『歴史地理』 제15권 4호, 역사지리학회, 1910년 4월 참조.
- 12) 일제의 조선고적조사의 시기는 크게 6시기로 구분된다. 1기(1900~1909년) 시기, 2기(1910~1915년) 시기, 3기(1916~1920년)시기로 정식으로 내무부에서 추진한 조선고적조사위원회의 발족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4기(1921~1924년), 5기(1925~1930년), 6기(1931~1945년)시기로 나눈다(高橋 潔, 広瀬繁明, 山本雅和 「關野貞의 조선고적조사」 『關野貞アジア踏査』(도쿄대학종합박물관, 2005), 233~236쪽). 세키노 일행의 자세한 일정 및 조사 내역에 대해서는 정규홍, 위의 책, 2장 고적조사에 따른 문화재 반출, 주요 조사표 2(79~9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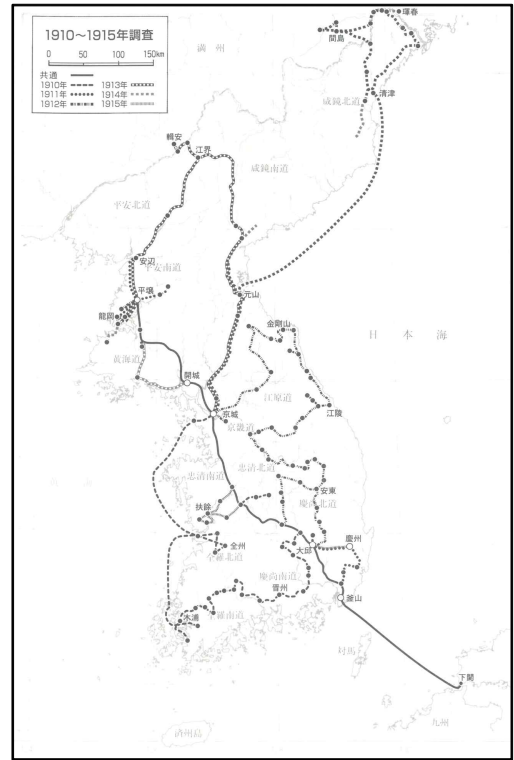
1910	9.27~10.8	경성일대, 개성, 평양	승가사, 동대문, 경희궁 태고사, 개성 개국사지 석탑, 홍국사지 석탑, 평양 인화궁지, 대성산성, 대성산성 서록 고분조사	
	10.12~12.14	옥천, 보은, 성주, 고령, 창령, 함안, 진주, 남원, 광주, 능주, 남평, 목포, 해남, 전주, 익산, 군산	옥천 일대 건축, 보은 향교, 문묘, 법주사, 성주 일대 석탑, 문묘, 향교, 가양산 해인사, 고령 가야시대 고분, 진주 옥봉 및 수정봉 가야시대 고분, 쌍계사 유물 조사, 구례 화엄사 등지, 광주 성동5층탑 나주 읍내석등, 문묘, 심향사 등 영암 도갑사, 해남 대흥사, 전주 조선시대 건축물, 익산 마한궁지, 미륵사지, 사자암, 쌍릉 조사	
1911	9.18~1.4	광주, 고양, 개성, 강서, 강동, 성천, 봉산, 안성, 경주, 경주, 옥산,	개성 폐영통사대각국사비, 찰간지주, 5층 석탑 등, 강동 한평동 황제묘, 성천 객사 동명관, 용선루 등지, 봉산 미산면 도강동 도총, 당토성, 와현면 고분, 문묘 대성전 등, 경주 남산성지, 명활산성지, 흥덕왕릉, 헌덕왕릉, 금오산 서면 약사석상, 석가석상, 침성부, 신문왕릉 등 각종 왕릉, 분황사찰간지주, 월정교지, 옥산 폐정혜사 13층탑, 옥산정사독락당 및 양진암 등, 동화사 찰간지주, 대웅전 각전 등	[7] 「朝鮮古物天覽」, 『每日申報』2면 2단 1911년 7월 16일
1912	9.18~1.7	강서, 춘천, 양구, 금강산, 고성, 양양, 강릉, 오대산	평남 강서 간성리 고분조사, 춘천 우두산 남성지, 문묘, 금강산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유점사, 신계사 조사, 건봉사, 낙산사, 강릉 신복사지, 하시동 고분 발굴, 한송사지, 보현사 등지,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오대산 사고 조사, 평창 일대	[8] 「평양통신: 古墳調査」『每日申報』3면 2단 1912년 9월 29일
	11.10~12	원주	홍법사지, 법천사지, 거둔사지 등 조사	
	11.15~12.11	여주, 충주, 봉화, 안동, 예천, 문경, 함창, 상주, 의성	여주 신록사, 고달사지, 충주 탑정리 석탑, 개천사지, 풍기 비로사, 순흥 초합사, 영주 부석사, 예천 개심사지, 문경 화장리 석탑, 상주 달천리 석탑, 상병리 석탑, 의성 고운사 등 일대 건축물 조사	[9] 「朝鮮 最古의 寶物, 一千 三百五十年 前の 壁畫, 江陵의 古鍾 浮石寺의 建築, 工學博士 關野貞氏談」『每日申報』13면 1단 1913년 1월 1일
1913	9월 중순~12월 중순	평양, 해주, 진남포, 통구 등지	대동강면 토성 고와당 수백점 채집, 해주 광동면 소재 신평사 조사, 진남포부 대상면 매산리 고분 벽화, 용강군 2개 고분 벽화, 용강 어을동 고성 일대 점제비탁본, 만주 집안현 고구려 시대 유적 조사 통구 고구려 광개토대왕비 조사(1907년 조사 예정) 장군총, 태왕릉, 천추총 등 다수 와편과 전 수집,	[10] 「黃海通信: 關野 박사의 강연」『每日申報』1면 4단 1913년 9월 26일 [11] 「平南通信: 關野氏 일정 변경」『每日申報』1면 3단 1913년 9월 28일 [12-1] 「咸鏡道 古蹟調査(1), 關野博士의 講演」『每日申報』1면 2단 1914년 1월 9일 [12-2] 「咸鏡道古蹟調査(2), 關野博士의 講演」『每日申報』1면 2단 1914년 1월 10일 [12-3] 「咸鏡道古蹟調査(3): 關野博士의 講演」『每日申報』1면 3단 1914년 1월 11일
1914	9월 상순~12월 중	평남, 용강, 황해도, 은률, 함북, 경흥,	평남 용강군 성채동 고분, 황해도 은률 운화동 지석묘 등 조사	

	순	경원, 은성, 간도, 회령, 부령		
1915	6 월 말 ~7.23	경주, 연산, 임천, 공주 등지	황나미 검총 발굴, 보문리 완총, 금환총, 부부총, 와총, 남산 불적 답사, 연산 개태사지, 부여 룡산리왕릉 중하총, 서하총 발굴 조사, 임천 성흥산성, 대조사 조사, 공주산성	[13] 「〈각지통지-대전〉 관야정[關野貞] 문학박사 고적조사위해 대전에 오다」『釜山日報』1면 6단 1915년 7월 20일 [14-1] 「백제의 古蹟(1), 공학박사 關野貞氏 강연」『每日申報』1면 2단 1915년 8월 20일 [14-2] 「백제의 古蹟(2), 공학박사 關野貞氏 강연」『每日申報』1면 2단 1915년 8월 22일
1916	9 월 중순~11 월말	평양, 강서, 안주, 용강, 선천, 나주, 전주, 김제	대동강 상류의 고적, 정백리 제1~5호, 석암리 고분, 노산리, 내리, 토포리, 용암리 대구 돌무덤, 안동 출전 : 關野貞, 「平安北道及滿洲高句麗古蹟調査略報告」『大正6年古蹟調査報告』 조선총독부, 1918	[15] 「關野박사 入京」『每日申報』2면 5단 1916년 9월 19일 [16] 「평양에서: 宇都宮視察團, 서기이하 임명, 자혜의원 근황, 兩江과 수력 전기, 간호부 모집, 자동차 運輸의 허가, 협찬원의 위촉, 關野博士 일행」『每日申報』2면 8단 1916년 9월 25일 [17] 「關野박사 조사 일정」『每日申報』2면 5단 1916년 9월 27일 [18] 「湖南遊歷(5), 나주에서 전주에」『每日申報』4면 4단 1916년 10월 1일 [19] 「평양에서: 수도 품평회 표상식, 산림구분 조사, 수산품평회, 문학사내상기」『每日申報』7면 1단 1916년 10월 1일 [20] 「평양에서」『每日申報』2면 9단 1916년 10월 13일 [22-1] 「인사소식」『每日申報』2면 6단 1916년 11월 15일 [22-2] 「關野博士入京」『每日申報』2면 6단 1916년 11월 29일 [23] 「古蹟調査委員會」『每日申報』2면 2단 1916년 11월 30일 [24] 「總監邸의 雅會」『每日申報』2면 2단 1916년 12월 2일 [25] 「인사소식」『每日申報』1면 9단 1916년 12월 2일 [26-1] 「확인된 樂浪郡 郡治의 장소(1), 낙랑군지 시대의 유적, 군치장소, 漢족의 건축물」『每日申報』2면 5단 1916년 12월 5일 [26-2] 「확인된 樂浪郡 郡治의 장소(2)」『每日申報』2면 5단 1916년 12월 6일 [27] 「묘지에서 발굴된 純金製耳環」『每日申報』3면 2단 1916년 12월 7일

위의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1910년 이래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주기적으로 조선 전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10~11년도에는 주로 전국적인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했다면, 1912년도에는 춘천으로부터 강원도 일대와 충북 경북 등 내륙지방을 두루 거쳤다는 점이다. 1912년 조사의 전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 「朝鮮 最古의 寶物, 一千 三百五十年 前의 壁畫, 江陵의 古鍾 浮石寺의 建築, 工學博士 關

“9월 16일 동경을 출발하여 조선의 사적조사로 강원도로부터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涉하여 전후 69일간 약 5백리정의 산하를 답사한 공학박사 관야정씨는 語하여 왈 ”予가 조선에 대한 史蹟調査의 여행은 전후 4회인데 보년의 여행은 多히 發見하고 且 興味が 有한 事は 稀少하였으니 渡鮮후 京城及江西 附近의 史蹟을 踏査하였으되 江西에서는 고려시대의 ▲三箇의 古墳을 발굴하였는데...▲最古의 美術品이라 且沙里院驛 부근에서는 帶方太守의 高墳을 조사하고 南漢山麓에서는 백제초기에 대한 多數한 高墳을 발굴하여 多少得한 바가 有하였고 10월 5일 경성을 출발하여 5백리의 산천을 육십구일간에 跋涉하였는데, 此行의 特히 記할 것은 춘천에서 靺靥의 遺跡을 探하고 去하여 金剛山嶺을 究하여 장안사, 정양사, 摩訶衍, 유점사, 신계사 등의 건축보물을 探查한 中 유점사에서 신라시대의 제작에 係한 四十四體의 小銅佛을 발견하고 更 히 金강산의 풍광에 친히 路를 동해안으로 取하여 건봉사, 락산사 등을 經하여 ▲濊國의 古都 江陵에 着 하여 更히 大觀 령을 亘하여 오대산에 登하여 有明한 四庫를 조사하였는데 상원사에서는 開元 十三年의 銘이 有한 古鍾을 연구하였노니 此鍾은 조선 최고의 제작하여 固有의 特色을 認할 珍品이오 又 原州에서는 新라 高麗 양시대의 古塔, 石佛, 鐵佛, 石碑, 石浮圖 등 多數를 調査하고 여주로부터 충주에 出하여 玆에서 優秀한 고대의 유물을 발견하고 죽령을 超하여 소백산, 대백산의 古寺를 歷訪하였는데 소백산의 부석사에서 고려시대의 목조건축 二棟을 발견하였노니 유래 조선에서는 이조 이전의 목조건축물을 未曾有한 處로 ▲建築史上의 大發見이라. 且 同寺에 在한 고려시대의 製作에 係한 丈六의 阿彌陀如來의 木□는 우수한 작성으로 최고의 物이라 同寺의 祖師堂에는 고려시대의 壁畫及 菩薩仁王의 像이 有하여 江西의 美術품을 除하고는 조선의 최고의 寶什으로 約 62~30년전의 作이오 又 대백산 覺華寺에 史庫를 조사하고 안동, 함창, 상주를 經하여 金川에 出하여 約 구십일간의 旅程을 終하고 歸京하였는데 就中 ▲승경제일로 위할 지는 金강산으로 予는 外金강 및 內金강을 究 하였는데 특히 外金강의 風光은 선혼장대 巖石이 重疊하여 奇峯이 突凡한 絶景은 到底히 妙義耶馬□의 比가 아니오. 且강릉에 至하면 到處에 翠微가 縱橫하여 畫趣橫溢함을 覺하겠더라 云云” 14)



〈그림 1〉세키노의 고적조사(1910~19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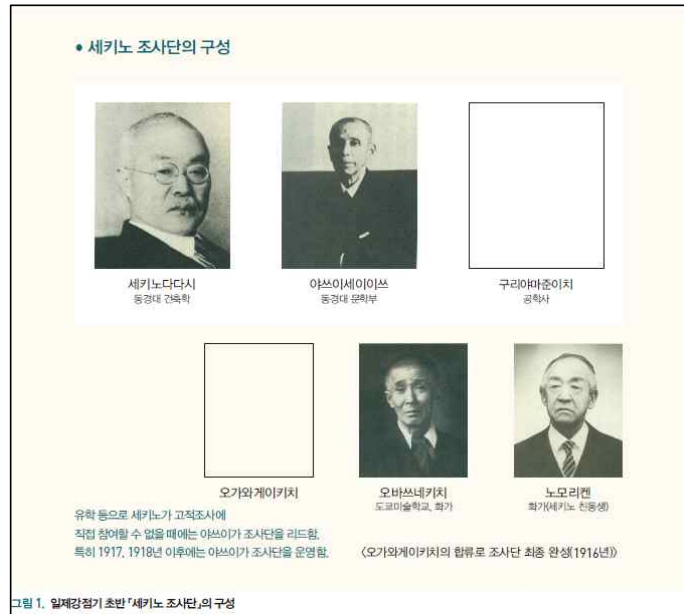
1912년 11월 중순에 원주지역 문화재를 조사한 상황을 당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는 아래와 같 당시 강원도 일대에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세키노 박사 이하 6명과 강원도청에서 수행하는 도 서기 1명, 안내와 호위를 겸한 헌병보조원(조선인) 1명을 더해 총 8명이었다. 당시 야쓰

13) 『毎日申報』13면 1단 1913년 1월 1일

14) 『毎日申報』, 1913년 01월 01일 13면 1단

이 세이이치는 1909년 세키노의 고적조사에 참여한 이래 1910년대에도 이를 주도하였다고 한다.¹⁵⁾

이들은 10월 5일 경성에서 출발하여 7일에 춘천에 도착하였고, 13일 금강산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이후 금강산, 고성, 양양, 강릉, 오대산을 거쳐 원주에서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원주에서는 11월 8일 도착하여 9일 이후 11일까지 원주시내에서 조사활동을 마치고 12일에 원주에서 출발하여 흥법사지를 조사하기 위해 문막에서 숙박하고, 다음날인 13일에 거둔사지를 방문하였다. 14일에는 원주에서 여주로 출발하였다.¹⁶⁾ 이때 조사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세키노 타다시 조사단의 구성

“원주에서는 조금 따뜻해졌는데, 이 역시 이른바 삼한사온의 기후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조선에서의 겨울 날씨는 3일 정도 춥고, 그 다음에 4일간은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것이 통례로, 이를 두고 삼한사온이라 한다. 이 때문에 조선의 겨울 역시 비교적 견디기 쉽다). 어쨌든 기후가 온화한 영동 일본해 연안에서 준비할 여유도 없이 영서로

15) 야쓰이 세이이치는 1880년 와카야마현(和歌山縣)에서 태어났다. 1907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교토제국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지만, 1908년 도쿄로 돌아와 도쿄제실 박물관의 수장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1909년 세키노의 한국 조사에 조수로 내정된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다른 조사에 참가중인 관계로 야쓰이가 대신 참가하게 되었다. 이때 야쓰이의 사진촬영 기술이 인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 세키노가 서양으로 유학하기 전까지 실시한 거의 모든 조사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조선고적도보』의 편집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09년도부터 많은 유적을 굴착 조사하였는데, 1913년의 고구려 유적 조사, 1916년의 낙랑 고분 발굴 조사를 현장에서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여 능산리 고분, 나주 반남면 고분군의 발굴 조사로도 알려져 있다. 총독부가 실시하는 정식 조사 이외 울산 등지에 산재한 왜성(倭城) 연구에도 힘을 쏟았다. 1921년 부친의 병으로 일본에 돌아간 후 와카야마시의 공안위원, 시의 문화재 보호위원, 회사 간부 등을 역임하다가 1959년(80세)에 사망하였다(동북아재단 고구려유산 자료사이트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ku.d_0003_0010_0020_0020).

16) 세키노 일행의 일정표에 의하면 11월 8일 원주에 도착하였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것으로 나오고 12일에 출발하여 여주에 숙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3일과 14일에 원주 부근 거둔사지와 흥법사 등지는 여주에서 머무르면서 조사하였다. 따라서 원주권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谷井濟一, 「朝鮮通信(一)」 『考古學雜誌』 제3권 제4호, 1913.1 232쪽 참조).

이동하여 이 급격한 추위에 조금 당황하였습니다. 원주군에서는 매우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원주읍 부근에는 신라 말기의 철불, 석불, 석탑 등이 여기저기 있어, 경주도 맨발로 도망갈 정도입니다. 철불은 좌상이 5구 있으며, 석(화강암)불 역시 좌상이 7구 정도 있는데 모두 등신대입니다. 그 밖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소불 13구 정도가 길 옆 또는 웅덩이 속에 머리와 양손이 없어진 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석탑 역시 6기 정도 있는데 모두 읍 부근, 논밭의 두렁 등에 현존해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진공대사眞空大師碑의 비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비는 고려 태조太祖의 찬문撰文으로, 문자는 최광윤 崔光胤에게 명하여 당唐 太祖대조의 글을 모아 모방한 것으로, 크고 작은 해서, 행서行書가 행간을 채우며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합니다. 그 기운은 현실세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천하의 보물이라 할 정도입니다. 원래 이 비는 지금의 원주군 지향면地向面 흥법동興法洞 흥법사지 興法寺址에 있던 것으로 후에 비신만을 관아에 옮겨 두었는데, 어느 군수가 이를 비속하게 여겨 도랑에 던져버렸고, 부러진 두 조각이 객사客舍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한때 소재가 불명했는데 이번에 비신 상부 파편을 원주 공립보통학교(원래의 객사)교정에서, 하부 오른쪽 두 조각을 원주 수비대장 교실 守備隊將校室 앞 돌담에서 찾게 되어 정말이지 기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공대사 비眞空大師碑의 이수螭首 및 귀부龜趺는 지금도 흥법사지에 현존하고 있으며, 실로 훌륭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11월 12일 원주를 출발하여 흥법사지를 조사하고 나서 문막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13일에는 거둔사지 巨頓寺址를 찾아갔습니다.

거둔사지는 원주군 부론면 富論面 거론동 巨論洞에 있는데 사지에는 석단 石壇 등이 훌륭하게 남아있으며, 3층 석탑과 원공국사승묘탑비 圓空國師勝妙塔碑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이 절이 얼마나 성대하였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승묘탑勝妙塔은 지금 경성에 불법으로 옮겨져 있으며 탑이 있던 장소는 파헤쳐져 있습니다.

13일에는 흥호리 興湖里 현병출장소에서 1박한 후, 다음날 14일 원주군 부론면 원촌院村 법천사지法泉寺址를 찾았습니다. 원촌 院村 민가 남쪽에는 찰간지주刹竿支柱가 1기 있는데, 아마 지금의 원촌 민가 주변은 법천사의 여러 전각이 있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원촌 민가의 동쪽 산중턱에는 지광국사현묘탑비 智光國師玄妙塔碑가 있는데 비신은 점판암으로 측면에는 멋진 조각이 새겨져 있고 귀부龜趺 및 이수螭首는 화강암으로, 역시 훌륭한 조각입니다. 요遼 대안大安 원년(1085)에 건립된 것입니다. 현묘탑은 운반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오사카의 모 부호가 거액을 투자해 고려시대의 유명한 묘탑을 구입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것이 이 현묘탑입니다. 최근 들은 바로는 이 현묘탑을 판 조선인은 횡령죄로 걸렸으며(국유지에 있는 이 묘탑을 멋대로 매각했기 때문), 현묘탑은 오사카에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앞서 이를 구입하여 오사카의 모씨에게 전매 한 경성의 모 상인은 큰 타격을 입은 듯합니다. 작년부터 묘탑 반출이 하나의 유행처럼 일어났으나 이번에 현묘탑 매각자가 법에 걸려들었고 탑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비추어 보면, 이후 이러한 나쁜 풍조는 근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천사지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경기도 여주군으로 향하였습니다. 10월 5일 경성을 출발한 이후 약 40일간 강원도 여기저기를 조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점점 추워지면서 말 등에 있는 것 역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짐 싣는 말 외에는 원주에서 쉬게 하고 앞으로는 걸어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¹⁷⁾

당시 원주에서 조사된 것은 이후 『고적조사약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7) 谷井濟一, 「朝鮮通信(二)」『考古學雜誌』제3권 제5호, 1913.1 ; 황수영 편,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464~465쪽, 번역문 참조.

〈표 2〉 조선고적조사표(지방별, 원주 1912.11.10.~11)

순서	등급	명칭	시대	장소	날짜	화상	비고
1	乙	本楮田洞 五重石塔	고려	本部面丹村坪	1912.11.10		
2	乙	邑玉坪 五重石塔	신라				
3	乙	同 七重石塔	신라	本部面邑玉坪	1912.11.10		
4	乙	加馬只 東三重石塔三基	신라	本部面加馬只	1912.11.11		
5	乙	同 中西 三重石塔 二基	고려				
6	丙	文廟大成殿	鮮後				1734
7	丁	同 東西廡	鮮後				1734
8	丙	鄉校 明倫堂	鮮後				
9	丁	同 東西齋	鮮後				
10	丙	鎭衛隊營舍 運籌軒 ¹⁸⁾	鮮後				
11	丁	同 宣威樓	鮮後				
12	丙	客舍	鮮中	公立普通學校	1912.11.12		
13	丙	船舟正坪 石塔殘石	고려				
14	乙	舟村坪 刹竿支柱	고려				
15	甲	邑玉坪 鐵造釋迦像	신라				
16	甲	同 同	신라				
17	甲	同 同	신라				
18	甲	邑玉坪 鐵造藥師像	고려				
19	乙	本楮田洞 石造彌勒像	고려				
20	乙	同 鐵造彌陀像	고려				
21	乙	古城員 石造釋迦像	고려	楮田洞面古城只	1912.11.10		
22	丁	船舟正坪 石造藥師像	고려	本部面丹村坪	1912.11.10		
23	丙	邑上洞 石造菩薩像	고려				
24	乙	舟村坪 石造佛像 二軀	고려				
25	丙	鳳凰山 石造菩薩像	고려				
26	丙	舟村坪 石造菩薩像	고려				
27	丙	邑玉洞 大理石造佛像 十三軀	신라				
28	丙	加馬只 石造彌勒像 二軀	신라				
29	乙	金悌甲 忠烈碑	鮮中	本部面邑下洞	1912.11.10		1670
30	甲	廢興法寺 眞空大師碑	고려		1912.11.13		
31	乙	同 三重石塔	고려				
32	乙	居頓寺廢址	신라				
33	甲	廢居頓寺 三重石塔	신라				
34	甲	同 圓空大師勝妙塔碑	고려		1912.11.14		1025
35	乙	法泉寺 智光國師塔及 佛殿廢址	고려				1085
36	甲	廢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	고려				1085

위와 같이 1912년 11월 8일과 14일에 걸쳐 일주일간 조사된 원주 지역 문화재는 모두 36개 유물 항목으로 나누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의 등급을 갑, 을, 병, 정으로 매겼다. 이 시기 문화재의

18) “포정루(布政樓) 이 문루(門樓)는 선화당의 정문인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인 중층팔작(重層八作)지붕으로, 양식은 초익공(初翼工)집이다.....이 문루는 원래 포정루(布政樓)였으나 1896년 강원감영이 춘천으로 이전하고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가 이곳으로 입주하여 선화당(宣化堂)이라는 현판을 떼고 ‘운주헌(運籌軒)’이라는 현판을 달았으며, 포정루라는 현판을 떼고, ‘선위루(宣威樓)’라는 현판을 달았다. 1907년 진위대가 해산하고, 1910년 일제의 침략이후 운주헌(運籌軒)이나 선위루(宣威樓)의 현판은 없어졌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문루에 현판이 없으므로 원주인 민환기(閔桓基)씨가 ‘강원감영문루(江原監營門樓)’라는 현판을 제작하여 달았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의 명칭이 아니었으므로 1991년 원명대로 ‘포정루(布政樓)’라는 현판을 달았다.”(사적 제439호, 원주감영 설명문, <http://map.wonju.go.kr/lifemap/map/cultour/tradition-01-04.html>)

등급은 갑이 ‘최고 우수한 것’, 을이 ‘이것에 다음으로 하는 것’ 으로 개별 건축물과 고분 등 조사대상에 대해 보존 필요 정도를 표시하는 기록이었다. 또한 문화재의 시기를 각 시대로 삼국, 신라, 고려, 조선시대 4기로 구분하였고, 조선시대는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였다. 병은 조선반도 전역에 조사를 마친 후에 을에 편입될 가능성이 남은 것이었다. 병은 금일 이후의 조사에 의하여 강력하게 보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은 보존의 가치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표현되었다.¹⁹⁾

당시 조사의 결과는 바로 『대정 원년 제1 조선고적조사표(지방별)』 보고서에 원안 그대로 실렸다. 그 중에서 ‘갑’ 으로 규정한 것은 15~18번 철조석가상(鐵造釋迦像), 30번 폐흥법사 진공대사비(廢興法寺 眞空大師碑), 33번, 폐거둔사 삼중석탑(廢居頓寺 三重石塔) 34번, 원공대사승묘탑비(圓空大師勝妙塔碑), 36번, 폐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廢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 등 7개의 유물이다.

그 중에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에 대해서는 이미 세키노가 1911년 9월 21일 필드 카드 (310100405_s)에 발견 경위와 탑비의 상태에 대해 메모식으로 기록해둔 바 있었다.²⁰⁾

<표 3>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 필드카드(1912)

104	邑東南刹竿支柱(乙) 在本部面丹村坪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國	カード
						
030812600 原州 邑東南刹竿支柱(乙) 在本部面丹村坪 高石口ヨリ約十二尺						

19) 高橋 潔, 広瀬繁明, 山本雅和 「關野貞의 조선고적조사」 『關野貞アジア踏査』(도쿄대학종합박물관, 2005), 251~252쪽.
20) 이하 세키노 타다시의 ‘필드카드’ 원문 탈초와 번역은 홍익대 방광석 교수가 담당했다.

<p>邑東南鳳川ノ右岸ニアリ此處ノ北方ニ方リ二軀ノ石佛像アリ</p> <p>普通ノ形式唯兩柱間ニ竿ヲ置クル孔ヲ円ク穿テリ</p> <p>年代ハ高麗初期 少ク上方ニ滅殺アリ</p> <p>此處ヨリ「王大寺」ノ平瓦殘片ヲ得タリ輿地勝覽ニ</p> <p>「天王寺在州東二里許今廢爲射廳」トアル天王寺廢址カ</p> <p>[그림]</p>	
<p>高麗</p> <p>○</p>	<p>元 〃 〃 〃 〃</p>
<p>030812600</p> <p>원주</p> <p>邑東南刹竿支柱(乙) 在本部面丹村坪</p> <p>높이 석구(石口)로부터 약 12척</p> <p>읍 동남부 봉천(鳳川)의 우측 강가에 있다. 이곳의 북쪽에 두 개의 석불상이 있다.</p> <p>보통의 형식, 단 양쪽 기둥 사이에 간(竿)을 세우는 구멍을 둥글게 뚫었다.</p> <p>연대는 고려 초기. 위쪽에 조금 감쇄(滅殺)가 있다.</p> <p>이곳으로부터 ‘왕대사(王大寺)’의 평기와 잔편이 나왔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p> <p>‘天王寺在州東二里許今廢爲射廳’으로 되어 있는 천왕사의 옛터[廢址]인가?</p>	

우선 원주 지역에서 첫 번째 조사는 원주읍 동남에 있었던 봉산동 찰간지주(刹竿支柱-당간지주)로 보인다. 이 당간지주는 위의 필드카드에 기록하고 또한 현지 촬영사진도 남겼다. 위의 사진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낸 『유리원판 목록집 I』에 의하면, 1912년에 촬영한 원판번호 120695 봉산동 당간지주로 보인다.²¹⁾

이렇게 유물 유적에 대한 사진 촬영은 이미 조선의 고적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한 세키노의 1902년 조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고건축조사 당시 무라카미 텐신(村上天津)으로부터 유리건판을 구입하여 경성, 특히 창덕궁 촬영까지 의뢰했다고 한다.²²⁾ 또한 1912년부터는 사와 순이치(澤俊一)가 고적조사활동 촬영에 참여했다. 그는 1912년 8월 조선통독부 총무부 총무국 촉탁으로 위임되어, 사진 촬영에 비교적 능숙하지 않았던 고고미술학자들의 조사활동에 동행

21) 명칭 강원원주 봉산동 당간지주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742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당간지주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695

22) 김계원,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고미술-세키노 타다시(관야정)의 고적조사사업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4, 23~3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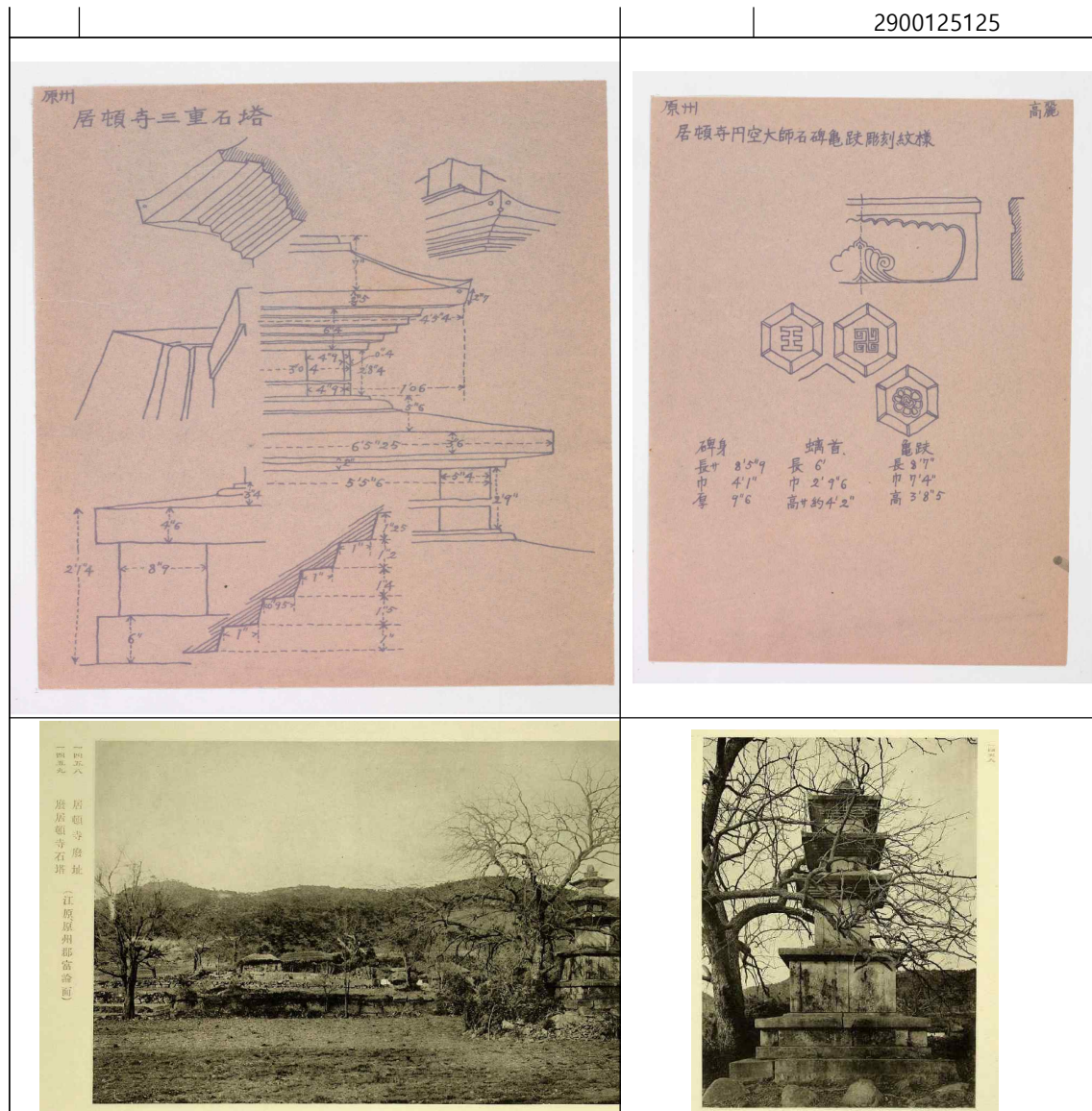
하기 시작하였다. 원주일대의 사진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으로 정리되어 있다.²³⁾

우선 원주 부론면 거돈사지의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살펴 보자.

〈표 4〉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거돈사지 조사(1912)

121	原州郡富論面巨論洞居頓寺跡門空大師石碑龜趺[高麗 図面]	大正1,11.1 3	青焼	2900122121
				
123	原州居頓寺三重石塔[高麗 図面]		青焼	2900124123
				
			〈그림 8〉 120709 유리건 판 거돈사지 삼층석탑(1912)	
124	原州居頓寺三重石塔[高麗 図面] 青焼, 2900125124	125	原州居頓寺門空大師石碑龜趺 彫刻文様[高麗 図面], 青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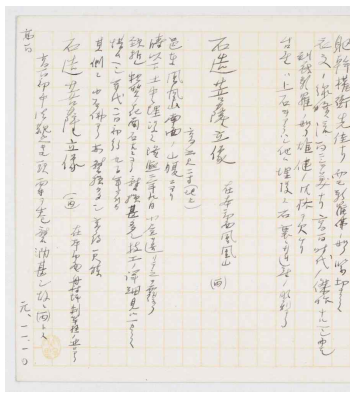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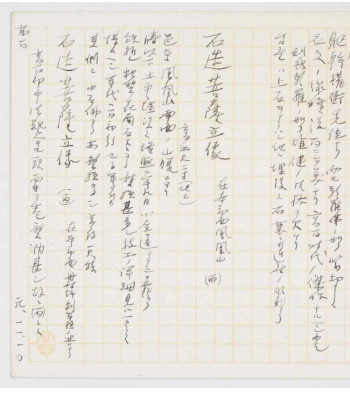

23) 원주 유물 유적과 관련된 사진은 1911년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에 대한 사진들과 1912년 강원도 지역 고적조사시 촬영된 원판번호 120682 <원주군 저전동면 본저전동의 석불좌상 대좌>로부터 120729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탑신 문면>에 이르기까지 48종(실제 제목 목록상으로는 22건)이 남아있다(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목록집 I』 1997, 74~7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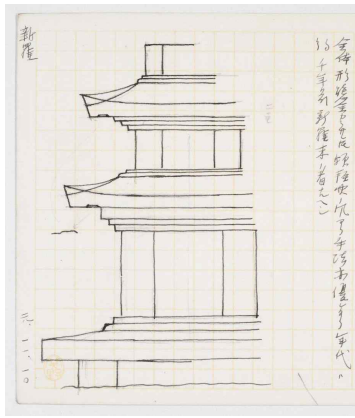



마지막 사진은 『조선고적도보』 제4권에는 거돈사지 전경 및 삼층석탑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 있다. 24)

24) 『조선고적도보』 4권은 대정 5년, 즉 1916년 3월에 일본 도쿄에서 발행되었다. 해당 사진은 421쪽에 게재되어 있다.

그러면 1912년 강원도 원주 일대 불교문화재에 대해 세키노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자.

번호2	제목/내용(원문)	사진/번역문	비고(카드번호/E-뮤지엄 설명문)
116 鐵 築 座 (甲 在 部 邑 洞			030813812/ 명칭 강 원 원주 읍옥평 철조약사여래좌 상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6.4cm, 세로 21.4cm 소장품번호 건판 34217 분야 미술 - 조각 - 불교 - 불상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 주 건판크기 중판 참고문헌 『유리 원판목록집』 V 312 원판번호 25-10
	030813812 原州 鐵造築師座像(甲) 在本部面邑 玉洞 高約十二尺五寸五分 年代ハ高麗初期ナラン當時ノ優作 ナリ原州邑北約二町新羅 鐵佛ニト同一處ニアリ田中堆土ノ 上ニ安置セラル 面相頭稍小顔廣ク眼細長ニシテ少 ク離タリ鼻大口小溫和ノ 風ヲアラハス 軀幹權衡先佳ナリ而モ新羅佛ノ如 ク緊切ナラス 衣文ノ線條ハ流麗ニシテ美ナリ高 麗時代ノ傑作ナルヘシ而モ 到底新羅ノ如ク雄健ノ風格ヲ欠ケ リ 臺座ハ上石ヲアラハシ他ハ埋沒ス 石裏ニ蓮座ノ彫刻アリ	030813812 원주 철조약사좌상(鐵造築師座像)(甲) 본부면 (本部面) 읍옥동(邑玉洞)에 있다. 높이 약 12척 5촌 5분 연대고려초기일것이다. 당시의 뛰어난 작품이다. 원주읍북쪽약2정거리의신라철불(二)과같은곳 에있다.논가운데퇴토(堆土)위에안치되어있다. 면상은머리가약간작고얼굴이넓다.눈은가늘고 길며조금떨어져있다.코는크고입은작으며온화 한풍을드러낸다. 체구는균형이아름답다.더구나신라불과같이긴 결(緊切)하지않다. 의문(衣文)의선모양은유려하며아름답다.고려 시대의걸작이라고할수있다.그러나도저히신라 와같이웅건한풍격은부족하다. 대좌는상석(上石)이드러나있고나머지는매몰되 어있다.돌뒤에연좌(蓮座)조각이있다.	
116 石 菩 立 (丙 在 部 鳳 山			030813812/ 명칭 강원원주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22837 분야 미술 - 조각 - 불교 - 보살상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 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 원판목록집』 Ⅲ 293 원판번호 464-15

116	<p>石造菩薩立像(丙) 在本部面鳳凰山 高五尺二寸(地上) 邑東鳳凰山南面ノ山腹ニアリ 膝以下土中ニ埋沒ス隆熙二年九月 小屋ヲ造リテ之ヲ覆フ 頸折レ粗質ノ花崗石ナルニヨリ磨 損甚多シ技工ノ詳細見ルヘカラス 惜ムヘシ年代ハ麗初約九百年前カ 其側ニ小石佛アリ亦磨損多シ高約 一尺餘</p>	<p>석조보살입상(石造菩薩立像)(丙) 본부면(本部 面) 봉황산(鳳凰山)에 있다. 높이 5척 2촌(지상) 읍동쪽봉황산남면의산허리에있다. 무릎밑은흙속에매몰되어있다.용희2년9월작은 집을지어불상을덮었다. 목이부러지고질이좋지않은화강석이므로마모 와손상이많다.자세한기공(技工)은알수없어안 타깝다.연대는고려초약9백년전인가? 그옆에작은석불이있다.역시마모와손상이많다. 높이1척이상.</p>	
108 七重塔 (乙) 在本部 邑坪			<p>030813004 명칭 강원원주 상동리 남산 추월대 칠층석탑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5411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탑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 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224 원판번호 190017</p>
108	<p>030813004 原州 七重石塔(乙) 在本部面邑玉 坪 高約十二尺五寸 邑北二三町ニアリ壇殆土中ニ埋沒 ス唯臺石ト腰石ノ上部ヲ少ク見ル ノミ今五六重ノ塔身及露盤以上ヲ 失フ 塔身柱形比較的廣シ二重以上漸次 低矮トナル 蓋持送三出軒薄ク輕快ノ風ヲ帶フ 初層ノ持送ノミハ別ニ 薄キ一石ヨリ成ル 全體形態全カラサレドモ頗輕快ノ 風アリ手法亦優レタリ年代ハ 約千年前新羅末ノ者ナルヘシ 〔圖面〕 新羅 元、一、一〇</p>	<p>030813004 원주 七重石塔(乙) 본부면(本部面) 읍옥평(邑 玉坪)에 있다. 높이약12척5촌 읍북쪽2-3정(町)거리에있다.단(壇)은거의흙속 에매몰되어있다.단지대석(臺石)과요석(腰石)의 상부가조금보일뿐이다.지금은5,6중(重)의탑신 과노반(露盤)위쪽을상실했다. 탑신주형(柱形)으로비교적넓고이중(二重)이상 은점차낮고짧다[低矮]. 덮개지붕삼출(持送三出)처마는얇고경쾌한형상 을띈다.초층의지붕받침만은별도로얇은돌로되 어있다. 전체형태는온전하지않지만매우경쾌한형상이 다.수법역시뛰어나다.연대는약천년전신라말기 의것으로보인다. 〔그림〕 신라 1912. 11.10</p>	

위의 표 중에서 첫 번째 유물은 <원주 철조 약사좌상>인데, “고려 초기 당시의 뛰어난 작품이라고 한다....면상은 머리가 약간 작고 얼굴이 넓다. 눈은 가늘고 길며 조금 떨어져 있다. 코는 크고 입은 작으며 온화한 풍을 드러낸다. 체구는 균형이 아름답다. 더구나 신라불과 같이 긴절(緊切)하지 않다. 의문(衣文)의 선모양은 유려하며 아름답다. 고려시대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저히 신라와 같이 웅건한 풍격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의 걸작이

라고 평가하면서도 신라시기와 같은 풍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재 중 갑(甲)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원주 칠중석탑>의 경우에는 “읍 북쪽 2-3정(町) 거리에 있다. 단(壇)은 거의 흙속에 매몰되어 있다. 단지 대석(臺石)과 요석(腰石)의 상부가 조금 보일 뿐이다. 지금은 5,6중(重)의 탑신과 노반(露盤) 위쪽을 상실했다. 탑신 주형(柱形)으로 비교적 넓고 이중(二重) 이상은 점차 낮고 짧다[低矮]. 덮개 지송삼출(持送三出) 처마는 얇고 경쾌한 형상을 띤다. 초층의 지붕 받침만은 별도로 얇은 돌로 되어 있다. 전체 형태는 온전하지 않지만 매우 경쾌한 형상이다. 수법 역시 뛰어나다. 연대는 약 천 년 전 신라 말기의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면서 문화재 중 을(乙)로 평가하였다. 사진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5, 6중의 탑신과 노반 위쪽을 상실했다는 것이 보일 정도로 보존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조보살입상>의 경우에는 “읍 동쪽 봉황산 남면의 산허리에 있다. 무릎 밑은 흙속에 매몰되어 있다. 융희2년 9월 작은 집을 지어 불상을 덮었다. 목이 부러지고 질이 좋지 않은 화강석이므로 마모와 손상이 많다. 자세한 기공(技工)은 알 수 없어 안타깝다. 연대는 고려 초 약 9백 년 전인가? 그 옆에 작은 석불이 있다. 역시 마모와 손상이 많다. 높이 1척 이상”이라고 하면서 문화재의 등급을 병(丙)으로 판정하였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관찰한 것으로 비교적 정확하다. 이와같이 1912년 11월에 이루어진 원주문화재 조사는 일주일동안 문화재를 등급을 매겨가면서 일사천리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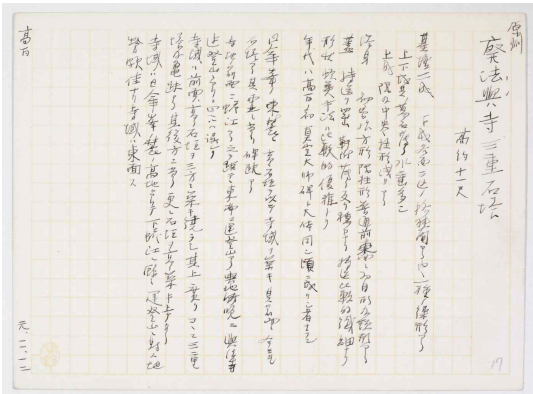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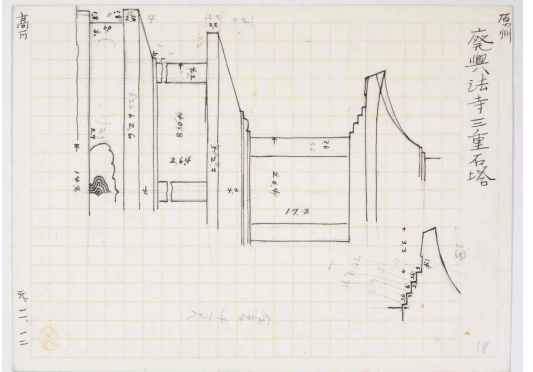
다음으로 원주문화재 조사의 중요한 발견은 흥법사지에 있는 진공대사의 이수와 귀부와 더불어 비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당시 조사원이었던 야쓰이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비신의 발견 경위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원주에서는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의 비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비는 고려 태조太祖의 찬문撰文으로, 문자는 최광윤 崔光胤에게 명하여 당唐 太祖태조의 글을 모아 모방한 것으로, 크고 작은 해서, 행서行書가 행간을 채우며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합니다. 그 기운은 현실세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천하의 보물이라 할 정도입니다. 원래 이 비는 지금의 원주군 지향면地向面 흥법동興法洞 흥법사지 興法寺址에 있던 것으로 후에 비신만을 관아에 옮겨 두었는데, 어느 군수가 이를 비속하게 여겨 도랑에 던져버렸고, 부러진 두 조각이 객사客舍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한때 소재가 불명했는데 이번에 비신 상부 파편을 원주 공립보통학교(원래의 객사)교정에서, 하부 오른쪽 두 조각을 원주 수비대 장교실 守備隊將校室 앞 돌담에서 찾게 되어 정말이지 기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의 이수螭首 및 귀부龜趺는 지금도 흥법사지에 현존하고 있으며, 실로 훌륭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진공대사비의 비신을 ‘발견’ 했다는 언급은 비 수습의 경위를 서술하였다. 흥법사지에 있던 것을 관아로 옮겨 두었다가, 어느 군수가 이를 도랑에 던져버렸고, 부러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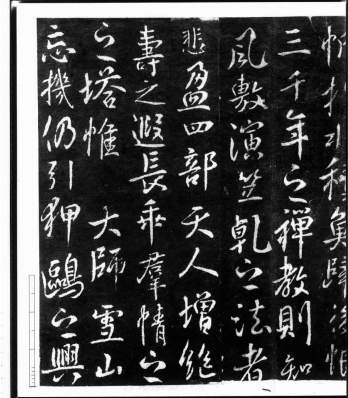
조각이 객사로 옮겨졌다고 하였다. 이때 비신 상부 파편을 원주 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하부 오른쪽 2조각은 미리 제보를 통해 발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1912년 11월 12일 출발 당일 원주 수비대장교실 앞 돌담에서 찾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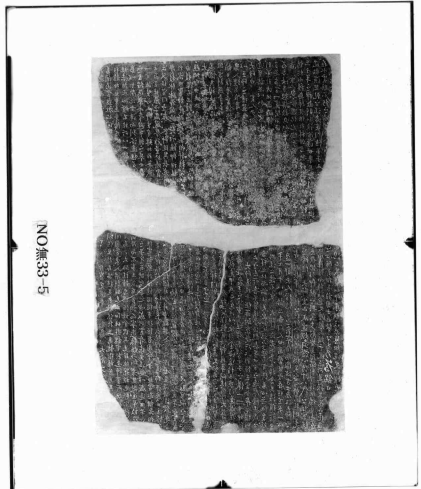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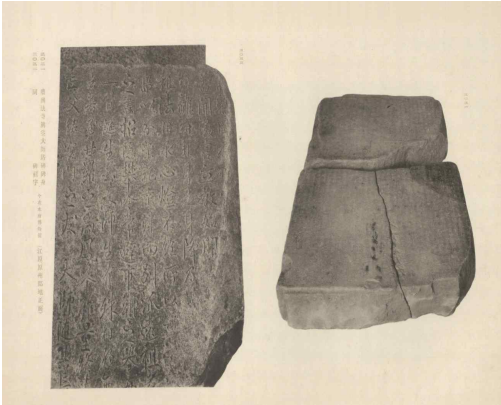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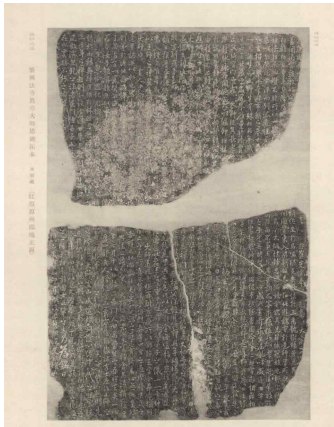
<표 6> 원주 흥법사지 불교 문화재 조사(1912)

	<p>030814216 원주 폐법흥사(廢法興寺) 3층석탑(三重石塔) 높이 약 11척 기단(基壇) 2성(成) 하성 각면 3구(區)의 격협간(格挾間)이 있다. 그 안에 일종의 조형(綽形)이 있다. 상하성 모두 갈석(葛石)이 얇고 물받침이 많다. 상성의 구석 및 중앙으로 주형(柱形)이 열게 있다. 탑신 초층대 방형(方形) 구석은 주형(柱形) 보통 앞 동쪽 면에 □월형(月形)과 □형이 있다. 덮개 지송사출(持送四出) 처마끝이 얇게 올라와 부드럽다. 지송은 비교적 섬세하다. 형상은 매우 아름답고 수업은 비교적 우아하다. 연대는 고려 초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와 대체로 같은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산봉(日傘峯)의 동쪽 기슭에 높이 돌담으로 사역(寺域)을 만들고 그 각 면에 지금 삼층석탑이 있고 그 서북쪽에 비부(碑趺)가 있다. 절터의 전면에 섬강(蟾江)이 이를 넘어 동남쪽에 건등산(建登山)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흥법사 건등산에 있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사역(寺域)은 전명이 높고 돌담을 삼면에 쌓아 에워싸고 그 위는 넓다. 여기에 삼층탑 및 귀부가 있다. 그 후방에 돌담을 더욱 높게 쌓아올렸다. 사역은 일산봉(日傘峯) 기슭의 고지에 있어 아래로 섬강을 두고 건등산과 마주하고 있다. 지세는 매우 아름답다. 사역은 동향이다. 고려 1912. 11.12</p>
	<p>030814317 원주 폐법흥사(廢法興寺) 3층석탑(三重石塔) [그림] 고려 1912. 11.12</p>
	<p>030814418 폐법흥사(廢法興寺)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 귀부(龜趺) 및 이수(螭首) 비신은 지금의 원주객사에 한 조각, 수비대 장교실 앞의 돌담에 두 조각이 있다. 지금 귀부(龜趺) 위에 바로 이수(螭首)를 쌓아놓았다. 두 개가 그다지 결손도 없고 드물게 보존도 잘 되어 있다. 귀부(龜趺) 넓이 6척 오촌 . 길이 뒤 매몰되어 불명하다 높</p>

	<p>이 3척 1촌[비좌(碑坐) 위까지] 거북높이 3척 4촌 7분(다리 밑부터 머리끝까지) 구수(龜首)는 매우 웅려(雄麗)하여 고려 초의 걸작이다. 조금 입을 벌려 구슬을 물고 있다. 배갑(背甲) 육각귀갑 안에 화문(花文) 및 만문(畵文)을 양각했다. 비생(碑生) 등뒤에 있다. 전면에 협간형(挾間形) 2개, 측면에 1개를 만들었다. 측면의 것에는 안에 보상화문(寶相花文)을 만들었다. 자리의 갑배(甲背)가 접하는 곳에는 운문(雲文)을 조각했다. 이수(螭首) 전면에는 두 마리 용이 상대하고 중간에 전액(篆額)이 있다. 또 서쪽 구석에도 각 한 마리의 용을 만들었고 하부 주변까지 간지에는 운문을 조각하여 형태를 완성했다. 매우 웅려(雄麗)한 품이 있다. 이수 넓이 5.95, 두께 2.5, 높이 3.82 액자 안에는 전서(篆書)로 진공대사(真空大師)라는 네 글자를 음각했다.</p>
	<p>030814519 원주 영봉산고(靈鳳山故) 왕사진공대사비(王師真空大師碑) 여지승람(輿地勝覽) 흥법사(興法寺) 在建登山寺有碑 高麗太祖親製其文命崔光胤集唐太宗書模刻李齊賢嘗曰 辭義雄深偉麗如玄圭赤鳥揖讓廊廟而字大小眞行相間鶩漂鳳泊氣吞象外眞天下之寶也 原州邑誌 앞서 기술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내용을 기술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後移置州衙有一守感俗忌投擲溝壑中仍以折破 今存二片於客舍 文殊寺條 徐居正送閔貞赴任詩 雉岳山中讀書寺 少遊歷々記前時法泉庭下詩題塔興法臺前墨打碑 當日行裝驢不滿至今歸路夢先知白頭未遂重遊興送別悠々攬我思 지금 객사의 상부에 한 조각, 땅속에 매몰된 것을 발굴했다. 화강암 물로 마모. [그림] (갑) 다른 두 조각은 오늘 아침 출발할 때 수비대 장교실 앞의 돌담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을)은 글자가 있다. 옆으로 쌓여 있다. 병은 평편하게 하부에 쌓여 있다. 을은 중간에. “臣崔光胤奉 敎集 太宗□□[원문대로]” 라는 글자가 있다. 고려 1912. 11. 12</p>
	<p>030814620_s 이 비신(碑身)은 근년에 그 소재를 잃어버렸는데 최근에 모리모토 도요기치(森本豊吉, 郡書記) 등이 보통학교(전 客舍) 생도의 이야기를 듣고 앞 정원에 매몰되어 있던 것을 발굴했다. 이것은 비석의 상부이다. 또 그곳 주민의 말에 따르면 객사 앞에 있는 개울의 다리에 최근까지 다른 잔석(殘石)이 사용된 것을 보통학교에서 이것을 개수하고 이 잔석을 수비대 영사(營舍)의 외측 담에 세워두었는데 언제인가 잃어버렸다. 아마도 수비대에서 이것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11월12일) 아침 원주를 출발할 때 수비대로 가서 장교실의 전면에서 높이 3척 정도의 낮은 돌담 안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글자 부분을 바깥쪽으로 하여 옆으로 쌓아두었다. 다른 것은 돌담 아래에 쌓아두었다.</p>

<표 7> 원주 흥법사지 고적조사 사진(1912)

	<p>명칭 강원원주 진공대사탑비 귀부와 이수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6.4cm, 세로 11.9cm 소장품번호 건판 1748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비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704</p>
	<p>명칭 강원원주 진공대사탑비 비신편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6.4cm, 세로 11.9cm 소장품번호 건판 1745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비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699</p>
	<p>명칭 강원원주 진공대사탑비 비신편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6.4cm, 세로 11.9cm 소장품번호 건판 1744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비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697</p>
	<p>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25.2cm, 세로 30.3cm 소장품번호 건판 16962 분야 문자자료 - 문서류 - 고문서 - 탑본 촬영연도 1930 건판크기 대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I 367 원판번호 300173</p>

	<p> 명칭 강원 원주 범홍사지 진공대사탑비 탁본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25.2cm, 세로 30.3cm 소장품번호 건판 35195 분야 문자자료 - 문서류 - 고문서 - 탑본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대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V 368 원판번호 33-5 </p>
	

1912년 11월 12일 원주 범홍사지 조사 당시 세키노의 필드카드에 의하면, 범홍사 삼층석탑에 대한 조사가 미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3층석탑과 진공대사비 귀부와 이수를 현지에서 기록하였고, 일부 유물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문제가 된 것은 진공대사비의 비신인데, 하나는 원주 객사에서, 다른 하나는 수비대 장교실 앞의 돌담에 2조각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다.²⁶⁾ 위의 사진 자료 중에서 왼쪽 아래쪽의 탁본이 위

25) 세키노의 필드카드 해당 번호 카드 및 『유리원판사진 목록집』 I, 75쪽 및 유리원판 사진 참조.

26) 진공대사 총담비에 대해서는 이미 1635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민구의 언급을 비롯하여 오경석의 기술이 있었다. 이민구는 “이 비는 탁본을 많이 하여, 어떤 관리가 탁본하는 것을 귀찮게 여겨 고을 관아에 옮겨 놓았는데, 근년에 한 무인이 이 고을 영장으로 와서 대장간을 설치하고, 그 위에 쇠를 단련하다가 돌이 깨어져 여러 조각으로 망가졌다. 올해(1635)에 내가 강원도에 부임하여 돈을 주고 찾았는데, 주춧돌이나 담당 밑돌, 다듬잇돌로 쓰이고 있었다. 크고 작은 것이 8조각이고, 그 중 2조각은 끝내 구하지 못하였다. 공인으로 하여금 탁본케 하여 비석 모양을 만들어 대강 글을 읽었다. 순정 9년(1636) 병자 4월 일”이라고 하였다(李敏求, 1636, 「興法寺碑歌并序」 『東州先生前集』 7, 金惠婉 편, 2004, 『興法寺眞空大師塔碑』 『原州金石文大觀』 : 이인재, 『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 해안, 236쪽 재인용). 또한 오경석에 의하면, 1856년 당시 원주 감영에 남아 있던 2조각, 다음날 객관이었던 학성관 동쪽에 있던 1조각, 그리고 원주 주민이 빨래하면서 빨래판으로 쓰고 있던 작은 조각 하나뿐이었다고 한다(吳慶錫, 1858 「興法寺眞空大師碑」 『三韓金石錄』, 이인재, 위의 책 236쪽 참조)

의 돌담에 박혀있는 사진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비신에서 2조각을 빼내서 별도로 탁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진공대사 충담비의 발견과정에서는 전통시기 학자들도 파편들을 확인하고 집자의 형태로 만들어 이미 확인하고 있으니 만큼 일본 세키노 조사의 과장과 왜곡을 엿볼 수 있다.²⁷⁾ 이후 범홍사지 진공대사 비편은 한동안 원주군청에 보관하였다가 1913년에 다시 총독부 박물관에 옮겨 보관하였다.²⁸⁾

2) 범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조사와 이전

범천사지에 있던 지광국사탑이 경복궁으로 옮겨온 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이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면서 개관한 조선총독부미술관 앞 정원 한가운데 지광국사탑을 자랑스레 세워놓았다. 조선물산공진회는 조선총독부가 식민 통치 5년간의 치적과 조선의 발전상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박람회였다. 이때 지광국사탑과 이전 오층석탑이 나란히 전시되었는데, 이전 오층석탑은 경복궁 자선당을 일본으로 반출했던 오쿠라 기하치로의 손에 넘어가 역시 일본으로 반출된다.²⁹⁾



지광국사 현묘탑의 반출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후지무라 토쿠이치가 쓴 《거류민지석물어 居留民之昔物語: 제1편》에 나오는 <현묘탑 강탈 시말 始末>에 의하면, 지광국사탑을 애초 범천사지에서 빼내

27) “*首龜跌만 남은 眞空大師碑 이 碑는 地正面安昌里興法寺古址에 잇으니 그 碑文은 高麗 太祖가 親製하고 崔光胤이 唐太宗의 書法을 模하여 書한 것이다. 麗朝李益齋 齊賢이 常曰「詞義雄深偉麗, 如玄圭赤鳥揖讓廟廊而字大小真行相間鸞鳳泊, 氣吞象外眞天下之寶也」云云의 說을 見하면 其碑의 價値을 可知할 것이다. 然而其碑가 엇지 하얏던지 州衙에 移置되얏더니 前日 엇던 無知沒覺의 郡守가 寺物을 郡衙에 두는 것은 俗忌라 하고 溝渠中에 投하여 遂히 破折되고 그 破片 2個만 殘存하여 普通學校構內에 잇더니 日本守備隊에서 마조 가져가고 보니 興法寺 古址에 잇는 그 碑의 龜頭龜跌은 다만 荒涼한 秋草中에서 風雨를 泣할 뿐이다. 이에 그 碑에 대한 李堦의 詩를 紹介하면 下와 如하다. 古寺舟藏壑, 誰從半夜偷, 茅茨不成蓋, 風雨亂相打, 宸翰蛟龍泣, 天章雲漢愁, 銅仙曾有淚, 不獨酒漳流

勝妙塔碑와 玄妙塔碑 圓空國師勝妙塔碑 (距今 870년 전) 는 富論面 鼎山里(巨論里)에 잇고 智光國師의 玄妙塔碑(距今 840년 전)富論面 法泉里(院村)에 잇스니 皆雕刻이 美妙하여 藝術的 價値가 잇다.”(<嶺西八郡과 嶺東四郡>, 『개벽』 제42호 1923-12-01 참조.).

28) 『조선금석총람』 상, 조선총독부, 1919 ; 정규홍, 『석조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 학연문화사, 452~453쪽 참조.

29) 원주 범천사지에 있었던 지광국사탑이 경복궁에 등장하게 된 까닭은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있는 이순우 선생은 그의 저서에서 자세히 밝혀두었다. 15. <조선총독부도 되돌려줄 수밖에 없었다-원주 범천사지 지광국사탑>(『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단, 2013, 233~234쪽).

온 것은 일본인 모리 무라타로이다. 모리는 1911년 가을, 법천사지에 민가를 짓고 살던 한 조선인에게서 승탑을 사서 서울 남창동에 거주하던 일본인 부호 와다 쓰네히치에게 팔았다.

이렇게 팔린 경위는 1911년 중추 무렵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3리 원촌 2통 10호 정주섭(丁柱燮)의 소유지 내에 있던 현묘탑을 발견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 모리 무라타로(森村太郎)씨였다.³⁰⁾ 이듬해인 1912년 초여름 경에 남미창정(南米倉町) 정원내에 다시 이를 옮겼다.

와다는 이후 승탑을 서울 명동에 있던 무라카미 류조의 병원으로 옮겼고, 1912년에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자신의 정원으로 옮겼다. 이후 사람들이 와다의 정원을 드나들며 지광국사탑을 구경하곤 했다.³¹⁾ 그러다 지광국사탑의 사진을 본 일본 오사카의 후지타 헤이타로가 1912년 5월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의사를 전해온다. 후지타는 골동 취미가 있었던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기리기 위한적당한 석조물을 고르고 있는 중이었다고 한다. 결국 후지타에게 팔려나간 지광국사탑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다음은 지광국사 현묘탑의 반출 경위에 대해 2015년 한겨레 신문의 특집기사에서도 상세히 다루었다.³²⁾

“이 사진들은 일본의 건축사가 세키노 다다시가 당시 조선 고적조사를 하던 중 찍었다고 한다. 동쪽 측면에서 찍은 지광국사탑 전면을 비롯해 탑 둘레에서 탑신과 기단 등 세부를 상세히 포착해 보여준다.....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기록을 보면, 지광국사현묘탑은 1911년 와다 쓰네히치라는 일본인이 사들여 그해 9월 메이지마치의 무라카미 병원 옆으로 옮겨졌다. 조경용 석조물로 쓰기 위한 용도였다는 게 정설이다. 공개된 사진은 이전 직후 모습을 담은 것으로, 위치는 현재 명동성당 구내 가톨릭센터 부근의 저동으로 추정된다. 와다는 이듬해 남산 기슭 남창동의 저택으로 탑을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의 귀족에게 팔아 탑을 무단 반출했다. 총독부가 이를 문제삼자 와다는 탑을 일본에서 다시 돌려받아 총독부에 기증했고,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으로 장식재 구실을 하기 위해 옮겨졌다.”³³⁾

30) 정문수,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 원주MBC, 160쪽.

31) 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085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47 원판번호 110588		

32) 2015년 8월 27일 한겨레 신문의 기사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한때 명동에도 있었다>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신소연 학예사는 “탑을 찍은 가장 이른 사진일 뿐 아니라 법천사에서 반출된 뒤 탑의 최초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이후 경복궁으로 옮겨간 탑이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심하게 훼손된 뒤 시멘트로 복원됐기 때문에 사진들은 탑의 원형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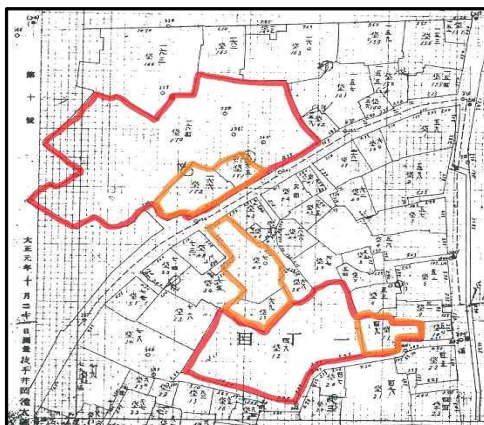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6296.html#csidxb561bf77d4b267ca2045378f574f759

33) 위의 기사 인용문에서는 지광국사 현묘탑이 1911년 와다 쓰네히치에 의해 그해 9월 무라카미 병원 옆으로 옮겨졌으며, 이 곳은 현재 명동성당 구내 가톨릭센터 부근의 저동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어 이듬해 남산 기슭 남창동 저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탑을 무단 반출했다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현묘탑을 이동시킨 장본인이 와다 쓰네히치라고만 지적했지만, 그의 배경에는 1910년까지 이 지역에 살았던 우당 이회영 일가, 특히 이석영 선생의 사저였다는 사

위의 사진은 측면 사진 한 장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건판 필름 원본을 보면 다수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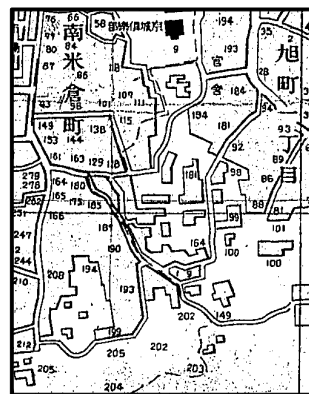
<표 8>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유리원판 사진(서울 명동, 1911년 추정)

	사진 제목	사진 자료 설명문
1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085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47 원판번호 110588</p>
2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상륜부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086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47 원판번호 11059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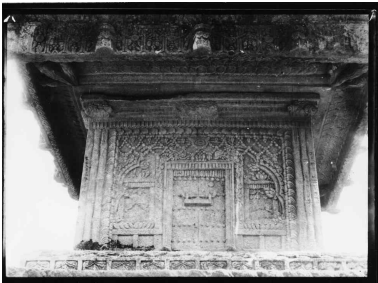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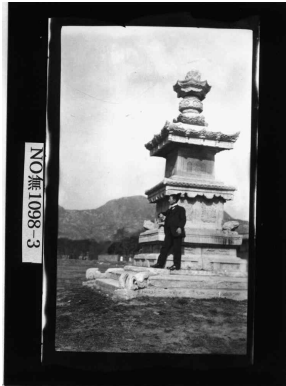

<그림 32> 황금정 2정목 164번지 및 명치정 1정목 48번지

실은 결락되어 있다.



<그림 33> 남미창정 202번지 <경성전도>

3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상륜부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087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47 원판번호 110591</p>
4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기반부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6.4cm, 세로 11.9cm 소장품번호 건판 1092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48 원판번호 110597</p>
5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2층 탑신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6.4cm, 세로 11.9cm 소장품번호 건판 1088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48 원판번호 110593</p>
6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2층 탑신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089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48 원판번호 110594</p>

7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1층 탑신</p> <p>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p> <p>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p> <p>재질 유리/보석 - 유리</p> <p>크기 가로 16.4cm, 세로 11.9cm</p> <p>소장품번호 건판 1090</p> <p>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p> <p>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p> <p>건판크기 소판</p> <p>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48</p> <p>원판번호 110595</p>
8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기반부</p> <p>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p> <p>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p> <p>재질 유리/보석 - 유리</p> <p>크기 가로 16.4cm, 세로 11.9cm</p> <p>소장품번호 건판 1091</p> <p>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p> <p>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p> <p>건판크기 소판</p> <p>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48</p> <p>원판번호 110596</p>
9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p> <p>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p> <p>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p> <p>재질 기타 - 합성수지</p> <p>크기 가로 9cm, 세로 15cm</p> <p>소장품번호 건판 37698</p> <p>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p> <p>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p> <p>건판크기 소판</p> <p>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V 10</p> <p>원판번호 1098-3³⁴⁾</p>
10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p> <p>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p> <p>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p> <p>재질 기타 - 합성수지</p> <p>크기 가로 9cm, 세로 15cm</p> <p>소장품번호 건판 37699</p> <p>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승탑</p> <p>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p> <p>건판크기 소판</p> <p>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V 10</p> <p>원판번호 1098-4³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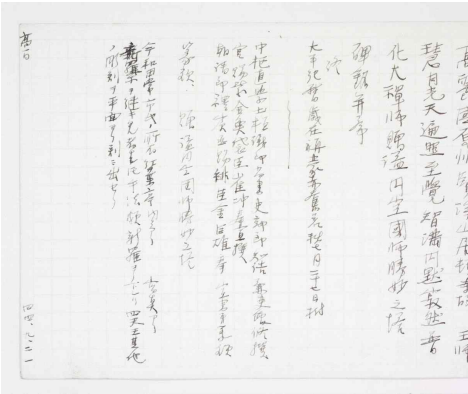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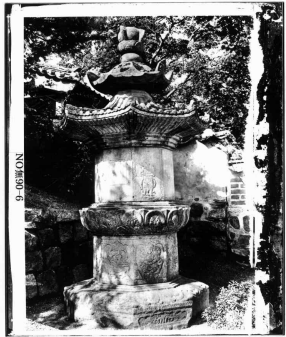
34) 원판번호 無1098-3 (격납상자제목: 상자 제목 없음)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서울종로 세종로 경복궁내. 강원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국보 제101호. 플라스틱 필름 상태임. 유제면 전체가 황색으로 변색. 유제면 좌측과 우측이 검정색으로 변색. 유제면 하단 좌측과 우측 하단에 검정색 글씨로 "1098-3"이라고 기록됨.

위의 사진 중 첫 번째는 서울에 있던 현묘탑에 관한 사진으로 같은 시기에 찍혀진 것으로 1911년도에 연속하여 촬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2개의 사진은 이미 경복궁 구내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1915년 조선공진회 개최 직전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³⁶⁾

이러한 사진 촬영의 시기로 보아 앞서 세키노 일행이 명동성당 근처에서 지광국사 현묘탑을 목격했던 것이 1911년이었고, 이를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은 세키노가 작성한 <필드카드(310100405)>에서도 확인된다.

<표 9> 거둔사지 원공국사 승묘탑 필드카드 설명문

		<p>310100405 京城 高麗國原州覽溪山居頓寺故 王師 慧月光天遍照至覺智滿圓默寂然普 化大禪師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 碑銘并序 終 大平紀曆歲在稱蒙赤舊若秋七月二十七日樹 中樞院直學士桓議郎尚書史部郎中知誥兼史館修撰官賜紫金魚袋臣崔冲奉 宣撰 朝請郎禮賓丞賜緋臣金巨雄奉宣書并篆額 篆額 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 今和田常市氏ノ所有紅葉亭内ニアリ 新羅末ヲ繼キタル者ナレトモ手法頗新羅ヨリ下レリ四天王其他 ノ彫刻ヲ平面ヨリ刻ミ出セリ</p> <p>高麗 四四 `九 `二一</p>
	<p>37)</p>	<p>310100405 경성 高麗國原州覽溪山居頓寺故 王師 慧月光天遍照至覺智滿圓默寂然普 化大禪師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 碑銘并序 終 大平紀曆歲在稱蒙赤舊若秋七月二十七日樹 中樞院直學士桓議郎尚書史部郎中知誥兼史館修撰官賜紫金魚袋臣崔冲奉 宣撰 朝請郎禮賓丞賜緋臣金巨雄奉宣書并篆額 篆額 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 지금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 씨의 소유로 홍엽정(紅葉亭) 안에 있다.</p>

35) 원판번호 無1098-4 (격납상자제목: 상자 제목 없음)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서울종로 세종로 경복궁내. 강원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국보 제101호. 플라스틱 필름 상태임. 유제면 전체가 황색으로 변색. 유제면 좌측과 우측이 검정색으로 변색. 유제면 상단 우측과 우측 하단에 검정색 글씨로 "1098-4"라고 기록됨.

36) 사진촬영의 시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낸 『유리원판 목록집 I - 소판 1909년~1930년』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해당 사진들은 1911년에 촬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후일 정리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101호라고 표기함으로써 촬영의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게 하였다.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당시 명동에 있던 무라카미 류조의 병원 부근으로 옮겨졌다는 점을 들어 1911년으로 추정하였다.

		<p>신라말을 계승한 것이지만 수법은 신라보다 매우 떨어진다. 사천왕 등의 조각을 평면으로부터 새겨내었다.</p> <p>고려</p> <p>1911. 9. 21</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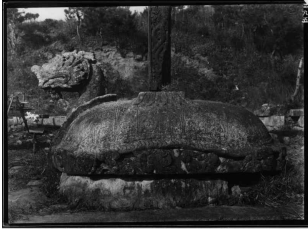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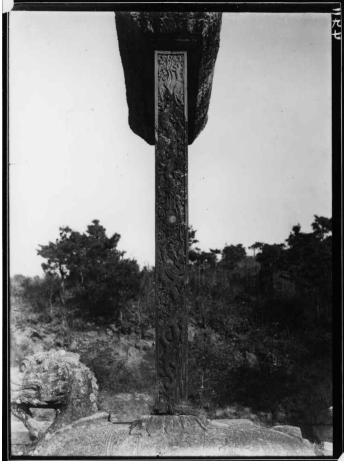

위의 자료에서 세키노는 폐거둔사 원공국사 현묘탑을 와다 쓰네이치 소유로 홍엽정(紅葉亭) 경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 주목되는 것은 필드카드의 기록 연도가 1911년 9월 21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과 거둔사 원공국사 현묘탑은 거의 동일한 시기인 1911년 9월 21일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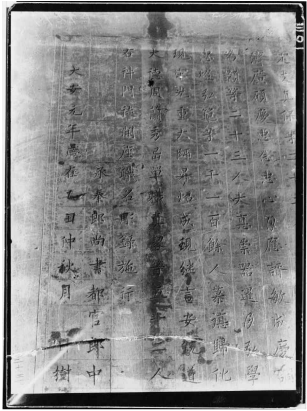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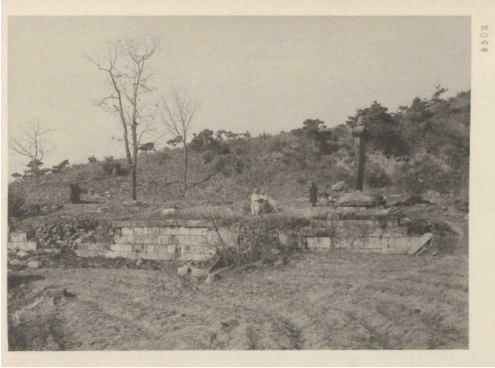


이어 세키노 일행은 1912년 11월 10일 경에 원주에 와서 법천사지를 조사하면서 현묘탑비와 법천사 사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표 10〉 원주 법천사지 문화재 조사(1912.11)

원판번호	제목	사진	비고
1	120717 법천사 찰간지주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당간지주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753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당간지주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717</p>
2	120722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p>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이수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6.4cm, 세로 11.9cm 소장품번호 건판 1754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비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722</p>

37) 원판번호 대90-6 (격납상자제목: 石塔 및 浮屠, 古蹟 圖譜 六) 보물 제190호.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원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승묘탑. 유제면 피사체 주위에 검정색 칠을 함. 유제면 좌측 박락 및 종이가 부착된 흔적이 있음. 유제면 좌측 하단 모서리 파손. 유제면 좌측 하단, 우측 상단에 검정색 글씨로 "90-6"이라고 기록됨.

3	120723	법천사 지광국 사현묘탑비		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귀부 측 면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6.4cm, 세로 11.9cm 소장품번호 건판 1755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비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723
4	120724	법천사 지광국 사현묘탑비 귀 부 두부		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귀부 두 부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756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비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724
5	120725	법천사 지광국 사현묘탑비 측 면		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측면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757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비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725
6	120727	법천사 지광국 사현묘탑비		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758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비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727
7	120729	법천사 지광국		명칭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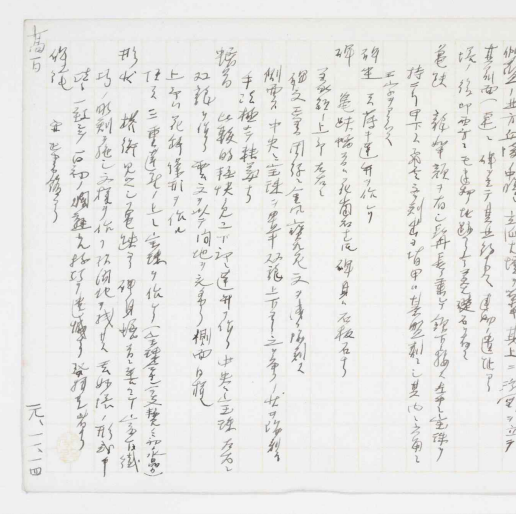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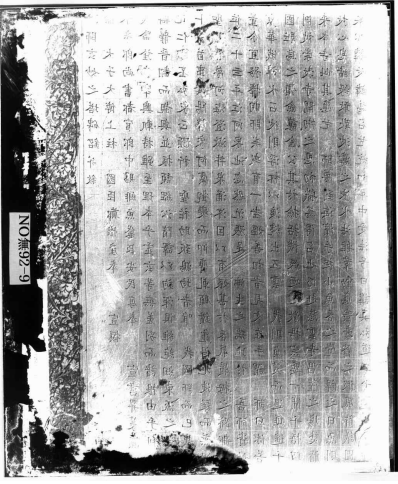
		사현묘탑비		<p>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분류 미디어 - 기록물 - 필름 - 재질 유리/보석 - 유리 크기 가로 11.9cm, 세로 16.4cm 소장품번호 건판 1759 분야 건축 - 석조건축물 - 불교 - 석비 출토지 한국 - 강원도 - 원주 건판크기 소판 참고문헌 『유리원판목록집』 I 75 원판번호 120729</p>
				<p>** 좌 : 법천사 전경 아래 좌 :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측면 아래 우 :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정면 (출전 : 『조선고적도보』 6권)</p>
				

위의 사진 자료는 1912년 11월 당시 원주 부론면 법천사지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이러한 사진과 함께 전체 전경사진은 『조선고적도보』 6권에 실려있다.³⁸⁾

그러면 세키노 일행이 법천사지에 관한 필드카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38) 『조선고적도보』 6의 발간 연대는 대정 7년, 즉 1918년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법천사지 진광국사 현묘탑도 수록되어 있는데, 현묘탑의 위치는 경복궁 궁내로 보인다. 따라서 법천사지 주변에 대한 촬영이 1912년 11월 조사 당시인지 아니면 1913년 이후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 11> 원주 폐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필드카드(1912)

번호	법천사지 관련 필드카드(원본)	필드카드(탈초 및 번역본)
1	<p>原州魔法泉寺智光國師玄妙之塔碑</p> 	<p>310100303 原州 原州魔法泉寺智光國師玄妙之塔碑 龜趺全長十尺六寸廣七尺五寸高四尺九寸 碑坐廣四尺七寸三分厚 碑廣 厚 伽藍ノ北方丘陵ノ中腹ニ立派ナル壇ヲ築キ其土ニ浮圖ヲ立テ 其前面(東)ニ碑ヲ立テ其北約十尺ニ建物ノ遺址アリ 塔ノ後即西方ニ建物ノ址跡アリ今美ナル礎石ヲ存ス 龜趺龍如キ顔ヲ有シ髯長ク垂レテ額下ニ接ス左手ニ寶珠ヲ 持テリ甲下ニ飛雲文ヲ刻出ス背甲ハ基盤刻ニシ其内ニ六角ニ 王字ヲアラハス 碑坐ニハ薄キ蓮瓣ヲ作レリ 碑龜趺螭首ハ花崗石ナレトモ碑身ハ石板石ナリ 篆額ノ上部左右ニ 碑文正書周緣ニ金風寶相花文ヲ淺ク陽刻ス 側面ニハ中央ニ寶珠ヲ置キ雙龍上下ヨリ之ヲ爭フノ狀ヲ陽刻ス 手法極メテ精美ナリ 螭首比較的輕快ニ見ユ下部ニ蓮瓣ヲ作り中央ニ寶珠左右ニ 雙龍ヲ作り雲文ヲ以テ間地ヲ充タセリ側面同様 上部ハ花□線形ヲ作ル 頂ニハ三重蓮座ノ上ニ寶珠ヲ作レリ(寶珠今ナシ今支輪アルノミ初 メ水晶カ) 形狀權衡見ルヘシ龜趺ヨリ碑身螭首ニ至ルマテ富□纖 巧ノ彫刻ヲ施シ文様ヲ作り殆間地ヲ殘サス玄妙塔ノ形式手 法ト一致シテ麗初ノ爛熟セル技巧ヲ遺憾ナク發揮セル者ナリ 碑□亦正書□アリ 高麗 元、一一、一四</p>
2		<p>310100303 원주 원주 폐법천사(魔法泉寺) 지광국사현묘지탑비(智光國師玄妙之塔碑) 귀부(龜趺) 전장 10척 6촌 넓이 7척 5촌 높이 4척 9촌 비좌(碑坐) 넓이 4척 7촌 3분 두께 비 넓이 두께 가람의 북방 구릉의 중턱에 뛰어난 단을 쌓아 그 흠속에 부도를 세우고 그 동쪽 전면에 비석을 세웠다. 그 북쪽 약 10척의 거리에 건물의 유지(遺址)가 있다. 탑의 뒤, 즉 서쪽에 건물터가 있다. 지금 아름다운 초석이 남아 있다. 귀부(龜趺) 용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구레나룻이 턱 아래까지 길게 닿아 있다. 왼손으로 보주(寶珠)를 잡고 있다. 갑하(甲下)에 비운문(飛雲文)을 새겼다. 배갑은 기반(基盤)을 새기로 그 안에 육각으로 왕(王)자를 그렸다. 비좌(碑坐)에는 열은 연판(蓮瓣)을 만들었다. 비(碑) 귀부이수(龜趺螭首)는 화강석이지만 비신은 석판석이다. 전액(篆額) 상부 좌우에 비문을 정서하고 주변에 금풍(金風) 보상화문(寶相花文)을 일개 양각했다. 측면에는 중앙에 보주를 두고 쌍용이 위아래에서 이를 다투는 형상을 양각했다. 수법은 매우 정미(精美)하다. 이수(螭首) 비교적 경쾌하게 보인다. 하부에 연판(蓮瓣)을 만들고 중앙에는 보주 좌우에 쌍용을 만들었다. 운문을 간지를 메웠다. 측면과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화□조형(花□線形)을 만들었다. 꼭대기에는 3중연좌 위에 보주(寶珠)를 만들었다.(보주는 지금 없다. 지금은 지륜(支輪)만 있다. 처음에는 수정이었을까) 형상 균형은 불만하다. 귀부(龜趺)로부터 비신 이수에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조각을 하여 문양을 만들었다. 거의 간지(間地)를 남기지 않았다.</p>

		<p>현묘탑의 형식 수법과 일치하며 고려 초기의 난숙한 기교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다. 비□(碑□) 역시 정서 □이 있다. 고려 1912. 11. 14</p>
3		<p>310100304 篆額 橫書二行 贈諡智光國師玄妙之塔碑銘 鄭惟產奉宣撰,安民厚奉宣書并篆額 李英輔,張子春等奉宣刻字 碑陰刻字後書 大安元年歲在乙丑中秋月 日樹 碑身石板石ニテ後下部左右剝落毀損ス 大安元年,宣宗二年,宋元豐八年, 我應德二年, 1085 310100304전액(篆額) 횡서 2행 증시지광국사현묘지탑비명(贈諡智光國師玄妙之塔碑銘) 鄭惟產奉 宣撰, 安民厚奉宣書并篆額 李英輔, 張子春等 奉宣刻字 碑陰刻字後書 大安元年歲在乙丑中秋月 日樹 비신은 석판석으로 후방 하부 좌우에 박락(剝落)으로 훼손되었다. 대안(大安) 원년, 선종(宣宗) 2년, 송(宋) 원풍(元豐) 8년, 일본 오토쿠(應德) 2년, 1085년.</p>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하여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후 어느 시점에서 경복궁 경내로 옮겨진 현묘탑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선고적도보』 6권에 수록하기에 이르렀다.³⁹⁾

이렇게 팔린 경위는 1911년 중추 무렵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3리 원촌 2통 10호 정주섭(丁柱燮)의 소유지 내에 있던 현묘탑을 발견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 모리 무라타로(森村太郎)씨였다.⁴⁰⁾ 이듬해인 1912년 초여름 경에 남미창정(南米倉町) 정원내에 다시 이를 옮겼다. 서울 남창동에 거주하던 일본인 부호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에게 팔았던 것이다.

1912년 10월 무렵 와다 스네이치는 총독부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지광국사탑은 국유지 내에 있는 폐사지의 유물이니 반환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와다가 부당하게 총독부로부터 헌납을 강요받았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와다는 오사카에 직접 건너가 일본에서 매입한 후지타로부터 탑을 되사들인 뒤 총독부에 헌납했다. 지광국사탑이 돌아온 것은 1915년

39) <사진 1>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사진, 『조선고적도보』 6권 771쪽에 수록되어 있음(책의 출간은 대정 7년이므로 조선공진회 전시기간 이후 즉 1915년 9월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됨).

<사진 2> 원판번호 D230023. 국보 제101호.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6-2).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1962). 좌측 상단 모서리 일부 파손,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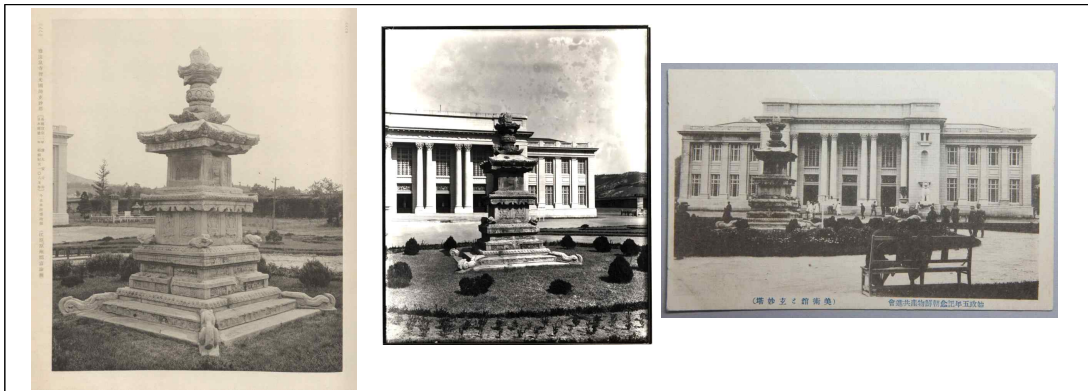
<사진 3> 명칭조선물산공진회 공진회미술관과 지광국사현묘탑 전경 아카이브번호103036 유물번호서 22815 자료출처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내용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1915.9.11~10.31) 공진회미술관과 야외정원의 전경을 담은 사진엽서이다. 중간에 보이는 사리탑(舍利塔)은 1911년 일본인 골동상에 의해 강원도 원주에서 무단 반출되어, 일본 오사카로 팔려나갔다가 간신히 되찾아온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이다. 공진회미술관(共進會美術館, 1914년 9월 착공, 1915년 8월 준공)은 공진회가 끝난 후 1915년 12월 1일 총독부박물관(總督府博物館)으로 전환되었다.

40) 정문수,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 원주MBC, 160쪽.

의 일이며, 이때의 운송비는 총독부가 부담했다. 후지무라는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개인의 재산을 강탈한 것이라며 비난의 소리를 높인다.

결과적으로 오사카까지 팔려간 지광국사탑의 반출이 불법이라며 되찾아온 것은 조선총독부 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도 폐사지는 국유지로 소속되어 있으니, 국유지에서 유출된 것이라 주장하여 직접 운송비까지 지불하여 찾아왔다. 조선 침략 이후 수많은 문화재를 대놓고 약탈해 간 그간의 태도로 볼 때 꽤 예외적인 조치이다. 조선총독부가 보기에 지나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화재 약탈과 불법 반출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이 거세지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잠재울 만한 조치가 필요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반출된 문화재 몇 점을 생색내기로 되돌려 놓아야 했던 것이다.

〈표 12〉 지광국사 현묘탑 이전(경복궁 경내)



3. 세키노 관련 원주 문화재 보존상황과 환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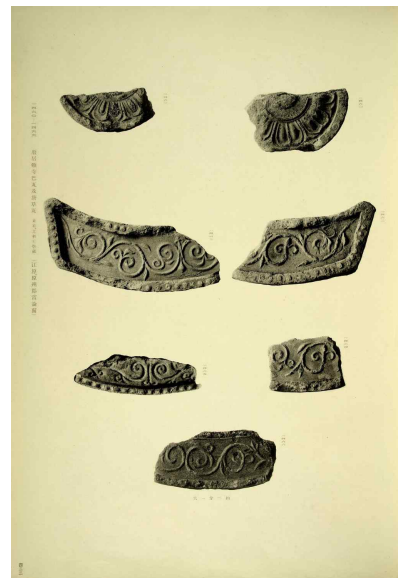
1) 일본 도쿄대 소장 필드카드 상황

小石川分館 > 関野フィールドカード > 全標本リスト

関野フィールドカード 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 小石川分館									
HOME Search ALL List									
一覧表									
カード: 項目カテゴリー (附属/背附)		画像表示: 画像をカテゴリー		first prev. 1 - 25 of 5679 next last					
箱番号	紙番号	資料名	年月日	グループ名	箱表書き	国	種類	備考	画像
01	001	[目次] 一、城南		城南	平塚	北朝鮮	カード		
01	002	永興田城歴史山城	大正2.11.18	城南	平塚	北朝鮮	カード		
01	003	元山望徳山城	大正2.11.21	城南	平塚	北朝鮮	カード		

1912년 11월에 세키노 일행의 원주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도쿄대 종합연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 세키노 컬렉션 가운데 약 50종의 자료 카드가 보존되어 있으며, 또한 거둔사지 조사때 가져간 기와편 7종이 소장되어 있다. 41)

이 필드카드는 오랫동안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보관해 오다 2003년 종합연구박물관으로 이관해 정리했으며 2004년에는 『도쿄대 종합연구박물관 소장 세키노 다다시 컬렉션 필드카드목록』 도쿄대 종합연구박물관 표본자료보고 제53호로서 카드의 텍스트 데이터를 공개했다. 상자 번호의 01부터 62번이 그것이다. 이 밖에 세키노 다다시 씨의 아들인 세키노 가쓰(1945-1969년 ·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 교수)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있어, 거기에 있던 필드 카드가 400번대이다. 419로 시작해 465라는 어중간한 숫자로 끝나다가 결번도 있지만, 이는 세키노카츠 보관의 자료 전체에 붙은 일련번호를 존중해 카드만 인출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련번호가 된 것은 아니다. 이 자료도 현재는 종합연구박물관으로 이관된 상태라고 한다. 42)



41) http://umdb.um.u-tokyo.ac.jp/DAnnex/sekino_cards/home.php?-link=TOP

42) 필드카드의 설명에 의하면, “01부터 62개의 상자 번호는 정리 과정에서 매긴 번호이며 상자에는 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 '상자표서'가 한 개의 상자 뚜껑에 쓰여진 이름이다. 한 상자 안에는 접은 종이를 사이에 두고 카드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그 두꺼운 종이에 적힌 이름을 '그룹명'”

1912년 세키노 일행의 행적을 보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강릉 신복사지, 하시동 고분 발굴, 한송사지, 보현사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풍호동 고분을 발굴한 기간은 일정상 길어야 이를 정도 소비하여 급하게 발굴한 것이다. 현재 도쿄대학 대학원에 소장되어 있다.⁴³⁾

이후 세키노 일행은 1912년 10월에 강원도 일대의 폐사지를 조사하고 그곳에서 발견한 많은 와편을 수집하여 도쿄대로 가져갔다. ⁴⁴⁾

지난 2021년 6월 8일자 도쿄대학 담당자와의 메일에 의하면 그림과 같은 거둔사지 출토 와당편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⁴⁵⁾

〈표 13〉 일본 도쿄대학 소장 원주 문화재 조사 필드카드 현황

箱番号	紙番号	資料名	年月日	グループ名	箱表書	国	種類	画像1	画像2
03	104	邑東南刹竿支柱(乙) 在本部面丹村坪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2600	
03	105	邑東石佛像二軀 在本部面丹村坪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4014	
03	106	石造釋迦座像(乙) 在楮田洞面古城只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2802	
03	107	五重石塔(乙) 在邑北本部面邑玉坪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2903	
03	108	七重石塔(乙) 在本部面邑玉坪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004	
03	109	鉄造尺迦像二軀(甲) 在本部面邑玉坪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105	
03	110	毅齋金先生忠烈碑(乙) 在本部面邑下洞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206	
03	111	五重石塔 在原州郡楮田洞面本楮田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307	

이라고 했다. 종이번호는 한 상자 안에서의 카드 일련번호이므로 그룹을 통해 팔았다. 카드 자체에 쓰여진 데이터는, 「자료명」과 「연월일」이다. 자료명은 카드 오른쪽에 쓰인 제목을 들고 있으나, 제목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 을 하고 그 안에 내용을 알 수 있는 명칭을 적절히 넣었다. 조사 카드는 크림색을 띤 캐비네 판(가로 16.2cm 세로 12cm, 세로 16.2cm) 크기로, 겉면에 제목을 기입하는 테두리와 방안이 인쇄됐다. 그리고 왼쪽 아래의 작은 타원형 틀 안에 세키노의 명이 들어 있다. 이 특제의 카드와, 같은 크기로 흰 바탕에 청색으로 방안을 넣은 카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키노 타다시 자료 전체에 대해서는 후지이 케이스케 「세키노 타다시 자료와 세키노 타다시 사적 각서」 「문화 자원학」4, 2006에 자세하게 쓰여져 「상자 번호」62의 「상자 표지」 일록에 대해서는 세키노 타다시 연구회편 『세키노 타시 일기』 중앙 공론 미술 출판, 2009에 활자화되어 있다”고 한다.

43) 早乙女雅博, 「三國時代 江原道の古墳と土器-關野貞資料土器とそ歴史的意義」 『朝鮮文化研究』 제4호, 동경대학 문학부 조선문화연구실, 1997.

44) 정규홍, 위의 책, 128쪽, 참조.

45) “1) 現物の保存状態 7点すべて良好な状態で保存されています。 2) 現物の登録名称 図版より
上段左(1461) 軒丸瓦(K3414) / 右(1460) 軒丸瓦(K3412)
2段目左(1463) 軒平瓦(K3410) / 右(1462) 軒平瓦(K3415)
3段目左(1465) 軒平瓦(K3413) / 右(1464) 軒平瓦(K3411)
下段(1466) 軒平瓦(K3409)” (답변 : 東京大学大学院工学系研究科建築学専攻 デジタル
ミュージアム準備室 <http://www.history.arch.t.u-tokyo.ac.jp/museum> E-Mail
digital-museum@arch1.t.u-tokyo.ac.jp)

		洞							
03	112	五重石塔（乙） 在楮田洞面本楮田洞[図面]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408	
03	113	鉄造阿弥陀座像（乙） 原州郡楮田洞面本楮田洞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509	
03	114	石造弥勒座像（乙）楮田 洞面本楮田洞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610	
03	115	鉄造尺迦像（甲） 在本部面邑玉坪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711	
03	116	鉄造薬師座像（甲） 在本部面邑玉洞	大正1.11.10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812	
03	117	呂東北三重石塔三基（乙） 在本部面加馬只	大正1.11.11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3913	
03	118	呂東北弥勒像（石造）二 軀（丙） 在本部面加馬只	大正1.11.11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2701	
03	119	客舎（公立普通学校）（ 丙）	大正1.11.12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4115	
03	120	魔法興寺三重石塔	大正1.11.12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4216	
03	121	魔興法寺三重石塔[図面]	大正1.11.12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4317	
03	122	魔興法寺真空大師碑亀趺 及麟首	大正1.11.12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4418	
03	123	靈鳳山故 王師真空大師碑[図面]	大正1.11.12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4519	03081 4620
03	124	巨頓寺廢址	大正1.11.13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4721	
03	125	廢巨頓寺佛殿遺址[図面]	大正1.11.13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4822	
03	126	廢巨頓寺三重石塔（乙） 原州郡富論面巨論洞	大正1.11.13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4923	
03	127	廢巨頓寺三重石塔[図面]	大正1.11.13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5024	
03	128	円空國師勝妙之塔碑 在原州郡富論面巨論洞巨 頓寺遺址	大正1.11.13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5125	
03	129	廢巨頓寺円空大師碑亀趺 [図面]	大正1.11.13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5226	
03	130	廢巨頓寺圓空國師勝妙塔 碑亀趺[図面]	大正1.11.13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5327	
03	131	法泉寺智光國師之塔碑及 址跡[図面]	大正1.11.14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5428	
03	132	法泉寺刹竿支柱[図面]	大正1.11.14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5529	
03	133	法泉寺智光國師浮屠佛殿 址[図面] 原州郡富論面院村	大正1.11.14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5630	
03	134	法泉寺智光國師塔碑[図 面]	大正1.11.14	原州	江源道	韓国	カード	030815731	
29	121	原州郡富論面巨論洞居頓 寺跡円空大師石碑亀趺[高麗 図面]	大正1.11.13		朝鮮細 部	韓国	青焼	290012212 1	
29	122	原州郡富論面院村法泉寺 玄妙塔碑亀趺[高麗 図面]	大正1.11.14		朝鮮細 部	韓国	青焼	290012312 2	
29	123	原州居頓寺三重石塔[高 麗 図面]			朝鮮細 部	韓国	青焼	290012412 3	
29	124	原州居頓寺三重石塔[高 麗 図面]			朝鮮細 部	韓国	青焼	290012512 4	
29	125	原州居頓寺円空大師石碑 亀趺彫刻文様[高麗 図面]			朝鮮細 部	韓国	青焼	290012612 5	
29	126	原州郡楮田洞面本楮田洞 弥勒座像花崗岩基座佛像 [図面]			朝鮮細 部	韓国	青焼	290012712 6	
29	127	原州郡楮田洞面本楮田洞 金製弥勒花崗岩石座模様 [図面]			朝鮮細 部	韓国	青焼	290012812 7	
29	128	原州邑西北石佛基座模様 （西ノ方）[図面]			朝鮮細 部	韓国	青焼	290012912 8	

29	129	原州廢藥師庵三重石塔[高麗 図面]			朝鮮細部	韓国	青焼	2900130129	
29	130	原州郡本部面加馬只三重石塔(中央ニアルモノ)[図面]			朝鮮細部	韓国	青焼	2900131130	
29	131	原州郡本部面加馬只三重石塔(東塔)[図面]			朝鮮細部	韓国	青焼	2900132131	
29	132	原州郡本部面加馬只三重石塔(西塔)[図面]			朝鮮細部	韓国	青焼	2900133132	
29	133	原州郡本部面呂玉坪石塔[図面]			朝鮮細部	韓国	青焼	2900134133	
31	003	原州廢法泉寺智光國師玄妙之塔碑	大正1.11.14	京城	京城	韓国	カード	310100303	310100304
31	004	京城高麗國原州覽溪山居頓寺門宝國師勝抄之塔	明治44.9.21	京城	京城	韓国	カード	310100405	
418	007	〔朝鮮古蹟評価〕原州	大正1.11.10-11			韓国	カード	4180101211	4180101312

2) 일본 소장 원주 문화재 환수 방안

일본에 반출된 조선문화재에 대한 반환 문제는 이미 일제강점기에서도 제기되었다. 1925년 당시 일본 도쿄대학의 구로이타 박사는 조선에서의 고고학 발굴 연구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자료 1] 고분과 그 출토품 낙랑 고분 발굴품은 돌려보내겠음

발굴품은 연구조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보내겠다. 도쿄대학 구로이타黑板 박사의 말

○ 낙랑의 고적조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뒤처리를 위해 평양에 와 있는 구로이타 문 학박사는 말한다. “우리들은 공동적인 의미로 발굴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위해 발굴한 것이므로, 보존이라는 것은 연구를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니 보존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학에 가지고 가서 연구가 끝나면 현재와 같이 도쿄대학이 나 경성, 그 외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평양에 박물관만 생긴다면 언제라도 돌려 보낼 생각이다.”(「京城日報」, 1925.11.25.)

[자료 2 (1996)] 1996년 1월 24일 일본에 있던 오호테라우치문고 소장본 중 일부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테라우치문고를 운영해온 야마구치현립대학이 전적 1955점(98종 135첩 1축)을 경남대학교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야마구치현립대학이 운영하던 오호테라우치문고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한 시민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고성 이씨 종친회 이종영씨는 조상인 행촌 이암(李堦) 선생의 친필 글씨가 오호테라우치문고에 있다는 걸 발견했다.

조상의 글씨뿐 아니라 조선 서책 상당수가 테라우치문고에 있음을 확인한 이종영씨는 친구이자 국사편찬위원장 박영석 박사에게 사정을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야마구치현립대학이 운영하던 오호테라우치문고의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결국 일부

서책의 반환으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돌아온 서책은 경남대학교 박물관 데라우치문고실에 전시·보관되고 있다.⁴⁶⁾

[자료 3 (2006)]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쿄대로 반출됐던 오대산 사고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됐으나 화를 면한 74책 중 27책이 서울로 옮겨져 규장각에 보관돼 있으며 나머지 47책이 이번에 반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환되는 조선왕조실록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약 6주 뒤 도쿄대 귀중서고에서 서울대 규장각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국보 151호이자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총 1천893권 888 책)은 임진왜란 이후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강화도 사고 등 4곳에 20세기 초까지 분산·보관돼 왔으며 이 중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초대 조선총독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오대산 사고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모두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도쿄대 도서관 귀중서고에 중종대왕실록과 성종실록 등 47책이 소장돼 있다는 사실이 올해 초 확인된 이후 양국간 반환 협상이 진행돼 왔다.⁴⁷⁾

[자료 4 (2006)] 일본에 있다 서울을 거쳐 2006년 북한으로 반환된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가 살아있는 사례다. 이 비석은 임진왜란 당시 함경북도 북평사였던 정문부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격퇴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숙종 때 세운 것이다. 원래 함경북도 길주군 임명면에 있었으나 1905년 러·일 전쟁 때 이곳을 지나던 일본군에게 발견돼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로 옮겨져 보관돼 있었다. 이처럼 기구한 북관대첩비의 운명은 결국 1978년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의 반환 운동으로 바뀌게 된다. 집요한 한국 측 반환 요구가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함경북도에서 가져온 비석인 만큼 남북한 간의 합의가 있으면 돌려주겠다고 밝힌다. 이에 남북한은 비석을 반환받으면 최종적으로 북쪽에 돌려주기로 뜻을 모은다. 일본으로서는 돌려주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 셈이다. 결국 북관대첩비는 일본 땅으로 건너간 지 100년만인 2005년 서울로 돌아왔으며 그다음 해인 2006년 개성을 거쳐 북한으로 반환됐다. 남북 협력을 통해 일본 소재 북한 출토 문화재를 무사히 돌려받는 성공 사례가 생긴 것이다. ⁴⁸⁾

[자료 5 (2010)] 일본 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의 도서가 우리나라로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는 「조선왕조의궤」 81종 167책을 비롯하여 기타 규장각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 등 150종 1,205책이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와 관련,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 5월에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80종 163책과 일본 궁내청이 구입한 1종 4책<진찬의궤> 등 81종 167책이다. 특히 2006년부터 민간단체(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에서 환수활동을 추진했고 국회 차원에서 2차례의 결의문이

46) [세상과 도서관이 잇은 사람들]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② 오마이뉴스, 21.04.30 07:22최종 업데이트 21.04.30 07:21

47)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2006년 06월 01일 00시 51분

48)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남정호의 논설위원이 간다] 일본 대학 서랍서 잠자는 북한 문화재 ... 반환 논란 곧 터진다. 입력 2018.11.21 00:05

채택('06.12.8/ ' 10.2.25)되는 등 각계에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규장각 반출도서 등에는 이등박문이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으로 반출해 나간 규장각본 33종 563책과 통감부 채수본(采收本) 44종 465책 등 77종 1,028책이 있다. 이중 11종 90책은 지난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에 따라 반환되었고 이번에 잔여분 66종 938책이 반환됨으로써 이등박문 반출도서 모두를 반환받게 될 예정이다.⁴⁹⁾

이처럼 [자료 1]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낙랑의 고적조사가 종료된다면 또한 평양에 박물관만 생긴다면 언제라도 돌려 보낼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렇지만 1930년 발굴보고서 『낙랑 樂浪』이 간행된 이후에도 유물 반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낙랑의 왕우묘 출토 유물의 경우는 도쿄대학 문학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⁵⁰⁾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이 체결된 이래 여러차례 문화재 반환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자료 2]와 같이 2006년 6월에는 도쿄대학에서 소장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하는 것으로 반환이 이루어졌다. 이어 일본에 있던 「북관대첩비」는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환되었다. 2010년도에서 규장각에서 1906년 이후 이등박문이 빌려간 규장각도서를 비롯하여 일본 궁내청에서 기증한 수백책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화재 반환의 사례에 비추어 도쿄 대학 종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전역에서 수집된 문화재 유물, 조사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원주 피탈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초로하여 문화재 환수, 혹은 교류위원회를 범원주시에서 구성하여 앞으로 수년간 현지조사와 반환 교섭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일제하 원주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도쿄대 공과대 건축미술사학자로 유명한 세키노 타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를 검토하였다. 19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키노의 조선 문화재 조사는 각지역의 관공서 관아를 비롯한 목조건축물의 보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각종 문화재의 등급을 매겨 보존의 가치를 매겼다. 특히 1909년 8월이후 매년 한차례씩 수개월 동안 시행된 문화재조사는 조사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시대적으로 주요한 유물 유적을 포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09년부터 1915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된 세키노 일행의 조사활동이었다.

49) [일본 궁내청 보관 한국도서 1,205책 반환,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0.11.14.]

50) 황수영편,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95~96쪽 참조.

원주 지역 문화재와 처음으로 접촉한 것은 1911년 서울 명동으로 옮겨진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어 1912년 9월부터 평남과 강원도 춘천, 강릉, 오대산, 원주 일대, 충북 및 경북 일대를 답사하면서 조사할 때, 대규모의 원주 불교 유적지를 새롭게 ‘발견’ 하게 되었다. 원주 지역의 조사에 대해 “원주읍부근에는 신라 말기의 철불, 석불, 석탑 등이 여기저기 있어 경주도 맨발로 도망갈 정도” 라고 대단하게 취급했다. 또한 흥법사지, 거둔사지, 법천사지를 현장조사하면서 대규모의 유물 유적에 주목했다. 이렇게 세키노 일행은 11월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원주 문화재 중 36개 유물에 대해 각 문화재의 등급과 가치를 매겼으며, 이를 여러 형태로 기록하였다. 우선 현장 조사의 기록으로 ‘필드카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대정원년 제1 조선고적조사표(지방별)』 보고서를 남기고, 또한 이후 순차적으로 출간되었던 『조선고적도보』 4권(1916년 간행), 6권(1917년 간행) 7권(1918년)에 조사결과를 수록하였다. 이번에 새로 검토한 자료는 일본 도쿄대학 종합박물관에 소장된 세키노 타다시 컬렉션에 소장된 원주 문화재 관련 필드카드 50장이었다. 이 필드카드의 수록 내용은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유물의 가치와 보존등급의 이유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12년 원주 문화재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사진 목록 및 사진 자료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실제 조사과정을 추적해 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세키노 일행이 참고한 자료와 현지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풍문에 의거하여 유물 유적을 조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유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사하지 못한 채 주마간산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키노의 원주 문화재 조사는 한편으로 각종 불교 문화재 중 부도, 석탑의 존재를 외부로 알리게 하여 여러 유물들이 서울로, 그리고 일본으로 급거 탈취하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다만 당시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필드 카드를 비롯한 각종 고적조사의 기록물을 대조함으로써 원주 문화재의 진면목을 알수 있도록 남기도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세키노의 1912년 원주문화재 조사에만 한정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이후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조선고적조사의 전개와 특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조선고적조사가 각종 문화재 약탈의 기초조사라는 측면을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재 조사가 가진 일제의 식민지 통치 이념의 역사적 정당화 작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명하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세키노 타다시의 논저 목록

- 《韓紅葉》 述著: 谷井濟一, 栗山俊一, 関野貞. [外] 龍溪書舎 2011
- 《朝鮮の建築と藝術》関野貞 著 岩波書店 昭和16[1941]
- 《朝鮮の建築と藝術》関野貞 著; 藤島玄治郎 編 岩波書店 2005
- 《朝鮮美術史》심우성 세키노 다다시 관야정 세키노 타다시 東文選 2003
- 《韓國의 建築과 藝術 : 東京帝國大學 韓國建築調査報告》関野貞 [원저]; 姜奉辰 譯 産業圖書出版公社 1990
- 《支那の建築と藝術》세키노 다다시(関野貞) 成進文化社 1974
- 《日本の建築と藝術. 上卷》関野貞 著; 関野博士記念事業會 編. 岩波書店 昭和15[1940]
- 《日本建築史講話》関野貞 述 岩波書店 昭和12[1937]
- 《朝鮮の美術工藝》第10卷 関野貞 著. 雄山閣 昭和8[1933]
- 《樂退帶方兩郡の遺蹟及遺物》第7卷, 関野貞 著. 雄山閣 昭和6-11[1931-36], 추정
- 《支那山東省に於ける漢代墳墓の表飾》第8冊第1號 関野貞 著. 東京帝國大學 大正5[1916]
- 《天智天皇の高安城...》 第5回 関野貞 著... 奈良縣廳 大正5-昭和19[1916-44], 추정
-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紀要》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編 東京帝國大學 明治36-大正5[1903-16]
- 藤井恵介, 早乙女雅博, 角田眞弓, 西秋良宏 編, 『関野貞アジア踏査』(도쿄대학종합박물관, 2005)

2. 세키노타다시 필드 카드 사이트

関野調査カード(u-tokyo.ac.jp)

3.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https://portal.nrich.go.kr/kor/index.do>

4. e-뮤지엄 사이트

<https://www.emuseum.go.kr/main>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 자료 현황

조수민(연세대 연구보조원)

1.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현황)
2.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 유형별 특징
 - 1) 고려시기 원주의 지리적 특색과 불교문화(불상/보살상)
 - 2) 석탑
 - 3) 민속
 - 4) 범종

1.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현황)

강원도 원주 출토 유물에 대해 ‘e뮤지엄’을 바탕으로 하여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크게 불상, 석탑, 범종, 미술, 문자자료, 민속 유형으로 정리하였으며, 유물사진과 기본사항, 상세설명, 소장처, 해당 유물 링크 주소를 첨부해 정리하였다. 아래 표는 앞서 언급한 유형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원주역사박물관, 동국대학교 각 기관이 소장한 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e뮤지엄 기반)

<e 뮤지엄 기준 원주 출토 유물정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원주역사박물관	동국대학교
불상	3점	2점	3점	1점
석탑	30점			
범종	6점			
미술	60점			
문자자료	6점			
민속	15점			

불상에서 봉산동석불좌상, 일산동 석불좌상의 경우 원주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금동여래입상, 불상은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석조불상 머리는 동국대학교에, 석조 불두, 석불 광배, 불대좌 하대석, 강원원주 상동리 남산 추월대 석불좌상은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대다수가 원주에 있지 못한 상황이다. e뮤지엄에 따르면, 원주 출토 석탑이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범종의 경우에도 e뮤지엄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문화유산지식포털에서는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주 출토 ‘미술’ 영역의 경우 대좌, 범종, 좌상 등이 뒤섞여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다음으로 문자자료는 강원원주 원주읍 하동문숙공김제갑충렬비, 강원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비신, 강원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탑본이 있고 전남순천 송광사 법원주립과 관련된 것도 있으나 출토지가 전라남도 순천인데 원주 유형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소장처는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이다. 민속의 경우 여자 체격측정, 강원원주 복자기 순림, 강원원주 남대봉 낙엽송, 강원원주 남자 체격측정, 강원원주 왕팽나무와 물푸레나무, 강원원주 신림면 복자기, 강원원주 용암리 전경, 강원원주 법흥사 진공대사탑 앞 두 남자 유리건판이 있다. 소장처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여 있는데 유리건판만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보인다. 강원원주 남대봉 낙엽송이나 강원원주 왕팽나무와 물푸레나무, 강원원주 신림면 복자기, 강원원주 용암리 전경 등은 지역명이나 나무의 경우여서 국내외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유리건판만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추정된다.

2. 국내 소재 원주문화재 유형별 특징

1) 고려시기 원주의 지리적 특색과 불교문화(불상/보살상)

고려시대 전기 원주는 불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과 석비, 원주 거둔사지 사각형 석조대좌 등의 남겨진 불교 유물만 보더라도 불교사적으로 주목할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불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은 고려시대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시대 수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고려의 수도인 개경은 예성강, 임진강, 한강¹⁾이 모두 모이는 입구에 위치한 수로교통상의 요충지였다. 육상은 물자운반을 할 수 있을 만한 교통로가 되지 못했기 당시에 수로로 물자운반을 하였던 것이다. 이 때 남한강 물길을 따라 개경과 통하는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원주이고 물길은 충주에서 강을 따라 원주, 여주를 지나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원주의 지리적 이점은 남한강 유역에 위치한 원주가 개경과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가질 수

1)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임영애) 44쪽

있었던 이유가 된다. 추가로, 원주지에서 평창, 영월, 정선, 횡성 등 고을 전세(田稅)와 전곡(田穀)을 수납하여 조운으로 서울에 가져갔다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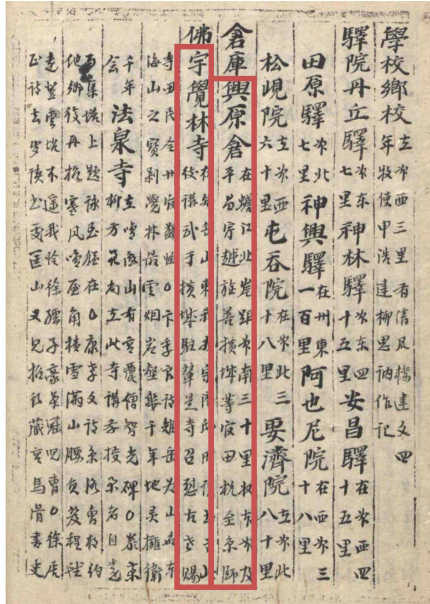


그림 4 『新增東國輿地勝覽』.
1-25/ 盧思愼 等受命編(국립중앙도서관)

또한 흥법사 진공대사 탑비 비문을 태조 왕건이 직접 지었다. 당시 임금인 비문을 지은 사례는 신라 경명왕의 봉림산문 심희비(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비)와 고려 왕건 태조의 흥법사 충담비 둘 뿐이고, 당 태종의 글씨를 집자한 것은 충담비가 유일하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 원주 지역과 불교 미술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태조 왕건이 충담 비문을 직접 작성한 배경을 추정할 수 있다. 태조 왕건은 고려 불교의 독자성을 정립하기 위해 중국 불교사와 인도 불교사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충담만이 중국 불교사와 달리, 인도 불교사를 정리했기에 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태조 왕건이 직접 충담비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충담비에서 나타나는 용어인 ‘사서(士庶)’를 통해 알 수 있다. 충담비에 사서(士庶))를 새긴 것은 고려사회에 사서층(士庶層) 등장의 중요성을 당대 종 글씨에 담아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려 당시 원주의 지리적 위치와 흥법사 진공대사 탑비 비문을 종합하면, 원주는 고려 개국 때부터 최소 11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중앙과 관계가 있었고 수로를 이용하여 인근지역과의 밀접한 교류, 풍부한 재원의 확

보를 통해 불교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전기 10세기부터 11세기는 원주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로 보인다.

원주 지역에서는 동일양식으로 보이는 불상과 보살입상이 있다. 불상의 경우, 옷 주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중 대표적인 조각들은 봉산동 석불좌상, 일산동 석불좌상 2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철조약사불, 비로자나석불좌상이 있다.²⁾ 봉산동 석불좌상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옷 주름이다. 굽고 투박한 옷 주름이 양 어깨와 배, 그리고 무릎에까지 곡선을 그리며 흘러내리고 있다. 왼쪽 어깨에는 가사(법의)를 고정시키는 고리장식이 있고 그 밑으로 주름이 잡혀있다. 또 오른쪽 다리 위에 보이는 이중의 옷자락이 있다. 오른쪽 무릎 위에 흐르는 형태의 옷자락이 있고 발목 부근에 또 한 겹의 옷자락이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원주지역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동일한 옷 주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산동 석불좌상이 있다. 2구 모두 광배가 없고 불도 새로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불상의 옷 주름을 보면 봉산동 석불좌상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그림 5 봉산동 석불좌상 옷 주름(원주역사박물관)



그림 6 봉산동 석불좌상(원주역사박물관)

2)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임영애) 47쪽~50쪽



그림 7 일산동 석불좌상 옷 주름(원주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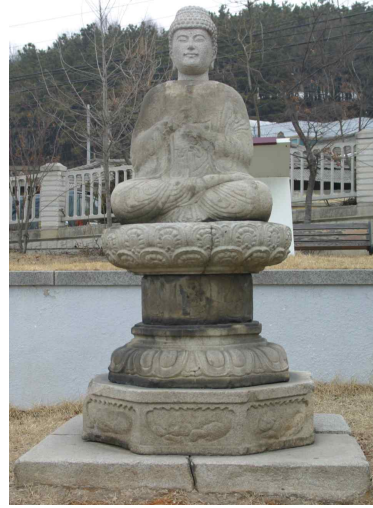


그림 8 봉산동 석불좌상(원주역사박물관)

원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약사불좌상도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약사불좌상의 경우 왼쪽 어깨 위의 고리장식, 불상 뒷면의 옷 주름이 봉산동 석불좌상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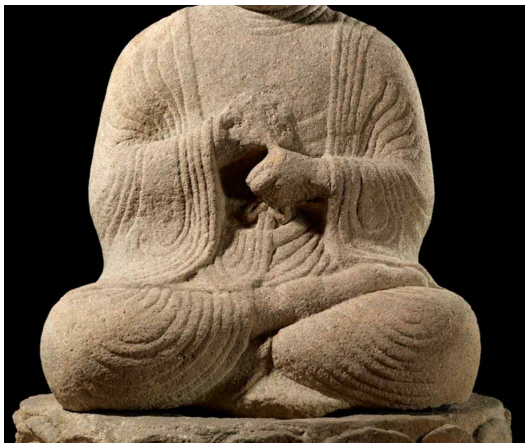


그림 9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옷 주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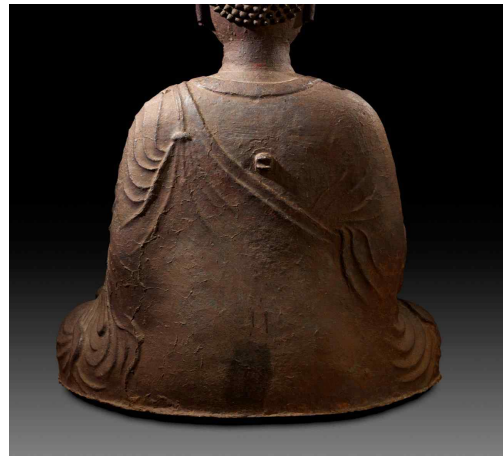


그림 10 약사불(좌상) 뒷면 옷 주름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1 석조비로자나 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2 약사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두 번째 유형은 옷 주름이 대체로 정돈된 모습들이다. 이 유형에는 철조아미타불좌상, 지광국사 현묘탑 옥개석의 불좌상이 해당된다. 이들은 앞선 불상들보다 얼굴이 동그랗고 뺨에 살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지광국사 현묘탑 옥개석의 불좌상이 있다. 둥근 얼굴 모습과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 등을 보았을 때 동일하다.



그림 13 강원원주 저전동면 철조아미타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4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옥개석 불상(국립중앙박물관)

보살상도 서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봉산동 석조보살입상은 이목구비가 비교적 작고 미소가 있다. 하체에는 하의가 양 다리 위로 갈라진 모양이다. 양 손은 크기가 작고 오른 손은 가슴 위치까지 들어 손바닥을 안으로 하고 있다. 왼손은 복부 위에 손바닥을 안으로 해서 위치해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신선암 석조보살입상에서도 나타난다. 불상의 두 발을 신체와 함께 조각하지 않고 따로 대좌 위에 조각하여 하반신의 발목과 연결되게 제작하는 것은 고려시대 돌조각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언급한 봉산동 보살입상, 신선암 석조보살입상의 현재 남겨져 있는 상태로 보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강원원주 봉산동 석조보살입상(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6 강원원주 신선암 석조보살입상(국립중앙박물관)

결론적으로 첫 번째 유형은 특이한 옷 주름 형태와 옷 주름선의 장식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동일한 비례와 동일한 대좌의 형태, 둥근 얼굴과 두툼한 인종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두 유형의 차이는 미묘한 옷 주름 차이인데 이것은 매우 근소하다고 본다. 이를 제외하고 신체비례, 양감, 얼굴모습 등이 모두 동일한 양식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같은 시기와 영향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세기 말까지 원주 지역이 고려시대 전기 불교 미술의 중심지로 부각되다 12세기 이후부터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이는 원주 원씨가 고려 중기 이후 침체되고 12세

기부터 군현제가 변화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농토를 잃고 유랑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되는 왜구의 외압으로 조운은 직접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육상으로 물자이동이 전환되게 된다. 이 같은 조운제의 변화는 원주의 불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세력 및 배후의 경제력 감소를 가져왔고 원주는 중심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2) 석탑

원주 거돈사지 삼층석탑은 이중기단 위에 세워진 방형의 삼층석탑으로 통일신라 시대 석탑이다. 탑이 사각의 돌로 된 축대 위에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방형의 단을 만들고 그 위에 탑을 세웠다. 기단의 남쪽 면에는 돌계단이 있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지대석을 놓았다. 3)하대중석 면석에 한 개의 탕주와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다. 상층기단의 상대중석은 네 장의 석재로 구성되어있으며 한 개의 탕주와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다. 상대갑석은 1장의 석재로 구성되었고 아래 면에는 1단의 부연을 윗면에는 2단의 초층 탑신 받침을 두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하나의 돌로 되어있다. 탑신석 각 면에도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있다. 옥개석 낙수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처마는 전각에서 반전을 보인다. 옥개받침은 5단으로 되어있으며 옥개석 윗면에는 2단의 탑신받침이 있다.



그림 17 강원원주 거돈사지
삼층석탑(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8 강원원주 거돈사지 삼층석탑(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3) 江原地域統一新羅……高麗時代石塔의 研究(金南希)23쪽~25쪽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세운 삼층석탑으로 하대갑석의 윗면은 경사가 급하고 상층기단 받침이 있다. 상층기단의 상대중석은 네 장의 석재로 조립하였는데, 각 면에는 4)한 개의 탱주와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다. 상대갑석의 윗면은 경사가 심하고 3단의 초층 탑신받침이 구성되어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한 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고 탑신석 양면에는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다. 낙수면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며 처마는 전각에서 반전이 있다. 옥개받침은 4단이다.



그림 19 강원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0 강원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국가문화유산 포털)

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은 이중기단 위에 세워진 방형의 삼층석탑으로⁵⁾ 하대중석의 면석에는 한 개의 탱주와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고 하대갑석의 윗면에는 2단의 상층기단 받침을 조성하였다. 상대중석은 네 장의 석재로 구성되었으며, 각 면에는 한 개의 탱주와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다. 탑신석 각 면에도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고 옥개받침은 4단이다. 옥개석 네 귀퉁이에 풍경을 달았던 구멍이 있다. 옥개석 윗면에는 2단의 탑신받침이 구성되어 있다.

원주 일산동 오층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세워진 방형의 오층석탑이다. 기단부는 두 장의 석재로 지대석을 만들고 네 장의 석재로 구성된 중석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가 새겨

4) 江原地域統一新羅…高麗時代石塔의 研究(金南希)37쪽

5) 江原地域統一新羅…高麗時代石塔의 研究(金南希)42쪽

져 있다. 중석 윗면에는 2단의 초층 탑신받침을 두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한 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고 탑신석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다. 옥개받침은 3단이다. 낙수면은 거의 수평으로 처리되었고 끝에 반전이 있다. 옥개석 윗면에는 2단의 탑신 받침이 구성되어 있다.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다.

원주 천수사 삼층석탑은 이중기단 위에 세워진 방형의 삼층석탑으로 하대중석과 상대중석 각 면에는 한 개의 탱주와 양 우주가 새겨져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하나의 돌로 되어 있다. 탑신석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가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낙수면 경사가 완만하나 전각에서 반전이 있고 옥개받침은 4단이다.

원주 보문사 청석탑은 경순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선조 25년 이후 중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1~5층의 옥개석과 2,3,4 층의 탑신, 상대갑석, 하대갑석은 원래의 것이나 그 밖은 만들어 넣은 것이라고 한다. 이중기단 위에 세운 방형의 오층석탑으로 추정되며 옥개받침은 각 층 3단씩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 강원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문화재청 국가유산포
털)



그림 22 강원원주 일산
동 오층석탑(문화재청 국
가문화유산포털)



그림 24 강원원주 천수사
삼층석탑(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3 강원원주 보문사 청석
탑(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강원지역에서 통일신라시대 영향의 석탑이 많은데 이에 원주 상원사지 삼층석탑과 지대석 밑에 방형의 단이 있는 원주 거둔사지 삼층석탑이 해당된다. 옥개받침이 5단인 경우도 원주 거둔사지 삼층석탑이 해당된다. 강원지역에 신라의 형식이 나타나는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부터 신라지역에 복속되어 지속적으로 신라의 영향을 받았기에 고려시대가 되어서도 통일신라 형식 석탑이 다수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형식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 특색을 보이기도 한다. 통일신라와는 다른 석재구성방식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하대지석과 하대중석이 같은 돌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에 원주 천수사 삼층석탑,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이 해당된다. 또한 고려시대 통일신라 석탑 기단부에 하대중석과 탱주수가 있는 것에 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 원주 천수사 삼층석탑,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이 해당된다. 상대중석 받침이 2,3단인 경우에는 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 원주 천수사 삼층석탑이 있다. 그리고 중석받침이 없는 경우에 원주 일산동 오층석탑이 해당된다. 초층 탑신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 원주 일산동 오층석탑, 원주 천수사 삼층석탑이 있다. 정리하면, 옥개받침이 4단인 경우에 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 원주 천수사 삼층석탑, 옥개받침이 3단인 경우에 원주 일산동 오층석탑이 해당된다.

3) 민속

민속 유형에서 특이했던 것은 ‘체격측정’ 관련 유리건판이었다. 남녀를 분리하여 5명 정도의 사람들을 다양한 위치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는 동경제국대학의 인류학, 체질인류학과 고고학을 배운 토리이 류조(鳥居 龍藏)의 인체측정 사진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리이 류조(鳥居 龍藏)는 1911년을 시작으로 원주를 포함한 조선 140여 개의 지역 주민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주 지역의 경우 5차 조사인 1915년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6) 토리이 류조(鳥居 龍藏)의 사진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옷이나 머리 모양 등을 통해 생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토리이 류조(鳥居 龍藏)가 이러한 신체측정을 전국 지역별로 실시한 것은 ‘인종’에 대한 구분 때문이다. 이는 매일신보 기사에서 나타나는데 조선의 인종을 북부 아시아형과 남부 인종으로 나누고 이 근거지를 일본으로 칭하고 있다. 남부 조선인과 일본인이 유사하고 일본출토 석기가 조선출토 석기와 유사하다며 ‘일선동조론’ 주장에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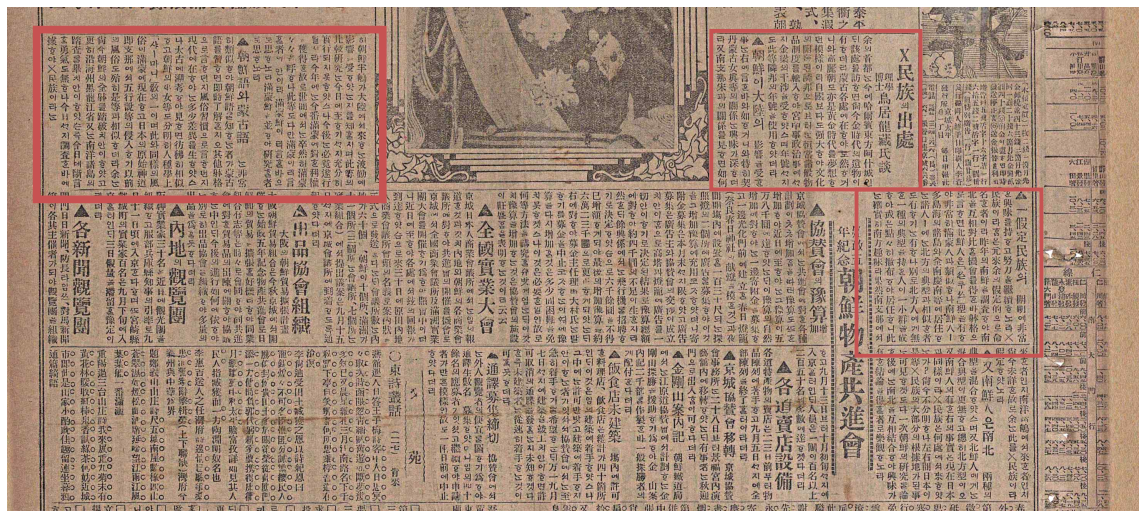


그림 28 매일신보 민족의 출처, 이학박사 鳥居龍藏氏談(1915.08.31)

6) 일제시대 학술조사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선일) 24쪽



그림 30 사료조사5 강원원주 남자 체격측정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9 사료조사5 강원원주 여자 체격측정
(국립중앙박물관)

4) 범종

강원도 원주 출토 범종으로는 강원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범종, 강원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고려 범종, 강원 홍양리 출토 범종, 청동 범종이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강원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고려 범종)에 소장되어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주 범종만을 연구한 결과는 없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강원도 범종의 특징, 추가로 강원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범종, 강원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고려 범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강원도 범종의 특징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통일신라 범종의 특징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강원도 범종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에 2가지 범종이 있다. 첫 번째는 오대산 상원사 소장의 범종이다. 7)통일신라에 만들어지고, 현존하는 범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 24년(725년)에 제작된 것이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하여 있기에 강원도 원주의 경우도 충분히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통일신라의 범종은 양식적 특징이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부적인 문양 등이 변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양식적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부조로 조각되는 주악상의 변화이다. 두 번째는 성덕대왕신종이다. 성덕대왕신종은 봉덕사종이라고도 불리는데 효성왕이 부왕인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사찰 봉덕사에 봉안되어 봉덕사종이라고도 불린다. 속칭

7) 한국범종의 시대별 특성과 조형예술성 연구(이재혁) 48쪽~51쪽

인 에밀레종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신라범종을 통해 알 수 있는 신라 범종의 특징은 첫 번째로 종의 몸체 상단에는 범종 어깨 부분에 두른 무늬 띠, 양쪽에 위치한 띠와 4개소에 돌기된 9개의 연꽃 봉우리를 갖추고 하단에는 아래 띠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종 가운데에는 천인의 옷을 날리며 음악을 연주하고 승천하는 비천상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대칭적으로 배치, 비천상과 어긋나게 배치하여 연판문과 당초문 및 보상화문 등을 혼용하고 양각으로 강하게 나타낸 당좌(종을 치는 자리) 2좌를 대칭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히 종의 가운데인 위쪽에는 신라시대 성행한 연꽃 모양으로 가장 자리와 접하는 경계선에 원형으로 둘레를 꾸미고 있다.

앞서 말했듯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불교 미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려 시대이다. 그렇기에 고려시대 범종의 특징을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 범종은 통일신라 범종의 형식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고려 특유의 양식이 추가된다. 종의 크기가 통일신라시대는 대다수 대형으로 제작되었으나 고려 시대에는 작은 모양의 종이 많이 제작되었다. 또 통일신라시대에는 용뉴가 n형태의 모양이었는데 고려 범종에서는 n형태뿐만 아니라, 옆으로 뻗어진 s 모양도 제작되었다.



그림 31 강원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고려 범종(국립중앙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 소장)



그림 32 상원사 동종(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33 성덕대왕 신종(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범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은 ‘강원 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범종’과 ‘강원 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고려 범종’이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출토

범종에 대해 조사한 것은 첫 번째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여 발간한 1996년 한국의 범종이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0년에 발간한 고려범종에서 언급된다.



그림 34 강원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범종(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먼저 1996년 ‘한국의 범종’에서의 해당 부분이다. 본 종은 1916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에서 발견되어 1927년 조선미술모양 집성 제2집에 소개되었고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8) “당좌(撞座)는 원형외곽(圓形外廓)을 2조(條)의 태선(太線)으로 처리하고 그 내부(내부)에 6과(顆) 연좌(蓮座)를 나타내고 있고, 자방(子房) 주위(周圍)에는 복판(複瓣)32엽(葉)의 화관(花瓣)으로 된 당좌(撞座) 2개(個)를 잘 갖추고 있다. 이런 점(點)으로 보아 본(本) 종(鍾)은 명문(銘文)이 없다 할 뿐 주조(鑄造)의 수법(手法)이나 양식(樣式)등으로 인해 13세기 작품(作品)으로 추정(推定)” 하였다.

즉, 고려시대라는 것인데 정확한 시기나 어떤 경위, 의도로 제작되었는지, 제작한 인물은 누구인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 이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2000년에 발간된 고려범종 발간물에서 원주가 언급되지만 고려범종에 대해 금속학적인 조사 결과로 공통점을 찾을 때 언급될 뿐 원주 소초면 홍양리 범종에 대해 조사한 점은 없다.

8) 한국의 범종(국립문화재연구소)1996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출토 범종(江原道 原州市 所草面 出土 梵鍾) (2-39) 부분

9) “고려범종 ICP 분석결과 구리(Cu)-주석(Sn)-납(Pb)의 비율 84-13.4-1.4%인 청동 범종으로서 원주출토 범종 및 상원사 범종, 선림원 범종 등의 대형 범종들과 비슷한 조성비임을 알 수 있다. 주석의 함량은 부식되어 정확한 조성비를 알 수 없는 3번과 좀 내부하다는 사료를 제외한 3군데 평균이 13.4% 포함되어 있는데 적당한 강도 및 경도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보다 많으면 더 단단해지지만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이외에 국립 기관에서 2000년대 이후 고려 범종에 대해 조사한 발간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의 과불	전체 2개 페이지 (1/1)		연구분야 선택		10개씩 보기	
한국의 범종	번호	서명	발행년도	연구분야	저작권자	이용범위
· 소개	2	고려범종	2000	미술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제 4유형
· 범종목록	1	한국의범종	1996	미술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제 4유형
· 조사보고서						

그림 35 한국의 범종 > 조사보고서 목록(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원주 소초면 홍양리 고려 범종을 소장중인 국립 공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소장품을 검색하였다. 출토지> 강원도> 원주시로 검색하였을 때, 검색결과 조회되는 것이 없었다. 쉽게 원주 소초면 홍양리 고려 범종 소재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국립공주박물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박물관의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고려 범종은 본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중이었으나,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을 위해 옮겨져 소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인천광역시	양양군
국적/시대	광주광역시	속초시
지정문화재	대전광역시	고성군
출토지	강원도	원주시
분류	경기도	횡성군
총계시물 0개 페이지 1/0		
소장품명		
20개 출력		
적용		

그림 36 출토지> 강원도> 원주시 검색(국립공주박물관)

9)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범종」 2000년 : 52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명시된 강원 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범종의 경우 유리건판으로 보았을 때 동일한 유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의를 했을 때 내부에서 동일한 유물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왔다고 알렸으며 현 상황에서는 강원 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범종과 강원 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고려 범종을 각각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강원 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고려 범종에 대한 소재 파악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이것이 강원 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범종과 구분되는 유물인지에 대한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또한 국립기관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조사 및 연구도 1996년 이후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강원 원주 소초면 홍양리 출토 고려 범종은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었으나, 특별전을 위해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차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해당 범종을 돌려준 사실이 없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요청한 것이 없어 해당 2가지 범종에 대한 연구와 관리의 부재를 우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학위논문

1. 金南希 「江原地域統一新羅…·高麗時代石塔」의 研究 2010년
2. 임영애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2001년
3. 김정효 「신라시대 와당에 나타난 초화문의 유형과 비례분석 연구」 2007년
4. 선일 「일제시대 학술조사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 2004년
5. 이재혁 「한국범종의 시대별 특성과 조형예술성 연구」 2014년

도서 및 PDF 발간 자료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범종」 1996년
2.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범종」 2000년
3. 이인재 「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혜안) 2016년

온라인 사진자료

1. 국립중앙도서관: 新增東國輿地勝覽. 1-25/盧思愼 等受命編
2. 국립중앙박물관(e뮤지엄):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약사불, 강원원주 저전동면 철조아미타불좌상, 강원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옥개석 불상, 강원원주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강원원주 신선암 석조보살입상, 강원원주 거둔사지 삼층석탑, 강원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강원원주 천수사 삼층석탑, 사료조사5 강원원주 남자 체격측정, 사료조사5 강원원주 여자 체격측정, 강원원주 소초면 흥양리 출토 고려 범종
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강원원주 거둔사지 삼층석탑, 강원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강원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 강원원주 일산동 오층석탑, 강원원주 보문사 청석탑, 상원사 동종, 성덕대왕 신종
5. 빅카인즈-고신문아카이브: 매일신보 鳥居龍藏氏 談(1915.08.31.)
6. 원주역사박물관(e뮤지엄): 봉산동 석불좌상, 일산동 석불좌상
7. 조선고적도보 제4권: 원주 거둔사지 출토 파와
8. 창녕박물관(e뮤지엄): 연화문수막새